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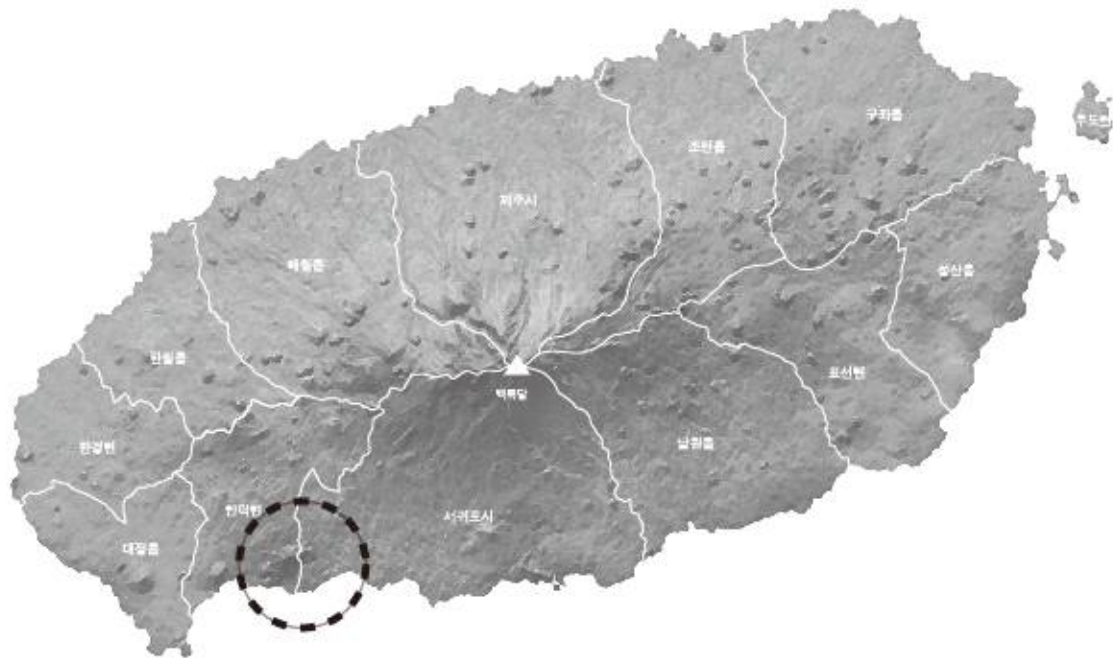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04-01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성용
조사지점 안덕면 대평리

20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20**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안덕면 대평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2
2.5. 장비	12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3	2. 제보자 일생	25
3. 밭일	40	4. 들일	57
5. 바다일	70	6. 의생활	81
7. 식생활	100		

제2절 어휘

1. 인체	128	2. 육아	135
3. 친족	141	4. 의복	145
5. 음식	150	6. 가옥	159
7. 생업	164	8. 수와 단위	176
9. 민속	179	10. 신앙	182
11. 자연	182	12. 동물	190
13. 식물	200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안덕면 대평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강인숙 (여, 1933년생)

양성지 (남, 1932년생)

2.2. 조사 기간: 2015. 5. 1.~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강인숙 양성지	43:09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강인숙 양성지	49:15	○
3. 밭일	구술 3. 밭일(논~고구마 농사)	강인숙 양성지	58:54	○
4. 들일	구술 4. 들일(소 기르기~사냥)	강인숙 양성지	49:25	○
5. 바다일	5. 바다일	강인숙 양성지	38:29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강인숙 양성지	49:29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	강인숙 양성지	1:18:54	○
	구술 7. (장아찌와 회~기타)		1:11:58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강인숙 양성지	1:19:53	×
9. 신앙	구술 9. 신앙	강인숙 양성지	40:00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강인숙 양성지	1:28:31	×
11. 놀이	구술 11. 놀이	강인숙 양성지	1:15:03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강인숙 양성지	1:24:09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강인숙 양성지	47:01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1. 인체	강인숙 양성지	54:39	○
2. 육아	어휘2. 육아	강인숙 양성지	54:05	○
3. 친족	어휘3. 친족	강인숙 양성지	48:28	○
4. 의복	어휘4. 의복	강인숙 양성지	50:44	○
5. 음식	어휘5. 음식	강인숙 양성지	1:11:54	○
6. 가옥	어휘6. 가옥	강인숙 양성지	49:59	○
	어휘6. 가옥 어휘7. 생업	강인숙 양성지	50:08	○
7. 생업	어휘7. 생업	강인숙 양성지	45:31	○
8. 수와 단위	어휘7. 생업 어휘8. 수와 단위	강인숙 양성지	52:00	○
9. 민속	어휘9. 민속	강인숙 양성지	43:41	○
10. 신앙	어휘10. 신앙	강인숙 양성지	38:59	○
11. 자연	어휘11. 자연	강인숙 양성지	44:27	○

12. 동물	어휘12. 동물	강인숙 양성지	37:05	○
13. 식물	어휘13. 식물	강인숙 양성지	1:03:46	○

<_>는 다른 항목의 조사가 하나의 파일 저장된 경우이다.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김성용, #1: 강인숙, #2: 양성지)

1. 조사 마을

101001 @ 그 이 난드르 양 형성과정에 대해서 말해봅서. 난드르가 어떻 만들어 쳐신가.

101001 #2 난드르 형성 과정이 거 어른덜 곤는 거 들어보민 거 저 애월서 넘어 왔젠 흙주게, 사름이. 계난 애월서 넘어온디, 우리 양씨.

101001 #1 질 처음.

101001 #2 처음 양씨가 와십주게. 입도 선묘는 이제 당쿨이엔 혼 디 잇수다게, 당쿨. 경 흐연에 그 다음은 동난드르가 고씨가 들어오고. 경 흐연에 그 때가 난드르 엔 잇는디 어디 창천이 강씨 집인가 어느 집안에서 거기서 거시기 흐연에 옛날 어른덜 알안에 거기 왔단에 이자 사름 살음직 혼 디 거자 이 군산 앞의 가면은 사름 살음직 혼 디 잇젠 그디 강 보렌. 경 흐연 완에 거 하르방인가 할망인가 오란에 춤 살앗젠 흙주게. 살렌 경 흐연에 이젠 츄츄 츄츄 이제 살아난 자식도 나고 거시기 흐난 사름도 불고 거시기 흐연. 경 흐 땀 우리 집안에서 거시기 양씨 하르방 할망 이 살아난 디에 옛날 전분공장 흐여난 터가 잇수다게. 그디 거시기 흐연에 살암주 게. 경 흐난 그 지역에 신 그 거기 살젠 흐난 사름 살암직 혼 디 요영 흐여그네 안 네 들어가민 안네밭디 가민 동녝 구석에 가그네 막살이 짓언. 경 흐여그네 그디 저 옛날식으로 막살이 하나 메여가지고 이자 살앗젠 흙주게. 경 흐여그네 글로부떠 츄츄 츄츄 이젠 춤 부락이 형성돼여가지고 츄츄 츄츄 부락이 커가지고 사름덜토 소문 들으멍 오란 살아가지고 경 흙주기.

101001 @ 거난 여기 아까 흐난에 당케도 잇고 여긴.

101001 #2 예.

101001 #1 마궁물도 잇고.

101001 #2 당케엔 혼 건 옛날 당케에, 그 도엔 흙주예. 케미엔 당케. 그 다음은 당쿨도 포굽주게. 계난에 그 또 다음은 그 마궁물이엔 혼 디 이십주게. 경흐연 그 마궁물 넘어가민 그자 박수 박숫덕이, 고기 낚으는 사름 살명 고기 낚양 갑주게. 옛날은 이자 창감산이서 오라그네 이자. 옛날은 그 고기도 경 잘 물꼭 거시기 저 그 땀 며 혼 때라노난 잇는디 지금은 고기가 당추 낚으기 힘듭주기. 경흐디 오라그네 자꾸 사름은 보웁니다. 오라그네 오징어도 낚아가곡.

101001 @ 여자 삼춘 마을에 대흐영 흐번 곱아봅서.

101001 #1 난 이 마을에 나지도 안 하고 크지도 안 한 몰르지.

101001 @ 경 하여도 영 살아오명.

101001 #1 살아오명은 무신 검질 메곡 기자, 미녕 차곡 기자, 미녕 좃곡계. 어린 때 시집오란 사난 그거주. 물질은 안 한 해녀질은 못하여. 해녀덜은 강 구제기역 잡아오곡 다 해도 난 아무것도 못 곡. 밧디 검질만 메곡, 멘네 갈곡. 경 해주게.

101001 #2 당케, 당쿨, 마궁물, 그 다음 박수, 박수덕이엔 흡주기, 그 고기 낚으는 디. 그 박수덕으로 글로 안넌 들어가민 박수 안네 박수 널찍한 그.

101001 #1 완전히 박수 안넌 그 점이라. 완전히 좋아.

101001 #2 박수 안네 가민 바로 저 기정과하고 그찌 부뜰.

101001 #1 거기서는 음식을 벤또 쌍왕 박수 안네 가가지고 벤또를 먹지 안 흡니까? 만약의 정심을 먹을 때 케우리지 안 한 아파불어. 절대 안 웨어, 그디는 그 박수엔 한 디는. 우리가 이제 밧디 가민 옛날 할망덜 밥 먹젠 한 톱톱 케우리지 안 흡니까? 저 제석할망 먹는 거. 경한디 박수는 그냥 먹영 가민 아프던지, 좀 달라 불어. 거기는 톱 경 하여야 웨는 디라. 귀신이 잇는 디, 그추록 해야 웨는디, 박수는.

101002 @ 그 여기 마을 사름덜 양, 아까 물어봤수다만은 무슨 저, 무슨 성씨로 이루어졌수과?

101002 #1 양씨가 이루어졌주.

101002 #2 양씨.

101002 @ 제일 많은 성씨가 머라마썸.

101002 #1 양씨가 만하여났주.

101002 #2 지금은 제일 만하게 강씨가 만해주.

101002 #1 강씨가 만해, 지금 사는 딴. 우리가 양씨가 질 만해나신디, 다 나가볼 곡, 다 머 하여부난, 양씨 이 부락은 이 할망칩의 옛날에 그 메역 할망칩의 가도 단 굴이 양씨가 먼저 하여, 심방이. 양씨가 질 먼저, 선후도착이라. 경한디 양씨가 오란 에 이 부락에서 사름 안 사는디 양씨 하르방이 들어와가지고 이 부락을 선영했젠 흡니다, 나가 듣기에. 경 했는디 그르 후에는 딴 디서 강씨도 오고 고씨도 오고 딴 부락에서 들어왔지, 여기서 설치(설촌)하는 건 양썸니다. 제일 চে암이.

101002 #2 처음은 양씨 하르방.

101002 #1. 예. 양썸디, 양씨가 어디 살았냐? 아까 하르방 말하듯 어디 살암신 고, 한 내 동쪽에 안네 들어가민 큰 밧이 이섯수다, 잇수다 이제. 이제 펜션 지선 잇주만은 그 밧이 들어간에 그 양씨 하르방이 막살이 하나 지선에 할망을 청하면 양씨 즈손을 낫다 흡니다. 이 부락 난드르 설치(설촌)에는 양씨가 설치(설촌)한 거라.

101002 @ 이추록만 곶으민 웨는 겨우다양.

101002 #1 양씨가 설치(설촌)하는 겨우다. 양씨 다음에는 저 동네에서 고씨도 오고, 이 동네서.

101002 #2. 저 동넨 고씨가 질 앞의엔 골앗주.

101002 #1 아니, 이디서 설치(설촌)는 양씨가 설치(설촌)해 낫는데, 양씨가 들어와서 양씨 부락이라, 난드르가예. 난드르가 기우다. 경흐디 다른 디서 오는 사름은 강씨도 들어오고 양씨도 들어오고, 박씨도 다 들어온 거라. 경흐디 양씨가 이 부락을 제일 성공시킨 건 양씨입니다.

101002 #2 직접 말로 말흐민 주인이 되는 거주게.

101002 #1 예. 경흐디 그 비석도 이 대, 난드르, 대평은 이제사 난 거고, 난드르서 제일 처음 들어온 하르방 비석도 크게 지서졌수다.

101002 @ 어디 잇수과 그 건?

101002 #1 이 동산에. 크게 양씨 집안의서, 설치(설촌)흐 하르방. 처음에 들어온 하르방이 난드르 오란 일름도 지우곡. 난드르는 어떻게서 난드르냐 흐면은 경 골읍디다. 저 난드르는 부락이 일름이 어선 거 아니파? 난드르엔 흐 디. 난드르는 무사 난드르냐 흐민 절로 영 돌아가면은 그디 난드르가 축항으로 쉼, 몰 시견에 가젠 흐난 부락이 일름이 없어. 경흐니까 난드르라고 일름을 지왓젠 합니다.

101002 @ 계난 난 난드르 흐면은 췌췌흐 땅이난에 난드르엔 해시카부덴. 거 아니라마씨?

101002 #1 그거 아니. 건디 저디 저 물질이 이서, 또. 그전 굽으로. 물질은 어떻게 연 물질이냐?

101002 #2 조선다리 질이엔 흐연 기정 옆으로 영 올라간 디.

101002 #1 중국디레 물을 이제 일로 흐영 시꺼가젠 흐난, 못 흐난, 화순 축항으로 실러가젠 흐난 물을 조선다리 질로 흐영 화순 축항디레 가난 물질이엔 흐염젠 합니다. 몰 글로 물을 몰안 시꺼가나난 일름을 물질이라고 지왓젠 합니다.

101002 @ 계난 양씨 흐고.

101002 #1 양씨 흐고.

101002 @ 그 다음에 고씨.

101002 #1 고씨, 강씨.

101002 @ 김씨.

101002 #1 김씨. 거뿐이주 다른 디덜은 다 하나씩 들어온 사름덜. 강씨, 고씨, 김씨, 것이 이 부락에는 먼저 들어오고.

101002 @ 이 웨지 사름덜은 언제부떠 막 들어왔수과? 이디.

101002 #1 거 우리 나지 아니흐 때난 어떻게 해신디.

101002 @ 아니 웨지 사름덜.

101002 #1 웨지 사름덜은 흐 삼년 뺨이 안 뻗지. 난드르 이추록 흐건디는 삼사년 뺨이 안 뻗고. 우리 앞의 집이영 난드르 영 개멍 되는 거는 이거 이제 흐 삼년, 삼년 뺨이 안 뻗어. 사름 살 수가 없어, 너무 들어완. 이거 중단 안 흐면 우리가.

101002 @ 무사 웨지 사름덜 하영 들어오민 살기 즐 거 아니우파양?

101002 #1 아니, 아니. 안 됩니다. 웨지 사름덜 오민 땅 요만이 흐 땅도 몬 지네

전냥ㅎ영 집 지서불곡, 질도 캄캄ㅎ게 맨들아불곡 머 안 돼크라. 난드르가 파산이라 파산. 난드르 사름덜 뺑신 닳은 사름덜이 만해. 나가 생각할 때, 저 절로 가면은 차부로 영 돌아가는 디 막 스칭 오칭 지슨 집 잇수게양, 이제. 우리 집 앞의우다, 큰 밧. 경 ㅎ여신디 그디 동더레 돌아 앓진 집도 잇곡, 알러레 돌아앓인 집도 잇곡, 스칭 오칭 지서서양. 게난 질 에염으로 ㅎ 칭은 집을 안 지서야 텔 건디 그 집을 지서부니까 절로 들어오는 것도 부락을 막아불고, 또 절로 오민 그 정도 못 베리고, 난드르만 판이라. 게난 난드르 스나이덜이 뺑신덜이라. 그 집은 난드르 단체에서 스나이 남즈덜이 강 ‘이 집은 지성 안 텔다’ 부락을 영원히 막아부런 뺑신 맨들아분 거라. 나가 여자 할망이 웨여부난 거주, 남즈라시민 그 집 못 짓게 ㅎ여.

101002 @ 게난 그 저 여기 비율. 원래 여기 사름덜 ㅎ고 웨지 사름덜 ㅎ면은 멧대멧 웹니까?

101002 #1 아이고 웨지 사름이 하지.

101002 #2 아이 웨지 사름이 하는다.

101002 @ 여긴 웨지 사름이 하마썸?

101002 #2 다 웨지 사름덜.

101002 #1 하마썸, 하. 다 육지 사름덜. 민박이고 펜션이고 다 육지 사름덜 만 ㅎ여. 장사고 뺏이고 난드르는 다 육지 사름이라. 게난 걸 막아야주 안 돼크라.

101002 #2 경 ㅁ음대로 웨여게.

101002 #1 아니. ㅁ음대로 아니고 다시 오랑 점령 못 ㅎ게 만들아사크라.

101004 @ 거민 양 아까 질문 ㅎ 건디, 이 마을 주변에 보민 오름도 있고, 내도 있고, 바위도 있고, 굴도 있고. 이거 저 오름부터 ㅎ번 말해봅서.

101004 #1 오름은 율라봉에 굴도 있고, 저 군산에도 굴 이서. 굴 잇고, 또 알러레 내려오민 아까 아기업게들이엔 ㅎ 디가 잇거던. 아기업게들, 아기업은 돌이 있어. 게난 그디도 그 안네 굴이 있어. 겐디 웨정놈덜 오란 판 굴이라, 군산에. 저 율라봉도 웨정놈, 일본놈덜 오란 판 굴이고. 해방웨난 가부럿주기. 이디 사름 판 거 아니고, 해방 후에 판 것도 아니고. 웨정 때예. 스삼 사건 전에. 저 웨, 일본 시대 때, 일본놈덜 군인덜 오란 살명 다 판 거.

101004 @ 군산 ㅎ면은 굴은 멧 개 잇수과?

101004 #1 굴, 그디 으라게 메와져부럿주게. 군산 뒤우로 창천이 발른 델로 굴이 막 큰 굴이 이선, 건 안 메와졌어, 지금. 우린 그레 잘 안 가난 ㅎ여도.

101004 #2 군산에 상덕, 바로 상덕 밑에도.

101004 #1 경 ㅎ디 앞으로는 상덕 밑으로 딱딱 물 떨어지는 디도 있어.

101004 @ 상덕마썸?

101004 #2 상덕.

101004 #1 예. 저거 두 개 상덕이엔 ㅎ여. 두 거 코지난 거, 돌 두 개 영 양펜의 이신 건디 걸 상덕이엔 ㅎ여. 그 일름이 상덕이엔 ㅎ네다.

101004 #2 서녁 짝에 덕에는 거기 굴, 군인덜 판 굴.

101004 #1 그 아래 굴 막 판다.
 101004 @ 쏘곶에양.
 101004 #2 응.
 101004 #1 예. 일본 군인덜이 팻는디, 건 메와졌어, 더러. 메와지고 또 쏘곶 아래 가면은 이 저 돌 그 뿔으로 물이 딱딱 나는 디가 있어. 지금도 이서.
 101004 #2 구시물.
 101004 #1 구시물이라고.
 101004 @ 구시물마썸.
 101004 #1 구싯물. 일름이 구싯물이엔 흡니다.
 101004 @ 그 다음에 군산 잇고. 그 다음에 율라봉 잇고.
 101004 #1 산이엔 흔 건 난드르는 그것 뻘이 없어.
 101004 @ 그 다음에 저 머 내.
 101004 #1 내. 냇가는 두 개.
 101004 @ 내 이름은 머엔 흡니까? 이디.
 101004 #2 내 이름은 동 동네엔 하지.
 101004 #1 셋내. 셋내엔 하지. 아니 동네가 아니고 서내엔 흡니다.
 101004 @ 셋내?
 101004 #1 이름이 옛날에는 내중엔 동네로 지와신디 동편이난 해신디. 옛날엔 그 내를 군산으로 영 물이 느껴오란에 이레 오난 셋내, 셋내 해낫젠 흡디다게. 나가 들은 말입주 난 무신. 나지 아니 혼.
 101004 @ 지금도 저 물 느껴수과?
 101004 #1 예. 물 잇수다. 드리도 놔지곡.
 101004 @ 그 줄기가 저 군산 줄기?
 101004 #2 그 군산 동녘 옆으로.
 101004 #1 예. 군산 동녘 옆으로 느껴오는 모양이라. 계난 비가 오민 내치곡.
 101004 #2 고노리고엔 흔 디가 잇수다게. 거기서 물 나는 디, 거기서 다 나옵니다.
 101004 #1 거 다 열리 지경이라. 난드르 지경은 아니우다. 군산도 반은, 반착도 안 돼여 우리 난드르 지경은.
 101004 #2 상덕으로게.
 101004 #1 상덕으로 갈랑 저딘 열리 지경. 안덕 지경의 가불고, 창천 지경의 가불곡.
 101004 @ 계난 여러 마을로 갈라져신게양. 열리, 창천이, 난드르.
 101004 #1 예게. 저 군산은 으라 개 갈랏주마. 계난 영장 하면은, 사름 죽으면은 우리 난드르는 영장 갈 디가 없어. 계난 열리 공동묘지 간 다 묻엇거던. 묻은디 이젠 법이 바짜지니까 열리 지경 사름덜이 난드르 사름 영장 못 하게 딱 중단해부렀어. 지경이 열리 지경이엔 하지그네. 계난 자기 가족에, 가정에 이녀 공동묘지 어신

사름은 그디 가기가 힘드난 다 가정의 다 공동묘지 이녁만씩 다 샷젠.

101004 @ 계난 여기 사름덜은 어드레 갑니까?

101004 #1 계난 이녁만씩 가족 공동묘지 삼거던.

101004 #2 여기도 옛날엔.

101004 #1 이 앞에. 이 군산더레 올라가는, 일로 올라가는 디.

101004 #2 군산 발른, 서 상덕계.

101004 #1 서쪽에.

101004 #2 옆으로게 쪽하게 저.

101004 #1 대평 지경이난.

101004 #2 대평 지경이난에 그레 공동묘지가 이선계.

101004 #1 겐디 일로 올라가민예 차가 그디 강 세우면은 영 결영 올라가면은 이견 군산 꼭대기레 올라가는 디고, 이웬이 오면은 난드르 지경이난 하나씩 그디 강 묻읍니다. 계난 땅도 없어 이젠.

101004 #2 옛날은 바로 그.

101004 #1 밋밋 그디 산 써낫수게.

101004 #2 셋상덕의 서우녜웬이 그 공동묘지가 크게 이서낫주게.

101004 #1 창천 지경으로 저 뒤트레도 다 영장을 흔디. 경흔디 옛날에 나가 여간 여기 오란 들으난에 막 비 아니 왕 ㄱ물곡 하지 안흡니까? 겨민 그 군산에 강 모르게, 지네 잘 뒤젠 덕 두 개 가운디 강 영장 물어볼민 ㄱ물곡 경 하여낫젠 흥영 막 조사도 못 해낫수다.

101004 @ 계민 막 영산이라양.

101004 #1 예. 영산.

101004 #2 영산이라 흡주게.

101004 #1 이제 ㄱ뜨민 우린 노인이난 잘 모르는다, 산은 아주 매력잇는 산이야. 견디 저 상덕이양 옛날에 우리 시아버지가 보통 하르바지가 아니라낫수다. 겨난 큰 시님이 병것 쓰고 흥연 육지 시님이 읍디다. 오난에 우리 집의 마리에 돌아단에 술상 하나 낫 먹으멍 그 시님이 떠라고 곤느냐. 나가 들엇거던. 듣는다, 그 시님이, 이 난드르서 심방질 하는 사름을 난드르서 난 사름 세 사름이 나부럿이면은 이 난드르가 웬안홀 건디, 심방이 안 낫다 하는 거라. 이 지방에서 나야 뒤여, 웨방 사름 오랑 사는 게 아니고. 지방 사름은 하나 빠기 어서낫수다게. 경 해신디 저 상덕 코지가 동더레 하난 돌아가고, 서러레 하난 돌아가부럿어. 마주 영 하여시민 졸 건디, 동더레 돌아앗아불고 서러레 돌아앗아불엇어, 그 상덕 봉오리가. 경 하여부난에 그 정시가 말하는 걸 나가 딱 들어신디. 우리 시아버지가 보통 하르방 아니난덜 앗앙 곤는 걸 들으난, 이 상덕이 이렇게 마주 하여불어시민 난드르 사는 사름덜이 불목이 업고, 웬안홀 건디, 큰사름 안 나곡, 부자가 삼대 안 간다는 거라, 부자가. 난드르서는 부자가 삼대 안 간덴. 삼대 가민 어떤 코를 들던지 압은 터지고 군산으로 뒤 막아지고, 아무러케 공부를 잘 했던 말앗던 저 큰 사름이 업다 하는 거라마썸.

101004 @ 거 지금도 그거 나타남수광?
101004 #1 예. 나타남주. 지금 우리 현재 나타나.
101004 @ 경혼디 아까 그 내, 셋내엔 해신디 내 이시난에 옛날에 나룩 농스 흥
여낫수과?
101004 #1 예. 논도 이서낫주. 그 논으로 흥질 아니 흥고, 그 물로도 대엿주만은
다른 딜로 물을 감산이 내로, 저 감산이 흔들머리엔 흥 디 동산에 느려오면은 길이
있어. 그디 내꼬락지에 물이 있어.
101004 @ 감산이로 내려오는 물?
101004 #1 예. 감산이 내로 내려오는 물.
101004 #2 거 감산이 내로 내려오는 물이라게?
101004 #1 게 아무딜 내려와도 그디 물 잇고, 이디 딱로 조고만씩 조고만씩 내
가 잇거던, 요디.
101004 @ 게 어디서 나룩 농스 흥엿수과?
101004 #1 게난 그 조고만씩 흥 내엿 물 등겨당 나룩 농슬 흥엿수다.
101004 @ 어느 펜이서?
101004 #1 요디 이서. 막은골.
101004 @ 막은골에서?
101004 #1 이디 잇고, 난드른 논도 얼마 어서.
101004 #2 난드른 게 동넷물.
101004 @ 삼춘도 나룩 농사 해낫수과?
101004 #1 아니. 난 감산이 친정에 나룩 하난 해낫주만은, 이디도 오란에 이디
이거 이제 다 논 해난 디라. 논 해난 디난 논헨 우리도 나룩 해난 이젠 밧을 맨들
아불엿주게. 경 해신디 감산이는 우리 친정에는 논 한 집이난 어린 땀 머 나룩도
날르곡 다 해신디. 이디 완도 논 버실엿단 논 메완 논 어서저부러트주게.
101004 @ 논 자린 지금 머 햄수과?
101004 #1 논 자린 밧 다. 이거.
101004 @ 다 밧 맹글아불엿구나.
101004 #1 이거 다 이거 논 해난 디. 이 터도 이거 논 해난 디.
101004 @ 처음에는 여기 논도 하영 해낫구나.
101004 #1 이딘 젓수지로. 저수지 물 등겨단 저수지.
101004 @ 어느 펜이?
101004 #2 저수지. 올로 올라가민 저수지가 잇주게.
101004 #1 일로 영 올라가민 저수지 통이 있어. 이제 그디 평균 뉘엿는데, 건
부락에서 사가지고 저수지 물 등견 그디 물 해서 내꼬락지 요만흔 소릿내로 골골골
골 느려오민 싸움박질 흥명 논일 흥엿주게. 이놈 저놈 흥명.
101004 @ 나룩도 흥여낫구나.
101004 #1 예. 나룩 핫수다.

101004 @ 경 흐고, 바위.
 101004 #1 좇은다리계. 안막은굴 바위, 좇은다리 바우, 그거주게.
 101004 @ 바우?
 101004 #1 그전이란 바위엔 헛주게. 그전 바우.
 101004 @ 거기 무슨 당은 엇수과?
 101004 #1 당 어서. 당은 할망당.
 101004 @ 보민 돌, 큰돌 이신디.
 101004 #1 할망당 이서. 본향당.
 101004 @ 할망당에는 머 낭 잇수광,
 101004 #1 낭 이서.
 101004 @ 돌 잇수광?
 101004 #1 돌 흐영 다져그네게, 촌의 할망덜계. 감산이도 통물에 당 잇고, 난드르 당 잇곡, 세 성제난 세 개 잇곡, 할망당.
 101004 @ 옛날 보민 바위 그쁜 디 당이 잇주게.
 101004 #2 경 흐는 디가 잇주게.
 101004 #1 경흐디 이던 바위에 가지 안 흐여.
 101004 @ 바위에는 없고? 박수기정엔 엇수과.
 101004 #1,2 어서.
 101004 #2 저 열리 동부락엔 바당가 어염에게 바위 돌 트멍에게.
 101004 #1 건 동잇 본향.
 101004 @ 그 다음에 굴, 굴.
 101004 #1 굴은게 저 군산에 굴 잇고, 월라봉에 굴 잇고.
 101004 #2 막은굴 안네 가민 기정 바우 안네 들어가는 굴 이십주.
 101004 #1 자연적으로 웬 거. 이디 영 흐민 대가리 팍팍 췌우곡.
 101004 @ 옛날 그 저 줍녀덜 그디 강 무시거.
 101004 #1 아니 그디 강 옷은 아이 벗어. 이쪽에서 벗엉, 압골령이 벗어뵤 이젠 줍수침이 이시난 흐여도.
 101004 @ 옛날원 그런 디 가그네.
 101004 #1 압골령이 빌레 이펜이. 가기 전에 불 살랑 메역 흐곡, 메역귀 귀떡곡 흐는 딴 거기 가기 전에.
 101004 #2 막은굴 옆의 가민 내 옆의 흐뽀 이렇게 흐여그네 바우가 잇주게. 게난 거기서 옷 벗곡 불살랑 추우곡.
 101004 #1 감산이 지경이 그 내로 갈랑, 이제 요 박수레 가기 전의 내가 잇이난, 그 내로 갈랑 건 감산 지경, 바당이. 또 이디는 내로 갈라가지고 동카름 바당. 난드르 바당은 요 앞의 빼끼 없어.
 101004 @ 옛날엔 전부 내로 갈랐수다.
 101004 #1,2 예.

101004 #1 내로 갈르고, 지형이 그거. 지형이 그건데, 이 좁수덜은 난드르 좁수덜은 억이 췌여. 난드르 사름덜은 억세여가지고 화순 바당에도 강 싸움박질 흐멍가담흐영 메역 떼여오곡. 딱시 동카름 바당에도 강 부떠그네 완력으로 강 흐여오곡 흐단 이젠 법이 바파전 법적으로 딱딱 지형을 갈라부난 좁수질 흘 디가 없어, 이젠.

101005 @ 그 다음양 이 난드르에 기관덜 잊지 안 흐우파? 영 보민 이런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101005 #1 사무실 이거 뿐, 난드르.

101005 @ 여기 초등학교.

101005 #1 초등학교 폐지. 안덕초등학교 가부럼주게.

101005 @ 언제 이거 폐지됐수과?

101005 #1 오래여서. 흐 오년 됐어.

101005 #2 오년 더 됐엇어게.

101005 @ 여기 초등학생덜 몇 명 됩니까?

101005 #1 몰라. 몇 멍사 됩신디. 안덕의서 노랑차가 왕 아침에 여덜 시에 오랑 실러가곡, 두 시 돼민 딱로 실러 오곡. 경 흐여. 큰 대형차 놔둬서.

101005 @ 계난 여기 애들은 안덕초등학교.

101005 #1 응. 화순.

101005 @ 창천이가 가까움직 흐디.

101005 #1 아니. 아니. 창천이는 창천이고, 우리는 지경으론, 경흐난 여깃 아의덜은 화순으로 가는 게 이역이라.

101005 #2 옛날엔 처음에 거시기 안덕초등학교 거시기 텅겨놔주게. 경흐연게 거기 흐난 흐교가 폐지 돼여부난 딱로 그래.

101005 #1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안덕초등학교 뿐, 안덕면에서. 중학교가 중간에 생긴 거주, 안덕에는 중학교도 없엇어.

101005 @ 계난 어디 갓수과?

101005 #1 안덕중학교가 이제사 생긴.

101005 @ 옛날에는?

101005 #1 옛날엔 중학교 흐는 사름, 모실포. 모실포, 중문더레 나갓지 중학교 흐는 사름은. 학교 가는 사름도 베랑 엇지만은. 안덕초등학교가 안덕면에서 이제 하나, 중문면에선 강정이어 멋이어 중문면에서 이제 중문초등학교 하나, 웨정 때 짓은 학교는 어디냐. 안덕초등학교, 중문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 한림초등학교 네 개 뿐 웨정 때 짓은 학교주, 다 해방 후에 짓은 거우다.

101005 @ 계난 여기 복지회관 흐고, 초등학교 빼끼 엇구나.

101005 #1 예. 스무실이엔 흐 거 그거.

101005 @ 따른 건?

101005 #1 이젠 수련장이라. 학교는 수련장 됐엇주게.

101005 @ 며 아의덜 하영 읍니까?

101005 #1 마아이 수련 읍네다. 학생덜토 오고 기냥도 오랑 막 저 축구도 흥곡, 그디 막 널르니까 줍니다. 그디 왕 밤자고. 줍 자는 디도 있고, 다 흥여난. 밥 흥여 먹고 다 흥여 거기서. 거난 손님 만이 읍니다. 건 청년 수련장.

101006 @ 그 다음에 이디 보민 계덜 있지에 계, 머 도새기 잡아먹는 계여 머 사발제여.

101006 #1 아니. 그건 제, 제. 옛날은 제엔 해낫수다.

101006 @ 어떤 것덜 잇수과 옛날은?

101006 #1 제는 계 쓸도 어렵고 흥난 제 흥영 쓸도 흥 가메기씩 흥 말씩 모이는 제도 있고. 도새기 잡아먹는 제도 있고. 이제추록 판매가 어디 잇수과계. 경흥여 그네 제가 이서낫주게. 경흥여그네 돈 흥폼씩 모영 췌돈으로 끈어그네 머 흥여주곡 막 흥여낫수다계.

101006 @ 아까 도새기 잡아먹는 제.

101006 #1 쓸 흥여그네 흥는 제, 영장 나나 흥민 영장나민 쓸 메와다 주곡, 경흥는 제. 이제 ㄱ뜨민 친목이지. 이제 ㄱ뜨민 친목.

101006 #2 친목. 친목.

101006 #1 옛날엔 제라고 했지.

101006 #2 계. 돼야지 잡아먹는 제가 잇곡.

101006 #1 이제 ㄱ뜨민 친목이지머. 모임.

101006 @ 사발제도 이서낫수과?

101006 #1 예. 사발제도 잇엇수다.

101006 @ 잔치 흥젠 흥민.

101006 #1 잔치 흥젠 흥민. 경흥단 사발제엔 부락엿 거 빌어당 흥다그네 이녁 방답만씩. 이녁 방답만씩 사발이 흥영, 일본서 교포덜 잇는 방답엔 일본서 돈 주민 오랑 사발도 사고 솟도 사고. 경노당이 이성 잔칠 했수과, 문딱 집의서만 큰일 흥젠 흥난 그릇이 잇수과계. 경 흥난 그추록 해신디, 이젠 것도 다 폐지웬 이젠 경노당에 가불곡, 잔치도 경노당에, 영장도 경노당에, 어디 머 병원으로 가부난 이젠 집의서 큰일 하나도 엿입니다.

101006 @ 계난 이제 제덜은 엿지에.

101006 #1 제덜은 어서. 계난 이젠 절믄 아의덜 모임 빼끼 어서. 우리 이디 오랑 살 땐 제가 만흥여낫수다.

101006 @ 옛날 저 남즈 삼춘 저 고적 잇지 안 흥우파. 고적.

101006 #1 예. 고적이 일가방상. 이제도 고적은 이서. 일가에 영장 나민 옛날엔 쓸로 흥 말씩 모여나신디 이제는 돈의로, 돈의로 집안마다 뜨나. 삼만 원 내는 집안, 오만 원 흥는 집안, 보통으로. 건 고적.

101006 @ 고적 쓸도 있고. 옛날원 고적 쓸.

101006 #1 쓸. 쓸로 흥 말씩 흥단, 뜨로 이젠 돈의로 흥젠 흥난 흥 말에 만천 원 흥민 천 원ㄱ지 들르멍 돈으로 내낫수다, 우리. 이젠 살기가 얼마나 조아부럿수

과계. 보리밥 먹을 때 잔치밥 가민 사발에 스몫 던덕ㄴ짜 부뜨곡, 보리쌀 농곡, 곤
쌀 놓는 집원 농곡, 쫓 농곡 흥영 밥 흥민 사발 싯지도 안 흥영 그, 아이고.

101007 @ 그 다음에 양, 난드르 풍습 잇지 안 흥우파, 풍습. 어떤 풍습 잇수과?

101007 #1 어떤 풍습이라게 그거주. ㄴ짜 곤는 거 풍습이 변경돼여붙엇주.

101007 @ 흥 번 더 곶아줍서.

101007 #1 그거주게. 며 이젠 경노당에 강 잔치 해불곡. 식당에 강 잔치 해불곡.
일포도 다 경 해불곡 흥난 집의서 흥 일이 없어.

101007 @ 옛날 게 잔치 흥젠 흥민 메칠?

101007 #1 사흘도 넘어 걸려. 무사냐 흥민, 흥룬 도새기 잡앙먹는 날, 아싯날은
출리는 날, 뒷날은 가문잔치 흥명 밤이영 낮이영 막 먹어. 뒷날은 잔치 흥영. 옛날
은 식당에 강 무신 햇수광? 그날 강 그날 잔치 흥는 날 새서방 독개로 강 모셔오민
매기.

101007 @ 집의서 흥지 안 흥엿수과.

101007 #1 예게. 집의서 게.

101007 @ 보리낭 영 곶아그네.

101007 #1 곶곡.

101007 @ 쟁풍 영 둘러그네.

101007 #1 둘러곡. 새각시 앓정.

101007 @ 사진 찍곡.

101007 #1 우리 흥 땐 사진도 없더라.

101007 #2 사진도 엿주게.

101007 #1 이 하르방은 잔칫날 돌 탕 강, 지레영 큰큰 흥연게.

101007 @ 이디 저 걸궁흥는 탐은 엿수과?

101007 #1 어서. 걸궁은 예레에서 오랑 해줍니다. 옛날부터 걸궁이 어서. 감산인
걸궁을 잘 흥여난.

101007 @ 거 저 멩질 끝나민 무신 거 흥지양. 어르신덜안티 저 세배.

101007 #1 예. 서배. 멩질날 이 복지파로. 복지판으로 흥던지 저 수련장으로. 그
땐 부락에서 흥영 맥이곡 서배흥곡.

101007 @ 계난 저 설 때는 세배흥곡, 저 추석 땐 며 안 흥니까?

101007 #1 추석 때는 없어.

101007 @ 체육대회도 안 흥곡?

101007 #1 이디 이디서 노인덜 서배흥곡 흥여. 복지판에서, 저디 손님 들어불민
못흥민 이디 왕 흥여. 부락 죽은 디난 사름도 만흥지 안 해. 안덕멘 죽은 멘에서 난
드르가 호수가 제일 죽아. 수입 가져오는 것도 제일 죽고. 웨냐, 이 농토 지형이 제
일 죽아, 대평은, 난드르는. 감산 가튼 디는 돌록이여 며여 막 만흥는디, 요 군산 아
픽 요거 쟁풍 친 거 ㄴ짜 이거뿐인디, 군산 아픽도 열리 지경이 하영 들어붙엇어.
계난 이 농토 지형이 죽아, 난드르.

101007 #2 이 아팠 눈으로 바지는 거뿐.

101007 #1 이거뿐. 계난 마농 농사 쪼끔 해볼민 매기. 계난 돈 가져오는 것도 쉘 죽고 나는 것도 없어. 다른 딴 농토가 널르난 콩도 같고 궤도 같고 다 흐는디 여긴 마농흐는 거 요거 매기.

101008 @ 여기 특산물.

101008 #1 특산물이 마농 매기주게. 거 빼끼 없어.

101008 @ 그 다음에 즈너덜 흐는 거.

101008 #1 즈수덜 흐는 거 멧 사름이 흐여게. 구재기 잡앙 오곡.

101008 @ 멧 멩이나정도 햐수과?

101008 #1 몰르쿠다게. 즈수 난 해너 아니난애.

101008 @ 구재기도 못 먹엄신게.

101008 #1 게 못 먹주게. 이 하르방은 입이 보영해볼어.

101008 @ 감귤은?

101008 #1 감귤도 얼마 엇수다.

101008 @ 계민, 즈너덜 해그네 바당애 강 흐 거 흐고.

101008 #1 마농, 그거뿐.

101008 @ 그거뿐마씨? 계문 무시거 덕영 살암수과, 이디 사름덜은?

101008 #1 경 해도 세상이 좋은 세상이난 굿지 안해.

101008 @ 무신 거 흐명. 돈은 벌어야 흘 거 아니우파?

101008 #1 경 해도 양, 우리 노인은 아무 것도 날 거 어서양. 우린 늘거부난 못 흐는디, 노인 연금도 잇고. 경 해도 굿진 안 해.

101009 @ 그 다음 양, 이 난드르 자랑거리. 경 해도 자랑거리 이실 거 아니우파?

101009 #1 자랑꺼린 게, 우리덜 건강흐고 단체 좋고.

101009 @ 계난 마을 자랑거리.

101009 #1 마을 자랑거리 그거주게 무신. 다 이웃스춘이라고 다 좋게 살고, 이 추룩 놀고, 건강흐곡 흐민 돼는 거주 무신. 구재기 잡곡, 마농 싱그곡, 그거 뿐이주.

101009 @ 모영덜 ㄹ찌 수눌명 흡니까?

101009 #1 아니 그. 마늘 흘 때는 비니루 더끌 때영 다 수눌영 흐여. 서로 도우 명.

101009 @ 그 다음에 여기 와그네 노래덜도 불르곡.

101009 #1 예. 이디 오랑 노래덜도 불르곡. 멩질 ㄹ뜨 뎌 마이크가 죽앙 못흐여.

101010 @ 이 마을에 대흐영 곤지 못흐 것덜. 난드르에 대흐영 곤지 못흐 것덜 곱아줍서.

101010 #1 그거주게 무신. 곱은 거 거뿐.

101010 @ 곤지 못 흐 거게. 웨지 사름덜 와그네 멧흐 거.

101010 #1 웨지 사름덜 오는 거 막을 수 엇이카? 다시 더 들어오난게.

101010 @ 계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서.

101010 #1 경흐난 집도 다 풀아뿔 나가불곡. 웨지 사름덜 왕 살아불곡. 난드르 사름 이녁 집 가진 사름 멧 어서. 다 풀아부런.

101010 #2 토지 ㄴ뽀든 것도 다 열리 사름.

101010 @ 바당긱디는 다 웨지 사름덜 사불엇수과?

101010 #1 바당긱이고 아무디고 안 산 디가 엇주게. 바당에 일로 저레 강뽀서만 은 문뽀 좋은 집덜 짓으곡 장사 해불엄서.

101010 @ 계난 땅 폰 사름덜은 어디 가불엇수과?

101010 #2 땅 폰 사름덜 어디 시에 가그네.

101010 #1 이디 사는 사름도 잇곡, 어디 나가분 사름도 잇곡.

101010 @ 집 어신 사름도 잇겿네.

101010 #2 집 어신 사름도 잇입주게.

101010 #1 계. 집어선 할망 하나만 흐영 요만이 흐 막사리도 짓영 살곡. 아덜덜 은 집 풀아지민 나가불곡.

101010 @ 멧년 후에는 여기 본토백이 엇이큰게.

101010 #1 이디 사름 어서. 본토백이 어서.

101010 #2 지금 보듯 흐면은 본토백이 엇임직 흐우다.

101010 #1 엇엄직 흐여. 이제 생활흐는 건 보면은 엇엄직 흐여, 내중이라가민. 이제 이녁 집 가진 사름도 멧 없어. 우리 동네 가면은 젤 하. 우리 앞집이여 옆집이여, 건 이녁 집덜. 요 차부로 요 골목으로 나강 문뽀 풀아부난 모른 사름덜이라 다. 그디 흐 사름뿐이라.

101010 @ 어디 사름덜 왕 살암수과?

101010 #1 육지 사름덜게.

101010 @ 어디 서울서?

101010 #1 서울서사 오람신디, 강남서사 오람신디, 나 압니까.

101010 @ 흐는 일이 머라, 그 사름네.

101010 #1 오라그네양, 커피쇼도 풀고, 우리 아피도 질 에염에 이제 치킨이여 멧이여 머 아니 맨드는 것이 없어. 그 집도 질 에염으로. 겐디 그 집은 그 흐 사름 씩 오랑 사는디, 불싸진 건디 문뽀 장사라.

101010 @ 거난 이거 난드르 어서짐직 흐다 이거.

101010 #1 난드르 땅이, 사름이 어서져. 경흐여도 어서지지 안 흐여. 계도 그 난 드르엔 흐영.

2. 제보자 일생

102001 @ 이젠양, 여자 삼춘부떠 낳고 자란 과정 곶아줍서.

102001 #1 난 때, 물자기 땀 모르고, 초등학교 들어가야 아는 거주계, 나가 아는 디는. 감산이 친정이난, 그 때는 일고여답 슬엔 학교 못들어갔어, 우리 시절에는. 경 흐디 아읍 슬 열 슬 웨사 일혹년 들어갔어. 여답 슬에 들어간 사람 드물어. 잘 어서. 경 흐디 그 때 들어갈 때는 우리가 웨정놈이라양. 일본놈이라양. 안덕 지서장도 일본놈, 학교 교장도 일본놈. 글도 일본글. 다 했주게 나가 학교 들어갈 때는. 삼혹년 웨난에 해방 웹디다. 나가 안덕초등학교 십삼 웹디 삼혹년 웨난에 해방을 웹디다. 열흐 슬이 웨난 우리 아버지가 두 슬 들연에 아읍 슬로 학교를 입학했어. 게난 그땐 웨정놈이라양, 일본놈이라양. 일본놈덜안티 옷 입엉, 이 바질 입엉 가면은 남 즈덜은 요만이만 질면은 2새로 탁 그차불곡, 반바지로. 또 옷은 학교에 입는 옷은 멋을 입었냐. 우리가 그땐 미녕하고 광목 빼끼 더 잇엇수과. 광목 치매 입으면은 일본 해군 모양으로 바우로 힌 떨 두 개 둘롭니다. 힌 띠 두 개. 치매 바우에 힌 띠 두 개 둘루곡, 이딘 해군 모양으로 이레 들린 그 우와게라양. 우와게도 힌 띠 두 개 들러. 그 등긴 거, 이쪽으로 이레까지. 경 흐연 학교 교복이라양. 경 흐민 이 양발을 못 신게 했거던. 게민 대비, 이젠 대비로 골아야지. 그땐 대비. 대비 신엉 가면은 학교에 가다그네 모르게 담고냥드레 질러똥 가야지, 담고냥드레. 질러똥 가민 올 땐 좇지 못흐여. 좇지 못흐곡. 물이 수두가 이제야 수두 낫주, 수두루가 엇수다양, 안덕 초등학교에. 수두 엇이든 물받이 땅꼬물 두에. 쉼멘으로 이만인 흡디다. 이만이 흐 땅꼬물 흐민 그디 흐민 흐 사람이 잘못흐민 전체 기압이라양. 게민 돌로 못아, 언디민. 게민 그레 강 발을 다 등가. 거난 곳인 거 이제도 잇수게. 경 흐영 곳아그네 발 곳으곡. 벤또 정심은 쌍 가민 보리조팝. 쌍 가민 쓸은 흐 거 아메도로마 그 일본 벤또 먹는 때 그 음복 흐여그네 그걸 먹어. 마농지 쌍 가민 마농 내. 도시기착에 싸는 놈, 쿨락박세기에 싸는 놈, 박세기에 싸는 놈, 여라 가지라. 벤또가 엇이난 그때 일본 때. 경 흐연에 그 학교 다녀십주게. 기민 안덕멘은 학교가 안덕초등학교. 모실포 이제 초등학교가 그 초등학교. 한림초등학교. 또 저 제주시 그 어디 그거 빼끼 웨정 때 짓은 초등학교가 엇수다. 이제 다 짓인 거는 해방 후에 짓인 거라, 다. 경 흐디 중문혹교는 습격 들연에 해방 후에 스습 스건 때 습격 들연 불 슬아불어서. 그 불 스는 디 왓단에 애머흐 사람 총으로 문밖 쏘안 하영 죽어불엇수게게. 그디 불 난에 막 그 산폭도덜 오란 불 지더부난 불 와랑와랑해 가난 불끄랭이 해그네 초가집이난 불카카부덴.

102001 @ 그 천제연 여픽 초등학교 이서낫수게양?

102001 #1 아니. 이제 그 혹교가 그 혹교.

102001 @ 아니.

102001 #1 그땐 멘사무소.

102001 @ 천제연 여픽.

102001 #1 천제연 여픽 멘사무소.

102001 @ 아. 기짱?

102001 #1 예. 이 안덕도, 안덕 이제 지서영 멘사무소 감산이 안덕천에 멘사무

소 지선 저편이 있고 이서낫수다. 계난 화순 사름안티 쫄런에 감산이가 화순으로 지서영 학교 쥐분 거라. 학교도 감산이 이서나고. 그레 가분 거라, 이제. 경 해신디 그 지붕 우의 올란에 명석 더꺼그네 불가리는 건디, 산에 연락험젠 돌아단 문딱 죽여불엇수게게. 경 흐엇수다.

102001 @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엔?

102001 #1 그 다음엔 검질이나 메레 다니곡, 밥이나 흐곡, 아기라도 밧주 무신. 그때 중학교 해시민 멘장질 흐지.

102001 @ 언제 씨집 옵테가?

102001 #1 씨집은 어느 때사 오라져신지. 열여답에 오난에게.

102001 @ 열여답에 완에.

102001 #1 하르방은 쭈무 슬이고. 게 이제까지 살앗주게. 열여답에 오란 열아옵에 아기 나고. 아덜. 거 이서시민 육십여섯이라.

102001 @ 그 다음엔?

102001 #1 그 다음엔 두 슬 믈지 세 슬 믈지로 네 개 뿐이난, 애기가. 네 개만 나난. 그때 시절에도 애기가 거뿐. 노인훤장 흐고 딱시 무슨 훤장 흐고 흐여도 애기가 거뿐. 옛날엔 막 일고여답 개 나지 안 흐엇수과. 겐 난 그거뿐. 거 무신 거 아무 것도 아니 흐여도 거뿐. 계난 막둥이가 서른세 슬에 난 아의가 이제 원하난가 원들 일 거우다. 막둥이, 저 누나광 열두 슬 차이.

102001 @ 계난 검질 메곡.

102001 #1 검질 메곡. 멘네 타곡, 콩검질 메곡, 콩 비곡.

102001 @ 즈수 역할은 안 흐여봅디가?

102001 #1 즈수사, 감산이 사름이 즈수 해져게. 구재기도 못 낚고. 먹음은 해도 잡진 못흐여.

102001 @ 계민 남자 삼춘 자라운 과정 흐번 말흐여봅서.

102001 #1 밧갈곡.

102001 #2 나사게.

102001 #1 쉼 멕이곡.

102001 #2 수물대, 대여숫 나도록은 밧 갈곡.

102001 @ 학교는 어떻 안 다넛테가?

102001 #2 학교는 게.

102001 #1 학교는 무신. 옛날 서당 말양 무슨 학교 시켜서.

102001 @ 거난에 살아온 과정 쪽 곁아봅서.

102001 #2 살아온 과정이사 나가 어린 때 흐 열서너 슬 때난 소 멕이레 다니곡, 소 셔그네 소 그리청 밧 갈레 다니곡. 주루게 밧은 주루 곁아십주게.

102001 #1 그거뿐이주.

102001 #2 난드르 벵디 널르지 안 흐난 흐디 거자 나 손으로 거자 곁앗수다게. 이제 생각흐민 그 머 흐게 했주.

102001 #1 잘 갈곡게.

102001 #2 밧은 춤 암체 질루명 암체로 굳작 밧을 갈았주.

102001 @ 경 흐연에 밧 슬 췌 때 결혼흐여서마씨?

102001 #1 쓰물. 난 열여답에.

102001 #2 난 쓰물에. 쓰물에 결혼흐연. 쓰물에 결혼흐연에 살단에 즈식도 나고 거세기. 쓰물.

102001 #1 하나에 낫주.

102001 #2 여숫, 일곱에 일본 가신가.

102001 #1 예. 일곱.

102001 #2 쓰물일곱에 일본 가기 시작흐여그네.

102001 #1 갓다왓닥, 갓다왓닥.

102001 #2 쪽 계속 흐여그네 이자 고향에 들어완 살건디가 십 년.

102001 #1 이십 년도 넘엇주게.

102001 #2 어디 이십 년 말이라.

102001 #1 어디 하르방 온 디 이십 년 넘엇수다. 무신 말을. 아 영훈이가 밧 슬 인 때우파게. 군인 강 쓰물두 슬 아니우파. 건 뵤고.

102002 @ 게문 양, 여자 삼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흐엿수광?

102002 #1 우리 친정에 어머니? 친정에 아버는 도청에 근무자. 따시 어멍넌 농스꾼. 우린 나록 흐고 기자 농스꾼이주, 기냥 옛날엔. 기자 검질 메레 다니고 농스꾼이고, 아버지는 도청에 직원이고, 멘사무소에 싯단 도청에 직원이고 아버지는. 옛날 웨정 때부터 도청 직원이고.

102002 @ 그 다음에 남자 삼춘은 부모님?

102002 #1 농스꾼.

102002 #2 농스꾼.

102002 @ 어떤 농사 지엿수과?

102002 #1 기냥 이제 콩 갈곡, 마농만 안 싱그는 거뿐, 보리 갈곡.

102002 #2 이제 보리 갈고.

102002 #1 감저 뺏데기 흐고.

102002 #2 감저 뺏데기. 주로 우리 키갈 적의 주로 감저 뺏데기 흐고 보리.

102002 #1 보리 공출흐곡게.

102002 @ 공출마썸?

102002 #1 공출도 흐곡, 기자 보리 가메기로 무껍 풀앗주게. 그거 뿐이주.

102002 @ 공출흐민 어디?

102002 #1 공출은 웨정 때.

102002 @ 어디 일본놈덜안티?

102002 #1 일본놈덜안티 바췌젠 홉디다. 우리 아버지네 대에 했주. 멘네도 문 빼여 가불곡, 늦사발도 문 일본놈덜 오랑 문 빼여불곡 다 했수계게. 그때 시절엔게.

102003 @ 거민 양, 여자 삼촌 어머니님 고향은 어디우파?
 102003 #1 우리 어머니 화순.
 102003 @ 화순마씨?
 102003 #1 화순 김칩의.
 102003 @ 김칩의양. 남자 삼촌은?
 102003 #1 어명은 동카름.
 102003 #2 어명은 이디 동난드르.
 102003 @ 동난드르양.
 102003 #1 소씨.
 102004 @ 여자 삼촌 어릴 때 무시거 헝명 놀았수과?
 102004 #1 공기도 헝고, 오자미도 헝고.
 102004 @ 공기, 그 다음에.
 102004 #1 공기, 오자미, 쓸이영 점 저 조영 콩이영 어명네 모르게 싸다그네 막 맨들양 바놓으로 맨들양, 오자미, ‘오~자~미’ 헝명 오자미 헝곡.
 102004 @ 어명 헝는 겨우파? 그거.
 102004 #1 오자미 다섯 개 헝영 영 탁탁 헝는 겨주게. 공기 다섯개 헝여당 공깃 돌 헝영 공기 헝곡.
 102004 @ 거 잘 곱아줍서, 그거.
 102004 #1 오자미는양, 조헝곡 콩헝곡 어명네 모르게 헝여당 헝벽으로 맨들양 그레 답양. 답아그네 오자미를 헝주게. 손으로 막 장난헝명 돌리가덜, 서의씩 돌리 썩. 경 헝곡 고무줄. 학교 가든 고무줄. 검은 고무줄 메영, 돌리가 메민 글로 고무줄 헝곡. 베뜰락 헝곡. 경헝 살앗주. 옛날이사 흘 거 떠 이서. 이제든 장난감 다 하곡 노는 놀이가 하신디, 그때는 오자미헝고 공기 빼끼 어서서. 그때 고무줄도 학교 가 난 해서. 어느 저를에 학교 안 다닌 사름은 고무줄도 흘 줄 몰라. 그때 초등학교 텅 기난 고무줄을 헝주.
 102004 @ 고무줄은 흘 때 어명헝연 힙디강?
 102004 #1 고무줄은 이것이 검은 고무줄이주게. 영 돌리가 심으민 일로 뛰엇다가 뛰엇다가.
 102004 @ 잘 곱아줍서게.
 102004 #1 경 헝는 거. 베뜰락은 돌리 마주치든 탁탁탁탁 탁탁 헝명 경 헝주게. 거 빼끼 장난감이 없어.
 102004 @ 남자 삼촌은 그때 남자덜 떠 헝명 놀았수과?
 102004 #1 남자덜 쉼 맥일 때주게.
 102004 #2 어릴 때 쉼, 소도 몰양 다니명 맥이곡. ㄴ썩 텅기는 벗덜, 감저 심영, 싱거그네 훑어가든 감저 파다그네 귀 먹기.
 102004 @ 뽕이치긴 안 해봣디가?
 102004 #1 뽕이치기도 헝어. 뽕이치긴 오꼴 이제불연. 뽕이치기 하영 헝주. 뽕이

빠당 요만씩 무경 오랑 뽕이치기 하영 했어.

102004 @ 군산 강 뽕이 뽑아왕?

102004 #1 아니. 새왓디, 새왓디 간. 난 감산이난 뽕이 하. 새왓디게.

102004 #2 새든 밧디 가민 막 나오주게.

102004 @ 율라봉 가든 잇엄직 혼게.

102004 #1 율라봉 멀영 가집니까? 이디 난드른 새왓도 엇영 뽕이치기 즐바로 못 했일거여.

102004 #2 것도 혼 그루.

102004 #1 난 학교 다닐 때 뽕이치기 하영 했져, 감산이서.

102004 @ 거 먹젠게, 먹젠.

102004 #1 따먹젠, 또 먹곡. 또 선생님안티 강 가방은 서 게, 포따리 싸그네. 저 스나이덜, 난드르 스나이덜은 안덕초등학교 다니젠 혼든 요 좇은드리로 가명 무슨 것에 들어메영 다니곡, 올 때도 이디 오랑 늬의 감저 든 파먹어불곡, 난드룻 아의 덜, 학생덜.

102005 @ 그 다음에 양, 웨정 때 공출에 대행 아는 바 있걸랑 다 곱아줍서.

102005 #1 멘네 공출. 따시 멘네 영 불르는 거 씨 까는 거 잇거던, 경흐민 그거 오랑 오꼳 멘사무소 사름 그거 든 으져가불곡. 게든 모르게 멘네 불르곡. 멘네 타오 곡, 까곡. 콩검질 메곡, 경흐곡 돝비 타곡. 콩 돝비 타곡, 녹디 타레 텅기곡. 그거 했주마.

102005 @ 그거 다 바친 거라마씨?

102005 #1 밧디 논 거, 이녁 밧디.

102005 @ 거 일본놈덜안티 바친 거 아니우짜?

102005 #1 게. 그거 해단 했주마. 우린 일본놈 공출흐는 거는 몰라.

102005 @ 건디 공출 안 흐든 어떻 했수과?

102005 #1 공출 안 흐는 사름덜은 왕 막 데작흐곡, 안 돼지. 우리 씨아방네 대에 했주.

102005 @ 공출, 계난에 멘네 공출.

102005 #1 멘네 공출. 멘네도 모르게 미녕 차지도 못흐게 흐곡.

102005 @ 다른 공출은 어서낫수광?

102005 #1 다른 공출이사 보리 공출흐곡, 나룩 공출흐곡 다 했젠 흡디다, 웨정 때. 나룩도 공출흐곡, 막 흐민 일본놈덜 든 공출흐여갓젠. 멘네 산담 소굽에도 든 곱져낫젠 흡디다. 난 흐꿈 옥은 때 공출흐레 텅겨난 거 알아져. 우리 할머님네 멘네 불람시든 낫사발 다 으져 가불곡. 아의 때 경 흡디다, 일본 웨정 때.

102005 #2 첫 번째 보리 공출, 절간 썰영 물리와가든 절간도 공출흐곡.

102005 @ 감저 뺏데기양.

102005 #2 응.

102005 #1 예.

102005 @ 계난 공출은 여라 가지 해신게마썸양.

102005 #2 에에. 여라 가지.

102005 #1 농사 지민 다 공출혀여사. 모르게 곱정, 산담 강 일러그네 그디 곱젓 당 먹곡 헛젠 홉디다.

102005 @ 계난 공출 안 혀민 어뎡혀여?

102005 #1 공출 안 혀민게, 줌 큰일 나주게. 벌금 내곡.

102005 #2 막 조사혀곡.

102005 #1 거난 난 아윈 때 공출혀는 거 바낫주게. 아윈 때, 학교 다닐 때, 웨정 때.

102006 @ 그 다음에 양, 사삼 사건 겪엇던 내용을 곱아봅서.

102006 #1 나 계건 곱으카마썸. 우리집의 습격을 아웁 번 들엇수다, 친정에. 나 스슴 스건 끝난에, 스몫 끝나지 안 혀 때 결혼을 헛거던. 거난에 나 오라부난에 우리 박거리에 경찰관이 살앗어. 그 사름네 사난에 폭도덜이 들언에 경찰 아방 죽여 불고, 박거리 불 부져불고. 거난 경찰 아방이 그 옛날엔 영 이어도 방에 짓는 그 방이 잇엇수다, 박거리 쉼막 어염에. 계난 그디 저 우리 아버지가 일본놈덜 가부난에 이만씩 혀 웨낭 그 시꺼단에 그디 과짜 세와서마썸. 세완 뇌두난 그 하르방이 그디 간 죽언에 그 낭에 불 부편에 그 하르방이 다 불 부떠불엇어. 기추룩 해낫수다게. 경 혀디, 아이고 습격 오민 경 홉디다. 습격을 들어오면은 시집 안 온 때, 난 아윈 때난, 습격을 들어오면은 우리 아버지가 웨정 뎡 고리텡 바지 그 각반 모양으로 혀 바질 입읍데다게. 경혀난 집의 잇이면은 올레로 들어와, 이놈덜이. 우리 이불 썸그네 영 고개 내, 각 질러봅니다게, 질러봅디다게. 기추룩 혀민 이불 썸 영 보민 탁 들어오라그네, 구들에 오랑 백장, 옛날엔 백, 이젠 단스 잇주만은 백장 아니우파게. 백장 문이, 그 례, 례 잇이민 켓문 탁 열아그네 발 혀 착은 그레 올려 놓곡 그걸 다 퍼. 다 평 좋은 건 가져가곡, 남은 건 마리고 구석이고 불 부썸 탁탁 질어봅디다게. 멘네 ㄱ뎡 거 ㄴ뎡 질어불곡 ㄴ 불 부져불곡 다. 그추룩 혀곡 뒷날 아축의 일어난 불가장 보면은 와닥탁와닥탁 혀는 소리 낭 창문 화딱화딱. 보민 습격 들어그네 불 부져불민 왕대왓 카는 거, 와닥딱와닥딱. 감산인양 습격으로 살질 못헛수게. 우리 맛갈썸 두 개 다 하르방네 거영 우리 거영 다 이꺼 가불곡양. 그 썸 그냥 이꺼 가질 안 혀고 집의 거 습격혀연 어디 시꺼 갖수게. 경혀연 다 그 폭도덜이 다 경 혀여불엇수게. 계난 이제 복지파 닳은 상사칩이엔 혀지 안 혀여낫수과, 옛날에? 상사칩이엔 혀디, 도피자 가족덜이라 건, 폭도에 가분 가족덜 그디 가두왕 살앗어. 그디 돌아당 사난양 습격왕 가명 몰안 가명 ㄴ 우리집의 불 부져부런게. 경 혀난 감산이 사름이 직혀염시난 둘리 산폭도가 밤의 몰아갔어양. 몰아간 어뎡 혀여나 혀난에 문서에 죽일 사름 다 썸서렌 홉디다. 장군덜만, 난 사름덜만 감산이서도, 경혀난. 계난 습격해단에 요디 나뎡두서 저쪽에 살명 그거 강 등짐으로 정 오랜 혀 거라양. 정 오랜 혀난, 영 오름 이디민 오름 올라가불민 이레 가불민 이디 사름은 이레 볼 수가 엇주게. 경혀난 두 사름 세 사름이 온디 둘린 전 ㄱ딱ㄱ딱 올라가고, 이녁은 멍

글락멍글락 흐명 아니 올라가고렌 흡디다. 아니 올라간디 흐 사름은 막 아래 간 가 불고, 두 사름은 동산에 시난, 이 사름이 흐 부락의 사름이라. 그 부런 들르싸된 막 돌아오라서, 감산이. 온 거 보난 얼굴이 문 가시로 홀터불고, 경흐연 오난에 어떻혀냐 흐면은 가난에 구텡일 파렌 헛텐 흡디다. 감저 구텡이 모양으로 구텡이 판에 이디 들어강 죽을래, 술 잡을래, 게난 살아나젠 흐난 소 잡으켄 흐고렌 흡디다. 게난 소잡아, 갈리갈리 그찬 소 잡아된에 거 저울연 흐난 돌아난 온 거라, 그 사름이. 들안 오난 성은 이제도 살았수다만, 김창석이엔 흐 사름 아신디, 김창석인 스슴에 걸리난 안덕 지서에 간에 들어앗아분 거라양. 심어가분 거라양. 게난 아시가 피산흐난에 그 사름은 살아난 흐곡. 그 사름 살단 군인 간 죽엇수다, 경 흐여도. 그추룩 흐 세상이 잇엇수다. 감산인 양 습격으로 못살게 맨들아분 디우다게. 우리 아버지 일름을 막 개 부르듯 불르곡.

102006 @ 난드르 사삼 사건 흐번 말흐여봅서.

102006 #2 난드르 사삼 사건은 양, 나 어신 때 흐르 아축의 뉘 잠시난에 아 일어나렌 흐연 일어난 베려보난 아버지 산 때난 아버지안티 말 들엄서게. 우리 아버지 일름이, 당신 일름 머냐, 흐난 거 바른 일름을 아니 굴안에 그자, 거짓말 일름으로 그자, 예, 나 저디 강태운이엔 흐 분 일름을 거느립디다게. 나신딘, 너 일름 멋이냐, 흐난 나 이제 어른도 아닌 딘디 머 이제 열서너 술 빼끼 아니 뉘엇는디 머, 뉘여서 이젠. 이따그네 갈 때랑 하르방이영 그찌 가자고 이젠. 경 흐난에 나, 알앗젠, 흐연. 경 흐연 나가부는디 아버지가, 이레 오랑 곱아불라 곱아불라, 흐연. 아버지가 이젠 곱안 이십주게. 게난에 말젠 보난에 다 가불엇젠 흐명 뉘텐. 이 사름덜 군산넘 영 이제 창감산이쯤 가실 거엔 흐명 흐난. 이젠 거 뿐. 게난 습격이엔 흐 습격도 안들어보고.

102006 @ 여긴 피해본 사름 엇수과?

102006 #1 피해본 사름은 흐 사름. 건 무사, 나가 듣기에는양. 우리 저 씨이모분디, 그 뜰네 저 거세기 돛걸름 옛날에 밧디 돛걸름 놓젠, 군산 어염에 소 몰레 가서. 게난에 저 군산 어염에 이쪽으로 서쪽으로 작백이 잇엇수다. 둘 메완 작백인디. 감산이 이씨 집안에서 그 산폭도난 도새기 질환에 그 작박 소굽에 판에 그 도새기 숲양 먹젠 흐난 내가 풍풍풍 난 거라양. 내가 풍풍 나난 중문 지서에선 그 내 판에 그디 조사올 때 그 하르방은 소 몰레 간 아다루가 뉘 거라. 경 흐난에 산에 습격헛젠 흐명 그 하르방 심어단 도새기 꿩기 뒤에 걸고 흐연 중문 지서에서 죽여분 거. 거 빼끼. 경 흐는디 난드르, 난드르엔 흐 뉘 웨 피해가 엇나? 습격들 수가 엇수다. 들어오긴 들어와도 나가질 못흐여.

102006 #2 들어와도 나가지 못흐여.

102006 #1 열리서 접중헛지, 감산이서 접중헛지. 어딜로 나갑니까? 들어오기는 낮이 왕 들어와도 나가질 못 하니까 습격이 없엇는데, 스슴 스건에 쫓꿈 걸린 사름은 여기 머 흐 사름이 배로, 큰 배로 시건 문딱 부산드레 나가불엇어. 경 아니 흐여 시른 문딱 오랑 두드리곡 다 흘 건디. 게난 부산드레 나강 일본강 부재 뉘 사름덜

이 문밖 그 사름덜이라. 경흐연 난드른 피해가 없어.

102006 #2 난드른 십격이란 게 어서낫주. 우리 알거니, 나 어린 때 그때 오란에 아버지 일름 속이고 곱안 냉중에 거시기 흐난 창천이덜 가불엇수게, 나왔던 관차덜이. 걸로 뿐.

102006 #1 나가 오란 듣기는 경 홉디다. 저쪽 동네는 사름 만이 죽엇어. 스슴에 켈리난 오란 지서에서 오란 막 죽여불엇주게. 막 동카름 하. 만해. 이딘 스슴 스건 피해 엇수다. 그 하르방 흐나뿐, 장씨 하르방.

102007 @ 그 다음에 양 중매결혼 했수광, 연애결혼 했수광?

102007 #1 난 중매결혼이주 어느 저를에. 연애결혼 해시민 좋주게. 그 시절에사 연애가 어딴어. 연애흐민 씨집 못 가. 중매는 게 새각시 잇젠 흐난 구흐레 간 거주게, 우리 집일게. 우리 집의 구흐레 간. 나 곤건 들으쿠광?

102007 @ 굴읍서.

102007 #1 우리 아버지는, 나가 어명이 두 개라부난 의부어명이영 살앗거던. 계난 우리 아버지는 어려도 자게 씨집 보내영 그 집의 가그네 잘 펜안이 살렌 흐젠 흐연 보내긴 흐고. 계난 우리 할아버지가 잇엇어. 할아버지가 이선 대평은 개촌이라 해서 쌍놈 사는 디엔 흐명 씨집 가게 했수과? 아이 가게만, 개촌이라 물질 만흐곡 개촌이엔 흐명. 경 흐난 우리 씨아버지가 막 텅긴 거라양. 막 텅겨가난에, 나 알거니, 우리 할아버지가 손청에 잇단에 우리 아버질 불러갑디다. 불러가난에, 난 그만이 생각흐연 보난, 느 새끼고 느 딸이니까 주는디 난드르 양집이엔 흐난 양반이난 흘 수 엇다. 양반이엔 흐연 나 씨집 오랏수다. 양반이엔 오란 보난 쌍놈의 집만도 못 흐여. 경 흐연 오랏수다.

102007 @ 계난 중매혼 거고.

102007 #1 예.

102008 @ 그 다음에 스주는 봤수과?

102008 #1 스주?

102008 @ 사주, 사주.

102008 #1 사주는 씨아방네영 맞주 무신, 나가 바? 택일흐연 간 우리 집의 들이 천 아무날 잔치 흐켤 흐난.

102008 @ 계난 남자 삼춘이 굴아봄서.

102008 #2 아방이 다 알안에 거시기 흐여부난 무신.

102008 #1 아무날 잔치엔 흐난 물 탕 감뿐이주. 보리밥 흐고 흐연에. 콩 놓고 밥 흐연. 도새기 잡고.

102009 @ 그때 혼수품은 머 홉디강?

102009 #1 아니. 그때는 소게이불 두 채 흐는 사름, 흐나 흐는 사름, 머이가 없어. 아무거 화장품.

102009 @ 계난 머머 행 읍디가?

102009 #1 난 이불 두 채 흐고, 우리 죽은아버지가 학교 선생이거든. 경흐난 목

포 갖단에 이제 거울, 경대, 그뻐 경대 흐는 사름이 없었어. 빨간 경대를 하나 상
왔어. 부산 저 목포 간. 켜 산 오란 날 주난에 씨집 올 땐 거 가정 완 난드르 동네
사름덜이 다 왔수다, 그거 구경흐레. 경 흐 거주. 화장품이엔 흐 건양, 이젠 보난 아
기 저 이디 물르민 블르는 거 폭삭폭삭흐 거, 그루분. 동동구르무짜이 잇수과? 거
어디 잇수과, 어느 저를에.

102009 @ 잘 출렷뎀 해신게마썸. 거울도 흐곡.

102009 #1 잘 출렷젠 했주게. 난 잘 출런 온 거.

102009 @ 이불 두 채 흐곡.

102009 #1 이불 두 채 흐고, 또 기거 흐고, 옷도 잘 해연 오곡. 아버지네가 머
흐난에 작은아버지영.

102009 @ 무슨 옷 흐연에?

102009 #1 멍지 치매 저고리 입언 오고, 멍지 치매 저고리 씨어멍신디 받고 했
주게. 경흐연 간 뒷날은 문딱 머리 영 옷아노난 으전에 뒷날은 친정에 가지 안
흐니까. 으정오라도 뒷날은 산폭도 오란 문딱 으자가부난 매기. 감산이 친정에, 무사
건 내불어뵤 가지 안 흐연.

102009 @ 게난 이불은 머, 멘네 같안?

102009 #1 멘네사 같아신디, 어떻사 흐여 주난 가렌 흐난 오라부난 몰라.

102009 @ 그때 멘네라도 타알 거 아니우파?

102009 #1 게 멘네 타주게. 멘네 블르레 가는 거는 저 날웨, 모실포 날웨 공장
씨 까는 딴 그디 빼끼 엇입디다. 그디 간 까오난 몰라. 어떻사 이불사 흐여신디 어
뻬사 흐여신디.

102009 @ 그뻐 이불 숫자에 따라 잘 출렷져, 안 출렷져, 경 흐는다.

102009 #1 예. 경 했수다. 경흐난 이불 흐 채, 이불 더끄는 건 두 개 흐고 요 하
나, 경 흐는 사름 흐고, 흐 채가 주장이라. 경흐디 난 요 두 개에 이불 두 개에 끌
레이불도 흐고. 할망이 건 해주난, 할망이 부자라노난 할망이 깃딱 못 흐게 흐연 다
해주난.

102009 @ 끌레이불은 아의 덮는 건가?

102009 #1 누비이불. 이제 여름에 더끄는 누비이불. 끌레이불 흐는 사름도 어서
서.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흐디가?

102010 #1 결혼식 집의서 했주게 무신. 새각시 돌아오난 매기주기 무신. 독계
탄 오난 매기주.

102010 @ 집의서 어떻?

102010 #1 집의서 오난에 밥.

102010 #2 이제 뭇 탕 가는디 독계 흐연에 실런에 게.

102010 @ 뭇 탕 간에.

102010 #1 뭇 탕 간, 독계 타난.

102010 @ 올 때 신부는 어떻 와?
102010 #1 신분 독계 타난 뭉 앞의 메왕, 두의 메우곡 흥영 뭉이 꼬성 오란. 유
손 뭉 심곡.
102010 @ 독계?
102010 #1 독계, 가매 닳은 거. 독계엔.
102010 @ 독계 가매?
102010 #1 그거 탄 오랏주.
102010 @ 그거 사람이 영.
102010 #1 아니, 아니. 뭉, 뭉. 뭉 메와 앞두에.
102010 @ 구루마식으로?
102010 #1 응. 경헌디 부락에 유스엔 흥 사람이 이서. 그 사람은 뭉 심영 오랑
뭉 들러귀어가민 뭉 귀 물곡, 유스가 모셔와. 부락에 사람으로. 이제 ㄹ뜨민 이서기
질 흥는 사람 말고 유스가 이서. 상예 흥젠 흥민 요령 흥영 땡글땡글.
102010 @ 군산 넘어 갓네.
102010 #1 군산으로 안 강, 이 질로. 묵은 질로.
102010 @ 묵은 질이 어디우짱.
102010 #1 요 두예 이서. 아 새질 옆에로 올라간 디가 이서. 묵은 질로.
102010 @ 저 올랫질인가?
102010 # 올랫질도 안 웨여. 그건 새로 뺨 질이고. 묵은 질이 학교 다닐 때덜
다 글로 다녔주기, 이딴 사람덜은. 것이 큰질이라났주. 쪼꼬만 흥 질이주, 다닥다닥
흥영 췌멘도 안 흥.
102010 @ 아 글로 흥영 간에 모성왓구나. 사진은 찍음데가?
102010 #1 사진 찍음이랑 마랑. 아무것도.
102010 @ 거난 밥 흥 사발 먹은 거?
102010 #1 흥 사발사 먹어신디 두 적사 먹이신디.
102010 @ 경흥여도 곤밥 흥 사발은 먹어실 거 아니우짜.
102010 #1 흥 사발은 무신. 양, 독새길 노민, 독새길 숲양 네 개산디 다섯 개산
디 상 우의, 새각시 상 우의 놆. 케민 독새기 하나 흥곡, 돛궤기 놓곡, 밥 흥 적 그
차 놉, 가짓궤이에 상 아래 놆 두민 어느 놉 아의덜 오꼳 으저가부런 매기.
102010 @ 게 먹지도 못 헛네.
102010 #1 독새기 먹곡, 하간 거 먹는 체. 체면 출런 먹어서게, 새각시노렌 흥
연.
102010 @ 결혼흥영 신흔 살림은 어디서 흥디가?
102010 #1 결혼흥영 씨아방이영 씨어명이영 흥디 살앗주게. 이제 사는 집의.
102010 @ 안거리 박거리 흥여그네?
102010 #1 안거리 박거리 안 흥고. 처음에는 흥디 살고.
102010 @ 흥 방에서?

102010 #1 아니 방은 뜨나고. 혼 방의서 살아지느냐게, 아명해도. 경흐연 혼디 살단에 우린 박거리 살고 어명넌 안거리 큰집의 살고. 씨누의가 세 개, 씨아지방은 우의 아지방은 일본 가불고, 계난 너 오누의 사난에게, 씨누의덜 싯고 흐난 우린 박거리 트로 살고, 어명아방넌 안거리 살고. 경 흐단에 어명아방네 다 죽어부난 우린 큰집의 살단 또 늘거가난 다시 다른 집 지선 온 거주게, 이거 새 집, 묵은 집은 내 불고. 경 혼디 이젠 또 박거리 가 사는 거라, 우리가. 안거린 아덜네 살고.

102010 @ 큰아덜? 두 번째 아덜?

102010 #1 우리 막둥이 아덜.

102010 @ 막둥이 아덜이 안거리 살고.

102010 #1 예. 우리 박거리 살고. 거는 다섯 식구. 아기가 세 개. 하난 아덜은 군인 가곡, 딸은 대학교 일학년이고, 초등학교 육학년짜리 하나 있고. 서 오누의.

102010 @ 아이고, 서 오누의, 잘 나신게마썸.

102010 #1 예. 더 아까와 말제 난 지집아의.

102011 @ 경흐난 양, 아까 해신디 아의덜은 어떻게 됩니까?

102011 #1 착흐주 무신.

102011 @ 아까 아의덜 사남매?

102011 #1 삼남매.

102011 @ 아니, 아니. 여자 삼촌네.

102011 #1 나. 사남매라낫주게.

102011 @ 응, 사남매. 영 곱아봅서.

102011 #1 사남매디 큰아덜은 없어. 출장 갖단에 당해부난. 이거 이십칠 년.

102011 @ 메뉴린 잇수과?

102011 #1 메뉴리도게 아기도 있고 혼디, 서방 얻언 가불곡. 가네덜은 연금자난 에 하나는 큰딸은 일곱 술에 아방 죽어분 아의주게. 서울 사범대 흐연 고등학교 선생이고, 두 번째 딸은 이화여대 나오난에 이제 박사학위 따젠 햄젠 흐고, 유복자 아방 모른 아의는 이제 스물일곱 술이거든. 고려대학 졸업흐연 박사학위 사년 혼덴 흡디다.

102011 @ 아이, 잘 뒤신게마썸. 게 두 번째는?

102011 #1 두 번째 아덜은 혼디 사는 거 게. 막둥이 아덜. 아덜 하난 군인 가고, 대학교 일학년이고, 육학년짜리 지집아의 있고, 안거리 사는 거. 건 막둥이.

102011 @ 딸 이선게.

102011 #2 딸 성젠 다 시집간 살암주.

102011 @ 딸은 어디 잇수과?

102011 #1 제주시. 세화 살곡, 죽은딸은. 큰딸 아기 들안 와십디다. 손지덜 들안. 고짜 멩임이네 집 와십디다. 아기덜 안거리에 잇젠 흐명.

102011 @ 계난 큰 아덜이 예순여섯, 두 번째는?

102011 #1 두 번째 예순둘인가 셋인가?

102011 @ 딸양.
 102011 #1 예. 세 슬 마지막에 세 슬.
 102011 @ 예순셋. 그다음에 두 번째도.
 102011 #1 세 슬 마지막 욕심하난가.
 102011 @ 그 다음에.
 102011 #1 그 다음엔 씬 하나게. 막둥이.
 102011 @ 아이고, 열 슬 차이 남신게.
 102011 #1 열두 슬 차이, 큰누나하고. 지 성광은 열다섯 슬 차이라났수다. 그것
 이 우리 집의 대장질을 하는 거주게. 그 죽은 아덜이 다 식게 멩질이고 멋이고. 가
 이가 하는 거 다. 아버지네 책임도 다 하곡.
 102012 @ 경하곡양 시집살이 하멍 어떻게수광?
 102012 #1 난 씨아방 씨어멍네가 워낙 좋아노난 나는 시집살이 사는 거 퀘로운
 거 하나도 없어.
 102012 @ 경하여도.
 102012 #1 아니. 아니.
 102012 @ 재미나는 것도 실 거난에.
 102012 #1 재미나는 것사 서방, 신랑이영 아기 안양 놀 때만. 재미난 건 신랑하
 고 뽀뽀 할 때만 좋았어.
 102012 @ 따른 것도 잊지 안 하우파?
 102012 #1 아니게. 재미난 것사게.
 102012 @ 시누의에 대한 일이라던가.
 102012 #1 시누의덜토 밑에난에 경 안 하곡. 씨어머니 씨아버지가 워낙 좋아노
 난 나가 다른 디 시집 가시른 살렌 해도 못살아. 흘 줄도 모르고. 일흘 줄도 잘 모
 르고. 학교 졸업하연에 단발머리 묶으지 안 하연 씨집을 왔거던. 게난 다른 집의 씨
 집 가시른 난 못 살아. 씨어머니 씨아버지네가 워낙 좋아노난 날 데령 산 거귀.
 102012 @ 오자마자 밥도 하곡 머 흡디가?
 102012 #1 것사, 밥이사 해야주게. 씨어멍 씨아방네 일하레 가불민 난 빨리 아
 기 나불고 하난, 난 집의서 밥하곡 경 했주게. 우리 씨아버지가 밧디 애기 놔똥 못
 땡기게 하여, 절대로.
 102012 @ 막 좋은 분인게예?
 102012 #1 예. 씨어멍 씨아방이, 이제도 곧주만은, 좋아노난 난 씨집 간 것, 친
 정의 사는 것보다 더 편하게 살았어. 친정의 의무어멍이니까 나가 고생했지만은 씨
 집원 고생 안 했어. 똤나마나 일만 하는 집이라도 밧 갈곡 농사짓곡 하여도 씨아방
 씨어멍이 좋아노난 메뉴리를 그렇게 고생 안 시켰어. 우리 씨아버지는 스나이 빼끼
 모르곡, 지집아의는 사름으로 인정을 안 해. 즈손도 낭 웨손진 인정 안 하곡. 옛날
 에 동고리가 엇엇거든. 상귀에 훈장하영 동고리 타지민 보금지에 낳 와. 낳 오면은
 우리 씨누의네 아기덜은 우리 이제 아덜보다 더 어려, 아의덜이 다. 어려도 하나씩

주당 두 방울 남으민 거 어린 거 쥐불지 안 햏여? 웨손지덜. 안 쥐. 보금지에 담앗
당 이녁 손지만 트로 주지.

102013 @ 그 다음에 자식덜 결혼은 어떻게 햏수과?

102013 #1 결혼. 그 때에도.

102013 @ 큰아덜 결혼햏 땐 어디서 햏수과?

102013 #1 저, 큰아덜 결혼햏 때 집의서 햏주.

102013 @ 집의서 양.

102013 #1 옛날이난 경노당도 엇고, 식당도 엇고. 거난 집의서 제주시에 간에
식장으로 간 만나긴, 춤 저, 새각시 돌아왔주. 경 햏주.

102013 @ 계난 메뉴린 어덜 사름이라?

102013 #1 메뉴린 시에 사름. 경 햏 오란에 애기 하나는 막둥이 아덜은 유복자
고, 딸 두 개 나뉘 아덜이 죽어부난, 건 머 필요가 엇고. 경햏난 두 번째 딸은 또
집의서 잔치 햏연에 제주시 간 살아불곡. 또 죽은딸도 집의서 잔치 햏연, 그 때 시
절엔 이 경노당도 엇인 때난 잔치 햏연에 세화 구좌읍, 김씨 집안에 가그네 살고.

102013 @ 계민 막둥이만 여기서.

102013 #1 예. 막둥이도 집의서 잔치 햏곡.

102013 @ 집의서 마씨?

102013 #1 예. 그 때 웨도록 집의서 햏수다. 경노당 어신 때.

102013 @ 원햏난다.

102013 #1 예. 경노당의 아니 햏여낫수다. 경노당 생기지 안 햏 때라. 제끄만햏
경노당이 이서낫수다, 그때. 계난 경노당이며, 식당이며 어신 때.

102013 @ 메뉴린 어디우파?

102013 #1 메뉴린 육지. 진쫓 아의.

102013 @ 어햏 햏연?

102013 #1 거는 우리 큰딸 사우가, 저 우리 큰사우가 저 운전수거던. 계난 시웨
빠스 오래 탄 사름이우다게. 계난 그 친구가 이서난 모양이라. 경 햏난 그 친구가
소개햏 주난에 가이가 온 거라. 메뉴리도 착햏니다.

102014 @ 거민 양 며느리 햏고 사위에 대햏 곁아줍서. 메뉴리부떠.

102014 #1 메뉴리는 원체 착햏난, 나이도 어리고 착햏난 우리를 잘 햏줘. 계난
부모가 효자라야 즈식이 효자 사는 거우다. 메뉴리만 잘 햏봐도 필요가 없어. 우리
만 잘 햏봐도 필요 엇수다. 겐디 내리사랑이라가지고 우로 알러레 내리는 물이라가
지고 메뉴리가 잘못햏더라도 내가 이해햏고 감부라 시키면은 우리가 시어햏 메뉴리
가 갈등이 안 집니다. 부모니까. 어떤 사름이 딸이 그만이 키왕 보내여그네 믁음에
맞곡, 씨어햏 믁음에 맞곡, 메뉴리 맞인 사름이 어디 십네까. 다 햏꿈 불만햏해도 이
햏가 가고, 널리 생각햏가지고 즈식은 부모가 즈식을 안으는 거기 따문에, 우리가
안양 젓을 햏키는 거 따문에, 씨어머니가 메뉴리를 감푸라시키고 사랑을 쥐야 갈등
을 안 지는 거우다. 메뉴리가 아무리 미와 두드린다양. 게도 나만 속숨햏른 나 메뉴

리안티 맞은 거 압니까. 내만 숨져불영 속숨흐민 우리 메뉴리가 좋은 사름 돼는 거라. 계난 메뉴리만 나쁜 사름 돼질 안 흐고, 메뉴리가 나쁘게 생각흐영 도둑놈으로 생각을 흐면은, 우리 아덜도 똑같읍니다. 아덜을 높은 자리레 앓지젠 흐민 메뉴리를 더 높은 자리레 앓져야 아덜이 두 번째 앓는 거우다.

102014 @ 사위 자랑 한번 해봅서.

102014 #1 사위는 거 오민 웬장국이나 잘 길영 밥은 맥이주 머, 사위만씩 흐거.

102014 @ 경혀도 게.

102014 #1 아니, 아니. 우리 사위도 잘 흐고, 이제 세상이난 잘 흐고, 죽은 사위도 오민 잘 흐고 다 잘 흡니다게. 거 메날 오는 거, 들양 사는 거 아니난, 오랜만이 오민 머 밥이나 잘 행 쥬 보내불민 매기. 사위만씩 흐 것사 무신.

102014 @ 득도 잡아주고?

102014 #1 예예, 득 어딿수과, 나 잡아먹을 것도 엇인디. 옛날에 장득 잡았주.

102014 @ 경해도 게 오민.

102014 #1 지네덜이 통뚝이라도 산 오람주, 무신 나가 잡안 쥬수과게. 오민 용돈이라도 쥐튀 가젠 흐곡.

102014 @ 계난 막 잘 해줍신게.

102014 #1 예. 계난 부모도 예, 므음으로라도 그만큼 생각을 해야 사우도 나신 더레 부뜨지 내가 잘못 흐민 안 부뜨니다. 상대방도 선생님흐고 나가 만약의 잘못을 흐더라도, 좋다, 흐면은 다음의 만나면 인사흐지만은, 나가 나쁘게 택 돌아서불면은 다음의 바쳐도 머옴 웨쳐불어. 우리 제주도는 좁은좁은흐 섬이우다. 우리가 할망덜 늬의 일 흐레라도 밧디 갈 거 아니우파. 마농 흐레라도 갈 거 아니우파. 계민 다 모르는 사름이라. ㄱ찌 흐여. ㄱ찌 흐민, 그 ㄱ찌 앓인 사름안티 잘못 흐여도 이거 마농도 영 잘 다듬아주고 좋게 지나면은, 오일장에던지 제주시던지 어디 바지면은 날 반갑게 행 땡기주만은. 경 안 흐영 모질게 흐민, 야 저 할망 우상흐 할망이라라. 나 일 흐레 가난, 야 말도 곤지 말라. 그렇게 생각흡니다. 내가 좋게 흐영 나뉘야 상대방이 좋지 내가 나쁘게 흐민 상대방이 좋게 해줍니까. 절대 아니라마썸.

102014 @ 계난 큰사위가 제주시?

102014 #1 예. 죽은사운 세화 구좌읍.

102014 @ 제주시 어디 살암수과?

102014 #1 제주시 저 노형.

102014 @ 막 요즘 잘 나가는 된디.

102014 #1 예. 노형 살건디 오래엿수다. 애기도 오누의 난 다 씨집 장개 보내불고.

102015 @ 지금까지 양 흐지 못흐 말, 커오명이영 곶아봅서.

102015 #1 어떻흡니까게. 물 지곡, 아기 들곡, 다슴 어멍안티 압제 받으난 거 뿐이주 무신. 벨 말이 다 있습니까. 옛날 살기는 다 마찬가지로우다게.

102015 @ 아이, 계도 영.
 102015 #1 학교 텅기고 나도 잘 했주 며. 그때 시절에 여자 학교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이섯수과, 부락에.
 102015 @ 초등학교 나오고양.
 102015 #1 예.
 102015 @ 중학교는?
 102015 #1 중학교 나와서든 멘장 하지, 난드르 씨집왕 삼니까.
 102015 @ 경혀여도 그때 초등학교도 잘 나온 거우다.
 102015 #1 예. 집안으로 갑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옛날부터 선생,
 공무원 집안이난 했주. 아무나 학교 안 시겏수다, 그 시절엔.
 102015 @ 남자 삼춘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안 나왔수가?
 102015 #2 못 다년.
 102015 @ 그때 며.
 102015 #1 하늘천 따지, 웨하르방 선생이난.
 102015 @ 여기 서당 이서낫수과?
 102015 #1 아니. 동카름 웨하르방이 훈장이라고 서당 선생입주.
 102015 @ 살아오명 곤고 싶은 말 잇긴 곶아봅서.
 102015 #2 살아오명, 곶을 말도 어서.
 102015 @ 쉐 맥이레 하영 다녔지양?
 102015 #2 소 맥이는 디.

3. 밭일

103000 @ 오늘은 양, 나록 농사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양. 나록 농사 흐젠 흐민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0 #1 필요하는 건 양, 옛날에 나록 흐젠 흐민 개자리엔 혼 논풀을 흐여와.
 막 비여당, 낭썸, 무슨 낭썸이영 흐여당 논더레, 달루면은 논더레 그 풀을 막 빼여.
 경혀영 발로 막 불러, 그 거를. 그거를 발로 부르면은 이제는 저 거세기 나록 씨 빼
 져 흐면은 나록 씨 빼여그네 발로 영영 행 나두면은 나록이 나주게. 경 했주게 처
 음의 시작할 때는. 따시 나록메 벨 때는 문제흐민 곶아야주양.
 103000 @ 계속 곶읍서.
 103000 #1 경혀면은 나록메가 클 거 아니우파. 나록메 크민 여자덜이 물 덩방흔
 디 낭으로 방식 맨들양 곶아얏양 나록맬 다 메여양. 즈근즈근 메면은 요만씩 요만
 씩 다 무꿍네다. 무꺼그네 열 개문 열 개 툯툯 나두면은 그 논을 이젠 갈아그네, 논
 을 갈 거 아니우파, 나록 싱그젠 흐민. 갈아그네 이젠 선비질 흐여. 그 장남은 앞의
 이끄곡 두의에는 장남 선비질 합니다. 경혀민 따시 선비질 해방 다 달라지면은.

103000 #2 선비가 아니고 서레라.

103000 #1 서레, 서레, 서으레, 서으레. 경흐면은 이제 내중엔 저 날랫명석 짓는 거 닳은 거 즈룩 돋은 거 진 걸로 골롭네다, 그걸로. 자락자락 밀렸다 등겼다 흐명 서으레질 다 흐영 눈을 달좌지면은 이젠.

103000 #2 밀레질.

103000 #1 밀레질, 밀레엔 합니다, 그건. 밀레질을 흐여낱 나록메를 다 뿌려, 눈 달좌진더레. 뿌리민 또 여자덜이 요만씩 갈르명 툅툅툅 싱거. 그거슨 나록맨 다 끝난거주기, 나록 씨. 경흐민 내중엔 따로 그 나록 도사면은 메살름이엔 흐 거 잇수다, 검질 메는 거. 메살름, 짓고라 메살름이엔 해십주. 경 흐민 초불은 가면은 메시가 좋고, 우리가 흘 때 박박 글급니다게. 손으로 막 박박 글경 초불은 메살름 다 흐면은 따로 커그네 이레 야가기레 올라강 각각 찢러볼곡, 또 검질을 메여. 박박 흘트명. 박박 막 땅을 팝네다, 여자 손으로.

103000 @ 검질 메는 걸 머렌 합니다?

103000 #1 메살름.

103000 @ 메살름이엔 합니다?

103000 #1 메살름. 옛날엔 검질 메레 가는 거, 아이고 눈에 메살름 흐레 가사, 경. 메살름이엔 글앗수다. 우리가 눈을 하영, 친정에 하영 버슬어나난 어린 때도 알아집주게.

103000 @ 그 나록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00 #1 그거주게.

103000 @ 나록 언제 메 놔마썸?

103000 #1 저, 스오월에, 오월에.

103000 #2 아니라, 삼월 그믐에 놀거라.

103000 #1 게슨 삼스월이엔 흐는 거주, 나록메 놓는 건. 경 헛당 그슬 들영 비여그네 흘트곡.

103000 @ 아 경 흐난에 나록메 놔그네.

103000 #1 나록메 낱. 나록 키와낱.

103000 #2 키와그네.

103000 @ 음력 몇 월마썸?

103000 #1 음력 구월 나면은 나록 비거던.

103000 @ 아니. 게난 메 놓는 거.

103000 #1 놓는 건 삼사월에.

103000 @ 삼스월 양. 나록메 놀 땐 어떻 놓니까?

103000 #1 그싸 근듯. 나록메 놓젠 흐민 눈을 이제 물 대여그네 갈 거 아니우파. 갈민 쉼로, 쉼로 간다 말이여. 게민 흐랑흐랑 흘 거 아니우파게 눈을. 경 흐민 이제 막 그 달좌노면은 이젠 따로 낭썸, 그 무신 낭썸산디사 흐고 개자리, 개자리 비여당 논더레 문딱 갑니다. 깔민 발로 막 블라, 사름이. 발로 블르문 골라앗일 거

아니우짜. 경 흐면은 나록 씨 빼여 이제. 경 흐영 그 우터레 나록 씨 빼민 나록메가, 나록묘종 나올 거 아니우짜. 경 흐민 나록 크면은 이젠 그걸 여자덜이 나록 싱그젠 흐민 요만씩 갈르멍 싱글 거난, 여자덜이 빌민 앓앙 다섯이민 다섯, 여섯이민 여섯 낭으로 방석 깔앙, 물 대여진 눈에 앓젠 흐민, 경 흐영 그디 깔앙 앓앙 그걸 다 뻘니다. 요만씩 다 무꺼, 여자덜낭으로.

103000 #2 한 포기씩 한 포기씩 무꺼그네.

103000 #1 다섯 개씩 열 개씩 이레 쪽 나라비하게 그걸 놓니다게. 농민 이제 나록을 싱그젠 흐민 눈을 갈 거 아니우짜. 눈을 갈면은 이제 서으레로 ㄱ짜ㄱ짜 서으레질을 하여, 달룸으로. 달룸민 따로 이제 골르게 달뤄지지 안 흐민 이만인 흐 즈록진 거 흐영 미는 것고라 며옌 흡니까?

103000 #2 밀레, 밀레.

103000 #1 밀레. 밀레로 그레 득것다, 저레 등것다 나록 판을 짝 골름네다. 경 흐민 나록 이레 메여 눈 걸 따로 다 빼여. 하나씩 하나씩 다 빼민 여자덜이 또 싱글 거 아니우짜. 요만씩 요만씩 갈랑 툽툽툽툽 줄 짓엉. 열이민 열, 나록메가 흐말지기 두말지기 서말지기 잇는 따문 그것에 세여그네 놓을 빙주게. 경 흐민 쪽 흐영 싱거갑니다. 이제 테레비에 보듯이. 경 흐영 싱경 나두민 커가민, 경 요만씩 올라오민 초불검질, 메살룸, 초불검질 메영, 메살룸이옌 흡니다, 것고라. 경 흐영 두불은 또시 두불검질 메곡. ㄱ랏 메곡. 나록에도 ㄱ랏이 이서. 나록 씨는 그거. 물 대곡, ㄱ물아시민 물 대곡, 벌러지지 못하게. 흐랭이 잇고 강답 잇수다, 논도. 흐랭이는 요 ㄱ지 막 들어가는 논이고, 강답은 요만이빠끼 안 들어가는 거고.

103000 @ 그 다음에 양 나록 농사 걸름 잇수과?

103000 #1 걸름 그 나록 씨 빼젠 흐민 풀 빈 개자리영 그것이 걸름. 나록 씨 뻘되.

103000 #2 계난 그 개자리 흐연 깔안 거 우트레 씨 빼영 나록 나기 시작흐민 그 풀 의지로 해그네.

103000 #1 경 흐곡게 커가민 비료도 주곡게.

103000 @ 무슨 비료 줏수과?

103000 #1 몰라. 무슨 비료 옛날에 요소주게. 옛날엔 하간 각자 하영 안 나오난. 경 구월 나른 나록 빙니다.

103000 @ 나록썬 어떻 뿌립니까?

103000 #1 나록 씨 기냥 작작 빼주기, 손으로. 영 그릇에 으정 텅기멍 작작 빼주기. 나록 씨는 처음에 집의서 물 등강 나뉘야 웨여. 다라고 멋이고 큰 것에 물 등갓당 건정 물 빠지른 으정가그네, 이제 그걸 으정 텅기멍 장남이 빼던지 여자가 빼던지 나록 씨 뻘니다게. 우린 친정의 논이 하노난 나 어린 때부터 논에만 자꾸 가나난.

103000 @ 그 다음에 나록 예, 검질은 몇 번 뻘니까?

103000 #1 두불게. 메살룸이라고.

103000 @ 계난 나록 검질 멜 땀 어떻 메여마썸?

103000 #1 두불게. 박박 땅을 막 파. 막 손으로 무랑무랑 췌멍. 이디 영 골로 싱 거주민 나록 트멍마다 나록 이만씩 펼기 흐민 트멍마다 막 손으로 눈을 후갈아, 우리가. 메살룸이라고.

103000 @ 거난 요 머냐, 요 미는 거.

103000 #1 미는 거는 저 거세기게. 눈 달황 나록 싱그젠 헤사게. 서으레질 흐여 그네.

103000 @ 아니. 거난, 나록흐곡 나록 사이에 영영 흐는 거. 나 해나신디.

103000 #1 거 중간에사 기계 나왔주게.

103000 #2 옛날 낭으로 맨들앙.

103000 #1 예. 췌로도 나오랏수다.

103000 @ 거 머옌 흡니까?

103000 #2 거 메살림옌 흐는 거주게.

103000 #1 메살룸흐는 기계게. 이젠 기계 좋은 때난, 우리 클 때는 기계 엇이난 손으로만 흐엿주기.

103000 @ 거난 저 남자 삼춘 처음부터 끝까지, 끝에 강 말 낮추와불지 말곡 또 박또박 말흡서양.

103000 #2 예.

103000 @ 그 다음에 나록에는 어떤 검질덜이 자랍니까?

103000 #1 검질, 눈에 풀 나주게. 물 우로 막 나와. 물 소굽에서 나오면은 손의 로 막 검질 신 디고 엇인 디고 무랑무랑 췌옌주게. 눈을 갈아져, 손의로 막. 것이 검질 메는 거.

103000 @ 계난 무신 풀덜.

103000 #2 풀이옌 흐 건 이 저 물피.

103000 #1 아니. 물피도 잇고 저 주랑흐 거, 눈에 나는 거 모양에 깰는깰는 흐 거, 것고라 무신 왕풀? 그거 이서. 밧디도 눈에 나는 풀 잇젠 흐멍 우리 막 검질 메 지 안 흐엿수과게.

103000 @ 그 나록 수확은 어떻 흡니까?

103000 #1 수확은 양, 경 흐영 고고리 펼 거 아니우파게. 경 흐민 그 나록 말고, 나록 저 거세기 물피. 것고라 물피옌 흡니다. 물피 뽑으레, 저 메레 땡깁니다. 건 데 꺾불 거. 물피 나록 아니고. 그거 해나민 이제 ㄱ실 들민 호미로 다 비여. 옛날엔 기계로 안 비여, 기계 엇이난. 호미로 다 나록을 빙주게. 경 흐영 나란히 노민, 그 눈은 물 빠지왔당 나록 흐젠 흐민 물 빠지와불주게. 경 흐민 므른 논더레 다 비여 낱, 코짱히 조 비듯 비여 노면은 물리우면은 이제 흘트는 거, 보리 흘트는 기계 닦은 거, 나록 흘트는 거.

103000 @ 거 기계 머옌 흡니까?

103000 #1 거 나록 흘트는, 거 무시겨우파? 보리 흘타난, 옛날 것고라?

103000 #2 것고라 멋엔 혼다마은.

103000 @ 나록클?

103000 #1 나록클은 홀트는 거게. 나록클은 내중에 이렇게 도르기 돌란에 이만 씩 무건 해나고. 나록 홀트는 건 보리 홀트는 거영 똑ㄴ쁜 거.

103000 @ 나록클.

103000 #1 응, 나록클. 홀트레 가는 거. 경 구월 나쁜 힙니다, 나록 비는 건.

103000 @ 도깨질은 안 힙디가?

103000 #1 도깨질 나록이 죽은 사름은 도깨질을 혼주만은, 밧디 가그네.

103000 #2 작으마혼 사름덜이 도깨질을 혼곡, 하영 혼 사름덜은 도깨질 못 혼여 게.

103000 #1 밧디 클이영 문딱 으정 가그네 짝 시꺼오곡, 쉼로 나록 혼영 멩텅이 에 담아그네 짝으로 무경 나록 집더레 시꺼오곡 했주, 짜끄만 혼 거주, 도깨질 못 힙니다.

103000 @ 나록 쓸로 멋 행 먹읍니까?

103000 #1 나록쓸은 곤밥 혼영 식게 혼곡, 멩질 혼곡게. 곤밥 옛날 보리밥 먹을 때 그거주게.

103000 @ 밥만 힙니까?

103000 #1 밥만 혼주게.

103000 #2 밥도 혼영 먹곡, 죽도 썩 먹곡.

103000 #1 나록 옛인 사름은 보리밥 먹곡, 그 사름덜토 식게 멩질에만 햄주 무 신, 곤밥 먹엇수과 옛날에.

103000 @ 떡은 안 힙디가?

103000 #1 떡도 혼곡게, 그걸로게. 식게 때 떡도 혼곡 다. 나록쓸로. 방애에 정, 들ㄴ래에 정. 기계라도 시민 혼주만은, 들ㄴ래에 정, 옛날에.

103000 #2 식게 떡 혼곡.

103000 #1 식게 떡 술벤 절벤 혼곡, 침떡 혼곡, 고달떡 조떡 혼곡 막 해낫주게. 그건 나록쓸 주장했주게. 이젠 하간 거 이서도. 좁쓸로 조떡도 혼곡.

103000 @ 그 나록 짝은 어멩 사용했수과?

103000 #1 나록 짝은 무꺼그네게, 멩석도 즐곡, 멩텅이도 즐곡게. 경 했주게, 옛 날은게. 보리 무끄곡, 나록 짝으로 깨 틀영. 그거 뿐.

103000 @ 나록 농사에 얽힌 추억, 잇걸랑 글아봅서.

103000 #1 옛인 사름은 나록쓸도 옛영 늬의 눈에 강 부름씨 혼영 혼 말씩 두 말씩 빌어 오곡.

밭벼 농사

103039 @ 산디 안 해봄디게예?

103039 #1 산디도 혼여. 밧디, 산디는 므른 밧디.

103039 @ 계난 산디 해봄디가?

103039 #1 응. 산디도 같아났주, 우리 아버지네, 밧이 하노난. 산된 씨 빼영 물로 불리메. 딱로, 산디왔은.

103039 @ 산디 농사는 어떤 준비를 홉니까?

103039 #1 산디 씨 걱정햏영, 나룩 씨 햏고 산디 씨는 틀리거던. 틀립니께게. 틀리면은 밧디 변햏 나뒗당, 곱닥햏게 검질 메곡 햏영 나뒗당, 산디 씨를 빼여. 산디 씨를 작작 햏게 스나이 주인이 강 빼면은, 이젠 물로 막 불립니다, 산디왔덜. 불리민 걸로 끝. 경 햏영 이추룩 나가민 여자덜이 검질 메레 텅기주, 초불이여 두불이여, 산디왔디 검질 혼나불어. 절완지 주장햏영 나곡, 여름 검질.

103040 @ 경햏민 산디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40 #1 산디 씨 봄게, 봄에 빼여. 삼스월에 홉니다.

103040 @ 나룩이영 꼭ㄴ땡니까?

103040 #1 똑ㄴ따, 똑ㄴ따, 산디 농사는.

103040 @ 계난 물이나 밧이나.

103040 #1 물은 안 가고 밧디.

103040 @ 우뜨르에서 주로 햏지 안 홉니까?

103040 #1 예. 우뜨르 밧디덜게 막 햏주. 나도 검질 메레도 만이 텅기고, 우리 집원 밧 한 집이난 산디 햏고 콩 햏고, 지랄연병을 다 햏수다, 어린 때. 이제 우리 연세가 막 검질만 멘 사름덜이주게. 그르후제 난 사름덜은 세상 몰르고.

103041 @ 밧디, 산디 걸름.

103041 #1 산디 걸름 어서.

103041 #2 걸름 안 햏영 비료.

103041 #1 비료 주는 사름은 주곡, 안 주는 사름은 안 주곡. 산디 왔디 걸름은 엇수다. 보리가 걸름이주, 다른 것엔 걸름 어서.

103042 @ 산디 씨 어떻 뿌립니까?

103042 #1 기냥 줍씨 빼듯 밧디 강 작작 빼여부는 거. 기냥 빼여부는 거, 므른 채, 건 물도 안 등그곡 기냥 빼는 거. 우리 시절의나 빼끼 산디 햏는 거 몰라. 이루 후에 난 사름덜은 몰라. 우리 연결에가 산디여 콩이여 알암주.

103042 #2 지금도 저 우뜨르레 가민 산디 햏영 같암주.

103042 #1 므른 밧디 산디 같암주게. 나룩 씨로 밧디 산디 모양으로 모실포 저레 가민 밧디 물 안 대여도 막 햏여.

103042 #2 물 안 대여도 나룩 씨 빼여그네 나면은 자꾸 물 줍주게.

103042 #1 나룩 씨 나사 물 준덴, 마농에 물 주듯, 이 서촌더레. 나룩도 밧디 햏주게, 막 맛좋아. 밧디 나룩 햏 거 잘도 맛 좋아, 밥이.

103043 @ 산디 검질은 멧 번 맵니까?

103043 #1 산디 검질은 햏이 어서. 초불 메영, 두불 메영, 지스민 따시 메곡 따시 메곡 햏이 어서. 밧디 검질만 지스민, 나룩 따문에 검질 메는 거난 수정이 어서.

103044 @ 산디왓 검질은 어떤 검질덜 잇수과?

103044 #1 절완지, 숙 그런 거 낫주기. 절완지가 주장 나.

103044 @ 다른 검질은?

103044 #1 다른 검질은 잡검질 하영 나난 무슨 검질산디사. 우뜨르 밧디 무신.

103044 #2 뜬 검질이엔 혼 건 물므작쿨 그쁜 거, 그랏 님은 것이 검질이역 막 서꺼정 납니다게. 게민 그랏이영 절완지영 그찌 막 맵주게.

103045 @ 그 산디 수확은 어떻게 됩니까?

103045 #1 산디 수확은 좋으민 하영 나곡, 구지민 즉영 나곡, 수확은 밧에 메영 나는 거주게. 거난 수확 나는 거는 혼이 없어. 조민 수확이 만이 나고, 나쁘민 수확이 편찍혼 밧도 있고.

103045 @ 수확 혼젠 혼민 비영.

103045 #1 비영 홀트는 거주게, 나록 홀트듯. 건 무꺼당 집의서 홀트메. 쉼로 시꺼당.

103045 #2. 옛날이야 다 마찬가지로, 집의서 거세기 혼는 건.

103046 @ 산디 쓸 혼영 멀 됩니까?

103046 #1 산디 쓸 혼영 곤밥도 혼영 떡곡게, 나록 쓸 혼듯 떡도 혼곡 다 했주게. 부주도 혼곡, 사돈칩의 혼 말씩 저가곡게.

103047 @ 산디 찍은 멀 했수과?

103047 #2 쉼도 주곡 물도 맥이곡.

103047 #1 산디 찍은 쉼도 주곡, 기자 물도 맥이곡. 산디 찍은 쉼출 주장했주, 산디. 기냥 내부는 사름도 있고. 밧디 내부는 사름이 하.

103048 @ 산디 농사에 얽힌 추억 혼번 말해봅서.

103048 #1 추억은 무신 그거주게. 다른 거 어서. 검질 메레 텅경 고생만 했주 무신.

103048 @ 산디 혼명 물웨도 가끔 보이곡.

103048 #1 아니. 밧디 검질 메레 가젠 혼민, 산디 검질 메레 가젠 혼민 밥 혼영 질구덕에 상지착 우알칙의 잔뜩 담양 강. 웨도 으정 가민 칼이라도 으정 가주, 웨 으정 가문 물탁물탁 수까락으로 그차냥 국 혼영 먹으명 산디 검질 메곡 했주게. 경 혼영 물 죽으민 저오렌 안 혼민 좋아. 통물 오란, 감산이서 통물 질레 오라났주. 난 아오난 물만 질어오렌 혼여.

고구마 농사

103049 @ 그 다음엔 감저 농사에 대해 들어보쿠다. 감저 농사 혼젠 혼민 어떤 준비가 필요릅니까?

103049 #2 감저 농사 혼기 시작혼민, 봄 나민.

103049 #1 감저 씨 묻어.

103049 #2 감저 씨 이제 혼민 거, 이제 밧을 준비힐 거 아니우파게. 밧을 준비

흐민 보리 갈아난 보리그르에 이젠 감절 싱그는디, 그때는 게 보리밭을 번혀.

103049 #1 것이 아니고, 감젓메를 놓주게, 처음엔게.

103049 #2 밧이영 번혀 놔야 딱로 감젓메도 놓지 안 혀게.

103049 #1 감젓메 봄 나른 나뉘, 밧 번혀고 경 홉니다. 여름에 감저 싱그는 거 아니우짜게.

103049 #2 여름이나마나 오월.

103049 #1 오월 마에 싱그는 거주게, 감저줄 끼차다그네게. 봄윈 메 놓곡, 감젓메 놓곡. 감저씨 행 나뉘당. 감저씬 구텡이 팡, 느람지 더끄고 혀영 감저씨 묻엇당.

103050 @ 거민 양, 감저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1 감저 싱그는 거?

103050 #2 오월들에.

103050 #1 오월 장마에 싱그는 거. 처음엔 메 놔야 뉘여, 감젓메 낱. 구텡이 파그네 감저씨 혀여당 구텡이 팡 더경, 검질 끌고 혀영 더경, 느람지 더젓당 씨를 느람지 더젓다그네 감젓메 놓젠 흐른 걸 파. 썩은 걸, 막 썩어부는 구텡이도 싹고 안 썩은 구텡이도 싹고. 걸 골려당 멜 놔, 감젓멜, 메중을. 감저 메중 놔그네 비료 주곡 오줌 주곡, 옛날엔 막 헛다그네 감저 싱그젠 흐른 오월 마에 줄 기창 정 강 싱것주게. 요만씩 요만씩 즐라그네게. 경 혀연 밧디 싱것주게. 경 혀영 팔뉘 나가른 들영 구월 나른 감저 파.

103051 @ 그 다음에 양 감저밧 걸름은 어떻 마련홉니까?

103051 #1 걸름 어서. 감저왓은 그냥 생밧디 감저 갈아그네 오월 마에 갈민 그 고지레 감저줄 해당 요만씩 요만씩 즐라당 싱그민 그것이 감저.

103051 #2 비료 뿌렁 싱그주.

103051 #1 비료도 주는 사름 싹고, 아이 주는 사름도 싹고. 그건 홉 유 엇고.

103051 #2 옛날엔 엇이난 헛주만, 이젠 비료 안 주민 안 뉘주기.

103051 #1 이젠 감저 싱그는 사름도 엇곡게, 옛날엔 주장 감저만 싱것주게. 감저 뺏데기 공판헛수게, 우리가.

103052 @ 감전 어떻 싱급니까?

103052 #1 감저줄은 양 감저 메 논 뉘 물탁물탁흔 거난 비여. 비여 노민 밧디 이젠 비여 논걸 그냥 정 가. 그냥 큰 냥, 홉근냥 정 강, 혼 펜이 앓아두서 똑 요 지러기씩 다 즐라. 경 즐랑 고지로 연줄로 혀영 쪽 싱거가주게.

103052 #2 싱글만씩 혀여그네 끈을 거주.

103052 #1 싱글만씩. 경 혀영 싱거가는 거.

103052 @ 메 논 디 가그네 비여당.

103052 #1,2 비여당.

103052 #1 정강.

103052 #2 밧디 으정강.

103052 @ 가정 가그네.
103052 #1 졸랑, 요만씩.
103052 @ 혼 뗏 쉐치 정도?
103052 #1 똑 요 지력지 웨여, 요 지력지. 게난 뗏 쉐치사 웰지. 봄으로 두 개 스뭇 하지 안 햏여. 너무 질게 기차도 싱금이 굿주게. 요 꼬땡이로 요레만 감저 드는 거난.
103052 @ 게 어디 싱급니까?
103052 #1 밧디게.
103052 @ 밧디 어디?
103052 #1 아무 밧디라도, 이넉 밧 신 사름은 이넉 밧디 싱그곡, 늡의 밧 신 사름은 늡의 밧디 강 싱그곡. 보리 그르에 감저 싱그는 거, 보리 비여땡.
103053 @ 그 다음에 감저밧디 검질 뗏 번 뺨니까?
103053 #1 검질은 뗏 번산디 그자 감저줄 덤방 햏민 우트레 올라오민 메곡, 감저 파 먹으멍 드러 메는 거.
103053 #2 초불 두불 세불 7지 메지.
103053 #1 세불만 뺨서 드러? 감저 밧디 검질이 더 나 뜨로, 감저줄 더꺼져도. 경 햏민 감저줄 영 영 헤쳐그네 이염드레 노멍 고랑으로 검질 메여갑니다게.
103054 @ 감저 밧디 어떤 검질덜 낡니까?
103054 #2 절완지엔 혼 거영, 7랏이엔 혼 거영, 그자 자쿨덜 하영 나주.
103054 #1 절완지가 하영 나주, 여름 검질은.
103054 @ 절완지 햏고.
103054 #1 속도 나고. 밧에 매주게. 밧디 검질 씨진 밧은 하영 나고, 경 아니 햏영 감저줄 탁 더꺼져분 밧은 아니 메는 사름 아니 메곡, 밧에 매는 거. 경 햏영 감저 파 먹으멍 검질 메여, 검질 짓은 밧은.
103055 @ 그 다음에 감저 수확은 어떻 햏니까?
103055 #2 잘 들민 하영 나고.
103055 @ 경 햏난 어떻, 쉐 처음 감저줄 걸어야 햏거 아니우파?
103055 #1 감저줄 경 걸어땡, 그걸 뜨로 잠대로 같거든, 감저밧을. 같민 조름의 서 감저 좇어.
103055 @ 아 거난에 감저줄 걸을 때 멀로 걸엇수과?
103055 #1 호미로게.
103055 @ 쟁기로 걸지 안 햏수과?
103055 #1 장기로 걸는 사름이 드물어. 장기로 뭇 걸어지질 못 햏주게.
103055 @ 쟁기로, 뺨 떼여땡그네 낭으로.
103055 #1 게난 그런 사름덜은 고랑으로만 감저줄만 영 영 테여췌 나두른 비는디, 주로 호미로 밍니다, 밍밍 등그리멍 문썩.
103055 @ 경 햏영 비여그네.

103055 #1 경 흐영 내불어뒤그네, 이젠 감절 밧 갈앙 좃어 곳일 거 이니우파.

103056 @ 감전 어떻 보관했수광?

103056 #1 구덩이 팡, 검질 낄앙, 어욱이고 무슨 찍이고 낄앙 그레 감저 막 비와냥. 경 흐영 또 검질 더경, 느람지, 그 새로 느람지 여퍼그네 느람지 둘렁 더경 나뒀당 봄 낭 또시 팟주게. 느람지 견어똥 감절 팟주게.

103056 @ 느람지만 했수광?

103056 #1 느람지만 했주게.

103056 @ 느람지 위에 더끌 거.

103056 #1 더끌 거 어서.

103056 @ 주쟁이.

103056 #1 주쟁이 우의 더끄믄 매기.

103056 @ 게 그걸 즈세히 곱서게.

103056 #1 주쟁이. 이견 느람지 벵 돌르민 곡데기 트멍 나지 안 흡니까, 이추룩 흐믄. 게믄 주쟁이 멘들앙 툃 더꺼불민 브름 견어지카부덴 베로 억던지 돌로 지돌르던지 경 흐는 거.

103056 @ 감저 구덩이 말고 백장엔 안 뇨디가?

103056 #1 백장엔 이제사 남주게. 옛날에 그 작산 감절 어떻 백장에 놔. 이제 사름덜 헤꼬만 밧 구석에 흐 발씩 싱그는 사름게. 옛날엔 그 작산 감저 구덩이 판 묻업주. 감저 구덩이가 족족 팟니까게.

103056 @ 감저 구덩이 멧 개 해납디가?

103056 #1 감저 구덩이 하나도 흐곡 두 개도 흐곡. 감저에 매여.

103056 #2 보통 두 개로 흐주.

103056 #1 두 개로 물어. 이녁 손 디밀영 강 파 떡곡. 파당 숲앙 아기덜 벅이곡, 남은 거 씨 흐곡. 우리 월평 감저씨 사례도 가나서, 문딱 썩어부난.

103057 @ 그 감저론 멀 했수과?

103057 #1 감저로 무시거, 숲앙 떡곡, 감저 뵘대기 방애 ㄹ루 흐영 떡도 쳐 떡곡 경 했주. 게난 공출 해불곡 감저 순 숲앙 정심으로게, 옛날은 먹을 것이 엇이난, 보리밥 흐영 감저로 막 양식을 흐연 살앗주게, 우리가, 엇는 집에는.

103057 @ 게난 절간, 게난 감저 뵘대기도 흐고. 그 다음?

103057 #1 뵘대긴 풀고, 거 뿐이주게. 감저 뵘대기 ㄹ루 맨들앙 즈배기도 행 떡곡, 떡도 행 떡곡.

103057 @ 썩감저로는 안 폍디강?

103057 #1 썩감저로도 막 받아가, 상인 오랑. 받아강 돈도 못 받아내분 사름덜 토 하곡. 썩감저로 밧뵘로 막 파당, 감저 깎 주지 안흐 사름 하서.

103058 @ 감저 쿨로는 머 했수과?

103058 #1 감저 줄긴 썩 벅엿주게. 건 물리왕 썩출.

103058 #2 썩출, 썩출.

103058 #1 감저 싱글 때는 양, 요만씩 쫄를 때는 꼬뽕이 순 요추룩 꺼깁 떼와그
네 웅장 찍영 정심 반찬 흥곡 경 해서. 떡을 거 엇이난.

103058 @ 계난 쉼출?

103058 #1 쉼출. 감저줄은 쉼출.

103059 @ 감저 농사에 얽힌 추억 흥번 말해봅서.

103059 #1 추억은 그거주 무신. 감저 싱글 때는 덩곡 얼떡곡, 오월 마 나부난.
비 잘잘 오명 맞곡. 싱그곡. 고생 만이 해주게. 옛날 우리 살때사 거 사름 사는 거
라. 감저줄 죽으믄 집의 오랑 감저줄 비영 정 가젠 흥믄 스뭇 얼떡곡. 경 흥여났수
계게. 그거 우리 시절 추억이라. 감저줄 저 오지 말렌 흥믄 질 좋아, 얼떡는 거, 고
생흥는 거. 쉼로 시꺼가는 사름, 등짐으로 저 가는 사름이 해주게. 감저 싱그레 가
는 사름 문딱 흥 짐씩 정 가. 경 흥연 밧디 강 앓앙 요만씩 쫄랑 싱그곡. 경 해주
게. 오월 마에 비 줄줄 맞으명 싱그곡. 오월 마에 감저 싱그는 거난. 유월절 전의
싱거사, 옛날 감저는. 유월절 넘어불민 감저 아이 든텐 흥명.

103059 @ 감저 과당 보민 주녕이도 하영 나오지양?

103059 #1 계. 주녕이 나오믄 심어그네 풀곡계. 주녕이 잡으레 텡기는 사름 하.

103059 #2 주녕이 물어그네 손 알령 처메곡 흥영 벨 짓덜을 다 흥여.

103059 #1 주녕이 뭍도 흥곡. 우린 주녕이 심어 풀아보진 안 흥옛주만은 주녕이
심으레 텡기는 사름 하메.

기타 농사

103060 @ 그 다음에 그 수박 갈아봅디가?

103060 #1 아니. 난드른 수박 농사 흥는 사름 엇수다.

103060 @ 안 갈아봤주만은 수박은 어떻 농사 지읍니까?

103060 #1 수박은양, 구뽕이 팡, 그레 걸름을 놓던지 무시거 흥영 수박씨 꼭꼭
썰럼주게. 호박씨 흥듯 꼭꼭 썰르는다. 요즘에는 호박으로, 호박썰 묻어, 묻으면은
호박 나가민 수박 그차당 접목시키는 거라, 폴레 텡기는 건. 옛날엔 그런 것이 엇는
데, 이제는 그거라, 접목시켜, 영 맞대가레로. 수박은 경 흥는 거, 구뽕이 팡.

103060 @ 계믄 머, 싱경만 네불민 수박이 읍니까?

103060 #1 계. 수박 걸름 주곡, 수박 장시 흥는 사름덜은 다 밧딜로. 난드른 수
박 뽕지도 아니 흥곡 싱그지도 아니 흥곡.

103060 @ 수박 순도 톤아야 뽕곡.

103060 #1 순 톤암실거라, 지네대로.

103060 #2 순 톤아야 뽕여.

103060 #1 순 톤암젠 흥디다.

103060 #2 멧 님에 강알로 톤 흥게 순 나오는 거 쫄랑 네불민 거길로 이제 순
나오명 제라흥게 수박이 올릴 거주게.

103060 #1 도막도막 므지로 나는 거난. 호박도 므지로 올메. 호박도 우녕에 낱
나두믄. 므지로 일로 고장 피영 올메. 수박이나 호박이나 똑ㄴ똥 모양이라.

103061 @ 춤웨 갈아봄디가, 춤웨?

103061 #1 춤웬 놔낫주.

103061 #2 수박이역 한 까지.

103061 #1 춤웨도 구텡이 광 춤웨씨 뽕뽕 돌아가멍 꼭꼭 손으로 질러. 경 햏영
나민 좇으민 메영 데껴불곡, 그거 크민 춤웨, 우막곡 행 나두민 춤웨 올민 타당 먹
는 거. 춤웨 장시도 안 햏여보곡.

103061 #2 춤웨도 마찬가지로, 수박 햏는 거나.

103061 #1 경 햏여도 춤웨가 더 공들어.

103061 @ 게 어떤 공이 들어?

103061 #1 그 쥌쥌해부난게. 씨 빼여그네 영영 꼭꼭 손으로 누들민, 이녁 먹젠
하르방덜.

103061 #2 송둥이 막 일민 송둥이 잡곡. 그만큼 얼먹어.

103061 #1 게난 이제사 춤웨 놓는 사름이 이서게. 장시 땡기민 사먹어불엄주.

103062 @ 고치 갈아봄디가?

103062 #1 꼬치사 우녕에.

103062 @ 거 햏번 갈아봄서.

103062 #1 메 사당 이녁냥으로 꼬치메 빼영 나눈디, 이제는 쥌게 햏젠 오일장에
장 꼬치메 사당 꼭꼭 싱경 나뉘주게.

103062 @ 옛날은?

103062 #1 옛날엔 고치 경 하영 갈도 안, 멘네왓디 놓곡 옛날엔, 멘네 갈민 멘
네왓디 강 씨 빼영 나뉘 멘네왓디 멘네 타레 강 고추 타 오주게. 고치 하영 먹어서
게 옛날에사. 경 햏주. 이제 꼬치메 사당 우녕에 이녁 먹을 거 풀꼬치 타 먹곡, 웬
장 찍영 먹젠 풀꼬치 탕 매운 거여 안 매운 거여 사당 메종 싱검주게. 옛날엔 멘네
왓디 주장햏영 하영 놔, 그 꼬치메. 경 햏영 멘네 타레 강 막 하영 탕 오메, 옛날엔.
옛날엔 고치 가는 사름도 옛곡, 김치도 경 하영 먹지도 안 햏곡게.

103062 #2 고치 가는 거 전문적으로 햏는 사름이 어서노난게.

103062 #1 짐치철에 보민 고치 낱 짐치 햏는 사름도 멧 개 어서.

103062 #2 전문적으로 가는 사름 같아시민 고치 타기 시작햏민 쥌미집니다.

103062 #1 우리 딸도 고치 타레 땡기멍 돈 버슬고렌 햏메. 장에 푯는 고치 맛대
가리 옛뎡 햏명 이딧 고치 사오메.

103064 @ 경 햏고 저 늣뻐.

103064 #1 늣뻐도 씨 빼영 나두민 나는 거. 소까불곡 햏는 거주게.

103064 @ 거 어떻 갑니까?

103064 #1 옛날엔 우녕더레 늣뻐씨 박박 빼영 나두민 나는 게 그걸로 늣뻐가
뉘엿주게. 큰 밧디 장사 햏는 사름이 이서, 옛날에도. 우녕에 씨 빼영 이녁 송키고,

이건. 늪뻘 씨로 뻘영 내부는 거.

103063 @ 그 다음에 배추.

103063 #1 배추도 마찬가지로. 씨, 배추씨 뻘영 소까뵈, 좇이민 소까뵈, 옛날엔 오줌 쳐다그네, 향아리에 오줌, 단지에 싸민 비왕 나뵈당 썩으민, 허벅으로 쳐당 그 배추에 조록조록 주멍 경 흥영 짐치 담앗주게, 옛날엔. 경흥디 이 난드른양, 나가 씨집오란 보난에, 그 메역흥는 망시리에 늪물을 캐어단 담읍디다. 어딜 정 간, 바당 어염에 강 통에 간에 특 녹전 돌 지들랏단 옷어당 짐치 흥연 먹언게게.

103063 @ 계난 소금 역할 흥는 겁주.

103063 #1 촌물, 소금 죽영 들젠 촌물에 강 둥그는 거. 옷드르사 소금물에 둥그 주만은, 이딘 오란, 어딜 쳐 감신고 흥단 보난에 통에 간에 망시리 특 녹전 돌 지들랏단 건정 오란 짐치 흥디다. 계난 소금 안 들젠 촌물에 간 크는 거.

103063 @ 거 머냐, 썩 어신 늪뻘.

103063 #1 옛날엔 썩이 하지 안 흥여. 이제난 썩 늪물 빼끼 엇는, 옛날엔 썩 앓인 늪물이 드물곡, 기냥 보통 배추라노난 그런 거라도 짐치가 맛만 좋았어.

103063 @ 퍼렁흥 늪뻘.

103063 #1 예. 피시구렁 흥 걸로. 계난 양념도 경 맛 좋게 해서? 새우젓이 어디 이서.

103063 @ 계난 언제 늪뻘 갑니까?

103063 #1 늪물은게, 이제 이른 봄 나민 늪물씨 뻘영 늪물 갈아야지, 여름에 흥영 먹주게. 경 흥영 팔뵈 나 가민 캐영 짐치 했주게.

103063 @ 늪물썩어 어떻 멩글양?

103063 #1 늪물씨 사다그네. 우녕에 뻘, 씨 세왕 경 흥영 닥닥 털어나두민 그 씨로 박박 뻘엇주게. 이제는 경 안 흥주게. 씨 사당, 시장에 강 문딱 사당 했주. 우리 어릴 땐 경 해서. 씨 늪물 동지 세왕, 그 씨가 익으민 독석이고 멋이고 폐왕 닥닥 두드리민 씨가 털어지지 안 흥니까. 털어지민 그건 냉경 나뵈당 씨 뻘영 갈곡. 유채 갈아그네 걸로 지름 빠다 먹곡. 야채 지름, 꿩 지름이 경 합니까. 야채, 야첸 그거라 그 늪물을 지름 빠다 먹엇주. 춤지름이 경 하질 안 흥주게. 어느 저름에 춤 지름 먹고 흥연 살앗수과. 그땐 배추지름, 이젠 야채지름, 그땐 배추지름. 옛날 산 말이사 먹는 것도 즐바로 못 먹곡게.

103065 @ 감자 농사 지어봄디가?

103065 #1 감저사 맨날 싱것주게, 매해에.

103065 @ 아 지슬, 지슬.

103065 #1 아 지슬! 지슬은양, 지슬은 이제는 고지로 밋밋 썩 놓는다, 예날은.

103065 @ 옛날 걸로 곱읍서.

103065 #1 계메 옛날은 구뵈일 팍디다. 요만씩 요만씩, 밋디 가민 구뵈이 파민, 집의 시궁통이 이서. 시궁통 흥민 씨레길 비왕 나두민 다 걸름뵈지 안 흥니까. 계메 그거 곱체로 날라다 놔그네 밋디 강 비왕 나뵈당 그 구뵈이 판디레 솔박으로던지

그 걸름을 툭툭 놔. 걸름을 낳 이젠 영 더꺼그네, 썰 흘그민 벌르곡 그냥 흐영 썰 세 개민 세 개, 네 개민 네 개 구덩이에 밧디 다 낳 나뉘. 게문 굳올리레 가곡, 흑 올리레 가곡, 검질 메레 가곡. 경 헛당 우리가 파레 가젠 흐민 문딱 아이 판 때 파 레 가민 물에 씻으레 가민, 거 멧 굳 판 거 잘 들엇저이, 세 굳 판 거여 네 굳 판 거여 다섯 굳 판 거여, 경 해낫주게. 지슬 파당 매날 숲양 먹곡, 지슬로 양석을 했 어.

103065 @ 걸름은 아까 무스 거로

103065 #1 시궁, 시궁통에, 담 다왕 시궁통을 맨들앙 나뉘. 게문 마당이든 문지 레기영 막 그레 담지 안 흡니까. 게문 거 썩으른 걸름 돼지 안 흡니까. 경 흐민 굴 체로 밧것디로 내청 지슬 논 밧디레 저다 놔. 늣을 빌엇던지 저다 낳, 경 흐민 구덩 이 판 디레 굴체로 흐멍 툭툭툭툭 비와그네 이제 흑 더꺼그네 지슬썰 꼭꼭 질렁 나 뉘당 지슬이라.

103065 @ 게 언제 갑니까?

103065 #1 그거, 것도 마찬가지로 봄. 경 흐영 여름에 오월 마에 파레 가곡.

103065 #2 지슬은 이삼월에 싱그주기.

103065 @ 불치덜은 안 낫수가?

103065 #1 불치 놔. 불치도 농곡, 불치 신 사름은 불치 농곡, 옛인 사름은. 그 시궁통 논 우의도 불치를 헛어, 지슬 놀 때.

103065 #2 옛날에 집의게 굴목 짓곡, 낭불 습지 안 흐여, 낭불 습으민 불치가 하영 나오주기.

103065 #1 온돌 흐민 불치 놓는 디가 있지 안 흐우파. 이딘 솟 앓지곡, 이 뒤에 맨 불치. 게민 그거 담아당 지슬 놀 때영 밧디. 모멸 놀 때도 쓰곡. 모멸 농사 흘 때도 불치가 주장이라. 불치 시꺼당 느람지 둘러 나두메, 모멸 논 밧은.

103065 @ 게난 지실로는 멀 행 먹엇수과?

103065 #1 게난 지실은 숲양 먹곡 그거뿐이주 무시거라게. 옛날엔 떡을 행 먹 카, 숲양 먹는 게 주장. 옛날엔 보리밥만 먹으난 지실 하영 먹엇주게. 경 흐고 반찬 흐영 먹곡, 지슬 볶양. 이젠 다마네기라도 잇주, 그땐 맨 지슬만. 이멘큼 준준흔 거, 베깁이라도 흐민 좋아. 그냥 거죽 채 볶양. 볶양 먹엇주기.

103066 @ 피 농사 저 봄디가?

103066 #1 피 몰라. 저 동촌 빼끼.

103066 #2 여긴 안 흐여.

103066 #1 피엔 혼 건 풀도 구경해 보지 아이 흐고 몰라.

103067 @ 모멸 해 봄디가?

103067 #1 모멸이사. 감산이 아의 때.

103067 @ 모멸은 언제?

103067 #1 어느 때 흐느냐 흐면은, 봄 나민 밧을 막 번흐여, 모멸 농젠 흐민. 번 흐영 나뉘당, 칠월애 모멸을 놓주게. 모멸을 놓면은 저 불치, 아까꺾 불치 시민

बाटि 시꺼다그네 막 느람지 둘렁 나두메, 나뭇디다게. 그추록 흐민 그거 흐영 나뭇
당 칠월 나민, 모멸골 굿으레 가쟁 흐민, 아척 캄캄흐 때 강 장남 강 모멸골을 짓
어, 경 흐민 이제 여자덜은 승키구덕, 친 멘 거, 옷영 강 모멸쌀 불치레 막 서꺼. 서
경 나뭇다그네 여자덜은 가그네 그거 담으멍 툃 툃 툃 모멸 골 굿어나둔 골마다 고
지마다 골마다 툃 툃 툃 좁아놓주게. 경 흐영 내중에는 선비질. 모멸 여자가 놓면은
선비질을 흐여. 경 흐민 걸로 끓, 모멸팍은. 경 흐영 그슬 들른 모멸 비는 거.

103067 @ 비여그네?

103067 #1 비여그네, 멍석이영 문, 옛날엔 멍석 그정 बात 가. 도깨질 흐여. 모
멸낭 트로 시꺼 오곡, 모멸 트로 시꺼 오곡. 장남 빌멍 모멸 두드리레 가곡, 모멸은
비여 놓면은 집의, 난 모멸 하영 날르젠, 두드리젠 흐민 이만씩 아시날 강 문딱 모
여냐. बात레 영 모여 놓니다게. 모여 노민 그 집의 누겔 빌든지 아인 모멸 두드리
는 되레 그걸 날라가. 날라강 이레 노면은 걸 장남덜은 강 막 두드릴 거 아니우파
게. 두드리민 이젠 모멸낭, 흐 멍석 해나민 모멸낭만 데껴똥 따로 그거 담아똥 따로
모멸을 츠레로 끌아. 경 흐민 따시 이젠 또 두드리곡. 경 흐영 문 두드리지민 모멸
낭 저레 데경, 모멸낭 무끄는 사름이 왕 무그민 무쉬로 시경 집더레 시꺼가는 사름,
경 흐영. 경 흐여똥 그 모멸을 불려, 드룻बाटि서, 불려사 흘 거 아니우파. 불렁 모멸
랑 그냥 시꺼 오곡, 그추록 했수다. 경 흐영 집의 오민 그 모멸은 어떻흐영 쓸을 맨
드느냐. 그래에 거퍼, 그래에. 그 모멸을 파씩 물리우민 들이치멍, 이어똥 흐라, 흐
른 거죽 트로 쓸 트로 나오거던.

103067 @ 거 노래 흐번 해 봅서.

103067 #1 그래야 이 모멸이 까지냐 아이 까지느냐 이어똥 흐라, 경 흐멍 모멸
거퍼주게. 거퍼민 이젠 체로 쳐 그거를. 스래기도 잇고 푸는체로 치민 또 모멸쓸을
푸는체로 곱닥하게 맨들주게. 스래기도 잇곡, 모멸 상품 쓸도 잇곡 경 했수다게. 경
흐영 또 모멸쿠루 곱앙 빙떡도 지지곡, 즈배기도 해 떡곡, 그래에 곱앙.

103067 @ 여기 빙떡이엔 흡니까?

103067 #1 빙떡, 옛날엔 빙떡, 이젠 빙이엔 햄주만은. 사투리가 엇이난 빙이엔
햄주게, 옛날은 빙떡.

103067 @ 우리 동네선 영빈이엔 흐여.

103067 #1 영빈이엔 흡니다, 이디도. 건 이제사 난 말이고.

103067 @ 영빈, 영빈.

103067 #1 영빈은 이제사 난 말이고, 옛날 우리 질 땀 빙떡, 아고 빙 지지레 가
사칼, 솟뚜쟁이에.

103067 @ 영빈이 옛날말 아니우파?

103067 #1 아니. 아니. 영빈은 이제사 난 말, 영빈은. 경 흐디 솟뚜쟁이에 불 습
아그네, 빙 지지는 솟뚜쟁이가 이서이. 경 아이 흐민 바로 밥 해 먹는 솟뚜쟁이에
지지던지, 경 아이 흐민, 부잣칩의는 솟뚜쟁이, 이제 그뜨민 후라이판 모냐으로 이
서. 경 흐민 낭불로 꿩멍이 숭앙 빙을 지젓주게. 이제는 멧 후라이판이여 하근 거

햏영 박박 지저불어도, 옛날에. 그추룩 햏수다. 경 햏고 늣뻘 햏곡 께 농곡 햏영 저 거세기 쪽과, 께마농, 이젠 쪽과주만은 옛날은 께마농이주 쪽과ㄴ라, 께마농 쫘쫘 썰영 늣뻘채레 서꺼그네 이젠 그걸 농멍 빙빙 몰아그네 빙떡이주게. 이젠 쪽판디 옛날엔 께마농.

103067 @ 그 다음, 빙떡 맨들고, 그 다음?

103067 #1 모멸썰 햏영 굴알 즈배기도 햏 먹곡게. 세미떡도 식게에 맨들곡게.

103067 #2 돌레떡도 맨들고.

103067 #1 옛날엔 영장밭디 등절비. 곤떡으로도 등절비 햏곡, 그 상뒤 테우는 거 세 개민 세 개민, 경 햏민 모멸은 이만씩 벵돌락햏 다데. 그건 상뒤 테우는 거. 경 햏여낫수게, 모멸은. 경 햏수다게.

103067 @ 그 다음에.

103067 #1 죽 썰 먹곡. 묵 햏곡.

103067 @ 모멸채로는?

103067 #1 모멸채 베개에 농곡, 비와뽕도 햏곡. 불치레 강 낱 햏디 굴묵 진어불 곡. 베개에 농곡. 경햏주. 이젠 모멸채 베개가 어서. 사름은 모멸채 베개가 최곤디 이젠 모멸채 베개가 엇입니다.

103067 @ 무사 아기 나난 다음에 모멸.

103067 #1 아기 나난 건 메역곡, 거 모멸로 즈배기.

103067 @ 피 삭인덴 햏영.

103067 #1 피, 피 삭인덴 햏영 모멸, 메역 바라바락 농멍 쑤영 맥엿주게. 이제사 무슨 병원에 나곡 그게 맥염수과. 안 맥입니다. 햏 닷썰 햏 맥여, 아기 어멍. 시어멍 이.

103067 @ 그 다음에 모멸냥은 며 햏수과?

103067 #1 모멸냥은 물리왕 지들컷도 햏곡, 그냥.

103067 #2 보통 지들커.

103067 #1 지들컷가 햏영 햏주.

103067 @ 쉘 안 먹지양?

103067 #1 쉘 잘 안 먹어. 쉘출도 줌도 줘서.

103068 @ 거난에 담배 농사 지여봄디가?

103068 #1 난 담뵐 아니 햏고, 우리 하르버지가 담배 햏연 폴아낫어.

103068 @ 게 거 어멍 지읍디가?

103068 #1 섭담배양, 저 큰 밧을 하나 햏민 담뵐메 놓니다. 담뵐메 농민 요만씩 홀그민 그거 옷어당 믑딱 고지마다 싱거, 놓 빌영. 싱그민 거 커가민 고완 장여 나 뵐당, 커가는냥 담배섭을 톡톡 톡음네다, 강. 톡아오민 물리왕 여깡, 꺾으로 여깡 막 돌아메영 물립니다, 그늘에서, 담배를. 우리 하르방이 담배 농사 햏영 벌어낫주게, 우리 친정 하르버지가. 경 햏른 쉘막의고 무뵐의고 담배 꺾으로 여까그네 막 물립 디다게. 물리우민 공출이 잇수다. 담배 픓는 날이 있어. 그뵐 픓는 날 강 잘 물리왕

노랑게 잘 흐민 일등, 이등 경 흡디다. 경 흐고 딱시 퍼렁흔 때 썰영 덕석이에 난 건 풀담배, 건 엇인 사름 빌어당 먹는 거. 경 흡디다. 난 우리 할아버지가 담배 농사 해나난 알아지주, 경 안 흐영 모릅니다, 담배가 어떤 거. 우리 할아버지 큰 밧디, 이장흐단 설르난에 큰 밧디 농사 흐연, 담배 농살 흡디다게. 거리왔디 큰 밧디 담배 농살 흡디다게. 나 친정 하르방 담배 농사 해나난 알주 어떻 압니까, 우리.

103068 @ 계난 본 짐작으로 흐영 말흡서게.

103068 #1 짐작으로 그거주기. 담뱃메 낱 요만씩 느멀 이제 나듯 요만씩 나민 고랑마다 강 다 싱급니다. 계민 키와그네 경 이만이 올라오민 담배섭 알로 즈근즈근 타가, 툏아와. 툏아왕 이제 짝으로 느람지 여끄듯 여까그네 지랑지랑 돌아메영 넓디다게. 우리 하르버진 담배 농살 전업으로 흐난 담배 엇이민 빌레 가곡 흡디다게, 풀담배. 우리 하르버진 집 즈갓디 거리와, 큰 밧 잇이난 담배농살 흡디다게. 밧긔어 오렌 흐곡, 담배 툏젠 흐민. 오랑 저 가렌 흐민, 이만씩 넘작넘작 흔 거 저 곳 영 움정 흐곡 해낫수다, 우리.

103068 @ 이 웨에 농사 지은 건 엇수과?

103068 #1 보리 갈곡, 모멸 흐곡, 웃드르난 콩 갈곡 그거주게. 멘네 타레 가곡 게.

103068 @ 멘네, 멘네.

103068 #1 멘네는 난드른 오난, 밧 버는디 빈 밧디 강 모물 해당 막 시꺼다냥 고랑마다 깎디다게, 웃드른 경 안 흐는다. 난드른 멘네 하영 가는 디난 고랑마다 강 막 밧로 부치명 흐명 밧밧 낱, 이젠 멘네 씨 빼여그네 걸 저 밧 갑디다. 밧 갈면은 이젠 선비질 해 불민 멘네라. 멘네냥 나민 매날 검질 메레 가곡. 멘네밧디 고치씨 빼여그네 고치 타오곡. 따시 어염엔 돛비 농곡. 딱시 강낭콩 농곡. 강낭콩 타당 숲 양 떡곡.

103068 @ 계난 멘네 갈젠 흐민 쯤 처음에.

103068 #1 쯤 처음에 몸, 몸 시꺼당 고랑마다 깎아. 몸도 매 사름에 엇수다게. 우리 씨아버지가 테 흐영 몸 비여오주게. 바당에서 물리왕 췌로 막 시꺼다 놓민 하이고 몸 끌레 가젠 흐민 고생이여. 씨어명 흐고 씨누이 흐고 나 흐고 가민 막 질민 고비로 끄치명 매 고랑마다 밧 솜뻑 깎주게. 끌민 이제 멘네 씨 빼여그네 이젠 선비질 흐민 멘네라.

103068 @ 밧은 안 같고?

103068 #1 밧 갈양게, 멘네씨 빼영 밧 갈양, 경 흐영 선비질 흘 거 아니우파? 갈아냥 멘네씨 빼민 몸 끈디, 밧을 갈아 낱 우트레 멘네씨 빼민 물어지지 안 흐지 안 흐우파? 경 흐영 선비질을 흐민 멘네씨 물어질 거 아니우파? 경 흐민 내불민 집 의 오민 모멸모냥 다글다글 나갑니다. 나가민 요만이 나가민 검질 짓어가민 매날 멘네왔디 검질 메레라.

103068 @ 멘네 밧디 무슨 검질덜 나?

103068 #1 절완지, 자쿨 다 나누게. 몸 끌아 흔 디 검질 다박다박. 경 흐민 이제

멘네 타레 가는 건 송키 구덕 흥영 강, 이제는 집의 타당 깎주만은 그뎨 멘네왔디서 문딱 까. 흥나 흥 곡지 탕 까농곡, 흥 곡지 탕 까농곡 흥영 멘넬 타민, 멘네 이만이 흥 밧디 흥민 사홀은 타레 탕겨사 흥니다. 타당 물리왕 이젠 멘네 불르는 물레가 잇지, 옛날엔. 이젠 공장에 나난에, 서림이엔 공장에 중간에 납디다만은, 멘네 불르는 거, 멘네 맥이명 불라. 게민 두위로 멘네 나오민 그걸로 멘네 태우는 디 강정, 멘네 좇쟁 흥민, 미녕 흥젠 흥민. 멘네 스랑스랑 흥게 문 밀어다그네 즈근즈근 무경 오랑 집의 오랑, 옛날 물레, 걸로 백백 돌려그네 씨 영 나오곡. 경 흥연 그걸로 미녕 흥곡 했수게게.

103068 @ 집의서 멘네 타당 까지 안 흥곡, 밧디서.

103068 #1 밧디서 흥치 강 오란 옛날엔 몰란.

103068 @ 우린 집의서 까신다.

103068 #1 아니 건 중간에부떠사. 경 흥난 쉽는다, 타당 나뉘당 시간 나민 흥는다, 허리에 슬구덕 메곡 멘네 타젠 흥민 허리가 다 그차져불어.

103068 @ 나중에는 썸, 그 멘네에 다 붙어붙어. 그거 튼젠 흥민.

103068 #1 멘넬 집의 오민 아멩 흥여도 썸 막 부떠. 게민 그걸 까기 전에 썸 문 털이치와뵤 멘넬 까 놔사주. 경 아니 흥민 물리명도 다듬곡, 다 흥여.

103068 @ 멘네 베랭이도 하곡.

103068 #1 아이고, 베랭이가양 낭간에, 집의, 밥숯디아올라 다 들어가. 별정 흥 베랭이. 게난 이젠 멘네도 잘 안 갈곡, 멘네 중간엔 집의 타다그네 까곡. 이젠 멘네, 난드르 멘네가 일등 아니우파. 한국에 난드르 멘네만이 흥 디가 없거던. 경 흥난 멘네 불르는 디 잇곡, 소개 태우는 디 잇곡, 경 흥여났수게, 이디.

103068 @ 여기가 무사 잘 뵤어나신고양?

103068 #1 땅 토리난.

103068 @ 또 햇빔 잘 비추곡.

103068 #1 아니. 햇빔은 아무디나 ㄱ뜨는다, 땅 토리가 좋아놓니까 멘네가 잘 뵤여. 경 흥곡 땅 토리가 출혁이거던. 경 흥난에 거세기 무시거 조도 좋곡, 보리썰도 강정 다음에 우리 아니우파게, 이 난드르. 게문 난드르 사름은 풀레 가민 강정 보리썰이엔 흥민 고정들어불어.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게민 양, 드르 일, 쉼 질루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 쉼은 어떻 질릅니까?

104001 #2 송아길 사오민 소출을 장만흥주게.

104001 @ 쉼출?

104001 #2 쉼. 밧 엇이믄 쉼. 흐는 밧을 삽주게. 쉼. 비는 밧을 사그네 이젠 출을 거세기 비여그네, 실릅주게. 실러 놔그네 집의 오라그네 큼직하게 놀을 늡니다게. 쉼 일년 맥일 출을 놀여그네. 글로부떠 이젠 쉼막 이서그네 쉼막 안네서 쉼를 질릅주게. 경 흐여그네 거기서 출 빠당 주곡, 쉼영 주곡, 머 흘 때 거세기 출 쉼영 솟양도 맥이곡. 경 흐연에게 쉼를 질좌삽주게.

104001 #1 옛날엔 솟양 맥인 게 아니고, 못채 흐여그네 반뭇씩 줏수다게.

104001 #2 아이고, 솟양도 줏서게.

104001 #1 옛날 옛날에 우리 시대는 슬믄 거, 그르 후에 쉼막에 쉼영 맥이곡, 클도 나오고 저 기계도 나오고 했주, 옛날엔 쉼는 기계도 엇엇수다, 우리 어린 땀.

104001 #2 그냥 거세기게 칼로 쉼영.

104001 #1 작도로 작도. 작도로 쉼엇수게. 작도 흐연 쉼엇수다, 쉼출.

104001 #2 작도로 쉼는 거 잇주게.

104001 @ 누까는 안 줏수가?

104001 #2 무사 누까게 보리에 방애 저나민 보리체도 흐곡, 누까엔 또로 보리체 꺾땀이 것이 나오는 거.

104001 #1 도새기 질루젠 흐난 쉼에 갈 거 셋수과, 도새기 맥이젠 흐난, 어느 저를애. 쉼 그믄 거.

104001 #2 그 쉼 한 두어서너 슬 나민 이자 이녁 거세기 필요 엇이믄 이자 풀렌 막 지랄해가민 풀아뵤도 흐곡. 질루당 이녁 새끼 나그네 질릅도 흐곡, 밧 그리청 밧도 갈곡. 경 흐는 겁주기.

104002 @ 쉼 종류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 쉼 종류, 털에 따랑도.

104002 #2 노란 게 잇고, 흰 거 잇고.

104002 @ 노란 거 무슨 쉼엔 홉니까?

104002 #2 황쉼엔 흐주게.

104002 #1 어럭쉼도 잇고.

104002 #2 어럭쉼도 잇고.

104002 @ 어럭쉼 어떤 쉼우과?

104002 #2 검은, 흰 점 막아진 거 어럭쉼.

104002 @ 그 다음에 마씨.

104002 #2 그 다음에 이자 백쉼도 잇고.

104002 @ 그 다음에.

104002 #2 검은쉼도 잇고.

104002 @ 속쉼?

104002 #2 속쉼 또로 벌경흐 털 난 되게 그믄 곳어진 거. 경 흐 걸 속쉼엔 홉주.

104002 @ 그 다음에 빨 모양에 따랑 쉼 종류 틀리지 안 홉니까?

104002 #2 암컨 게 보통 오그라지곡, 부릉이는 폐와지긴 흐는다, 게 오르라진

것도 만흠주게. 집의서 질루당 네 슬쫌 나가민 그 놈을 이젠 멩에 흐영 맨들아그네 멩에 씨우곡, 잠대 흐여그네게.

104002 #1 둘, 둘 꺄영 마리쳐냥.

104002 @ 예, 그건 나중에 물어보쿠다.

104003 @ 그 다음에 쁘 어떻 이용흠니까? 집의서 혼 마리씩은 키왓지 안 흐우 파?

104003 #2 키우민 게, 벅여그네 키우민 품도 흐곡, 밧도 갈곡 경 흐여십주게.

104004 @ 쁘 어떻 길들마쫌?

104004 #1 마리치는 거?

104004 @ 예.

104004 #1 밧 가는 거 마리치는 거? 밧 가는 거 마리치는 건 멩에 씨왕 이레 질게 흐영, 들아메영 막 꺄어. 큰 거 죽은 거 막 꺄영 그것이 이레 돌리곡 저레 돌리곡, 그것이 밧 마리치는 거.

104004 @ 메칠 정도 마리쳐?

104004 #1 건 한이 엇주, 쁘에 매여. 자게 흐는 쁘도 있고, 아멩 마리쳐봐도 늦게 흐는 쁘도 있고.

104004 #2 보통 그자 오래 마리치민 혼 보름, 경 아니흐민 일주일 그 정도 기자.

104004 #1 쁘에 매주.

104004 #2 마리치민 잘 듣는 거 잇곡, 아니 들민 고개 영 들르멍 도망치젠만 흐는 거 잇곡. 춤 벨 거 다 잇입니다게.

104004 #1 경 흐민 쁘 이끄는 단. 새 쁘 흐젠 흐면은 뒤에서 밧 가는 사름, 앞 윈 또로 이끄곡. 경 해낫수다.

104005 @ 쁘 나이, 혼 슬을 머온 흠니까?

104005 #2 혼 슬은 처음 난 거, 금승이온 흐고. 또로 일 년 넘은 건 다간 송아기온, 사름 송아기 나름 송아기 경.

104005 @ 계난 금승, 그 다음온.

104005 #2 다간, 사름, 나름.

104005 @ 그 다음온.

104005 #2 그 다음온 다섯 슬, 여섯 슬, 이겨주.

104006 @ 쟁기 명칭, 영 양손으로 잡는 걸 머온 흠니까?

104006 #2 양주머리.

104006 @ 그 다음에 가운디 영.

104006 #2 거 거시기 몇온 흐다마는 이저부런에.

104006 @ 밧 가는 거.

104006 #1 잠대, 장기, 보섭, 보섭도 잇주게.

104006 #2 벳.

104006 @ 뱃, 그 다음은.
104006 #2 보섭.
104006 @ 보섭, 그 다음에 영 묶으는 거 잊지 안 후우파?
104006 #2 머옴 혼다만은.
104007 @ 질매, 질매.
104007 #1 질매 지우젠 후민 등테부터 먼저 해 놔사.
104007 @ 등테, 그 다음.
104007 #1 등테, 험벽 씨와낭, 그 다음엔 찍으로 멩근 거 씨와낭, 또시 낭으로
웁 거 지와낭 짐을 시킴주게.
104007 @ 경 후난 그 질매 명칭.
104007 #1 질매.
104007 @ 질매는 전체 명칭이고, 부분 명칭, 낭으로 영 두 개 웁 걸 머렌 후니
까?
104008 @ 아까 곶아난 거, 멩에.
104008 #1 벗어지지 말렌, 멩에에 찢렁 영 오그라지게 후영 즐라메여나서. 쉼
멩에에 거.
104008 #2 그거 멩에 거시기 접게. 즐 옳이.
104008 @ 무슨 낭으로 했수과, 그 접게는?
104008 #2 보통은 삼동낭, 거세기 후 사름은 윤누리낭 잊지 안 후우파게. 그 윤
누리낭으로 접게 후주게. 게 멩에에 끼와그네게 즐로 즐라메여그네게, 접게 즐 후영
즐라메여그네, 경 후영 두에서 또로 귀마리, 저 장기 귀마리, 그 저 앞코지에 후여
그네 저 즐마메는 노 잊주게. 거 후연그네 장기에 즐마메여그네 가린석 후영 양푼
의 장기, 두 즐 후여그네 이젠 멩에레 엮어다그네 즐마맷주게. 쉼 ㄱ리칠 땐 이끄는
장남 후 사름 후곡, 밧 가는 장남 후 사름 후여그네 ㄱ리칩주게.
104009 @ 경 후민 양 목장 이서낫수과 여기도?
104009 #1 이디도 군산이 목장이주게.
104009 @ 어떻 관리후엿수과?
104009 #1 건 부락에서 낭 내불민.
104009 #2 부락에서 쉼멕이는 사름덜 쉼멕이곡 다 관리후곡.
104009 @ 거난 전체적으로 관리후는 사름 잊지 안 후우파?
104009 #2 이딘 어서낫수다.
104009 #1 저 웃드르양 사름이 돈 받앙 쉼 보는 디 목장이 이서. 게민 우리 부
그리약 후레 가난곡 해낫수다게. 저 열리 우트레 사름이 돈 받앙.
104009 #2 백만원목장이 이서.
104009 @ 우리 동네가 백만원케우다게. 쉼 보는 사름을 머옴 후니까?
104009 #1 쉼 보는 사름이옴 우리 드러 곶아낫주.
104009 #2 쉼생이옴도 후곡.

104009 #1 켓생인 부락에 보리 받아가곡 켓생이고, 쉼 보는 사람은 뜨나주게.
 104009 #2 켓생인 저 목장에 가그네 쉼 보곡, 목장 말양 흐는 사름덜이 켓생이
 였 흡주게.
 104009 #1 우리 돈 쉼에 쉼 메경 바나서. 부그리약 흐렌 가사 쉼여. 이녀 쉼난.
 104009 @ 부그리약은 언제 해낫수가?
 104009 #1 부그리약은 조끔만 흐른 드리 흐주.
 104009 #2 여름만 쉼민 매일.
 104009 #1 군산에 논 사름 매날 쉼 보레 갓당 부그리약 흐영 박박 강알에영 문,
 이만씩 흐 부그리, 쉼쉼 흐 진독.
 104009 @ 계난 피 하영 먹으면 부그리 쉼는 거주게.
 104009 #1 예게. 강알에 돌아진 거 박박 글경. 쉼로 쉼 거.
 104009 @ 걸 며옌 흡니까?
 104009 #2 부그리쉼빳.
 104010 @ 쉼 질루멍 재미난 일.
 104010 #1 쉼 질루는 건 매집의 촌에 쉼 엇인 집이 엇주게. 쉼막 흐영 트로 흐
 영.
 104010 @ 새끼 나젠 흐민 어떻 흡니까?
 104010 #1 새끼 나젠 흐민 거꿀로 나와. 발로.
 104010 @ 새끼 나젠 흐민 쉼가 좀 틀리지 안 흡니까?
 104010 #1 막 들러꿔주게, 사름이나 마찬가지로.
 104010 #2 막 못 전디영 헹헹 흐멍.
 104010 #1 헹헹 해가든, 발부떠 먼저 나와 가민, 임체가 꺾작 사주게.
 104010 @ 쉼 새끼 나젠 해가민, 보고락흐 무신 저.
 104010 #1 아이, 그런 거 어서. 쉼막에 메민 새끼, 막 바드랑바드랑 해가민 블라
 불카부덴.
 104010 @ 바드랑바드랑 흐여?
 104010 #1 아파가민, 배 아파가민게. 사름이나 마찬가지로.
 104010 #2 못 전디영 못 전딘 소리만 흐여.
 104010 #1 경 흐난 흐는 건 보난, 사름은 머리뺨부떠 먼저 나오는다, 이건 발부
 떠 먼저 나오는 거라노난. 쉼 새긴 양 발부떠 먼저 나오는 겁디다게. 영 흐영 나옴
 디다. 영 흐영.

말 기르기

104011 @ 그 다음엔 양 들 질화뵈디가?
 104011 #1 들도 질화뵈주. 하영 질화뵈주.
 104011 @ 들은 어떻 질화뵈디가?
 104011 #1 들은 목장에만 질루와. 집의 메지 안 흐영.

104011 #2 물은 군산에 낱 내부난, 저 창천이 우트레 강 좇아오곡 해낫수다게.
104011 @ 물석으로 영 흥영 메진 안 흥고?
104011 #1 메지 안 흥여.
104011 #2 멤도 안 흥고.
104011 #1 게난 이디 골리 박양 이녁 물은 알아지주게. 골리로, 귀에 골리 박양.
104011 @ 건 췌도 이신 거난에.
104011 #1 예. 게난 그 걸로 이녁 물 알주게. 물 멧 개, 멧 필 흥 거.
104011 #2 게 웅매 그든 건 이녁 집의 메여십주게.
104011 @ 웅매마씨?
104011 #2 웅매엔 흥주, 수컷고라.
104011 #1 일름이 웅매. 스나이 멧생이고라 웅매엔 흥주, 웅매. 즈매, 암컨 즈매. 즈매엔 해낫수다, 옛날엔. 조팏 불리젠 흥민 강 몰아오곡게.
104012 @ 게메 물 종류에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
104012 #1 물 종류는 그거주 며. 흥 것도 잇고 노랑 것도 잇고.
104012 @ 게메 그걸 며엔 흥여?
104012 #2 얼룩덜도 잇고 흥주만은, 가래멧생인엔도 흥곡, 검은 거. 경 흥곡 흥 건 거 흥 멧생이엔도 흥곡 거시기 흥는다.
104012 #1 경 흥곡양, 물갈기. 이디 덮으는 거. 그거 비여그네 풀앗수게.
104012 @ 노랑 물 며엔 했수가?
104012 #2 노랑 건, 아 또 거 며엔 흥다만은. 저 붉은 물덜은 적대물이엔 흥는다.
104012 @ 응, 적대물.
104012 #2 노랑 물, 거 무신 물이엔 흥다만은.
104013 @ 뻬수다. 게민 물은 멀로 사용했수과?
104013 #1 물은 그냥 밧블리는 것이 주장이주게. 짐 시끄는 물은 심어당 보리도 시끄곡. 그자 밧블리는 거, 새끼 낭 풍는 거, 그거 주장. 경 흥고 저 짐 시끄는 것도 잇엇수다. 모멸낭도 시끄곡, 보리도 시끄곡 물로 막 시꺼서, 췌영 그찌. 췌사 매집의 흥나 빼끼 엇주만은, 물 하민 물 두 개 세 개 흥민 보리 시꺼오곡 돛걸름도 시끄곡, 다 했수다.
104013 @ 물로 밧은 갈아뵈디가?
104013 #1 물로 밧은 아이 갈앗수다, 제주도는. 췌로만 갈앗주.
104013 @ 어떤 된 보난에 물로도 밧 갑디다.
104013 #1 옛날에도 감산인 물로 밧 가는 사름 이서나서. 여자.
104013 #2 여기 난드르도게, 물로 밧 가는 사름 이서나서.
104013 #1 여자. 감산인 여자. 이제 그 할망 살아서.
104013 #2 주로 물 하영 흥는 사름은 풀아먹젠 그자.
104014 @ 그 다음에 물 그 나이양, 흥 슬을 며엔 흥니까?

104014 #2 일수, 이수.
 104014 @ 거난 뭇 흥 슬이 머마썸?
 104014 #2 일수.
 104014 @ 일수? 매영은 흥지 안 흥니까?
 104014 #1 금승 뭇생이엔 흥곡 게
 104015 @ 뭇 질루멍 재미있었던 일 흥번 곱아봅서.
 104015 #1 재미나주게 뭇 몰아올 매영.
 104015 @ 어떻?
 104015 #1 뭇 몰아당 조팍 킬릴 때 스뭇 재미나주게. 워랑워랑.
 104015 #2 뭇생이 흥나 흥영 탕 돌아다니는 게 즈미주게. 뭇 보레 갈 때 뭇생이
 타 웃여그네 산에 올라가곡, 느려올 때도, 그놈의 뭇생이가 어질어놓니까, 차 탕 땡
 기는 것보다 더 줍디다게.

떡이

104016 @ 그 다음엔 양, 출, 출.
 104016 #1 출?
 104016 @ 출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 그 마소 떡이는 어떤 것덜 잇수강? 뭇 흥
 고 쉼 떡는 것덜.
 104016 #1 뭇은 드룻밭디 강 내불곡.
 104016 @ 아이 거난 떡는 것덜 잇지 안 흥우짜?
 104016 #2 떡는 건 풀 떡는 거 마찬가지로.
 104016 @ 저슬에.
 104016 #2 저슬에도 뭇은 머 흥 사름덜은 드룻밭디 내불엇주.
 104016 @ 쉼는?
 104016 #1 쉼는 집의서.
 104016 @ 거난 쉼출 흥젠 흥민 어떻 흥니까?
 104016 #2 쉼출은게, ㄱ슬 들어가민 출 빌 때 뤼민 출 비여그네 무꺼그네 집의
 시꺼다그네 놀영 나뉘뎌서 그거 빠멍 줍주게.
 104016 #1 팔뿔 나믄 출 밍니다게.
 104016 @ 거난 멍질 지낭 흥는 거 아니우짜?
 104016 #1 멍질 지나도 거 고비에 해운으로 가. 멍질 전의 출 밍 시작할 때도
 잇고, 멍질 넘영도 흥곡, 건 해운으로 가는 거고. 보통으로 팔뿔 멍질 고비에 비여
 그네 쓰무날 음력 쓰무날 뤼영 무릅니다게. 추석 때 출 비레 땡기는 거, 원처.
 104017 @ 거난 이 출은 어떻 마런흥니까?
 104017 #1 출은 드룻밭디 내불민 또 나곡 또 나곡 흥는 거.
 104017 @ 출 비젠 흥면은.
 104017 #1 눅 빌영 비곡.

104017 @ 출밭 이서야 흘 거 아니우파?
 104017 #1 게 출밭 신 사름은 강 비곡, 늪의 밧 버실영, 드룻밧디 강 붕가오는 사름도 잇곡, 이녁 밧 엇인 사름은 경 흐는 거주.
 104017 #2 이녁 밧 엇인 사름은 출 잇는 사름신디 간에 출 사그네 빌어오곡.
 104017 #1 보통으로 췌 잇인 사름은 이녁 출왓이 잇입니다, 옛날엔.
 104017 #2 하여튼 췌 하여튼 질루는 사름이 출왓 엇인 사름이 엇입니다. 이 옷드르 사름덜 보민 출왓이 적지 안 흐여마썸. 멧 만 평덜 잇입니다.
 104017 #1 저 옷드르 강도 출 흐여오곡, 이디 사름덜.
 104018 @ 출 빌 때 과정을 혼번 곶아봅서.
 104018 #1 흐미로, 늪 빌영 강, 흐미로 강 즈근즈근 다 비엿주게. 비여냥 물리와 그네 무꺼다그네게 췌로 시꺼오랏든 탈탈이로 시꺼오랏든 집의 오랑 놀엿주게. 경 흐연 빠멍 쫓주게.
 104019 @ 옛날은 췌 질메로 해왓지 안 흐우파?
 104019 #1 시꺼오랏주게. 시꺼오랑, 게메 거 시꺼오는 거, 무꺼그네 바리 벌영 시꺼오주게.
 104019 @ 시꺼와그네.
 104019 #1 놀어. 흐 못씩 빠멍 주는 거. 아이고 옛날에사 이제 췌 안 질루우난 흐곡, 지들커 안 흐여도 살암수다.
 104019 @ 게믄 출 운반할 때는?
 104019 #1 췌로 시꺼.
 104019 @ 췌로양.
 104019 #1 구루마로도 시끄곡. 늪빌영, 늪의 사름 구르마 빌영 시꺼오주, 췌 엇인 사름덜은.
 104019 @ 거믄 이제 집의 왕 놀어그네.
 104019 #1 흐 못씩 빠멍 쫓주게.
 104019 @ 거 놀 흐나에 흐 멧 바리 들어갑니까?
 104019 #1 하여튼 놀젠 흐민 크게 흐곡, 놀굽을. 조그만이 멧 발리 흐민 놀터를 죽게 만들곡, 출이 하민 놀터를 크게 맨들주게. 경 하여튼 놀엄수게게. 보리도 마찬가지로 지우다게. 죽으면 놀굽이 죽곡, 하민 놀굽이 크곡. 우녕팻 모양으로게.
 104020 @ 그 다음에 여물은 어떻 마련릅니까?
 104020 #1 며?
 104020 @ 여물, 여물.
 104020 #1 여물, 무신 여물?
 104020 @ 거난에 췌 맥이젠 흐면은.
 104020 #1 췌 맥이는 여물이 이서?
 104020 #2 출씨.
 104020 #1 출씨, 자골씨. 옛날엔 자골씨 흐 번 빼영 나두민 출 익영 비여나민

그 씨로 자골왓, 출왓이 돼여불주게.

104020 @ 쉼 잘 먹지양?

104020 #1 잘 먹주게. 내중에라가난 자골출도 엇언, 새 그자 밋밋 경 흐는 거. 난드른 자골출도 배랑 어서.

104020 #2 이 난드른 기냥 주로가 절완지출.

104020 #1 웃드르가 자골출뻐. 웃드르가 맨 자골, 벌경흐 자골. 자골은 먹으면 쉼 슬치곡 흐주.

104021 @ 이 출 빌 때 재미난 일 잇걸랑 한번 곶아봅서.

104021 #1 재미남은 무슨, 삭삭 덩고 나원.

104021 @ 출 빌 때 뉘면은 그 때가 감저 팔 때라. 감저 파다그네 출뻐뉘서 쉼 먹는 거나.

104021 #2 그 즈미만이 알아그네 쉼 뻐이레 가그네, 뉘이 어울러그네, 그자 감저뉘 들어가그네, 누겔랑 잘 보라 사름 오는 거, 감저 메여당 쉼 먹고, 또로 걸리민 도망치곡.

104021 #1 이 하르방 쉼뻐이레 하영 뉘기난. 난 그거 몰라.

뉘감

104022 @ 지들커 종류에는 어떤 것덜 잇수과?

104022 #1 보릿낭, 쉼낭, 딱시 유채낭 물리왕 지들커이. 딱시 소낭가지, 알 거스려뉘 소낭가지 놀어두서 그거. 그거주게 무시거 엇주게.

104022 @ 쉼뉘.

104022 #1 쉼뉘은 안 흐여.

104022 @ 뉘뉘.

104022 #1 뉘뉘 그런 것도 엇고.

104022 @ 쉼뉘 흐곡 뉘뉘 흐여단에 곶뉘 진지 안 흐엇수과?

104022 #1 그건 곶뉘 진는 거. 뉘뉘 좇어 오곡 쉼뉘 좇어당, 드룻뉘 강 군산에도 강 망뉘이로 저당 곶뉘에 비와낭 ㄹ스락 서ㄹ명도 진곡, 곶뉘 진는 거고. 때 해먹는 건 지들커는 보릿낭, 모뉘낭, 쉼낭, 콩꼬질 그거 물리왕 지들커 흐곡 밥 해먹는 거고, 곶뉘 진는 건 뉘뉘, 쉼뉘, ㄹ스락.

104022 #2 주로 거세기 흐 건 소낭가지덜.

104022 #1 밥 해먹는 건 소낭가지고, 곶뉘 진는 건 뉘뉘, 쉼뉘, ㄹ스락 서꺼그네 아궁 흐여그네 자락자락 진지 안 흐여서게.

104023 @ 거난에 쉼뉘, 물리와야 뉘 거 아니우과.

104023 #1 뉘른 거만 좇어오람주게, 좇으레 간 사름이.

104023 #2 좇어옴도 흐곡 뉘리옴도 흐곡.

104023 #1 좇어당 흐뉘 젓으면 마당에 올레에 너는 사름도 잇주만은 배영 저오질 못 흐여 젓이민. 계난 드룻뉘 좇으레 가도 뉘른 걸로만 좇으, 젓인 건 뉘쌍 나

똥 오주, 오지 못 햏영 배영.

104023 @ 게 그거 좃어다그네.

104023 #1 굴뚝 진영. 굴뚝더래 비와냥. 게민 굴뚝은 아궁이 잇잔아. 그레 게 막 진영 불긋네로 과락과락 햏영, 지들커로 불 부찌민 그거 문딱 불 부찌민 구들이 멘 도롱 햏주게.

104023 @ 게난 영 진는 것이 불그네?

104023 #1 불긋네. 불치 파네곡, 또로 그걸로. 박박 잡아뎡경 불치 파네영, 불치 놓는 건, 굴뚝 이 건 아궁이고 이디 담 다근네 불치 놓는 디가 이서 따로. 경 햏연 그걸로 잡아뎡경 불치 그레 놓곡. 솔박으로나 무시거로나 담으멍 그레 비와 놓곡. 빙애기 득 빙애기 안지젠 햏면은 풀브른 구덕에 검질 끌아그네 빙애기 깨우젠 햏민 불치레 강 풀브른 구덕 낱 득 안양 새끼 깨우곡 해서, 빙애기.

104023 @ 굴뚝에 그때.

104023 #1 굴뚝에 새끼 내왕.

104024 @ 솔썩 걷어단에도 굴뚝 때뵤디게양?

104024 #1 솔썩? 솔썩은 걷어당 굴뚝은 안 때고, 밥 햏연 먹엇주. 밥 햏영 먹는 거, 솔입으로 불 슴양.

104024 @ 거 어떻 걷엇수과?

104024 #1 강, 소낭뵤디 강 글쟁이로 글경, 무경 정 오랑 나뵤당 밥햏 먹엇주게. 난 감산이 드리에끼지 솔입 글그레 뎡겨나서, 이디 난드르서. 경 햏연 배 두 개나 세 개나 낱 딱 무경. 정 올 때도 잇고, 나뵤당 집의서 누게 강 저 읍센 흘 수도 잇 곡. 경 햏주게. 솔입은 저 밥햏먹는 거. 완전히 벌경햏 솔입은 불 슴기 좃주게.

104024 @ 굴뚝은 안 진곡?

104024 #1 굴뚝은 아이 진고.

104024 @ 밥햏 먹는 거?

104024 #1 밥햏 먹는 거. 지들킷가 어려우난. 순 불 슴양만 보리썰 밥 햏젠 햏민 어떻홀 말이라게.

104025 @ 낭도 해단 지들커 햏지예?

104025 #1 게. 낭도 해당 지들커 햏주. 낭 햏레 막 뎡겏주게.

104025 @ 무슨 낭 햏웁디가?

104025 #1 이디 가민 소낭도 늡의 뵤디 강 늘낭 도독질로 꼬창 정 오곡, 섬비낭 햏곡. 난 섬비낭 햏렌 안 뎡겨보고 우리 씨누의덜은 섬비낭 햏레 하영 뎡겨서. 경 햏영 무경 정 오랑 즈근즈근 데미민, 그거 빵 진어불민 우리 씨누의덜 막 울고 햏나서.

104025 #2 옛날엔 여기서덜 저 웃드르 저.

104025 #1 군산 뒤예.

104025 #2 군산 뒤예 가그네게.

104025 #1 창천 지경으로 강 막 낭 도독질 햏영.

104025 #2 상창 지경에 강, 놀냥 햏여그네게.

104025 #1 놀냥, 소냥. 난드르 사름덜 낭덜 잘 해왔어.

104025 @ 솔냥, 소냥.

104025 #1 소냥 끼창 놀냥 끼창 썸은 내불곡 즈근즈근 저 오랏주게.

104025 #2 웃드르 가민 섬비냥.

104025 #1 정 왕, 집의 오랑 깨곡.

104025 @ 다른 종 냥은 안 햏곡?

104025 #1 다른 종 냥 햏수가? 옛날엔 하지 안 햏여서. 황백비냥이엔 햏 건 옛날에 저 썸 무시거 들민 약햏는 거. 황백비냥. 노란 거. 쓴쓴햏 거. 황백비냥이엔 햏서 건. 옛날 할망덜 입바우 막 햏싸지민 황백비냥 거죽 베껴당 이디 저 영 딱 주영 햏겨나서, 약, 병원 엇이난.

104025 @ 냥 햏 때는 멀로 가그네?

104025 #1 나대영, 나대 웃영 강.

104025 @ 나대 햏곡.

104025 #2 톱, 손톱 가정.

104025 #1 톱 웃영 햏기는 사름은 베랑 엇주. 여자덜이 주로 햏기난게. 경 햏곡 군산 ㄱ똥 디 강 소냥 ㄱ창 내불민, 막 별경햏민 정 오곡. 경 햏주게. 녁의 밧디 아이 거시렁 내불민, 창친이 사름덜 아이 거시렁 내불민 난드르 사름 여자덜은 거 문 딱 거두왕 저 오랏주.

104025 #2 주로 나대주.

104025 #1 나대, 나대.

104026 @ 슷 햏글아냏디가?

104026 #1 아이고, 슷이사 이디 햏들어나서게? 난드르서.

104026 @ 양?

104026 #1 슷은예 감산이선 ګ밧디 강, 영 막 데명 그레 불 부짱, 슷 햏난 거 햏도 난 슷 햏나지 안 햏난 몰라.

104026 #2 난드르 슷 햏들아냏수다.

104026 @ 머마씨?

104026 #2 슷 햏들아나서.

104026 @ 거 햏번 ګ아봍서.

104026 #2 저 군산에 올코미엔 햏 디 이섯수다게. 올코미에 냥 그디 햏연 군산의 소냥 ګ연에 부락에서 슷 ګ는 사름이 이섯는디 햏 햏 사름. 나도 경 햏연 그디 ㄱ썸 햏기 전에 슷 ګ는 날은양 혗그랑케 햏 ګ그네 그디 즈근즈근 즈근즈근 냥 ګ 으명 즈근즈근 세웁니다게. 한가운디 요만햏 ګ망 혗라그네 그지 불 질르주. 경 햏여그네 햏 질은 더 높여. 경 슷구텅일 만햏주게. 경 햏여그네 햏 구텅이 만햏아지민 이젠 썸연젠 햏여그네 우로 가그네 ㅍ이민 ㅍ, 새민 새 햏여그네 더경 그 우트레 햏을 막 데햏주게. 경 햏영 이젠 다 햏영 더근 두엔 불 햏햏 햏영 불 때기 시작햏

주게. 거 으라 날 갑니다. 거 솟 흥 구텡이 구어내젠 흥민. 흥 거자 흥 일주이만이 흥연에 솟을 예점 솟 내치겐 흥연에 거시기. 아 간 베려보난 솟을 다 불 부면 거시기 했는디 불이 죽질 안 해서. 솟이 불이 막 와랑와랑 흥연 딱시 이거 안 돼켤 흥연 우리 물 옷어당 쥐그네 꺼불겐 흥연. 경 흥연 물 권에 꺼전 했는디. 경 흥연 솟 흥 구텡이가양 솟 나오는 것이 솟 가멩이가 거자 흥 설나문 가멩이 이상 나옵디다.

104026 @ 무슨 낭으로 만듭디가?

104026 #1 소낭.

104026 #2 소낭, 소낭게.

104026 @ 소낭으로도 흥여마썸?

104026 #2 예.

104026 #1 소낭으로도 웨여.

104026 #2 소낭으로게 가지 탁탁 다스려뵤 몽텡이만.

104026 #1 이젠 다 육지로 오는 솟이주게.

104026 @ 겐 거 솟 멩글양 푹디가?

104026 #2 아이 품은 무신. 매집의서 사용했주. 다 푹는 사름은 풀고, 이녁 집의서 흥 사름은 이녁 집의.

104026 #1 옛날엔 그 화리가 정동화리 잇곡, 부억에 부жат집의, 옛날에 양반의 집원 부억에 이런 화덕이 있어. 그디서 불 살황 추왓주게. 게난 아기가 돌아다니당 거기서 죽곡 해나서, 불에 데영, 옛날엔. 부억에 화덕이엔 흥 게 이서났수다.

104026 @ 정제에양? 이서나서마썸. 돌로 영.

104026 #1 싸그네 불 추는 디. 옛날 짓고라 화덕이엔 했수다.

104026 @ 거기서 솟 흥여그네 불 추와났구나.

104026 #1 불도 추곡, 낭으로, 생낭 해당 그디 와랑와랑 살황도 추곡. 옛날엔 무시거 온돌이 잇수과, 굴목 짚는 거 방 하나 잇곡 흥민, 어른이나 녹저불곡 애기덜이나 녹지곡, 그디 싸늘흥 디 살앗주 무신. 이불 흥나에 오망오망 발 찢런 살곡 했수게 옛날엔게. 구들 흥나에 다섯 식구, 여섯 식구 문딱 모여정 녹곡.

104027 @ 그 다음에 이저 지들커 흥멍 재미난 일 흥번 곱아봅서.

104027 #1 재미난 일 무신 거. 하르방 며 지들커 흥레 땡겨서?

104027 #2 거 무시거 재미난 일 엇수다.

104027 #1 지들커 정 오멍 뵤만 흥연 쉬곡 했주 무신.

104027 @ 추억게.

104027 #2 늻의 밧디 거시기.

104027 @ 어디 낭 흥레 갓당.

104027 #1 소낭 도독질 흥영 막 정 돌아오곡 경했주게. 무신 그거 뿐이주.

104027 #2 낭 흥레 갓다그네 늻의 집 밧디 찢려 들어그네 생소낭 끈어져그네.

104027 #1 양. 늻의 낭 벌경흥민 거 지들커 흥레 강 그거 끼창 오젠 그거 박박 박 정 오라났수게, 난드르 여자덜은.

사냥

104028 @ 사냥 해 봅디게, 사냥?

104028 #1 사냥이사 어떻 흡니까.

104028 #2 사냥 해보질 못 했수다.

104029 @ 계난 무신 거 머 썩 잡는 거.

104029 #1 썩코 놓는 것사 했주.

104029 @ 계난 사냥 대상은 어떤 것덜 잇수과? 썩 하고.

104029 #1 썩 그거 빼끼 더 이서게?

104029 @ 지다리?

104029 #1 지다리 이디 어디, 지다리 고냥 좇아져사주.

104029 @ 계난 썩?

104029 #1 썩코 낱게, 아의덜 햏영.

104029 @ 계난 썩 잡젠 햏민 어떻 햏엿수과?

104029 #1 썩코 놔그네게.

104029 #2 썩코 만들아그네, 일로 영 사름 텡기는 딜로 영 보민 썩 텡기는 길이 알아집니다게. 썩 발자국 나곡 썩 똥도 싸곡 햏명. 이디 썩코를 놓는다.

104029 @ 계난 썩코 멀로 맨들아?

104029 #2 하리가네. 전깃줄로, ㄱ는ㄱ는 햏 전깃줄 잇지 안 햏우파.

104029 @ 하리가네, 건 일본말이네.

104029 #2 ㄱ는 썩줄로 코 맨들아그네, 썩 텡겸시민 영 햏영 바그네, 만약에 여기서 썩코 놓젠 햏민 톱 햏게 눅주게. 썩콜 영 햏영 벌겨지게 놓민, 이레 영 가게, 이젠 돌멩이 옷어당 일로 못가게 눅니다게. 돌멩이 멧 개 놔 불민 그레 가젠 햏당 막아정 일로 가당 걸어정.

104029 #1 걸어정, 파닥파닥 햏여. 뒷날을 강 보민 야가기 돌아정 파닥파닥 죽엄시민 붕가왔주게. 넘어가당 눅 붕가가봄도 햏여불고.

104029 #2 눅도 붕가가봄도 잇고.

104029 #1 썩코 논 거.

104030 @ 노루 사냥 해 봅디가?

104030 #1 아이. 이디서 난드르 노리 사냥은 무시거. 난드르 사름덜이 노리 어느 저를에.

104031 @ 지달이 사냥은?

104031 #1 지달이도 마찬가지로.

104031 #2 지달이 어느 저를에.

104031 #1 지달이도 잡아보지 못 하고.

104031 @ 어디 굴 ㄱ튼 뒤 지다리 잇지양?

104031 #1 사름 텡겨가민 나오지도 안 햏여, 지다리.

104032 @ 족제비.

104032 #1 족제비 잡으레사 텅겨나실 테주.

104032 @ 덧에 대햏영 햏번 곁아봘서.

104032 #2 족제빰 잡아낫수다.

104032 @ 어땡 잡읍디가?

104032 #2 족제비 덧 맨들아그네, 중이 잡아그네, 췌줄 햏영 중이 푹 햏게 돌아 메여그네, 덧 햏영 간에 그기 딱 놔그네, 그디 이제 죽은 거 테어지젠 햏민, 그 곳댕이, 덧줄 즐라맨 곳댕이 뒤우로 오라그네게 벗어지게끔 햏여그네 코를 맨들아그네, 경 햏연그네 족제비 들어가그네 푹 햏게 덧저그네 죽읍주게. 경 햏연 햏 므린가 두 므린가 잡아낫수다.

104032 @ 족제비 잡앙 풀앗수과?

104032 #1 풀주게.

104032 #2 품도 햏고, 옛날엔 그 붓 메젠.

104032 #1 막 받으레 텅겅주게.

104032 #2 족제비 풀렅기 요만이 햏 거 햏나에 스오백 원씩 받아나서.

104032 #1 스백 원이민 얼마나 큰 거우짜.

104033 @ 사냥에 대한 추억.

104033 #1 사냥 무신 추억 이서. 사냥 해나도 안 햏여신디.

104033 #2 추억이란 건 어서.

5. 바다일

105001 @ 바당 일에 대햏영 물어보쿠다양. 바당에서 햏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이수과?

105001 #1 옛날 레기 나끄곡, 줌수질 햏곡 그겨주게.

105001 @ 거난에.

105001 #1 거 빼끼 더 이서게.

105001 @ 거난.

105001 #1 배가 풍선, 초석 들린 배, 옛날에. 길로 가그네 네 젓으멍 가곡, 네 젓으멍 오곡. 경 햏영 풍선 초석 두 개 세 개 들러그네 네 젓으멍 바당에 가곡, 먼디 갈 때는 초석으로 가곡. 경 햏영 레기 나깡 올 때도 기추룩 햏영 오곡. 당캐레 들어오랑. 경 햏주게. 브제기털은.

105002 @ 듨뵁 해 봘디강?

105002 #1 듨뵁이 머라?

105002 @ 감테.

105002 #1 감텐 난 안 해봘. 우리 씨어멍은 감테 햏영 해신디.

105002 @ 거 한번 돌아봅서.

105002 #1 감데는양 바당 썰민, 이제 흐는 거 보민, 이제도 감데 흡니다, 이디 사름덜은. 난 감데 좇으렌 안 텡겨본 사름이주만은, 해변의 오라도. 바당 썰민 감데 가 막 올려, 궂더레. 게민 그거 좇어그네 모영 나뿔당 널영 물리왕 놀영 나뿔당 풀 앓수게게, 감데는.

105002 @ 혼자?

105002 #1 혼자 이녁만씩게, 이녁만씩. 열 사름이민 열 사름마다 다 뜨나게.

105002 @ 공동으로 흐진 안 흐곡?

105002 #1 공동으론 안 흐곡. 혼자덜. 춤 부지런해사 그 감데 줍젠 흐민.

105002 @ 좇어그네.

105002 #1 물리왕 놀영 낫당, 감데 받는 사름이 잇주게.

105002 @ 걸름으로 해신가마썸?

105002 #1 몰르쿠다. 걸름이사 해신디, 감데 받아가는 사름이 잇고, 조합에도 받 아가곡. 이제도 감데 햄수게게.

105002 @ 지금은 공동으로 햄수과?

105002 #1 이제도 이녁만씩.

105002 @ 이녁만씩.

105002 #1 이녁만씩 흐는 거 닥읍디다, 줍수덜.

105003 @ 보말 잡아봅디게양?

105003 #1 게 보말이사 잡주게.

105003 @ 보말 어떻 잡읍니까?

105003 #1 물 싸민, 우린 줍수 아이난, 물 싸민 바짝 물르민 강 돌 일르멍, 보말 나민 좇어놓곡, 돌 일르멍 좇어 놓곡. 물 들어가민 오라불곡, 경 헛주게.

105003 @ 지폰 디 들어강?

105003 #1 아니, 물 바짝 썬 디. 돌 일르민 보말이 나와. ㄱ메기도 나오고, 수두 리도 나오고, 떡보말도 나오고.

105003 #2 물 싸가민 게, 돌 밑에 내려가그네게 돌 웰쓰민게.

105003 #1 돌 일러근은게, 돌 웰싸사. 스나이덜은 훙은 돌 일르민 조쿠제기도 나오고 하간 거 나온텐 흐는디 우린, 옷드르 사름이곡 잡을 줄 몰르민 존존흔 거 일리민 보말 나오민 좇영 집의 오랑 숲양 내영 떡곡 헛주게. 그거주게 보말은.

105003 @ 쟁이, 쟁인 어떻 잡읍니까?

105003 #1 쟁이, 쫓쟁이 잡으레. 쫓쟁이 이서. 지금 쫓쟁이 잇이난, 동카름 바당 에 내창이 잇이민, 영 존존흔 돌 잇이민 쫓쟁이가 불불불불불 기여가민 문딱 좇어. 그거주게, 쫓쟁이 잡으레 가게, 흐멍.

105003 @ 잡아다그네?

105003 #1 잡아당 옛날엔 ㄱ루 농곡 흐영, ㄱ루 낱 보깡 바삭바삭 먹어신디, 이 제 사름덜은 풀젠 잡아감주게. 식당에 풀젠. 경 흐민 썸인 뵈아그네 물로 막 쥼질앙

물로 보끄면은 똑 계란 보끈거 닳아. 기냥은 ㄱ루 놉그네 ㄱ루 무쳐그네 보깡 먹엇 주게, 옛날 어른덜은. 모말ㄱ루 낱, 갱이 바글바글 해가민 ㄱ루 낱 흥민 ㄱ루 정 흥 민 바삭바삭 씹엉 먹엇주게.

105003 #2 옛날 닳지 안 흥영 이젠 엇수다.

105004 @ 보말 종류 어떤 거 이서마썸?

105004 #1 보말, ㄱ메기, 떡보말, 수두리, 따시 저 무시겨우파 저, 것고라 무시 겨옴 흥다만은, 먹으른 쓴쓴흥고 닳살 잇고 흥 거. 거 무슨 보말이옴 흥연게 만은, 것도 이서.

105005 @ 갱이 종류는?

105005 #1 갱이 종류는 그거 풋갱이.

105005 #2 똥갱이.

105005 #1 (장면 웨의 사람과) 닳살 흥고 쓴쓴흥 보말고라 머옴 흥니까? 맞아 문다드리. (장면으로) 저 거세기 문다드리. 네 가지주게, 보말이옴 흥 거.

105005 @ 갱이 종류는?

105005 #1 갱이 종류는 풋갱이, 그냥 넷갱이, 그거주게. 따른 거 어서.

105005 #2 똥갱이.

105005 #1 똥갱이.

105005 #2 지름갱이.

105005 @ 풋갱이는 어떤 거?

105005 #1 풋갱이는 발간 거, 발발발발 돌아댕기는 거, 먹는 거. 건 풋갱이고. 똥갱이도 잇고, 똥갱이옴 흥 건 검은 거, 발발발발 기어 댕기는 거.

105005 @ 것도 먹어?

105005 #1 먹엄사신디 난 몰라.

105005 #2 먹는 사름은 먹넨 말도 이서.

105005 #1 갱이 종류 다 잡아감실 겨우다, 이젠.

105005 #2 지름갱이 잇고.

105005 #1 지름갱이 잇고. 세 가지라.

105005 @ 지름갱이?

105005 #1 지름갱이 일름이 잇수다. 기냥 갱이, 지름갱이, 풋갱이, 따시 똥갱이, 경 흥연 세 가지라. 따시 저 넷갱이, 흥은 거, 그거. 다섯 가지라 갱이 종류도.

105006 @ 이 불 들런에, 헛불 들런에 잡아봄디게양?

105006 #1 난 아이 댕겨밧수다게, 웃드르서.

105006 @ 헛불 들러그네 머 잡아?

105006 #1 보말 잡아밧수다. 넷갱이영. 내쳐나민 바당드레 막 느려가주게. 경 흥 민 불 들러그네 넷갱이 잡으레 가밧수게게.

105006 @ 넷갱이도 잡곡, 그 다음에.

105006 #1 그거주게, 무신.

105006 @ 저 몇도 잡지 안 햏여, 저.
105006 #1 아명, 바지른 다 잡주.
105006 @ 그 물끄럭 님은 거 며 잊지?
105006 #1 낙지? 낙지 잘 아이 나옵니다, 그거 들렁은.
105006 @ 무사 밤의 가그네.
105006 #1 아이 겨도 거 잘 안 나와. 잡는 사름은 바지른 잡주게. 넷쟁이 주장
잡으레 갖주게. 내쳐나른 바당드레 느려가난.
105006 @ 계민 여기선 넷쟁이 어디강 잡아?
105006 #1 아니. 이 앞의도 가곡게. 이 앞의가 주장 갖주.
105006 @ 넷쟁이가 어디서 내려와그네?
105006 #1 이 내로 느려와. 내쳐나른 바당드레.
105006 @ 이 내가 무슨 내파?
105006 #1 섯내.
105006 @ 섯내서 내려와그네.
105006 #1 섯내. 저 군산 앞으로 영 느려오는 내.
105006 @ 이젠 쟁이 엇지양?
105006 #1 쟁이 어서. 경 햏고양 쟁이 잡아당 먹을 필요가 엇수다. 이제는 밧디
약을 만이 햏수게. 경 햏민 내트레 다 느려가는 거라. 거 쟁이가 다 먹는 거 아니우
파게. 이젠 넷쟁이 심어가젠도 아니 햏곡, 넷쟁이 바져도 잡지도 안 햏니다.
105006 @ 이젠 넷쟁이 엇일거라.
105006 #1 심도 섯는다, 제초제영 막 썬불른 물이 내트레 느려감수게. 쟁이가
그거 먹음수게. 계난 이제 쟁이 안 잡아. 저 장에 강 사당은 먹어도.
105007 @ 여기 저 원담 잊지예, 원담. 돌로 영 동고락햏게.
105007 #2 이서낫수다.
105007 @ 그 원담 안에 무슨 쟁기 들어옵니까?
105007 #2 그때 우리 알거니 따치 ㄱ뜬 거나.
105007 @ 멜.
105007 #1 멜은 안 들어와.
105007 #2 멜도 들어오기야 들어오주만은 주로 물 싸민 강 심는 거 보민 돌 구
녕에 들어가그네 곱은 거 이서민게 잡양 님는 거 보민 주로 따치 잘 잡읍니다.
105007 @ 따른 쟁기덜은?
105007 #1 따른 쟁기 ㄱ되 십니까경.
105007 @ 계난 여긴 원담 어서낫구나양.
105007 #2 원담 여기 이서낫수다. 저 기운이엔 햏 디. 원담이엔 햏 거 이서낫는
디, 다 이거 바당의 멧 번 쟁 날은 자꾸 멜라져그네 꺾어가곡 꺾어가곡 햏연 어서
져. 곱꺾지 잊긴 이서낫는다, 곱꺾지 다 쓸어내부난.
105008 @ 그 원담 보수 햏젠 안 햏염구나, 이 마을에선?

105008 #1 안 흡니다게. 그물 농곡 덤장 농명 다 잡아불언 무신.
 105008 @ 아니 경 하여도게.
 105008 #1 이제 원담이 엇수게, 흡치.
 105008 @ 이제 관광객덜도 오고, 영 바당에.
 105008 #1 경 하여도 바당만 돌지.
 105008 @ 맹글아그네.
 105008 #1 맨드는 사름도 엇곡. 관광객덜은 질로만, 바당에 우의 질 나난 질로만 걸어뎅기주. 그 바당 빌레레 나가지도 안 흡니다.
 105009 @ 멜은 어떻 잡읍니까?
 105009 #1 멜은양 바당 세영 절 치른 빌레에서 막 좃어왓주게.
 105009 @ 계난 잡을 때는?
 105009 #1 게메 잡을 때 경 좃어오는 거.
 105009 #2 경 하여도 하곡, 기자 구물로 하여도 잡음도 하곡, 물통에 들엉.
 105009 #1 멜 잘 들어오지도 안 하여.
 105009 #2 우리 어틸 때 원담 안네 멜 들어오란 멜 잡아낫수다게.
 105009 @ 원담에서양?
 105009 #2 원담 안네서. 계난 거시기 하여연에 이만흔 멜사들 거시기 들렁 간에, 멜 하여 들어왓젠 하여연에 간 보난, 멜사들 쑥 하게 안트레 디밀안에 조금 싯단에게 영 들르난 슝빱 하게 들어와십디다게. 경 하여연 그때 잡아방, 잡아보지도 안 하고.
 105009 #1 즘수덜 화포 하여그네 케기 잡아.
 105010 @ 케긴 어떻 나릅니까?
 105010 #1 케기 나릅은, 이제 이제는 낫싯대덜로 하여 연 하는디 옛날엔 춤대, 대로 춤대 하여 강 무신 케기도 나끄곡 경 햏주게. 큰 케긴 못 나끄곡. 우럭 ㄴ쁜 거, 불락 ㄴ쁜 거 경 막 나짓주게.
 105010 @ 거난 춤대.
 105010 #1 춤대, 대로.
 105010 @ 여기 머 대 잇수과?
 105010 #1 아니. 감산이도 강 하여 오곡 막 하여. 질 다끄레 갓당도 도독질로 막 그창 오곡, 감산이 내창에 거. 왕대로도 하곡 죽대로도 하곡. 죽덴 이디 기정에 하난. 아의덜은 죽대.
 105010 #2 우리 저 거시기 연 뎨 불락 ㄴ쁜 거 하여 나까낫수다.
 105010 #1 테로도 강 잡아오곡.
 105010 @ 계난 낫싯대는 춤대양?
 105010 #1 예. 춤대. 대 하여그네 춤대. 다 그걸로 나짓주게, 옛날덜은.
 105011 @ 낫시줄은 어떻 구릅니까?
 105011 #2 푼는 거 잇이난.
 105011 #1 푼는 거 사다그네게 ㄴ는ㄴ는흔 힌 거 하여그네 춤대에 돌아메여그

네게.

105011 #2 ㄴ는ㄴ는흔 수자리 햏여그네. 햏영햏 거, 수자리엔 햏주게.

105011 #1 바당에 가그네 게수리 파그네 니꺃도 햏곡, 경 햏주게.

105011 @ 게 낚시도 사와?

105011 #2 낚시도 사와야주게.

105011 @ 어디 강 사왓수강?

105011 #2 상점마다게 낚시 픏는 디 잇이난게.

105011 @ 경 햏디 이 햏똥.

105011 #2 연철, 연철로 집의서 맨들아그네

105011 @ 어떻 햏급니까?

105011 #2 조고만 햏게 동골락 햏게.

105011 #1 불 파파 햏명 맨들아, 불 불명 스똥. 난리가 나게 햏디다. 나 햏드는 거 바나신디. 바당에도 강 막 맨들고 경 햏디다.

105012 @ 작살로 꺃기 잡아봏디가?

105012 #2 예. 작살 건 머 내가 잡아봏주.

105012 @ 작살로 어떻 꺃기 잡아봏니까?

105012 #2 예를 들어서, 햏씨가 고기 아니우파. 고만이 사시민 먼 디서 보민 저기 툄림엇이 고기가 잇구나 햏여그네, 작살로게 고무줄 부짖 거난, 고무줄 늘려양 꺃어그네 발리와 앓아그네 그레 꺃주게. 영 감시민 그자 영 보민 그자 돌아남직햏 거, 아이 보민 알아집니다게. 햏똥 햏연그네 느룏느룏 거시기 도망치단 햏민 요영 햏민 요레 가젠 햏시민 요레 쏘으민 햏직햏다 햏여그네 잡아 쏘으민 기자 구석에 멧 부짖 쏘으민 쿡 햏게 들어꺃주게. 게민 햏이 ㄴ똥 거 햏은 거 잘 쏘아나서.

105012 #1 이 하르방만씩 햏 거 잡아봏디다게. 잘도 잘 쏘아나서.

105012 #2 햏 사름이 뚜러메지도 못 햏는 거 쏘아봏수다. 경 햏여그네 쏘민 그자 무게 차그네 꺃어 오기가 햏들어. 막 들러꺃곡 햏는 따문.

105012 #1 물 안내서게, 즂수질 햏영.

105012 #2 경 햏영 어떻 어떻 어떻 햏영 꺃디꺃지 웃져오민 아 들르질 못 햏여. 고기 꺃라주멍.

105012 #1 성제섬도 강 막 쏘아봏디다.

105012 #2 성제섬에 간 이제 햏야 쏘으지 못 햏단, 요놈의 디 어떠난 고기가 엇이나, 경 햏디 물이 붕붕 들어가난 아이 텅기던 고기가 나옏디다게, 물 들어가난. 브레보난에 저 섯성지로 보난에, 섯성지 들언 영 보난, 웃성지꺃지 영 보난에 아 꺃똥덜이 그자 햏나씩 들씩 들엇닥 나왓닥 햏여. 요거 멧 개 쏘아꺃직 햏다, 햏연에 이제 햏숨 쉬연에 섯성지로 간에 들어서. 아 들자마자 그 앞의서 큰 왕석햏 돌 선게 꺃똥이 후룩 햏게 나 앞의서 기자 꺃겨들어. 아 이거 툄림엇이 돌아난, 이디 ㄴ만 섯단 영 숙연 브레보난 그자 눈꺃 베투이 들런, 날 꺃아가라 햏듯이. 이제 브레

단 콧 소안 눈통이로 기찍으로 쏘안에. 거 잡안 이젠 께미에 께연에 거시기 흐연 찬 땡겨십주게. 경 흐디 동넷아의가, 궤 궤 간 아의가, 아 어디서 갓똥 쏘안? 아 어디서 쏘앗저게. 어디서 하영 바져라. 아이 난 쏘젠 흐난 어서가지고 못 흐쿠다게. 아이 쏘아진다게. 경 곁으는 것이, 늘랑 느 므음대로 강 쏘오라. 난 나대로 가켜. 경 갓똥 바지는냥 조름에 들라가다그네 기자 영장 알 후록 흐게 내려가민 그 놈을 쏘아그네 께미에 께영, 게 계속흐연 부쩍 기자 아 예술곱 므리나 쏘으질 안 흐엿수과. 야 예술곱 므리 이만씩 흐 것덜은 상당히 벽차는 궤디다이. 경 흐연 그 궤언에 궤디 내리난 상당히 하 베여. 갓똥 이젠 폴렌 흐난, 그땐 갓똥 하나에 이제.

105012 #1 오백 원사 가신디, 천 원사 가신디.

105012 #2 오백 원 아니라, 궤고 잘 받으면 춤 백오십 원.

105012 #1 그땐 돈 백오십 원이든 이제 만오천 원도 더 컷주게.

105012 #2 칠십 원, 팔십 원. 게난 이거 한 번에 사민 나 혈하게 폴켄 흐난, 폴켄 폴렌 흐연, 이거 다 사민 폴켄, 다 사질 안 흐고 세 개 사켄. 세 개민 춤 만오천 원씩 했주. 경 만오천 원씩 받안. 산 놈이 야 이거 혈하게 사져젠 흐명.

105012 #1 경 흐고 궤기도 막 훑고.

105012 #2 경 흐연 냉경 남은 거 서너 개 잇이난에 사켄 흐 사름 시민 혈하게 라도 풀아주켄 흐명 흐난, 춤말로 풀다, 춤말로 풀다, 흐난 동네사름이난 샅센 흐명, 거세기 흐 만 원, 흐 일이천 원만 생각흐민 다 안네쿠덴. 경 흐연 남은 거 다 쥐불 어서. 경 해나서.

105012 #1 이젠 히여난 디 가난 히지도 못 흐고 좇지도 못 흐여렌 흙디다, 옛날 히여난 디. 하르방 들어가난 디.

105012 #2 아, 잘도 즈미 이서. 딱로 들렁귀엔 흐 디 가그네 가오리도 쏘아보고, 이 기움창 안네서도 가오리, 아 고기 쏘으레 가단 브레보난에, 아 모살여엔 흐 여에 우에 거무릉흐 것이 덕석 모양으로 험색이 엷더진 것이 이서. 저 멧인고, 난 무신 건드렁 흐 것이 던져부난 궤쳐저신가 했주. 냉중이라 술술 이레 가단 보난 궤칙 흐는 거 보난 눈 트는 거라.

105012 #1 가오리게.

105012 #2 거난 가오리게, 험색이 엷더전. 예, 이놈 나안티 죽어불렌, 나영 갑장이 이제 시예 강 살암주만 궤 궤 나 쏘으크메 느 들르라게 흐연.

105012 #1 그 사름덜은 궤기 못 쏘으는 사름덜이라.

105012 #2 아이 경 흐연 나가 간 쏘살 흐연 뒤으로 꼬랑지 어염으로 들러갓주게. 꼬랑지 어염으로 궤언 영 흐는 잘 모른 쟁이라. 한잡아 뒤꼭지 앓아 췌우난에 야 화닥닥 흐게 뛰난게 나 차앗안에 화륙 흐민 동으로 착, 화륙 흐민 서으로 착 흐명 경 흐단, 게맛디 한창에 궤어 오라십주. 신씨 가이영 들이 궤언, 이제 돌아가불어 이문방씨라고 그 사름이, 야 멧을 흐젠, 가오리 쏘안에, 하이고 잘도 훑은 거 쏘앗저, 경 흙서 삼춘 칼 궤어당 빌려십서, 나 집의 강 칼 옷영 오마, 흐연에 집의 강 칼 궤영 오란 그놈을 잡안 이제 스분지 일 끈언 주난 들렁가지 못흐여. 하이고 고

맙다, 고맙다 ㅎ명. 경 ㅎ연에 춤 푸지게덜 먹엇수다. 알아지는 사름 갈라주곡 거시기 ㅎ연.

105012 #1 퀘기 막 잘 쏘아났수다. 힘도 좋고 젊을 때는, 이젠 이추록 해도.

105013 @ 퀘깃배는 어떤 종류 이서났수과?

105013 #1 퀘기 잡는 풍선? 풍선 그거 빼끼 더 이서서게? 초석 들령, ㅂ딘 디 갈 땀 네 젓영 가곡, 먼 디 갈 땀 큰 초석, 헤영흔 초석.

105013 @ 테운 어서났수광? 그 숙대낭으로 맵근 거.

105013 #1 테 이서. 테, 할으방 테가 이서나서. 몸 비곡 퀘기 나끄레 뎡기곡.

105013 #2 몸 비곡, 볼락 나끄레 뎡기곡. 볼락 나끄레 가명 출구덕 옷영 가민.

105013 @ 계난 테 ㅎ곡 풍선?

105013 #1 예. 거 빼끼 엇엇수다. 테는 그 몸 ㅎ영 시꺼오곡, 퀘기 나끄레 뎡기곡. 텐 매집의 어서.

105014 @ 줌녀덜 채취하는 해산물 어떤 것덜 잇수과? 줌녀덜.

105014 #1 이제 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줌수질 ㅎ젠 ㅎ민 옛날 줌순 소중이 입곡 적삼 입곡, 수건 쓰곡.

105014 @ 게 바당의 가민 머 잡아와?

105014 #1 바당의 가민 소라도 잡곡게, 하간거 이제나 똑 ㄱ뜨지.

105014 @ 여기 소라엔 흡니까?

105014 #1 옛날엔 구쟁기, 옛날엔 구쟁기. 바룻 테곡, 전북 테곡. 경 ㅎ해주게, 줌수가게. 전북은 이제나 똑 ㄱ뜨고, 바룻, 오분제기엔 ㅎ는디, 바룻, 오분제기엔도 ㅎ곡 바르엔도 ㅎ곡.

105014 @ 설명은 ㅎ지 말앙 그냥 곱읍서. 계난 줌녀덜 잡는 건.

105014 #1 그거.

105014 @ 아까 말흔 전북.

105014 #1 오분제기, 전북, 구쟁기 그거주게.

105015 @ 줌녀덜이 물질홀 때 필요흔 도구덜.

105015 #1 도구덜은양 곤건 들읍서양. 입영 들어가는 것이 속곳 ㅎ곡, 흰 적삼 입곡, 물적삼이엔 ㅎ영, 수건 흰 수건 쓰곡, 눈은 ㅈㅈ만 ㅎ 거, 이젠 큰 눈 하난디 ㅈㅈ만 ㅎ 동골락흔 눈이 잇수다, 옛날 해난 줌수덜. 그거 입어그네 호미 ㄱ어그네 들어가곡, 골쟁이 옷영 강, 비창 전북 잡는 사름 비창, 골쟁이도 옷곡. 경 ㅎ연 강 전북 바지른 ㅈㅈ곡, 구쟁기 잡아 오곡, ㄱ되 나오랏주게.

105015 @ 테왏은?

105015 #1 이제 테왏이나 ㄱ뜨 테왏.

105015 @ 그때 테왏은 무신 걸로 맨들앗수과?

105015 #1 킬락박세기.

105016 @ 계민 요즘 해녀덜 ㅎ고 옛날 줌수덜 ㅎ고 어떤 차이가 이신고마썸?

105016 #1 잡아오는 물건 차이는 귀살, 거는 귀엔 해낫주게, 우리가. 귀 잡아당

폴 것도 엇고, 귀 잘 안 잡아. 먹는 거 뿐이주. 이제는 완전히 돈이 하난 귀 잡는 거 딱잡주게. 귀 잡아당 까그네 커피 수까락으로 공들이 곱닥하게 햏영 폴양 일 키로에 칠만 원. 경 햏영 폴주게. 옛날엔 그런 거 사가는 사름도 엇고, 폴지도 안 햏고, 잡지도 안 햏여 잘. 먹젠이나 햏끔 잡아오주.

105016 @ 계난 옛날은.

105016 #1 구쟁기 햏고 기자, 전복 햏고 기자, 바릇 그런 거나 주장 햏주. 메역은 싯당 메역 해치 햏는 날은 메역 잡곡.

105016 @ 오늘날은 저 며.

105016 #1 메역 해치 햏져, 햏민.

105016 @ 귀 햏영 잡암구나.

105016 #1 요새엔 귀 아이 난 구쟁기만, 요새에 이 난드르 줌수덜. 귀 햏 땀 또 딱나. 햏 물질 햏영 귀 잡는 거 햏고. 구쟁기는, 저 소라 잡을 땀 딱나, 해치가.

105017 @ 거면은 줌너덜 물웃 변천, 웃 변천 어땡 땃수가?

105017 #1 옛날은 무신 그거주게. 속곳 입곡, 힌 적삼 입곡, 물수건 힌 수건 쓰곡, 눈은 요만인 햏 거 썩 물에 들엇주게.

105017 @ 이제는?

105017 #1 이제는 큰 눈 쓰곡, 고무웃 입어불곡. 큰 눈 쓰곡 고무웃 입엇주게. 이제는 줌수덜 얼지 안 햏여. 경 햏영 굿디 나오민 독독독독 털영 불 살랑 추곡.

105017 @ 불 살루는 디 며엔 햏니까?

105017 #1 불턱.

105017 @ 여기도 불턱 잇수과?

105017 #1 이젠 어서전. 이젠 아무디라도 빌레 앞의 브름 의지, 불 살랑 추민 햏곡. 메역 해치 햏 때는 이제 불턱이 더 하. 메역 햏영 막 퍼다 놓민, 메역귀 그창 불치에 썩 먹으민, 햏 보름에 메역 해나민 불치 햏 말 먹엇젠 햏메, 줌수덜이. 시꺼 멍 햏 거 구멍 드러 먹어놓곡 햏민.

105017 @ 배고파노난.

105017 #1 배고프곡게, 귀가 귀햏여노난게, 메역귀. 이젠 메역귀 먹지도 안 햏여 주만은.

105017 @ 무사게 메역귀.

105017 #1 아아. 이제 사름덜 메역귀 잘 안 먹어. 옛날 어른덜은 메역귀 스뭇 크게 햏주게. 줌수 덕에 가민 메역귀 썩 먹는 게 일이라. 게민 이디가 시꺼멍 햏곡.

105018 @ 톳.

105018 #1 톳, 해치 햏여.

105018 @ 톳 해봣디게예?

105018 #1 난 톳 해보지 안 햏디, 줌수 아니난. 조합에서 줌수덜만 햏주게. 옛날엔 톳을 그냥 내불민 돌리와당 먹음 빼끼 안 햏여서. 난 웃드르 사름이난 굿디 톳 햏레 강 숲양 먹는 거 뿐.

105018 @ 옛날은 개인으로 안 하고 공동으로 했지양, 해치 하여그네.

105018 #1 예. 공동이우다. 이녁만씩 가져가서 공동 하여도. 해치 하는 날 메역도 이녁만씩, 툷도 이녁만씩.

105018 @ 해치하민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우파?

105018 #1 아니, 아니. 이녁 물에 들엉 하영 잡으민 하영 가져가곡, 공동 아니. 이제도 공동 아니. 이젠 메역 해치도 안 하곡, 기자 잡아당 먹젠 하민 먹엄주게. 메역 풀 디도 엇곡.

105018 @ 메역도 잘 안 남지양?

105018 #1 메역은 한텐 하여, 대곡. 견디 이 스방의 바당 중에서 이 앞의 메역이 맛좋아. 제일 맛좋아. 물랑도 안 하곡, 싹 싸먹는 디 대곡 메역은 잘도 맛좋아.

105019 @ 그 저 우뭇가사리.

105019 #1 우미. 저 가시리.

105019 @ 그건 개인이 흡니까? 공동으로.

105019 #1 개인냥으로, 이제도 개인으로.

105019 @ 가시리 하고양?

105019 #1 가시리도, 이젠 가시리도 어서, 이 빌레에, 판씩. 가시리 하는 할망덜도 엇곡, 우미 메는 사름도 어서. 우미도 어서. 옛날은 우미 메곡, 가시리 메곡, 할망덜 돈 버실엇주게. 이제 이디 오염웨연 하나토 어서.

105019 @ 옛날 가시리로 머 하여?

105019 #1 풀로게. 풀 도비하는 거. 미녕 메는 디도 가시리 죽 췌 메곡, 방 도비도 가시리 죽 췌 했주게.

105019 @ 우미는?

105019 #1 우미는 푸는 거고, 우미는 맨드는 거.

105019 @ 맹글양 여름에 시원하게.

105019 #1 여름에 그거, 우미 줌수덜 햇당, 가인으로 햇당 널영 우미 숲양 먹으메, 이제도. 경 먹읍니다게.

105020 @ 전복 하고 구쟁긴 어떻 잡암수과?

105020 #1 아, 물에 바지민 전복은 비창으로 떼곡, 구쟁긴 손으로 잡양 망시리에 담양 올려오람주게.

105020 @ 이것도 공동으로 하여?

105020 #1 공동으로 안 하여. 이녁만씩. 하영 잡으민.

105020 @ 물 들 때는 ㄱ찌 가야.

105020 #1 ㄱ찌 들곡, ㄱ찌 나곡 하여도 이녁 잡은 거만씩 풀곡. 구제긴 따로 하여오민 망시리에 담양 물 등갓당, 푸는 날이 잇주게. 게민 이녁만씩 건져당 풀곡, 조합에서.

105021 @ 이 전복 종류 잇지 안 하우파양?

105021 #1 전복 종류사 전복 하나주 무신.

105021 @ 암커 잇곡 수커 잇지 안 흐우짜? 거 모양이 어떻 틀립니까?

105021 #1 암커는 물랑물랑 크곡.

105021 @ 양?

105021 #1 암커는 물랑물랑 흐여, 전복 꺾데기 도 크고, 수커는 빗작빗작 흐곡.

105021 #2 암커는 흐뽀 녀작흐곡, 수커는 흐뽀 움소록흐여.

105021 @ 거난 영 줌 두꺾구나?

105021 #1 암커는 빗작빗작 흐고, 수커는 오물락오물락 흐곡.

105021 @ 반대로 말햐신게?

105021 #1 반대로도 곶아져불엿주만은 저 전복이.

105021 @ 다시 한번 곶아봍서.

105021 #1 전복 암커는 벳작흐곡, 수커는 오물락오물락 전복 꺾데기가 커. 난 전복은 몰라도 경 곶읍디다.

105021 @ 구쟁기 종류?

105021 #1 구쟁기 종류는 흐난디, 구쟁기도 조쿠제기 잇고, 큰 훑는 문둥구제기 잇고, 경 흐는다.

105021 @ 조쿠제긴 죽은 거?

105021 #1 조쿠제긴 준준흐 거게. 경 흐곡 줌수에 매영 짚은 밧디 흐민 훑은 거 잡아오곡, 줌수가 꺾디 흐민 준 거 잡아오곡. 경 흐민 따로 준 건 받아가지 아니 흐민 또 바당물에 데껴불어, 크게, 줌수덜이. 준 거 막 곶려. 경 흐영 이녁만씩 망시리에 담양 컷당 풀 때는 명 푼는 거주게.

105021 @ 거 쓴쓴흐 거, 딱딱흐 꺾데기로 웬 건 무시겨우짜?

105021 #1 그건 구제기 슬메.

105021 @ 쪼꺾락흐 거 보면은.

105021 #1 쪼꺾락흐지 안 흐고 큰 것도 거 이서. 우의 더꺼지는 거. 거 씨. 다듬 아불어사주게. 이제도 큰 구제기 해도 그건 다듬아불어사.

105021 @ 거 이서양.

105021 #1 잇입니다. 구제기 씨와지는 거. 그거 준 구제기고 큰 구제기고 다 잇입니다. 다 잇이는 거.

105021 @ 거 무슨 건지 몰르고양?

105021 #1 것고라 머센 흐다만은. 막 씨. 씨.

105022 @ 아까 말흐 테에 대햐 말햐봍서.

105022 #1 테, 하르방 잘 알주게.

105022 #2 테, 거시기게 수기낭.

105022 @ 멩그는 과정이라던가.

105022 #2 수기낭 거시기 끈어다그네 그 놈으로 이녁 테 훑 만씩 끈주게. 끈어 그네 양펜으로 구망 푼라그네 무슨 낭 질러그네 딱딱 박아그네 못, 나무못으로 흐펜이 도매시겨냥 이쪽으로 안터레 막 디밀양 이젠 덧각흐게 들어가민 나무못으로

딱 하게. 경 하여그네 멩에, 멩에 맨들아그네게 멩에 씨우주게. 경 하여 멩에 우의 텃네, 낭으르게 네 맨들아그네, 텃넬 멩에 우의 ㄴ찌 놔그네 짓주게.

105022 @ 만들아그네 무슨 퀘기 잡았수과?

105022 #1 아니. 퀘기 나끄레 강, 볼락도 나끄곡. 먼 된 못 가주게.

105022 @ 멧 사름 타?

105022 #1 서너 사름 타주게.

105022 #2 볼락 나끄레 가도 두서너의만.

105023 @ 풍선, 아는 대로 한번 말하여봅서.

105023 #1 퀘기 나끄는 배.

105023 @ 돛 달양 하는 거 아니우파양?

105023 #1 응. 초석 들양. 초석 큰 거 들민은, 브디게 갈 때는 네 것영 감주만 은, 먼 되 저 먼 바당에 갈 거 아니우파게. 그 풍선이 그 날 강 그 날 와도, 건 초석으로 브름으로 가는 거. 올 때도 브름으로 들어오곡. 이젠 옥돔이엔 햄주만은 생 성, 제숙, 그거 나까오는 거주게. 다른 게 아니라. 맹내기 하곡. 맹내긴 브딘 되, 먼 되 가사 맹내긴 나쁜텐 하곡, 휘 먹는 거. 주로 생성 나끄레 멧것주게, 하르방은. 배 멧 척 하여그네. 동서가 서의도 잇곡 너의도 잇곡. 경 하여 갓주게. 동서엔 혼 건 배에 퀘기 나끄는 사름.

105024 @ 풍선 명칭 알아지쿠광? 요거 혼 건 초석이고.

105024 #1 배코지 쫄랑혼 건 앞의, 뒤예는 납작혼 거.

105024 @ 그 납작혼 건 머엔 하여?

105024 #1 건 뒷가지 앞가지 하는 거주게.

105024 @ 뒷가지 앞가지?

105024 #1 갈 때는 앞가지로 가곡, 올 때도 앞가지로 오곡, 뒷가진 사름 올르곡 누리곡 하는 거주게, 뒤예.

105024 @ 노 짓는 건 머엔 하여?

105024 #1 노 짓는 건, 네.

105024 @ 네?

105024 #1 옛날엔 네로 것영 브딘 되 가는 사름은 하곡, 먼 되 퀘기 나끄레 가 는 사름은 초석으로, 세 개나 두 개나 들양, 경 해낫수다게.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옷감에 대해서 한번 말해줍서.

106001 #1 옛날엔 광목, 미녕. 그거주게. 베, 모시는 드물고, 모시. 거 빼끼 어 서, 옷은 하여 입을 것이. 하여튼 광목, 미녕, 베, 모시, 옛날 어른덜은 그거 빼끼

입을 것이 엇수다.

명주

106002 @ 거민 명주실예.

106002 #1 예. 멧지. 멧지썰을 맨들라 흐면은.

106002 @ 만드는 과정.

106002 #1 맨드는 과정?

106002 @ 예.

106002 #1 멧지는 누에를 질룰 거 아니우파. 누에 질루민 막 풀 달문 거 해다 놔그네 영 데며. 경 흐영 누에가 커그네, 입으로 쨌쨌흐 때 감양 흡니다, 처음에 그 거. 저 누에가 나오젠 흐민 쨌쨌흐 거 털영 이서 영 해가민 헤뜍헤뜍헤뜍 흐꿈 커. 경 흐민 흐꿈 요만이 크민 그 낭더레 심으멍 올립니다. 그레 행 내불민 그레 뽕 주곡, 경 흐민 뽕 트더 먹으멍 살당 입으로 멧지썰이 잘잘잘잘 느려가. 저 누에가 멧기명양. 경 흐민 이제 누에를 따로. 경 흐다그네 고치 웨여, 힌 고치, 안네. 힌 고치가 웨여볼 거 아니우파. 안네 누에는 들어 앓곡 뱅뱅뱅뱅뱅 저 입으로 뱅뱅 썰을 맨들양 헤영흐 고치를 맨들아마썸. 게민 안네 웨민, 이젠 그걸 탕, 이젠 영영, 미녕 좇는 물레 달문 거 이십니다. 그 멧지 싸는 거, 멧지썰 나오는 거. 경 흐민 이디는 솟디 놔그네 물 팔팔 꿰우곡, 꿰우민 힌 그 집짓은 꼬치를 그 물 꿰우는 솟디레 들이쳐양. 경 흐민 그걸 어떻 흐여그네 물레레 영 감으민, 이디선 흐곡 손으로 질질질 질 해 가민 뱅뱅뱅뱅뱅 가림 짓어정 멧지썰이 나옵니다, 가림으로. 이만씩 가림으로 영 나오면은 이젠 그걸 어떻 흐느냐 흐면은 나뒹당 모동이로 감아, 다, 그 멧지썰을 양. 모동이로 감으면은 이젠 따로 메쟁 흐민 불 살라그네 가시 멕이멍 그 멧지를 맨듭니다. 흐면은 이제 베클 놔그네 차. 북 들이치곡 내치곡 흐멍 차민 이젠 멧지라. 그추록 흐영 멧지 했수다.

106003 @ 멧지 종류 어떤 거 잇수과?

106003 #1 멧지 종류 하나뿐. 멧지 종류는 하나. 게난 멧지가 그 누에 입으로 나온 것이 고우면은 헤영케 곱고, 그것이 흐꿈 곱게 나오면은 멧지가 노리롱흐여.

106003 @ 그 멧지를 머옴 흡니까?

106003 #1 멧지, 그냥 멧지주게. 우리 바지 저고리 하르방덜 흐영 입지곡, 그자 멧지.

106003 @ 생멧지.

106003 #1 생멧지는 노이지 아니 흐 거.

106003 @ 양?

106003 #1 그 멧진 그 멧진디 물 꿰야그네 무시거 낱 노이민 헤양흐는 거주게.

106003 @ 생멧지이.

106003 #1 응. 생멧지는 노이지 안 흐민 생멧지, 노이는 따문 보들보들흐곡 히영흐는 거.

106003 @ 수아주?

106003 #1 응? 수아주?

106003 @ 그건 모르쿠과?

106003 #1 수아주 모르큰게. 난 수아주엔 혼 말은 아이 곱아보난. 생멩지 혼곡 그 저 노인 멩진 헤영혼 게 보들보들혼 멩지 바지 저고리 혼곡 혼는 거주게. 생멩진 적삼 혼곡, 생멩진 중이 적삼 혼곡. 생멩진 슬그랑혼는 거주게.

106004 @ 거난 멩지로 어떤 옷 멩글아마씨?

106004 #1 아니. 바지 저고리. 장개 가젠 혼민 바지 저고리 혼영 입지곡, 도복, 도복 맨들곡 경 혼는 거주게. 경 혼곡 늙은 어른덜 집의서도 바지 저고리 혼연 입지곡, 멩지로, 노인덜은. 하르방이 이시면은 멩지로 바지 저고리 혼영 집의서도 입져, 늙은 어른덜은. 광목 저고리 입은 어른은 두물주게. 멩지론 창옷도 혼영 입지곡. 할망덜은 저고리 치매 행 입곡, 멩지로.

106005 @ 무명썰 알아지쿠과?

106005 #1 미녕썰?

106005 @ 저 무명썰.

106005 #1 무명썰이엔 혼 게 멩지썰 아니 무사?

106005 @ 무명 혼민 머라?

106005 #1 무명 혼민 머라?

106005 @ 무명이 저 머 아니우파, 광목?

106005 #1 광목이주게, 광목.

106005 @ 광목 멩그는 과정 혼번 곱아봅서.

106005 #1 광목은게 강 필로 사오곡 그거 차그네, 그거 미녕이나 흥까지. 그췌룩 차곡 혼는 거주. 게난 광목은 집의서 잘 맨들질 못 혼주게. 집광목으로 막 필로난 사당 햄주. 경 혼영 물레 들영 광목으로 감도 들이곡 물레도 들영, 아의덜 옷도 행 입지곡. 검은 물레 들이민 검은 치매. 노랑혼 물 들이멍 광목으로 아의덜 저고리도 혼연, 옛날엔 우리, 옛날 그 시절엔 경 혼연 입젓주게. 멩질 돌아와가민 막 풀 혼여근에 아의 지집아의 치매 혼곡 저고리 혼영 입저낫주게.

106006 @ 그 누에치기.

106006 #1 누에치기 거 누에 질루는 거.

106006 @ 누에 질루는 거 말해봅서.

106006 #1 ㄴ짜추룩게.

106006 @ 혼번 말해봅서.

106006 #1 처음엔양 종이 닳은 겁네다. 누에 나무에 가망혼 좁쌀ㄴ짜 이디 찍각 데며진 것이. 테와. 게민 그걸 나두민 가망혼 베렝이가 오몰랑오몰랑 나옵니다. 누에 나오는 거, 누엣베렝이 나오는 거. 경 혼민 그걸 툯툯툯 털어놔 이레. 털어 놓민 그거 혼들혼들혼들 혼멍 크민 무시거 뽕도 먹지 못 혼곡 혼꿈씩 혼당 혼꿈 커가민 뽕을 복작 썰영 그레 허꺼. 허끄민 그걸 툯아 먹는 체 합니다, 그거. 경 혼민 츄츄

츄츄츄 커. 경 흐민 가망흔 것이 혜영힙니다게. 경 흐민 크민 이젠 막 크민 이젠 그
 검질이고 유채낭이고 세왕 그레 그 누엘 문딱 좃으멍 그레 올려. 올령 나두민, 그레
 딱시 뽕도 그레 주곡. 경 흐영 나두민 입으로 멩지 썰이 나와. 영영 나오라가민 이
 제 쥘 내불민 꼬치 혜영흔 꼬치가 똥골똥골흔 거 그 누에 입으로 문딱 집 짓어. 지
 냥으로 지 몸 하나 가냥흔 거. 경 흐민 그걸 이젠 물 꿰왕 놔그네 클로 뵁뵁뵁 흐
 멩 누에 썰을 뽑니다, 그거. 빠민 줄줄 나민 이추룩 가림 짓어그네 멩지썰이 나오거
 던. 멩지썰 가림 흐민 이젠 모동이로 걸 다 감읍니다. 감으민 끼차지민 썰로 영영
 흐멍 잇으멍 감양 감으민 이젠 저 미녕 메듯 딱로 맵니다게. 저 불 살르곡 흐영 미
 녕 클로 흐영 마당에서 막 가시로 밀멍 흐민, 이젠 그거 메영 모동이 흐민, 이젠 꼬
 리 감곡 흐영 이젠 베클에서 차. 북으로 이레 갔다가 저레 갔다가 흐멍. 경 흐영 차
 민 그것이 멩지주게. 게민 노이지 안 흐 건 생멩지고, 노인 건 멘질멘질 흐영 풀 흐
 영 문질흐민 장개가는 새서방 바지 저고리 흐곡 도복 흐곡 햇수게게. 죽어갈 때 죽
 은 옷도 도복 흐곡 바지 저고리, 씨집 가젠 흐민 우리가 여자인 멩지 치매 저고리
 입정 씨집 보내곡, 씨집의서 선물 주는 것도 멩지 치매 저고리. 경 힙디다게, 옛날
 에.

무명

106007 @ 무명이 예, 멩지지양.

106007 #1 멩지우다.

106007 @ 그 종류덜 잇지 안 흐우짜?

106007 #1 예.

106007 @ 토목이다, 생목이다, 광목이다, 닷세미녕 머.

106007 #1 닷세미녕은.

106007 @ 그 종류를 흐번 말해봅서.

106007 #1 예. 닷세미녕은 막 저.

106007 @ 우선 저 토목이 머짜?

106007 #1 토목이 그거 그놈의 아덜이우다게. 경 흐난 말이 옛날 어른덜 문즈로
 토목이엔 했주. 닷세미녕 옷세 일고 으답세미녕이 제일 줌질고 곤 거, 으답세민영.
 으답세론 하르방덜 바지 저고리도 흐영 입지곡 완전히 곤 거. 닷세미녕은 훙은훙은
 흐 갈중이나, 감이나 들영 갈중이나 행 입곡, 경 흐는 거. 닷세미녕 옷세 저 으답세
 미녕이 완전히 곤 거 썰도 ㄱ늘게 꿈꿈 좃앙 정으로 밀어당 멘네 테와당 정 해다그
 네, 으답세미녕 흐젠 흐민 막 멩심흐영 썰 나와사 돼여. 우리 ㄱ쁜 사름은 바르르르
 룩 흐영 으답세미녕이랑마랑 어느 저를에.

106007 @ 거난 쥘 좋은 것이으답세?

106007 #1 으답세미녕.

106007 @ 그 다음은?

106007 #1 그 다음 아래 닷세미녕 훙은훙은 흐 거, 그거주.

106007 @ 중간은 옷세미녕?

106007 #1 예. 경 흐민양 차는 것도 옷세 거세기 잇곡, 으답세 잇곡 흡니다, 차는 것도. 경 흐영 북으로 들이청 내쳤닥 들이쳤닥 흡니께게. 그 곳인 멘네양, 멘네 타오민 고운 거 곳인 거 똥멘네 글러냥 멘네 테와옵니께게. 경 흐민 닷세미녕 빼끼 못 흐여 곳인 건.

106008 @ 경 흐면은 무명으로 어떤 옷을 맵급니까?

106008 #1 아니. 바지 저고리도 흐곡, 아의덜 저고리도 흐영 입지곡. 여자는 치매도 흐영 입지곡게, 스나이는 바지, 바지는 무신 종이 적삼 닳은 거 흐영 스나이덜은 흐영 입지곡, 어른덜은 으답세미녕으로 바지 저고리 흐영 어른덜은 입지곡, 집안의 어른덜은. 닷세미녕은 갈옷이나 흐곡 밧디 입는 옷이나 빼끼 못 흡니다게. 난 그런 거 안 입어보난 몰라도.

106009 @ 토목으로 멀 맵급니까?

106009 #1 토목은 광목이라.

106009 @ 토목 흐곡 광목이 줌.

106009 #1 틀리우파?

106009 @ 틀리지 안 흐우파?

106009 #1 토목이민 닷세 옷세미녕 아닌가? 토목이엔 말은 난 들어본디 어신거 난.

106010 @ 광목으로는 멀 맵글아마씨?

106010 #1 광목으로도 바지 저고리, 치매 저고리, 두루막 흐영 하르방덜 입지곡, 창옷 흐영 입지곡. 그거주게. 죽을 때는 멩지로 흐영 입지곡. 그건 산 때에 노인덜 통대 물곡 흐영 바지 저고리 광목으로 흐영 앓주게. 매번에 소게 낱 바지 저고리 흐민 버물민 그거 튼으멍 다시 빨앙 풀 흐영 다듬이 해사 다시 바지 저고리 흐곡. 종이 적삼 흐영 입지곡.

106011 @ 계문 저 흥세미녕?

106011 #1 흥세미녕은, 흥세미녕이엔 흐 건 저 으답세 흐여그네 새서방 장개 가젠 흐민 저 함더레 놓는 것이 흥세미녕. 옛날엔 미녕으로 놓앗주게. 광목으로 놓곡 흐는디 이젠 이 저 거세기 썩 가젠 흐면은 그것드레 낱, 그거 무신 겨우파 그거 날 택일 흐 거.

106011 #2 날 택일?

106011 #1 날 택일이라도 이름이 이서.

106011 @ 흥세함.

106011 #1 함더레양, 요런 니기반뜩한 함입니다.

106011 @ 예.

106011 #1 계민 그레 광목이던지 미녕이던지 낱, 그 우터레 글 쓴 걸 택일기 논 걸 가져가. 경 흐영 또 우스, 흥세미녕 가져가는 사름은 딱로 갑니다, 새서방침의서, 새각시침의 가젠 흐민. 경 흐영 그건 딱로 들렁 가는 거.

106011 @ 함 속에 안 담양마씨?

106011 #1 함 속에 담양계. 함을 들렁 가는 거주계. 이제도 함 흥영 흥는 디가 이서. 노랑 포따리 싸곡 흥는디.

106011 @ 우리 집원 아직도 흥니다, 그거.

106011 #1 예. 흥는 집원 흥니다.

106011 #2 이디도 흥는 집이구나.

106011 #1 예. 보금지에 편지 봉투 닳은 거 썩 강.

106011 @ 그것이 여장이우다.

106011 #1 여장계, 여장. 여장 맞아. 함 쓰굽에 가는 여장. 계문 니기반뜩 흥 것 더레 미녕이고 멋이고 낡 흥단 중간엔 야기 기저기 저 거세기 멘, 야기 기저기 흥 는 걸로 흥 필이고 두 필이고 낡 흥민, 그 씨집의 보내불민 씨어멍은 그거 말양 나 뒷당 메뉴리 야기 나민 야기 지성기 흥렌 그거 쫓수다게. 계민 거 클러그네 야기 지성기, 이젠 샷바 채우주만 야기 기저기 빨곡 드러 했수계.

106011 @ 나도 흥 삼년 전의 우리 켜당 예장 쓰렌 흥는 나가 쫓수다게.

106011 #1 경 흥민 양 새서방 우시가 글 아는 사름 가사주 글 모르는 사름 가민, 새각시 페라우민 예장 새로 써오렌 흥곡 흥니다. 들여 놓지도 안 흥곡.

106012 @ 그 다음에, 멘네 농사 저볶디가?

106012 #1 계, 멘네 갈앗주계.

106012 @ 멘네 농사 짓는 것에 대행 말해봅서.

106012 #1 굴으카?

106012 @ 예.

106012 #1 멘네왔은 번흥영 나뒷당, 요 흥루기도 굴앗주계, 멘네 번흥영 나뒷당, 난드르난, 웃드른 그냥만 멘네씨만 빼영 가는디, 이디는 몸, 몸 해당 고랑에 쪽 깎니다, 걸름으로. 쪽 끌민 따시 밧을 또 갈 거 아니우파. 갈민 몸 물어질 거 아니우파. 물어지민 이젠, 멘네씨 이젠, 저 불치나 오즘이영 낡 박박 부벼 멘네씨를, 막 마당에서, 올레에나, 막 부비민 거민 흥디 어우러지면은 이제 그거 웃영 강 작작 빨 거 아니우파. 빠민 따로 선비질을 흥여. 경 흥민 멘네씨 가두와지면은 선비질을 흥면은 멘네 나민 검질 메곡 흥는 거.

106012 @ 거난 이제 멘네 갈아그네?

106012 #1 갈아그네.

106012 @ 검질나민?

106012 #1 검질 메곡. 후제 크민 멘네 탕. 이제는 가지 채 타오람주만은 그때는 낭에서 출구덕 메여두서 그걸 탕 멘네로 이레 구덕더레 낡, 푸대나 무시거 웃영 강 담으멍 집의 왔수다게.

106012 @ 멘네드레 먹어볶디강?

106012 #1 영?

106012 @ 멘네드레.

106012 #1 멘네드레 타 먹주게. 아린 때 늬의 밧디 강 막 홀터당 먹곡.
 106012 @ 나도 옛날 타먹어난 기억이 이서가지고.
 106012 #1 멘네드레 세지 안 혼 거. 늬의 밧디 강 막 정탐 시기멍 타먹엇수다
 게. 멘네 타레 가은 못 먹고.
 106012 @ 퍼렁혼 거, 퍼렁혼 거. 거 막 들주게.
 106012 #1 돌아도 먹을 거 어시난 먹엇주게. 경 흐고 멘네밧디양 저 동의 사름
 덜은 흐린 조떡 흐영 멘네밧딜로 멘네 바꾸레 막 텡기고. 떡 흐영 폴레. 멘네 타는
 밧디.
 106012 @ 아, 거 해봣디가?
 106012 #1 우린 해변이난 큰 밧 저디 이시난 조떡 흐영 폰텐 흐난 씨어멍 아니
 보난 모르게 씨누의덜이영 모르게 산 곱정 먹어서.
 106012 @ 게난 멘네가 막 귀해나신게양?
 106012 #1 동의 사름덜게.
 106012 @ 아.
 106012 #1 새각시 소게, 이불을 이젠 삼주만은 그뻐 멘네로만 했수게. 게난 그
 새각시 폴젠 흐민, 난드르 멘네 존 디난 오곡, 밧딜로 텡기멍 흐린 조떡.
 106012 @ 게민 동의는 멘네가 잘 안 뉘난.
 106012 #1 멘네가 잘 안 뉘는 모양인게. 한국에선양 대평만이 멘네 좋은 디가
 엇수게, 채고. 이 대평. 멘네 만이 가난 공장도 이서났수다. 씨 불르는 공장. 대평이
 채고. 이젠 멘네 공장도 엇곡, 이불 안 흐영 갑니다. 상 가불주. 옛날엔 으답 채씩
 아옵 채씩 흐영 갖수게게. 씨어멍 주곡 흐멍 스뭇. 나도 딸 폴젠 흐난 열두 채씩 흐
 연 보냈수다, 그 옛날에.
 106012 @ 혼 번에?
 106012 #1 혼 번 씨집 갈 때 정 가는 거.
 106012 @ 뭇 채마씨?
 106012 #1 열두 채, 으답 채, 아옵 채. 게민 우알채에 이불 흐곡 요 흐곡 열 개
 씩이라.
 106012 @ 하영 흐연 가신게마썸.
 106012 #1 씨어멍 씨아방 혼 불은 안네곡, 경 흐민 지네 더끌 거. 이불 하영 흐
 민, 아이고 부재칩 새각시 오랏져.

모시

106013 @ 그 다음에 양 모시 알아지쿠과?
 106013 #1 육지로 모시 흐지 제주선 못해나서.
 106014 @ 게민 양 모시로 어떤 옷 맨듭니까?
 106014 #1 모시로 중이 적삼. 이 노인덜양 노인덜 씨아멍 씨아방이나 이시민 중
 이 적삼 흐영 입지곡, 창옷, 옛날엔 훗, 안 안 논 거 창옷, 멩질 때 창옷을 입져서.

게민 모시 창옷. 경 흐곡 멩진 생멩지로 바지 저 종이 적삼 흐영 입정 모시로 창옷 흐영 입정 식계 멩질 땀 절 흐곡 경했주게. 여자도 할망덜 모시 적삼 흐영 입곡 치매 흐영 입곡. 모신 죽으민 안 놓는 거, 모시 놓민 즈손 머리 힌덴 해나서. 관 안네. 요샌 모시 안 놔도 다 히여붙어.

106014 @ 무사 힌덴 흡디가?

106014 #1 몰라. 문즈가 모시 옷은 죽음에 놓면은 즈손 머리 힌덴 흐영 못하게 히여. 게난 산 때 입는 거 뿐.

106014 @ 누게안티 들읍디가?

106014 #1 곤는 거 들엇주. 어른덜안티게.

106015 @ 모시 키와뵈디가.

106015 #1 모시 안 해뵈주게. 육지로 온 거주. 이뵈된 모시 안 차바서.

삼

106016 @ 삼 갈아뵈디가, 삼?

106016 #1 삼은 우리 학교 텡길 때예, 모싯대라 이젠 보난. 모싯대 겹죽 베껴 오랜 흡디다게. 모싯대 겹죽 베껴 학교 가민, 잘 안 흐영 오민 벌받곡 해낫수다. 그 걸로 삼베 맨들젠 공출로 육지레 내보내엇젠 흡디다게.

106016 @ 거 어떻 멩급니까?

106016 #1 몰라. 어떻사 맨들아신디, 공출만 해나부난.

106017 @ 베로 어떤 옷 멩글아낫수가?

106017 #1 베론게 종이 적삼, 베적삼, 여자는 적삼, 치매, 남자덜은 적삼 종이 경 흐연 입져, 창옷 흐영 입지고 경 했주기. 다른 거 흘 것이 베랑 엇주게, 옛날은. 삼도 어렵고 베도 어렵고 다 흐난.

106017 @ 상 나민 베옷 입지지 안 흡니까?

106017 #1 상 나민 베옷은 상제 옷이고, 상제 옷이고 기냥 가정의서 집의서 옷 흐영 입엇주게.

106017 @ 상제 옷.

106017 #1 게민 영장은 나민 그 상제 어떻이나 베옷을 흐영 나뵈, 다 옛날엔. 옛날엔 강 사다그네 집의서 두건 맨들곡 영장난 집의서 막 두건 맨들곡, 옷도 맨들곡. 이제는 맨든 거 사당 착착 해불엄주게.

106017 @ 옛날 할망덜 보민 죽기전에.

106017 #1 다 맨들양 나뵈주게.

106017 @ 저 머냐 궤에 나뵈지 안 흡니까?

106017 #1 나가 그 말이거던.

106017 @ 베 색깔 보민 틀려마썸양. 히뚜룩 흐 것이 잇고, 노랑흐 것이 잇고.

106017 #1 할망덜이 돈 한 거 좋은 거 사민 노랑흐 베고, 즘진 베도 잇고 흐끔 혹은 베 좋은 거 잇주. 즘진 건 돈이 해끔만 준 거고, 보통 베는 노랑흐 베는 좋은

거, 할망덜이 돈이 이션 비싼 걸로 사당 퀘에 나두는 거고, 흐는 사름은 흐는디, 이젠 그런 거 맨들지도 안 흐고 베도 안 사오고. 그자 그 날사 맨든 거 사당. 그 베영 흐민 퀘로 앓아내영 영장 나민 그 일가방상에덜 강 두건 맨들곡, 옷 맨들곡 다 했주게. 경 햇수다게, 옛날에는. 옷 집의서 주장 맨들앗수다게. 이젠 안 흐여도. 두건 줍곡.

106018 @ 그 다음에 삼은 싱거보지 안 했지양?

106018 #1 우린 삼 아이 싱거밧수다. 삼에 대해영은 몰라.

106018 #2 삼은 싱거보지 안 했수다. 알긴 아는디.

106018 @ 먼 아는디마썸?

106018 #1 알긴 아는디.

106018 #2 삼은 종류가 알긴 아는디, 보민. 집의 싱거보지 안 했어. 이약 흐썸 잘 사는 사름덜 삼 사다그네게 머 흐긴 해낫수다게. 경 겁죽 베껴그네.

106018 #1 집의서 막 달루고, 숲곡, 다 가메에 슬몹디다, 그거 흐는 거 보난. 거삼 베편에. 막 슬만게. 경 흐연 넓디다게. 그 때 흐꿈 바낫주. 삼은 몰라.

도구

106019 @ 멘네 흐젠 흐민, 씨아 잇지예, 씨아에 대해서 흐번 말해봅서.

106019 #1 멘네 불르는 물레가 이서. 멘네 씨 가리는 거. 경 흐민 일로 뱅뱅 돌명, 일로 멘네 맥이민 씨는 저 이레 털어지곡, 멘네, 소게, 간 건 저레 뒤터레 털어지주게. 그거 곳영 가그네 저 멘네 흐는 디 강, 멘넛정도 해 오곡, 소게도 맨들아 오곡 했주게.

106020 @ 게민 물레에 대흐영 흐번 말해봅서.

106020 #1 물렌 그거. 맨들아진 거. 물레 아귀 멘네 맥이는 거 세 아귀라. 게민 이 고양이레 맥이고, 이 고양이레, 이 고양이, 이디서 흐 착으론 들르곡 흐 착으론 멘네 흐영 물레 맥이곡. 게민 이레 앞더레는 씨 털어지곡, 두터레는 멘네가 헤영흐 거 털어져. 게민 그거 담으민 멘네 테우는 디 가민 발로 딱딱딱 두드리명.

106020 @ 손으로 돌릴 거 아니우파양?

106020 #1 손으로 이 짝으로는 돌리곡, 흐 짝으로는 기계, 물레 돌리곡, 이 짝은 맥여야 돼주게. 이 착으로는 돌리곡, 흐 착으로는 맥이곡. 경 흐민 씨는 앞더레 털어지곡, 멘네 씨 간 건 두터레 털어지민, 그거 담양 강 멘네 테우는 집의 강, 이제 는 기계로 발동기로 활활활활활 데웁주만은, 그 때는 사름으로 영 누들언에 멘네 저 소게도 맨들고 멘넛정도 홉디다게.

106020 @ 누드는 거 머우파?

106020 #1 그 무슨 클산디사.

106021 @ 거 베틀인디양. 베틀에 대흐여그네 흐번 말해봅서.

106021 #1 베틀은 나 알아져. 난 맨들아 보지도 안 흐곡.

106021 @ 남자 삼춘 베틀에 대흐영 말해봅서.

106021 #2 스각형으로 햏여그네 큼직햏게 햏꿈 이만이 높으게 햏여그네.

106021 #1 높읍니다, 높아.

106021 #2 게민 그 안네 그 무신 뵁뵁 돌리는 거 모양으로 멘네 테우는 기계가 잇입주게. 우의서 거시기 돌리멍, 발로 돌리멍 멘네 블라논 거 옷어가그네 앞의 나 둡서 이제 맥이라 맥이라. 그걸 쪽쪽쪽쪽쪽 잡아 뵁기멍 나가민 그자 부각햏게 소 게 나옽주게.

106021 #1 게민양, 그거 등겨당, 이만이 기계로 발로 소겔 테왓수게. 발로 이디 초석 낵 디레 그거를 언주와다 낵 막 무르췌영 손으로 맨듭니다. 옷 소게는 그디서 장으로 짓어주고, 막 뵁뵁뵁 몰아그네 발로 블랑 장으로 짓어주고, 또로 경 햏영 집 의 오랑 옷에 놀 때 옷에 맞추왕 그 소겔 놓는 거고. 그디서 멘네 미녕 맨들젠 햏 민 요만씩 요만씩 멘넷정 몰앙 오랑, 열 개씩 낵 무꺼그네 톡톡톡 낵 옷영 왕, 그 멘네 좗는 물레로 썰 내와그네 미녕 맨들앗수게게. 경 햏수다게. 열리 뜯드르 미녕 클 이서낵수다. 그 테우는 클.

바농질

106022 @ 그 다음에, 바농질 햏볶디게양?

106022 #1 바농질이사 햏주게.

106022 @ 바농질 도구덜 잇지 안 햏우파? 바농질 햏면은.

106022 #1 바농상지, 바농, 전데, 절레, 그 바농 찢르는 절레. 그거는 풀벗른 들 랭이 새끼 요만인 햏 거 햏영 바농상지 햏영, 바농상지 바우레 동골락동골락 햏 거 두 개 맨들앙 돌아메여. 건 바농 찢르는 거. 건 바농상지. ㄱ새 농곡, 썰, 저 거세기 낵으로 이추룩 스랑스랑햏게 맨들앙. 게민 그레 썰 감아그네 나뵁당 쓰곡. 썰 가림 영 햏민 썰 낵 썸지민 ㅈ시 율로 영 햏영 발에 감아두서 썰 감아. 경 햏영 손의로 햏주기. 건 바농상지, 여자.

106022 @ 게난 썰도 이서야 뵁고.

106022 #1 게, 바농상지, ㄱ새, 바농 놓민 뵁는 거.

106022 @ 그 다음에 햏벅덜도 이서야 뵁 거 아니우파?

106022 #1 게 햏벅은 게 바농, 옷 맨드는 거 따라그네 기지 낵어오주게. 바농상 지 햏젠 햏민. 보선 맨들젠 햏민 보선 맨들 만이 낵어오곡. 경 햏영 손의로도 보선 줄 수도 잇곡, 보선은 어떻 햏영 맨드냐 햏면은, 뵁뵁 돌아가게 췌 가운데레 소게 낵 델쓰민 보선이라.

106022 @ 썰 색깔은 멧 개?

106022 #1 썰 색깔은 옛날은 노랑 썰 햏고 검은 썰 햏고 이거 빼끼 엇엇수다게.

106022 @ 노랑 썰도 이서낵수강?

106022 #1 노랑 썰도 잇엇수다, 옛날은. 붉은 썰 햏고, 그건 이서서, 옛날은.

106022 @ 난 흑백 거난 검은 썰 햏고 흰 썰 빼끼 엇이카부덴.

106022 #1 아니, 아니. 옛날에도 그건 잇엇수다. 게난 미싱질 햏는 집의가 드뵁

주게. 감산이 클칩, 클칩 햅영, 시집 가젠 햅민 누비 이불, 감산이 클칩 할망, 클칩 할망 햅명 그 할망 베끼 어서서. 경 햅디 손의로 문딱 그자, 옷 좁는 거고 맨드는 거고 손의로만 맨들명 입지꼭 그자 햅주게, 아기덜이라도.

106022 @ 여기 난드른 미싱 잇인 집 잇엇수과?

106022 #1 잇엇수다. 할망이 저승옷 햅는 할망, 장씨 할망. 죽어불언. 저승옷 햅는 사름이 드물지 안 햅주게. 거 햅 줄 몰랑도 못 햅주게.

106023 @ 바농질 방법 햅번 말해봅서.

106023 #1 바농질은 게, 이것이 바농이민양, 이 바농 영 찢렁 썩썩 햅게 저 가는 건 저 거세기 저 무시겅고 영 햅 건 호썰 좁는 거고, 딱시 뒷바농질 햅는 건 감추는 거.

106023 @ 거 영 영 돌리는 거.

106023 #1 아니, 아니. 이거 영 햅민, 이 바농을양 영 햅민 이레 쪽 갓잘영 뒤우로 또로 바농을 또로 바농썰을 뒤레 가게 햅민 그건 감추는 거, 이것도 영 햅민 영 주는 거는 기냥 호는 거고, 영 이거 감추는 거, 오그라정 중중 햅민 감추는 거.

106023 @ 일자로 영영 들어강 나오게 햅는 건?

106023 #1 그거는 게, 저 호우는 거, 호우는 거. 이딧 말로, 아이고 저 거세기 옷 호젠 햅난 슴브르와라, 경 햅명 호우는 거. 감추는 건 영 이추룩 감추는 거, 바농으로 안으로 쥘 햅햅 햅는 건 감추는 거.

106023 @ 여기 두의 햅어그네 햅벌 놆그네 햅는 건?

106023 #1 햅벌 대여도 손의로 영 호우는 거주게.

106023 @ 호는 거?

106023 #1 호아. 이거 기지민, 나가 동무를 터질 거 아니우파. 게민 기지 니기반 딱햅 거 안으로 낱 햅햅햅햅 호앙 니 귀로 쥘 불민 쥐분 거주.

106023 @ 게민 여기 영 햅는 건?

106023 #1 이건 감추는 거. 감추는 바농질.

106023 @ 감출 땐 어뎅 햅야 돼여?

106023 #1 감춤은양, 이거 오그라정.

106023 @ 바농 영 답양.

106023 #1 일로 영 호우명 쪽 쥐 가주게. 베겅디 썰 안 나오게.

106023 @ 썰 안 나오게!

106023 #1 베겅디 못 나오게. 이건 미싱으로 주난 햅여도 베겅디 나오지 안 햅게 감추아야 돼여. 베리지 굿주게 베겅디 나와불민.

106023 @ 이불 줄 땐?

106023 #1 이불은 딱 이불 페우민, 안을 굿더레 낱, 소겅 우트레 낱, 거죽 우트레 놆그네 쪽 돌아가명, 이것이 이불 아니우파. 이것이 소게 놆진 거 아니우파. 영 오그려낱 쪽 호아갑주게, 드문드문이.

106023 @ 게민 두 가지 방법이네양?

106023 #1 예. 호우는 거.

106023 @ 호우는 거 하고.

106023 #1 감추는 거.

106023 @ 감추는 거.

106023 #1 예. 거 두 가지 방법, 옛날엔 그거 빼기 엇엇수다게. 이젠 미상이 다 행, 옷 상 입어붙고, 옷 맨들지도 안 하고 다 햄주만은 옛날엔 여나문 슬 열다섯 슬 나도록 팬티 입졌수과.

106023 @ 계난 터진디 영 대여그네 주는 거주게.

106023 #1 건 주는 거고. 옷도 팬쓰가 어딿수과, 아기덜은. 신도 엇엇수다, 옛날 아기덜은. 맨발에 발삭발삭 다녔주. 짝신.

옷 종류

106024 @ 그 남자 옷 종류에는 어떤 것덜 잇수과?

106024 #1 남자 옷은 저고리 하고 바지, 창옷 거뿐. 양복은 이런 양복이고.

106024 @ 옛날도 양복 이서났수과?

106024 #1 옛날도 양복 잇주게. 양복 입는 사람이 멧 개 안 뵈주게, 옛날엔.

106024 @ 계난 남자 옷 흐민, 갈중이 잇고.

106024 #1 갈중이 잇고.

106024 @ 그 다음.

106024 #1 갈 적삼 잇고, 모시 중이 적삼, 베 중이 적삼, 창옷 그거주게, 다른 거 어서.

106024 @ 계난 베갯디 나갈 때는?

106024 #1 베갯디 나갈 땐게, 갈중이 입엇당 벗어뵈게 미녕 바지 저고리던지 헤 또록 하게 입영 나감주게. 어이구.

106024 @ 집의서는?

106024 #1 집의서는게 그냥 그거 입영 살암주게. 갈중인 밧디 갈 때 입곡, 갈중이 적삼은 밧갈 때영 입곡, 다른 건 미녕 저고리, 미녕 적삼, 미녕 중이, 양복이엔 흐민 무신 몸빼 닳은 것덜 흐영 양복이 서서게. 양복이 어디 잇수과.

106025 @ 여자 옷 종류는 어떤?

106025 #1 여자 옷은 속곳, 중이, 따시 바지, 가래운바지라, 저 굴중이, 치매, 적삼, 그거주게. 다른 거 어서.

106026 @ 아의덜 옷 종류는 어떤 거?

106026 #1 아의덜 옷은게, 그거 그놈의 아덜이주게. 바지엔 헛자 중이 ㄱ찌 바지 ㄱ찌 맨들안 입정 내불엇주. 무신 곱게 흐곡 좋은 거 입져서게. 미녕으로 흐영 어떻 물레 들이멍, 노랑 물레 들인 사람, 검은 물레 들인 사람, 어떻어떻 입전 설러 불엇주. 어느저를에 잘 입지곡 개광. 멩질 돌아오민 스뭇 미녕 차젠 흐민, 검은 꼬리, 붉은 꼬리, 흰 꼬리 흐영 북 세 개로 이레 갖다 흐 번은 붉은 거, 흐 번은 검은

거, 흥 번은 노랑 거 흥여그네 미녕 그거 차지민, 걸로 아기 여자덜 저고리 흥영 입 지곡.

106026 @ 옛날 빠찌이.

106026 #1 빠찌가 어딿수과게.

106026 @ 빠찌이.

106026 #1 그 빠찌가 바지주게.

106026 @ 영 터지와그네.

106026 #1 터지곡 데곡, 영 가레엿주게 허리끼지.

106026 #2 오즘 모르우민 영 흥영 싸곡.

106026 #1 스나인 사듬서 싸곡.

106027 @ 그 다음에양 마름질 흥고 옷 만드는 과정.

106027 #1 옷 맨드는 과정은 중이 흥 때도 딱나곡, 적삼 흥 때도.

106027 @ 옷 맹글아봄디게양.

106027 #1 예게.

106027 @ 과정을 흥번 말해봅서.

106027 #1 과정은 그거주게. 몰르는 게 주장이주.

106027 @ 몰랑.

106027 #1 바지 흥젠 흥민 바지 식으로 몰라야 웰 거, 저고리 흥젠 흥민 저고리 식으로 몰라야 웰 거, 속곳은 또 속곳 흥는 식으로, 속곳 장의 부찌는 거 막 하메. 굴중이 요만씩 흥 거 부찌는 거 열 개도 넘어. 게난 어멍 엇인 사람은 굴중이만 험벽 부찔 줄 알민 어멍 어서도 산덴 해나서.

106027 @ 과정을 말해봅서. 몰라그네.

106027 #1 몰라그네 험벽 드러 부칭 이거 맨들어야주. 이 모양으로 맨들어야주 게. 호앗던지 감췄던지.

106027 @ 그 다음.

106027 #1 그거주게.

106027 @ 몰름만 흥민 옷이 돼여?

106027 #1 바농질만 흥민 돼는 거주게.

106027 @ 바농질은 웰쌍 해야지양?

106027 #1 웰쌍도 흥영 느다싸민 돼고 어떤 사람은 느다쌀 거 웰쌍도 흥고 그 추룩 흥엿주게. 맨들은 웰싸사 바지가 돼주. 베리지 굿영 웹니까게.

106027 @ 계민 여긴 머 허리에 고무줄 낫수광?

106027 #1 고무줄도 줄바로 엇엇수다.

106027 @ 계민 그 흥번 바지 맹글 때 과정을.

106027 #1 바지 맨들 때 바지로 몰르민 바지 모양으로 부찌야주게, 험벽을 다. 저고린 저고리 모양으로 부찌야곡. 경 흥영 호우던지 감췄던지 흥는 거주게. 호우는 것도 잇곡, 감췄는 것도 잇곡.

106027 #2 경 흐난 앞가지 뒷가지 흐여그네게 부찌민.
106027 #1 플라 논 것만 츠레로 부찌민 웨는 거.
106028 @ 바지 잊지 안 흐우파양? 명칭, 바지도 명칭이 이서.
106028 #1 바지도게 앞가지 뒷가지가 잇수다.
106028 @ 거난 그 명칭을 말해봅서.
106028 #1 앞가지는 흐쓸 좁게 몰르곡, 뒷가지는 널르게 몰르곡.
106028 @ 앞가지가 어느 거라?
106028 #1 여기 동동 흐는 거 앞가지.
106028 @ 그 다음엔?
106028 #2 엉덩이 가는 거 뒷가지.
106028 @ 여기는?
106028 #1 여기는 허리, 허리.
106028 @ 계난 그거 빼끼 엇수가?
106028 #1 계, 거 빼끼 엇주게 무신, 다른 거 셔?
106028 @ 계민 저고리, 저고리.
106028 #1 저고린 스미 흐곡.
106028 @ 아니, 여기 드는 건 머라?
106028 #1 짓 들곡, 동전 들곡. 안네 거는 너븐 건 짓, 베껏디 헤끔은 흐게 동전. 흰 걸로 영 드는 건 동전.
106028 @ 여기는?
106028 #1 여기는 스미. 스미 이거 그냥 스미주게. 스미 그냥 영 해부는 거. 느다싸민 스미가 웨부는 거.
106028 @ 여기는?
106028 #1 여기는 어깨, 진동, 진동이엔 곶아.
106028 @ 여긴 단추?
106028 #1 단추 메는 옷이 옛날에 어디 이서.
106028 @ 계민 머라?
106028 #1 거는 앞의 오는 거난 단추 메는 거주게.
106028 @ 험백으로 영 흐영 맹글아그네.
106028 #1 그건 돌메귀.
106028 @ 양?
106028 #1 그건 돌메귀.
106028 @ 돌메귀?
106028 #1 예. 단추가 어딿수과? 돌메귀 들안, 돌메귀 들안. 이 속곳에도 돌메귀 뺨주룽케 들고. 건 일름이 돌메귀.
106028 @ 치마, 치매 이디 영 무끄는 걸 머렌 흐여?
106028 #1 허리띠주게.

106028 @ 양?
106028 #1 치매 허리띠 무끈 거.
106028 @ 허리띠. 그 다음에 영.
106028 #1 건 치맨게 통으로 흐는 거난 두 폭이민 두 폭, 혼 폭이민 혼 폭 흐영
알 감추와불곡, 멜친 들민 치매주게, 아기덜은. 친 들양 입저십주게.
106028 @ 제일 밑에는 머온 흐여?
106028 #1 바우난 영 오그려그네 감추왔주게.
106028 @ 명칭, 명칭.
106028 #1 명칭 그거 감춘 거.
106028 @ 그 다음에양, 보선. 보선 여기를 머온 흐여?
106028 #1 코잡이. 보선코잡이.
106028 @ 그 다음에 여기는?
106028 #1 거는 기냥 보선이온 흐민 웨는 거주.
106028 @ 여기는?
106028 #1 여긴 보선모가지.
106028 @ 여기는?
106028 #1 발창게. 보선창게. 발창이나 보선창이나 ㄱ뜨지 안 흐여?
106028 @ 보선 안네는 무시거 놔?
106028 #1 숨 놓는 사, 늘근 어른덜은 숨을 놓메.
106028 @ 멘네, 멘네.
106028 #1 멘네, 숨, 숨. 멘넬 놓지 안 흐고 멘네 테와온 숨을 흐끔씩 놓멍 웨싸
그네 안광 그 거죽 사이에 낱 웨쓰메. 경 흐영 신엇주게, 발 실려왕. 난 보선 신어
보지 안 햇수다만은, 어린 때라도.
106028 @ 계난 여기 머?
106028 #1,2 코잡이.
106028 #1 보선코지.
106028 @ 그 다음엔 여기는?
106028 #1 건 기냥 보선모주게, 뒤치기.
106029 @ 단추 종류에 대흐영 말해봅서.
106029 #1 단추 돌메귀 그거.
106029 @ 돌메귀 뿐?
106029 #1 돌메귀, 단추온 혼 건 돌메귀, 코걸이 걸곡, 이디 코걸이 걸곡 돌메귀
들양, 돌메귀 못아야 웨여. 못을 줄 모르는 사름은 못 못아.
106029 #2 이젠 머 못을 사름이 어서.
106029 #1 장엔 문딱 돌메귀 옷이우다.

재단과 검색

106030 @ 계민양 옷감 손질에 대해서 말씀해줍서.

106030 #1 멍지는.

106030 @ 손질 잘 하여야 할 거 아니우파?

106030 #1 예. 풀 하여 막 안반에서 다듬이 해야주게, 멍지는. 경 하여 다른 건 경 풀 하여, 미녕 ㄴ뽀든 거 옷은 풀 하여 발로 즈근즈근.

106030 @ 그거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봅서.

106030 #1 저, 베투 하여 입지젠 계민양 풀 할 거 아니우파. 밀ㄴ루 낱 죽 썬그네 알뜰게 썬 베투 돌르민 그걸 막 손의로, 옛날 다리미가 어딴수파. 다리민 저 불담아낱 영 미는 거라낱주게, 옛날엔. 경 하여 손의로 초근흔 때, 스투 ㄴ르지 안 흔 때, 손의로 멘작 하여 즈근즈근 개여낱 발로 불릅니다. 다려지게, 즈근즈근 곱닥하게. 경 혼디 이젠 다리미 쇠곡. 경 하여 모시 하여 베는 게을른 사름은 못 입어. 풀 하여 다리미질 해야 돼지.

106030 @ 계난 이것도.

106030 #1 다듬이는 멍지. 미녕 ㄴ뽀든 거 베투 ㄴ뽀든 건 다듬이 안 하여.

106030 @ 미녕은 어떻? 풀로.

106030 #1 미녕은 풀 하여 ㄴ짜 개듯 개여낱 즈근즈근 발로 불르민 이건 다듬이질 해진 거. 경 하여 멍지는 풀 하여 안반에서 와다다다다다닥 멍지.

106030 #2 다듬이질 해야.

106030 #1 저 바지 저고리 하르방네 씨아방 거나 이녁 하르방 거나 하여 바지 저고리도 다듬이 해야 돼여. 곱닥하여 ㄴ지락하게. 경 하여 이젠 또로 그걸 바놓으로 바지 맨들곡, 저고리 맨들곡 햄주게, 소게 논 거. 계난 씨집 오랑 서방 거 바지 저고리 하여 하여 하여 할 줄 모르는 사름이 하. 나도 못 하여 씨어멍이 해주곡, 하르방 거 하여.

106030 @ 거난 그 다듬이질 할 때 안반?

106030 #1 안반. 이제 그 육지 사름네 와다다다 하는 거. 안반 낱 하는 거. 이제 촌에 안반 다 풀아부난 해도, 안반 잊지 안 하여우파게. 막게 하나로 하는 사름 쇠곡, 두 개로 하는 사름 쇠곡.

106030 @ 며 서답 막게로?

106030 #1 아니, 아니. 동골락흔 거 다듬이 막게가 잊주게. 동골락 흔 거. 걸로 마주 앗앙 돌리가 와닥다다닥. 저 돌리가 막게 두 개, 다듬이 막게 두 개 하여젠 하여민 잘 맞아야주 경 아니 하여민 임뎡이 맞곡, 울어지곡 하여. 줄바로 돌리가 맞춰야주.

106031 @ 그 다음에양 검색에 대하여 말해봅서.

106031 #1 검색은양 노랑 물도 있고, 붉은 물도 있고, 검은 물도 있고, 흰 것도 있고, 딱시 딱저지도 있고.

106031 @ 검색 어떻 흡니까?

106031 #1 검색은게 물 하여 켜와그네 물레 해다그네 물에 타멍게 적삼이민 적

삼 들이쳐그네 박박 놀렁 물리우민 그것이 염색이주게.

106031 @ 염색물 풀았수가?

106031 #1 풀았주게. 풀꼭 옛날에 노랑 물은 우녕팻디 치지.

106031 @ 무시거마씨?

106031 #1 치지엔 혼 거 이서, 노랑혼 거, 동골락동골락혼 거. 그거 타다그네 백사그네 물 쩍짚앙 아의덜 저고리 혼연 입져서. 그거 물레 들영. 치지, 치지엔 혼 거 이서난. 이제도 치지가 이서. 거 일름이 치지라. 그 물레, 노랑 물. 감은 우녕팻디 감 타그네 백상 감물 들이꼭게.

106031 @ 그 갈증이 맹글 때.

106031 #1 갈증이 맨들 때 감, 풋감 쟈쟈혼 거 낭에 돌아지민 유월 구물영 해사주 너미 세여도 아이 웨여. 경 혼민 물, 영 떡ㄱ루 뺏는 디영 혼곡, 드고리에 뺏는 사름 시민 아의덜은 강 감주시 막 좃어떡곡. 먹을 거 어시난, 감주시.

106031 @ 감씨. 혼영 혼주게.

106031 #1 게. 거죽 베끼명 연해사주, 쉐 건 혼뽀 딱딱혼곡, 경 혼민 감 들이젠 혼민 아의덜만 빈주룽이 왕 감씨 좃어 먹젠 혼난 난리가 나낫주게. 경 혼연 나가 저고리 들이젠 혼민, 이것이 저고리 ㄱ뜨면은 거세기 감 뺏은 더레 이거 낱 감 우트레 낱 막 놀려. 막 혼게. 이젠 감물로만 혼는다, 그땐 경 놀리민 감주시영 막 부뜨지 안 흡니까. 게민 탁탁 털어볼주게. 털영 널민 매날 보리낱 우의, 매날 물 적지 명 널어야 바래여.

106031 @ 물 적져그네?

106031 #1 물 적져사 햇빛나민 바래곡, 또 밤의 햇당.

106031 @ 게 물 적질 땐 멀로?

106031 #1 늘물로. 허벅으로 질어온 물, 내에 강 감산이 내에 가그네 갈증이 적삼 정 가그네 내에 강 경 경 햇당, 돌 우의 낱당 물 빠지민 집의 저다그네 널곡. 경 햇주게.

106031 @ 계난게 물 안 들영 해영혼 걸로.

106031 #1 해영혼 건 중이 적삼, 바지 저고리, 미녕 바지 저고리, 광목 바지 저고리.

106031 @ 검은 건 사당 혼고?

106031 #1 검은 거는 물레 들염실 거라. 난 검은 건 아니 해보난 몰라. 검은 건 잘 어서.

106031 #2 물레 들염주.

106031 #1 음. 물레 들염주. 물레도 무신 검은 거. 출혁 해다그네양, 눈에 출혁이 잇주게. 출혁 해당 막 데경 뜨시 물 낱 막 씻영 험벅에도 들여낫수다. 물레 어시난.

106031 @ 출혁 벌경혼게?

106031 #1 예 벌경혼게. 출혁 해다그네.

106031 @ 출혁 흘 만 흡니다게. 토신제 흘 때 흐는 식으로. 송이지 송이.

106031 #1 밧디 가그네 쉼매나 맥이레 강 비오랑 젓이민 출혁으로 들이민 몸에 물 느려. 경 해낫수다. 즐바로 헨 살앗수과게.

신발

106032 @ 신의 종류에 대혀영 곶아줍서.

106032 #1 옛날 신발은 짝신,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 운동화 그거 빼끼 어섯주게.

106032 @ 나막신.

106032 #1 남신. 낭으로 맨든 남신.

106032 @ 경 흐민양, 가족신 이서낫수가?

106033 #1 옛날에 가족신 이섯주게.

106033 @ 거면은 가족신 맱그는 과정 흐번.

106033 #1 가족신 맨드는 과정 어떻 알읍니까.

106033 #2 가족신 맨들은 가족 흐여다그네 몰릅주, 몰라. 몰라그네게 칼로 거시기 뱅뱅 돌려가명 끈어그네게, 므리와그네 거기서 이젠 이제 바놓으로 줄 건 바놓으로 주곡. 경 흐여나그네 밧창 부쩍 때는 밧창 흐곡 운지 그 거시기 가족으로 흐거 운지 밀으레 신창이영 그짜 놔그네게 줍주게. 주어그네 그거를 게, 바놓 두 개 흐영 마주 쥐 갑니다게. 딱 흐게 주민 그걸로 끓.

106033 @ 낭 바투지양?

106033 #1 에에. 그거 골 박아엔. 신창에 마주아그네 운지 움직거리지 못하게 박아야 흡주게.

106034 @ 그 다음에 남신 맱그는 과정 말혀보써.

106034 #2 남신은 그 끌로 파곡, 자귀로 가끄곡, 머 흡주기. 오골랑흐 게 칼 잇수다게. 거 남신 푼르는 칼인디. 통 젓어그네 파내젠 흐민게, 경 안 흐민 신지 못홀 건디 걸 파내부려야 신어정 흘 건디, 그걸 문짝하게 남신을 곱게 흐젠 흐민 불지지명 거시기 흡주기.

106034 @ 낭은 무슨 낭으로 흡니까?

106034 #2 낭은 머 소낭으로도 흐곡, 아무 낭이라도 흐기 좋은 낭 이시민 흡니다게. 보통으로 소낭이 만흡주기.

106035 @ 짝신 맱그는 과정 흐번 말해보써.

106035 #2 짝 두드려그네, 덩드렁에서 망치로 딱딱 두드려그네, 그 다음은 놀이제 푼주게. 신 만들 거시길 흐여그네 밧 멧 치 짐작흐여그네 놀이제 밧에 맞추왕 끈어그네. 경 흐여그네 신 각을 만듭니다게. 경 만들양 거시기 흐민 흐 짝 부찌그네 흐 번 넘어가명 짝어시 어울리 때게 이레 어울려 가곡 저레 어울려 가곡. 약 흐 열다섯 개민 열다섯 개, 쓰무 개민 쓰무 개, 경 놔그네 삼으민. 경 흐다 보민 딱로 바우 거시기 꾸미젠 흐면은 그늘게 노 꼬양 신 각에 찢릅주게. 돌아가명 바우

뎡썩헝게 썩넝끼게. 꾸뎡 거시기 헝여그네 양뎡이 귀마리 딱 헝게 헝민 썩주게. 경 헝민 신영 바그네 죽으민 크게 숨아사켜, 크민 죽게 숨아사켜 헝뎡 신읍주게.

106035 @ 그 바위는 썩으로 헝지 안 헝여그네 신사라로 해낫수강?

106035 #2 헝뎡 곱게 거시기 헝젠 헝민 신사라로 거시기 헝엿수다게. 경 헝민 아프지도 안 헝곡 붕물지도 안흡주기.

106035 #1 신 다 삼으민 코지 난 거 헝곡 뒤치기 헝곡 헝영 안네레 담양 딱딱 두드립데다. 신 삼는 하르방 보난. 건 곱 박는 거. 곱 박는 거엔 흡디다. 신 늘어나 게 경 흡디다.

106036 @ 썩신도 종류가 잇지 안헝우파?

106036 #1 이 각을 훝은 곱로 헝 건.

106036 #2 게난 훝은 각이 잇고, 줌진 각이 잇고. 게난 썩신 보통으로 헝여그네 믹쉬 몰레 텡기곡 드르에 텡기는 썩신은 훝치 썩신을 삼아 가뎡 훝은 곱로 각을 주고 흡주게. 경 헝여그네 훝은 거는 헝 으스 개 일곱 개도 헝곡 헝 열두어 개까지도 흡주게. 경 헝난 각도 이만썩 돋집니다게. 기냥 기자 신영 텡기는 디 편안헝곡.

106036 #1 신는 거가 또 하나 이서. 가막창신. 옛날 새각시 신으는 가막창신.

106036 @ 그거 헝번 말해봅서.

106036 #1 아니, 가막창신은 맨들어진 거, 몰레 들이곡 헝영 곱닥흔 신입디다. 그건 새각시 씨집 갈 때 신으는 거. 보통 씨집가는 사름덜은 헝 고무신을 신으는디, 부재칩 양반의 딸, 멋쟁이, 우리 친정할망 씨집갈 때 가막창신 신져렌 흡디다게. 거 일름이 가막창신. 거 일름뎡 알지 다른 건 몰라.

모자 등

106037 @ 그 다음 그 모자 종류에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

106037 #1 밀랑푼렝이 헝곡.

106037 @ 정동으로 뎡근 것도 잇지 안 헝우파?

106037 #1 아, 그건 입재, 뎡긴. 입재엔 헝곡 뎡긴이엔도 헝곡. 딱시 큰 밀랑푼렝이ㄴ썩 대로 뎡든 건 병긧. 그거주 우리 듣기가.

106037 @ 다시 헝번.

106037 #1 병긧은양 큰 정시나 쇠뎡이나 그런 거 대로 뎡든 이제 헝고, 샷갓 여자덜 검질 뎡 때 대로 뎡든 거 샷갓도 잇고, 밀랑푼렝이도 잇고, 남자덜 머흔 어른덜 쓰는 거는, 줌 머흔 사름덜은 밀랑푼렝이만 썩주게, 모자 안 썩.

106037 #2 늑은 어른덜 보민 기자 믹쉬도 보레 텡기곡 드르에 하르버지덜은 그 자 병긧 헝엿주.

106037 #1 털병긧도 잇고, 기냥 병긧도 이서.

106037 @ 잘 곱아봅서, 무시거마썩?

106037 #1 털벌립도 잇고 기냥 벌립도 이서.

106038 @ 여름 모잔 어떤 것덜이 잇수과?

106038 #1 여름 모자 그 것에서 알루운 거주게. 밀랑프랭이 그쁜 거.
 106038 #2 여름 모자엔 흔 건 우리 알거나 패랭이. 보리낭으로 짜그네.
 106039 @ 그 다음에 겨울 모자는?
 106039 #1 겨울 모자 그게 그놈의 아덜이주게. 털벌립 하고. 겨울 모자가 따로
 이서?
 106040 @ 양태 맹글아볶디가, 양태?
 106040 #1 양태가 머라?
 106040 @ 양태.
 106040 #1 들어본 디도 어신 말이여.
 106041 @ 총모자?
 106041 #1 털벌립 하여그네 노리 잡으레 텡기는 사름이 총모자 아닌가?
 106041 @ 총 하면 저 물총.
 106041 #1 아, 건 나 우리 몰라.
 106041 #2 이름은 들었수다만은 만들어보지 안 했수다.
 106042 @ 탕건?
 106042 #1 탕건이 입재주게. 맹질 때 절 하고 하는 거, 노인덜.
 106042 #2 물총으로 만든 겁주게.
 106044 @ 도롱이 알아지쿠과, 도롱이? 비올 때, 새로 맹근 거.
 106044 #1 비오민 도롱이 쓰는 거, 건 도롱이.
 106044 @ 맹글아볶디강?
 106044 #1 난 맨들아보지도 안 하고, 써보지도 안 했수다. 새로 맨들곡, 딱시 어
 육으로도 맨들곡. 짜는 거게.
 106044 #2 느람지 모양으로 짜그네 썩 텡기는 거.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 종류?
 107001 #1 밥 종류는 곤밥 있고, 조팍 있고, 보리밥 있고, 범벅 있고 그거주게.
 무시거 다른 건 어서.
 107001 @ 밥도 많지 안 하여, 곤밥도 있고.
 107001 #1 곤밥 있고, 보리밥 있고, 조팍 있고, 흐린 조팍 있고, 모인 조팍 있
 고, 범벅 있고 그거주게.
 107002 @ 밥쌀의 종류는 어떤 거 잇수과?
 107002 #1 근쌀 있고, 보리쌀 있고, 좁쌀 있고, 흐린 좁쌀 있고, 모인 좁쌀 있
 고, 모멸쌀 있고, 거 빼끼 더 이서. 쌀이엔 흔 건 그거주게.

107003 @ 보리밥에 대행 한번 말해봅서.

107003 #1 보리밥은 그거주게. 보리밥은 호젠 호민 거끄렁 보리, 솔오리 보리밥, 거끄렁 보리밥. 것보리고라 거끄렁 보리엔 해서, 이제 대맥고라. 그거게 쟁ㄴ레에 곱양 가난호 사름은 쟁ㄴ레에 곱아그네 범벅 점 밥 점 호연 맥여서, 아의덜이영. 가난호 집원. 늬의 집의 왕 일당 가그네, 이제 ㄴ뜨민 대맥이난 그거 호 말 호영, 바삭 바락 젓인 거 호영 물리민 그거 막 호여그네 그걸 저 쟁ㄴ레에 곱민 거죽 트로 쏘 트로 스테기 트로 나오주게. 게민 그걸 체로 치곡 푸는체로 청 죽 즈배기 호영 아의덜 맥엇주게, 가난호 집윗 아의덜은.

107003 @ 무슨 걸로 호여그네?

107003 #1 보리쌀로.

107003 #2 보리로, 보리로.

107003 @ 보리로 쌀로 안 호여그네, 스테기?

107003 #1 늬의 일 호면은 거죽 채 보리를 주거든, 호 말을. 일콥으로, 일당으로. 경 호영 주면은 오랑 널면은 바삭 물을 거 아이파. 물르면은 호 말 녀 웰 받아와신디 석 웨 빼기 안 호여 물라불민. 가난호 사름덜은 늬의 일 호영, 이제 돈으로 일당을 줘주만은 그뎌 어신 사름이 일콥 받으레 강, 경호민 이제 그걸 바삭 물리민 ㄴ레에 곱아 방애도 질 거 어시민, ㄴ레에 곱민 호뎌 훤은 쌀도 나오곡, 줌진 스테기도 나오곡.

107003 @ 스테기도 나오곡, 그 다음엔 머도 나오지 안 호여 저?

107003 #1 ㄴ루도 나오고.

107003 @ ㄴ루.

107003 #1 ㄴ루도 나오곡, 쌀도 나오곡.

107003 @ ㄴ루도 종류가 잇지 안 호우파?

107003 #1 아니 종류 그거주게. 게문 체로 쳐. 대체, 거름체, 총체 걸로 치민, 총체는 ㄴ루 나오곡, 대거름체는 훤은 대거름체, 줌진 대거름체 합니다. 게민 줌진 대거름체는 줌지롱호 스테기 나오곡, 훤은 대거름체는 훤은 소레기 나오곡, 또 대체 우의 거는 훤은 쌀이라. 경 호민 줌진 스테기덜 놔그네 ㄴ쿨 티 어시 맨들아그네 이제 ㄴ를은 즈배기 해농곡, 그걸론 죽ㄴ편 거 썩 아기덜 맥엇수게게.

107003 @ 스테기로?

107003 #1 스테기로오.

107003 @ 거난 쌀로는 보리밥.

107003 #1 예게. 가난호 아의덜이난.

107003 @ 밥은 어떻 합니다?

107003 #1 마찬가지로. 물냉 보리쌀.

107003 @ 맹글 때, 자, 보리쌀 놔그네, 물 농곡.

107003 #1 훤은 쌀은양, 줌쌀 먹을 때나.

107003 @ 게민 시서야지.

107003 #1 시스는 건 입재에 메곡, 본인에 메곡, 싯고 안 싯곤 밥 흐는 가정부가 알양 흐는 거고, 경 흐민 훙은 쓸은 밥 흐영 흐젠 흐민 보리쌀이난, 보리낭으로 검은 솟디 솟을 거 아니우파. 게민 그거 의도록은 못 솟거든. 경 흐민 바라바라 두 번 케민 불 쟁 내불어. 그 보리밥 흘 때. 그 내불면은 틈자민 보리쌀이 헤싸질 거 아니우파. 또 불 솟으민 케민 이제 그뎨 줍쌀을 놔. 게민 그거 밥이주게.

107003 @ 빨룬덴 흐주. 빨룬덴.

107003 #1 빨루는 거 그거. 보리밥은 빨루는 거고, 줍쌀 논 밥은 안 빨루고. 생보리밥 여름에 줍쌀 아이 먹을 때, 보리밥은, 밥 빨뤄뵤 오라사컬, 문막 밥 흐여도 다시 솟양 물을 떼각흐게 잘 빨뤄. 그건 빨루는 거. 여름에 보리밥, ㄱ슬 들영 줍쌀 논 거 빨루는 거 아니.

107003 @ 그냥 맨보리밥양.

107003 #1 맨보리밥이주. 옛날사 맨보리밥이주. 곤쌀 낱 흐는 집의가 어디서 식게 멩질 때난 곤밥 흐 적 얻어먹엇주.

107004 @ 경 흐민 반지기밥에 대흐영 말해봅서.

107004 #1 반지기밥이엔 흐 거는 흐린 줍쌀에 곤쌀 논 것도 반지기밥, 보리쌀에 곤쌀 논 것도 반지기밥.

107004 #1 잔치 때에는 부갓집의 잔치 흘 때 강 보민, 콩 농곡 통보리쌀 농곡 곤쌀 흐나씩 보나마나 흐영 밥흐곡. 또 머흐 집인 콩 흐곡 보리쌀 흐곡만 밥 흡주게. 경 흐여도 콩 농난 밥이 그추록 맛좋아. 하영 흐곡. 멩텅이에 퍼그네. 멩텅이에 밥을 막 퍼놔. 경 흐민 부주 구덕 보리쌀을 두 웨 흐영 갈 거 아이파. 게민 부주 구덕에 밥으로 놔 췌서. 마지막엔 멩텅이에 밥을 다 써지민 멩텅이 탁탁 털어그네 부주 구덕에 집의 오랑 맨 멩텅이 털이라. 경 흐연 살앗수다게. 게민 아의덜은 콩 농곡 흐민 잔칫밥 받앙 오민 먹젠 오독오독 앓앗곡. 고기 웨야지 고기는 어뎡 해시나 흐면은양, 집의서 도새기 잡앙 흐민, 어른은 요멘씩 독새기만씩 석 점, 아윈 두 점, 경 흐연 먹엇수다. 저 선생님도 어뎡 들앙 간 두 점 얻어먹여실거라.

107004 @ 나도 좃안 멩겨낫수다.

107004 #1 맞수다게. 오십다섯 웨여가민 그때, 나와.

107004 @ 그뎨 보리쌀.

107004 #1 막 잔치집의만 가젠.

107004 @ 보리쌀 두 웨 흐영 가민 그 머냐 저 보리밥에 풋 논 거.

107004 #1 그거주게. 것도 경 돌아.

107004 @ 흐 사발 흐곡, 그 다음에 국은 늣뵤국 정도 흐곡. 그 다음에 케기 석 점, 앓은 거 석 점.

107004 #1 아윈 두 점.

107004 @ 막 생각흐민 올 때 그 저.

107004 #1 흐꿈 케기 주곡.

107004 @ 브른 구덕에 곤밥 흐 그릇 농곡.

107004 #1 곤밥 흐 그릇 놓는 되가 드물엇수다. 새각시 상 출리민 독새기 세 개 나 네 개나 새각시 상에 이서. 계민 독새기 하나에, 꿩기 두 점에, 밥 거러냥 상 아래 나뿔. 그 독새긴 어느 놈사 아의덜 좃어가불어사신디 어서.

107004 @ 그거 아무나 주지 안 흐엇수다. 독새긴.

107004 #1 독새기 어느 저를에.

107004 @ 질 가까운 사름안티 좃주.

107004 #1 가까운 사름도 대반이나 앓곡, 훈장이나 흐민 얻어먹어도. 경 흐민 울어 가민, 아이고 울지 말라 어느 집의 잔치 흐문 독새기 받아당 주마이 주마이, 경 헛수게게. 독새기 반찬 흐영 벤또 행 간 사름은 대통령 백이우다. 벤또 쌍 텡기 명. 마농지 담양 내불민.

107004 @ 나도 저 독새기 반찬 어스난 소풍도 못 가낫수다.

107005 @ 그 다음엔 양 곤밥에 대흐영 말해봅서.

107005 #1 곤밥은 게 그거주게. 스테기 냇 흐민 스테기밥이고, 큰 쓸 냇 흐민 곤밥. 그거주게.

107005 @ 나룩쌀로.

107005 #1 나룩쌀로 해도, 산디쌀로 해도 곤밥이라. 쌀로만, 흰쌀로만 흐 건 곤밥.

107005 @ 어떻 맹급니까?

107005 #1 어떻 맨들아게, 불 솜양 밥 햄주게, 솟되. 메 흐젠 흐민, 스뭇 식게 때에 메 흐젠 흐민, 콩꼬질도 나뿔당 메 짓영, 꿩냥도 흐민 짓지 말라 메 흐게 메 흐게 흐민, 밥이 흐끔 서나 흐민 솟두게 우트레 불 담아농곡.

107005 @ 그땐 저 냇불로 흐지 안 흐엇수과?

107005 #1 냇으로 흐는 사름도 잇곡.

107005 @ 식게 흘 때는 경 흐여도 막 정성흐여.

107005 #1 정성흐연게 콩꼬질. 콩꼬질은 불.

107005 @ 그 다음에 꿩냥.

107005 #1 꿩냥. 그런 거 나뿔당 메 흐게 메 흐게 흐루 곱정 나뿔.

107005 @ 보리냥은 안 헛주게.

107005 #1 보리냥은 안 헛주게. 보리냥으로는 메를 안 흐는 거주게, 원쳐. 와닥 닷 와닥 닷 흐명 어떻 보리냥으로.

107005 @ 아침 새백의 가그네, 물 나는 되 가그네 물 흐 허벅 정 와그네 나뿔당 그 걸로 멧밥 헛주.

107005 #1 예게. 스뭇 멧밥 흐젠 흐민 정성시리 헛수다. 어느 저를에. 이제덜은 곤밥도 안 먹영 자락자락 비와불곡, 계영국도 먹지 안 흐영 데껴불곡 해도 가마귀 알아구리 털어집니다. 우린 씨아버지가 죽은아덜이난 식게 멧질이 없어. 식게 멧질이 엇이민 큰집의 식게 멧질 흘 거 아이파. 경 흐민 난 아기덜 물아기 들곡 흐영 뉘시민 하이고 밤중 들민 씨아방이영 씨어멍이영 앞뿔로 가로세로로 갈중이 씨우멍

곤밥 얻어먹이레 업영 들앗수다.

107006 @ 그 다음엔 조팍에 대햏영 곺아봅서.

107006 #1 조팍은 게 흐린 조팍 모인 조팍 그거주게. 조팍은 그거 뿐이주 무시거. 매 좁쌀만 낵 햏는 집, 감저 바래기 썰어낵 햏는 집 가난햏 집. 경 햏주게.

107006 @ 계난 주로 무슨 조팍을 먹어서마썸?

107006 #1 아이고, 모인 좁쌀 보리쌀에, 보리쌀 케와그네 모인 좁쌀 낵 주로 먹엇주, 흐린 좁쌀 먹는 사름 배랑 엇엇서. 흐린 좁쌀은 좋은 밧디 햏는 거주게. 저 옷드르 밧된 문딱 모인 조주게. 모인 존 별경햏곡, 혼린 존 고고리도 거명 햏곡.

107006 @ 어느 것이 존 겨우짜?

107006 #1 흐린 좁쌀이 좋은 거주게.

107006 @ 건디 요즘은 모인 조가 비쌀겂?

107006 #1 하이고 모인 조는 햏 햏박에 이만 원이우다.

107006 @ 흐린 조는?

107006 #1 흐린 좁쌀은 잘 어서.

107006 @ 모인 조가 비싸?

107006 #1 모인 조가 햏 햏박에 이만 원. 이제 좁쌀 먹엄수과? 잡곡 햏자 다른 잡곡만 막. 우리 안거리 아덜네 집윈 가민 잡쌀이 무신 것사 낵신디 밥이 짓빨경 햏고 기자 맨딱 곤쌀은 못 보곡 맨딱 잡곡쌀이라. 우린 세 가지만 낵 먹엄주만은. 몸에 좋덴 햏민 벨 거라도 먹어덜.

107007 @ 풏밥에 대햏영 곺아줍서.

107007 #1 풏은 돛비도 풏밥추룩 별경햏곡. 풏 그거주기. 다시 녹디.

107007 #2 녹디로는 풏밥이 아이 돼주.

107007 #1 풏밥이 안 돼는 거.

107007 @ 풏으로 밥 햏지 안 햏수과?

107007 #1 풏 낵 잔치 때고 집의서도 풏 낵 따시 저 무시거 햏 때는 풏죽 쑤곡 게.

107007 @ 풏 밥에 대햏여그네.

107007 #1 밥은 그거. 풏 햏곡 돛비. 풏이 햏 종류 뿐이난.

107007 @ 보리밥에도 낵 먹곡.

107007 #1 보리밥에도 낵 먹곡, 조팍에도 낵 먹곡.

107007 @ 곤밥에는 안 놓지양?

107007 #1 곤밥에도 놓는 거.

107008 @ 피밥.

107008 #1 피는 모릅니다, 우리. 저 동더레만 박정햏 피 해나난 난 몰라. 동의 강 우리 할망 피 햏영 버실어오라낵젠 햏디다, 일당으로.

107009 @ 감저밥에 대햏영 햏꿈 곺아봅서.

107009 #1 감저밥은게 감저 싱그민, 삿데기 햏영 ㄱ루 햏영 ㄱ루 치민, ㄱ루 우

의 똥글똥글 흰 거 감저 주시가 잊주게. 그거 밥에 낵 먹는 집원 밥에 낵 먹어. 뺏 데기는 떡도 햏영 떡곡, 즂배기도 햏영 떡곡, 경 햏주게.

107009 @ 즂배기 햏영 먹어져?

107009 #1 즂배기 햏여. ㄹ루로. 맛좋아.

107009 @ 막 폭삭폭삭 햏여그네.

107009 #1 아니, 안 햏니다. 막 찌민 찌닥찌닥 햏여. 이젠 감저 뺏데기 숲아도 맛 엇고, 즂배기도 맛 어십디다. 먹는 거 좋아노난.

107009 @ 입이 변햏수게게.

107009 #1 아니, 아니. 먹을 거 햏부난.

107009 @ 거난 입이 변햏는 거라.

107009 #1 먹을 거 햏부난 그거주.

107009 @ 옛날 먹을 거 거 베끼 어신디 이제는 햏도.

107009 #1 옛날엔 송년 지난 등대 곱를로도 햏햏 먹엏수다.

107009 @ 등대 ㄹ루마썰?

107009 #1 보리 저 나민 줌진 ㄹ로, 것고라 등대 ㄹ루엔 햏수다. 송년 지난 그걸 로 주로 떡 햏영 떡고 즂배기 햏영 먹는 사름이 햏낵수다.

107009 @ 이제 그거 먹으민양 쉼 막 찢러불어.

107009 #1 감젓주시 햏당 담더레 널영 송년 찢곡 막 햏난 담더레 널영 과삭 물을 거 아이파. 게민 부수왕 ㄹ레에 곱양 등대 ㄹ루. 애고애고. 죽 쉼 떡곡. 난 씨집의 엔 햏연 오란 보난 고행도 많고, 쓸도 햏 방울 엇고. 친정에선 세상을 모르게 살앗 단 원.

107010 @ 늣뺏밥 햏연 먹어봍디가?

107010 #1 아이 늣뺏 밥. 이제야 늣뺏여 햏이여 무시거 햏주, 옛날엔 국 곱렁 떡곡 탕쉬 햏곡, 그거 뺏긴 안 햏수다.

107010 @ 늣뺏 낵은 안 먹어봍곡?

107010 #1 아니 먹어봍. 고구마는 썰연 햏명 햏 햏연 먹어신디, 늣뺏엔 햏 건 썰어그네 옛날에 식게 때 탕쉬, 채로 썰영 탕쉬 햏곡, 따시 국 곱렁 떡곡, 빙떡 물 쉼 햏민 그 늣뺏채 햏여그네 쪽파 썰어그네 햏영 빙떡에 물앗주, 늣뺏밥은 아니 햏연 먹어봍수다.

107011 @ 툷햏에.

107011 #1 툷햏은 난드르 오난 툷햏 먹어봍.

107011 @ 어떻 어떻 햏니까?

107011 #1 스투기엔 햏명 막 툷햏 햏더라고.

107011 @ 게난 어떻 맨듭디가?

107011 #1 어떻 햏연 맨듭아서게. 씨어명이 맨드는 디게 그 보리쌀 햏뽀 농곡게 툷 바락 낵 햏을 햏주게. 보리햏 우리 먹듯게. 건 불룰라고, 송년 저부난. 햏영 햏민 햏 햏영 햏익 거난.

107011 @ 보리.
 107011 #1 보리썰러레 툇이영 혼디냥.
 107011 @ 빨룬 다음에?
 107011 #1 빨루기 전의 냥 혼디 햏여불어.
 107011 @ 그 다음에 젓으는 거.
 107011 #1 젓영, 배수기로 젓으민 밥이 다 서꺼점주게. 툇밥. 난 툇 난드르 오난 툇 먹어봤주. 웃드르사 툇이라?
 107011 @ 맛 좋읍디가?
 107011 #1 맛사 좋아신디. 난 먹지만 싣펴고.
 107011 @ 양?
 107011 #1 난 먹지만 싣펴. 보리, 보리썰 농곡 부갓칩이난 좁쌀 농곡, 저 곤썰 농곡 햏연 먹단에 이디 오난, 승년 들어불고 그걸 먹으렌 햏민 먹얼저게. 아의덜은 흘 수 어시 먹언 살앗주. 경 햏민 큰아덜 나 햏곡 이 하르방 들양 친정에 밥 얻어 먹으레 가. 햏 이틀 살민 할망이 곤썰 햏 돼 싸 주멍, 가라 가라, 햏영 보내불곡. 경 햏테다.
 107012 @ 너피밥 먹어봘디강?
 107012 #1 너피가 무사 저 거세기.
 107012 @ 녁패.
 107012 #1 녁패, 녁패. 밥은 아이 햏영 먹곡 국은 길렁 먹어서.
 107012 @ 녁패 냥은 밥 안 햏여봘?
 107012 #1 아니 햏맞수다. 보깡, 그거 햏 바당물에서 밀어똥 싣영똥 읍니다. 오 라그네 건 보까. 보끄민 문작햏민 물 냥 국 끌연 먹엇주. 햏린 좁쌀에 녁패국 대게 맞춘니다.
 107012 @ 녁패 좋아, 나도 먹어나신디.
 107012 #1 옛날에 녁패국 맞춘니다, 거. 이젠 가시리 냥도 비빔밥 햏난 줍디다, 식당에 가난. 가시리 놘싣디다.
 107013 @ 그 다음엔양 국 종류, 국 종류 어떤 것덜 잇수과?
 107013 #1 국은 뇨멸국도 햏고, 메역국도 햏고, 늣뻘국도 햏고, 녁패국도 햏고. 그거주게. 콩 뇨물, 옛날엔 콩 뇨물 냥 국도 안 햏영 먹엇수다. 콩 뇨물이 어려우난. 식 게나 햏젠 햏여사 콩 뇨물 그거주게. 녁패국, 난드르난 녁패국이주 웃드른 녁패국이 엇주게. 뇨멸국, 메역국, 똥장국, 그거주게. 늣뻘국 그거 뿐이주게.
 107013 @ 콩국?
 107013 #1 콩국은 뇨멸 냥 국 끌리는 거난 그거 뿐이주.
 107013 @ 요즘은 성게국도 나오고.
 107013 #1 중간에 성게국이주, 옛날에.
 107013 @ 갈치국도 나오고.
 107013 #1 옛날에도 갈치국은 이섯주게. 경 햏주만은 갈칠 경 먹어져서. 슬난이

국 낚령 떡곡, 옥돔도. 경 아무나 먹어젓수과게, 그것도게. 식게 때에나 먹엇주게. 레기국을 경 아무 때나 먹어서? 옛날에. 이젠 기자 때에도 기루우민 사당 떡곡 들 구 햏염주만은.

107014 @ 늑멸국에 대햏영 곺아봘서.

107014 #1 늑멸국은양 물 낙, 웅장을 낙 삭삭 퀘우민 늑멸 낙 국 끌리민 매기. 웅장국.

107014 @ 늑멸은 저 우녕에?

107014 #1 우녕팏도 갈곡 사당도 떡곡 햏이 엇주게.

107014 @ 제일 햏햏게 햏영 먹읍디게양?

107014 #1 늑멸은 옛날은 늑멸국 베끼 더 잇엇수과? 우녕의 막 갈양. 옛날엔 마농도양 대산이도 이젠는 기냥 깡 막 밧디서 작업, 옛날엔 우녕의 햏폼 싱그민 햏양 케 베껴 싱것수다. 반찬 햏폼씩 햏 것도. 어느 저를에 마농도 경 햏수과, 옛날엔. 햏영케 베껴 싱겨. 이젠 베끼민 썩어불어, 싱경 나두민. 베낀 건.

107014 @ 떠마씨?

107014 #1 대산이.

107014 @ 콧대산이?

107014 #1 베경 싱근 건 문딱 썩어불어.

107014 @ 여긴 대산이엔 햏니까?

107014 #1 옛날엔.

107014 @ 콧대산이엔 햏지 안햏여?

107014 #1 옛날엔 콧대산이, 대산인 중간에사 나온 일름이고. 옛날엔 콧대산이.

107014 @ 콧대산이, 콧으로 영 베끼난에 콧대산이?

107014 #1 몰라, 건. 어떻사 햏연 콧대산인지.

107014 @ 이겨 콧, 손툇을 콧.

107014 #1 이젠 쪽과엔 햏는디, 옛날엔 패마농. 세우리 이젠는 정구지엔 햏주게.

107014 @ 정구진 거 경상도에서 햏는 거.

107014 #1 게메, 이젠 정구지엔 햏주 세우리엔 안 곺아.

107014 @ 경상도 사름덜 햏영 왓구나?

107014 #1 아니 햏영 오나, 아니 오나, 장에 가도 정구지.

107014 @ 부추를.

107014 #1 부추를 세우리엔 햏낏주게, 옛날엔.

107014 @ 경기도에서는 솔이엔 햏곡, 경상도는 정구지, 전라도나, 제주도는 세우리.

107014 #1 이젠 세우리엔 햏민 몰르메. 이디 사름덜토.

107014 @ 제주도에서는 세우리.

107014 #1 제주도 옛날 우리 세우리.

107015 @ 그 다음에양 콩늑물국에 대햏영 곺아줍서.

107015 #1 콩늑물국이 무시거라게. 콩늑물, 물 수와수와 꿩왕 다듬아뵤 낱 머
웬장국이민 웬장, 장물이민 장물 낱 낱령 먹는 거주. 거뿐. 옛날이사 콩늑물국 햅영
먹어젿수과? 늑멸국이 주장이주. 옛날에 식게 햅젠 해사 시리에 놉그네 집의서 놉
그네 질루와그네 식게 햅수게. 꺾는 디 콩늑물도 어섯수다. 어느 저를에. 사와, 어느
저를에.

107015 @ 계난 식게 때나 콩늑물.

107015 #1 탕쉬 햅젠. 탕쉬 햅젠.

107015 @ 탕쉬 햅젠?

107015 #1 예. 집의서 시리에 낱 매날 물 주.

107015 @ 온돌방에?

107015 #1 온돌방에 아이라도 부억에 낱이라도 매날 물 줍주.

107015 @ 크질 안 햅주게.

107015 #1 아니, 시리에 낱. 이디 저 장테나 이제 낱, 낱 바투양 시릴 그 우트레
올려놉. 계민 알러에 늑린 물을 자꾸 박세기 햅연 거러 낱주게, 들구. 계문 콩늑물
커.

107015 @ 무사 새로 물 안 농곡?

107015 #1 새로 아니라도 그 물도 농곡, 새 물도 농곡. 물을 쥐야 크는 거난. 경
햅여도 콩늑물이 몽칼몽칼 커. 이제추룩 안 햅영. 이제는 죽은 건 잠자리콩이엔 햅
영 쟈젠햅 거난 그거주. 옛날엔 잠자리콩이 어덧수과. 득새기콩 햅고 붉은 콩 베끼
더 이섯수과, 장콩.

107016 @ 늑뻘국에 대햅영 곱아줍서.

107016 #1 늑뻘국은 그거 웬장도 농곡 그거주게. 장물 낱.

107016 @ 늑뻘?

107016 #1 늑뻘 썰어놉게. 웬장 일어놉 꿩여가민 늑뻘 썰어놉 익으민 국이주게.
경 햅고 옛날엔 늑뻘국을 잘 안 햅였수다. 늑멸이 좋으난. 늑멸국이 주장이주게. 옷
드른 메역국은 아이 떡곡.

107017 @ 콩국에 대햅 곱아줍서.

107017 #1 콩국엔 소금 농곡게, 콩ㄱ룬 물 썬악썬악 꿩왕 콩ㄱ룬 물에 탕 놓는
사름 ㄱ루로 햅끄는 사름 햅주게. 물 꿩민 이제 늑물을 앞의 놓는 사름도 잇곡, 콩
ㄱ루 논 후제 놓는 사름도 이십니다. 경 햅영 부각이 두 번 세 번 올라오라가민 기
자 소금으로 썬 놉붙어. 소금낱 불을 요멘이 햅영 베룽이 오래 살민 트랑트랑 햅는
거.

107017 @ 계난 소금 뇽니까, 거기?

107017 #1 춘물 어시난. 소금물도 뇽주만은 소금으로 주장 놉붙어 이젠. 옛날엔
춘물 질어다놉 햅주게. ㄱ레에 곱앙. 두부 햅젠 햅민양, 옛날엔 우리 친정 할머니
순 두부만 햅영 식게 멩질을 햅디다게. 난드르 씨집 오난 춘물 저 가는 게 일이라.
경 햅민 어떻 햅냐 햅민 저 콩은 물 등급니다, 우러나라고. 물 등강 나뵤당 이 도고

리 큰 고렷도고리 앓정 ㄹ렷 앓져. 물 등근 걸 출구덕에 건젓당 수까락으로 거러
농명 굴민, 그거 느리민 물 꿩왕 숲습니께. 숲아그네 춘물 질어당 문 숲아져가민 춘
물을 싹 흥게 뿌렁 나두민 그것이 부끄지 안 흥영 트랑트랑 흥민 미녕 차지고, 광
목 차지고 흥영 그걸 저. 경 흥영 안반이고 ㄹ레착이고 딱 지둘루민 두부 웹니께게.

107017 @ 거 비지로도 콩국 끌이지양?

107017 #1 예. 비제기국.

107017 @ 비제기국?

107017 #1 딱난 거.

107017 @ 콩국이나 마찬가지로 아니?

107017 #1 아니 안 웨여. 비제긴 두부 다 짜부난 맛 엇주게. 비제기국.

107017 @ 요즘 저 무신 거 닳은 거구나, 저 순두부.

107017 #1 순두부는 두부 짜기 전의 순두부고, 옛날도.

107017 @ 아 두부 만들기 전의 것이 순두부구나.

107017 #1 예. 순두부엔 합니다. 트랑트랑흥 거. 경 흥는디 게난 옛날 고마우민
비제기 사례 갓당 두불 짓다 흥는 거라.

107017 @ 게난 콩국 끌일 땐 느멀도 농곡?

107017 #1 느멀도 농곡, 늣뻘도 농곡, 아무거나 농주게.

107017 @ 보통.

107017 #1 보통 느물 낫수다, 옛날은.

107017 @ 느멀 흥고 늣뻘.

107017 #1 늣뻘 노는 사름도 드물어. 느물 기자. 옛날엔 느물이 우녕에 혼전해
노난 느물로만.

107018 @ 그 다음에 호박입국에 대흥영 곱아봅서.

107018 #1 호박입국은 물 쭈웍쭈웍 꿩우민 호박입 박박 무지려 낱 꿩민.

107018 @ 호박입 저 영.

107018 #1 베경.

107018 @ 베껴야 흥 거 아니우파.

107018 #1 베껴뵙, 연흥 걸로 흥영 거죽 베껴뵙, 물 쭈웍쭈웍 꿩우민 박박 손의
로 무지려낱 바라바락 꿩민, 모멸ㄱ루 타그네 그레 비와그네 짓흥 흥민 호박입국
아니파. 호박입국은 옛날엔 들궤기 맛이엔 해낫수다.

107019 @ 그 다음엔 몹국, 몹국에 대흥영 곱아줍서.

107019 #1 옛날은양 도새기 잔치 흥 때 아싯날 잡을 거 아니우파. 웃드른 몹 어
섯수다. 몹 푼는 것도 엇곡. 느물만 쳐 담아낱 도새기 숲은 돛국물에 흥영, 내일 잔
치문 오늘 동네 사름덜토 떡곡 다 했수게. 경 흥디 이젠 몹국 흥는 디양 느물 안
놉니다, 이제 사름덜은. 몹국에 ㄹ루 타 농곡, 늣뻘 조쯤 썰어 농곡, 미나리 줌 썰어
농곡 흥영 몹국을 끌리지, 몹 주장 흥영, 느물 바라바락 담아낱 안 흥메.

107019 @ 옛날 잔치 흥 때 몹국 흥젠 흥면은 도새기 숲아난 국물.

107019 #1 게메 국물에. 옛날엔 몸국도 잘 어섯수다. 도새기 삶아나도. 몸이 어디 웃드르 쉬웁니까. 푸는 디가 잇수광, 어떻 햇수광. 느물만 막 놔그네 도새기, 돛 삶은 물, 돛국물.

107019 @ 그 저 수에 삶아난 물.

107019 #1 수에 삶아나사, 스몫 자게 먹젠 흐민, 수에 삶기 전의.

107019 @ 터진 수에도 나오곡.

107019 #1 수에 삶기 전의 저녁 맥여불민 국이 맛 엇덴 흐곡, 수에 삶아난 물은 풀풀흐곡, 수에 터지민 그루도 흐곡 국이 맛좋앗주게.

107019 @ 게난 수에 터진 것이 나와야.

107019 #1 예. 게난 옛날엔 돛국물이 주장햇수게게. 잔치 아섯날이고, 소상 아섯 날이고게. 쨌당덜이영 이제난 동네 사름 막 하영 가도 쨌당 어신 사름은 사름도 하지 아니 흐여. 쨌단 빼끼 안 갈 때난.

107020 @ 생선국에 대흐영 흐번 곱아줍서.

107020 #1 물 쨌민 슬난일 썰어 놀 거 아니우파. 썰어낭 쨌영 막 슬난이가 익으민 늣뻔 놓던지, 메역을 놓던지 경 흐영 끌리는 거 아니우파게.

107020 @ 게난 식게 때 정도 햇지양?

107020 #1 어느 저를에 슬난이국 흐영 먹곡, 이제사 기루우민 시장에 강 사당 먹곡 햄주만은 옛날엔 식게 때 베끼 옥돔을 썰수과. 저 쨌 올리는 것도 머 흐 사름은 우럭, 옥돔으로 제숙흐는 사름도 드물엇수다, 옛날엔. 우린 친정 할마닌 봄나믄 오라그네 옥돔을 문짜 사당 메역으로 막 씹디다, 그 슬난일. 쌍 조항더레 놔, 보리 향이나 깝깝 찢렁 나뒤, 게민 일년 내낭 그걸로 제숙 흡디다, 우리 친정 할머닌.

장아찌와 회

107055 @ 오늘은양 장아찌 흐곡 회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양. 장아찌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과?

107055 #1 장아찌는양 반치지, 늣뻔지, 마농지, 락로 콥대사니지, 양애끈지. 네 가지 거 뿐.

107055 @ 몸진 엇수과?

107055 #1 몸지 안 흐여. 몸은 경 하지 안 흐난. 몸 친 소금에 절영 뻑뻑 치저 먹는 거, 그거. 매집의 흐지 안 흐곡. 몸이 어려와노난게. 웃드르 그똥 된.

107056 @ 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곱아줍서.

107056 #1 마늘은 양 마농 빨리 장아찌는 이제야 난 거고. 옛날은 대사니 콥대사니 메영, 딱딱 썰영, 빨리영 몸이영 딱딱 썰어그네 소금에 절엇당 물에 씨쳐똥 장물 낱 흐는 거. 경 흐연 먹엇주게. 소금에만 절영 먹는 사름, 장물 낱 먹는 사름, 건 마농지라고.

107056 @ 멧월 달 정도 마농지 담앗수과?

107056 #1 마농 나면은, 여름에 이제 마농 날 거 아니우파. 나민 흐영 겨울내낭

묵은 새해까지 삼 년이라도 먹는 거, 건.

107056 @ 거난에 멧월달에 마농은 싱경?

107056 #1 마농은 오뉴월에 마농은 이 마농 흠으민 흐는 거난. 마농은 오유월에 담주게. 칠월에, 팔월에. 메여그네 다듬양, 헤영케 다듬양 머홀쟁이만 다듬양 소금에 절였다그네 마농지라고. ㅋ쿨 씻엉 딱로 단지에 담아그네 그레 장물을 남주게. 이년, 삼년 먹어. 돌 지들루민양 이만씩 혼 돌 옷어당 딱 지들랑 곰팡이 안 피게. 경 흐른 이년 웨가문 곰팡이 막 피문 곰팡이도 거렁 데껴불곡. 옛날엔 경 했주게.

107057 @ 휘 종류는 어떤 것덜 이섯수광?

107057 #1 휘, 사름 먹는 휘, 자리휘, 따시 비깨휘, 옛날은 따시 맹메기휘, 머 무신 거 도새기새끼휘, 웨야질 잡으민 그 새끼, 새끼다 휘, 그거 베끼 휘가 어실 거라 옛날엔.

107057 #2 무사 방어도 휘 해먹주게.

107057 #1 옛날에 방어 섯수과? 방어랑 마랑 아무것도 어십디다. 계난 원채 흐영 먹는 종륜 그거 뿐이주게. 그 군 걸로 흐여그네 무신 옥돔이라도 영 행 먹는 건 먹을 줄 몰란에 영 휘 행 안 먹엇수다. 이젠 막 오리 지서그네 휘도 행 먹곡 다 흐는다. 도새기새끼휘도 잔치나 암커 잡아그네 새끼 나오문 해 먹곡, 도새기배설로 또 해먹곡, 도새기 잡으민 또 배설 막 찍어놔그네.

107057 @ 그 계절에 따른 반찬에는 어떤 것덜 잇수과, 봄에는 어떤 반찬덜.

107057 #1 봄에는 게 마농지 묵은 거여, 머 반치지여, 이제 머 저 고깃넙 툫아그네 고치 싱그문 고깃넙 홀터그네 그거 장물에 담양 먹곡, 또시 멸젓에 버무렁 먹곡 경흐는 거주게. 고기 사당 보끄는 건 동저슬 어시 고기 사당 보끄는 거고. 이제 지지는 말을 이젠 볶으는 거엔 햄주. 옛날 제주도 어른덜은 제주도 사투리가. 볶양 먹곡 자리 볶양 먹곡 자리도 동저슬 어시 시는 거난에 겨울에 잘 어서도 시는 거난 해 먹곡 그자 반찬이엔 현 건 반치지 늬빠지, 그런 거 주장 행 먹엇주게. 반찬은 행 먹엇수과.

107058 @ 여름엔 어떤 반찬덜 잇수과?

107058 #1 여름엔 그게 그놈의 아덜.

107058 @ 여름에는 그.

107058 #2 여름엔게 반치지 해 낫당 그것도 해 먹곡, 웬장국, 놀웬장국 행 그냥.

107058 @ 머가 해그네?

107058 #1 저 물웨 썰어냥, 물웨 썰어냥 국 행 먹곡 경 했주게. 또 번쩍 대접에 그냥 물만 냥 웬장 혼 수까락 냥 확확 후렁 물웨도 안 놓곡 해도 그냥 장국으로 기냥.

107058 @ 그난 여름엔 주로 물웨?

107058 #1 물웨. 장국이주 저 시원하게 웬장국. 끌렁 먹으진 안 흐고 여름에 어른덜은. 이제 사름덜은 여름도 저슬 어시 끌렁 먹고 딸려 먹는다 여름엔 경 안 흐여. 물웨 행 먹곡 웬장국 기냥도 행 먹곡 막 흐주게. 그자 웬장 한 수까락 거려 냥

확 것영 그냥 맨물에 그 웬장국. 콩잎 톨앙 떡곡. 여름엔 콩잎.

107058 @ 그 다음엔 가을에는 어떤 것덜 현 먹읍디가?

107058 #1 가을에는게, 가을에는 꿩기도 사당 볶양떡곡, 그 반치지, 늪삐지가 겨울에도 먹는거주게. 그냥 담음 여름, 저슬 어시 그냥.

107058 @ 가을, 가을.

107058 #1 가을게. 이 가을도 떡곡, 저슬도 떡곡 그자 주로 먹는 거 그거. 봄, 가을 어시. 경 먹는 거우다게.

107058 @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떤 것덜 현 먹었수과?

107058 #1 겨울엔 그거 주게. 그것도 떡곡, 꿩기도 사당 볶양떡곡, 늪물국 끌령 떡곡 기사 무신 반찬 이서수과 옛날이사. 독새기 하나 숲아그네 장물 낡 닥닥 청아의덜 재왕 맥이곡 경 했수게.

107058 @ 여름에 반찬은 어떤 것덜 해마썸.

107058 #1 그거, 그추록 반치지도 행 장 담앗댄 웬장 양념행 떡곡, 물웨하영 떡곡, 콩잎 톨아당 떡곡, 그거주게. 여름에 옛날 어른덜 반찬이 어디 잇수과. 꿩이나 가다급 사지문 볶양떡곡.

107058 @ 개난 물웨양?

107058 #1 물웨가 주장이주게. 여름엔. 웬장 찍영 기냥도 떡곡, 국도 행 떡곡, 물웨로.

107058 @ 겨울에는 어떤 것덜.

107058 #1 겨울에는 늪물국 웬장국 행 먹고, 늪삐국도 끌령떡곡, 메역국도 끌령 떡곡. 그 반치지 늪삐지도 겨울에도 놉뒹당 이 년이곡 삼 년이곡 묵영 먹는 거난 거 떡곡, 꿩기 지정 떡곡 경 했주게. 옛날 어른덜 촌엔 반찬이 그거. 반치지떡곡 늪삐지떡곡. 자리도 지정떡곡 자리젯 떡곡.

107058 @ 고사리무침은 언제 행 먹었수과

107058 #1 고사린 식게 맹질이나 씻주 어느 저를에 경 무청 떡곡 흐진 안 해서. 이제난 막 매집의 젊은 사름덜 현 다락씩은, 옛날엔 난드르 씨집왕 보난 현 골레 행 그냥 지랑이 빨래에 덕덕 걸천게.

107058 @ 개난 지금은 언제 썸 행 먹읍니까?

107058 #1 고사리 나문 아무 때나. 물령 나뒹당 숲앙 먹는 거난. 겨울 여름 어시 먹는 거.

107058 @ 그 다음엔 호박무침.

107058 #1 호박은 그 탕쉬, 식게 때. 무청. 것도 저 여름 저슬 어시. 여름엔 풀 호박 하영 하꿈 떡곡, 겨울엔 호박, 끊어지질 안 하여. 이제도 호박이 먹는 거난. 끌령도 먹고, 숲아그네 탕쉬추록 행 먹는 거주게.

장 담그기

107059 @ 그 다음엔 양, 장 담근 거. 물어보쿠다양. 그 장을 언제 담굽니까?

107059 #1 장, 저 거세기, 셋들 구물양 보름에. 셋들에. 옛날엔 셋들에 담안. 동
짓들에 솥양, 메주콩 솥양당 멧탱이고 어디고 키왕 ㅋ쿨 씻어될 셋들에, 셋들 그믐
날은 마지막으로 장 통드레 소금물 햅여그네 골라앗아그네 저 메주 탁탁 물에 들이
청 소금물 거러 낱 그것이 장 담그는 거. 경 햅영 익으문 먹는 거. 셋들에. 셋들에
담아. 옛날엔. 이젠 저슬에도 담곡, 여름에도 담곡, 봄에도 담곡. 막 장은 햅영, 막
장이영 머영 햅는다, 예난엔 셋들이 햅이라. 셋들에 장 담아. 셋들에 초승에 못 햅
사름은 바쁘른 그믐날에 마지막 날 보름 집안에 햅치 어신 날로만 담아야 웨여, 옛
날 어른덜은. 못 담은 사름덜은 셋들 그믐날은 햅치가 씻고 엇고 막 담아불언. 이제
는 머 여름도 엇고 저슬도 엇고, 웬장 막 철마다 햅니다게.

107060 @ 장 종류는 어뎡 햅수과?

107060 #1 장 종류는 웬장, 장물, 그거주 머. 양념 햅민 그건 양념장으로. 웬장
향아리 거 거러당 낱 그거 양념햅고. 장은 그거주기. 이제는 머 오복 간장이여, 무
신 진간장이여 간장이 많은디 옛날에는 향아리에 담은 웬장햅곡 장물 베끼 엇주기.

107060 @ 그 저 고치장은 어서낫수광.

107060 #1 고치장은 옛날엔 잘 어서도 고치장도 이서주게. 잇긴 이서. 게도 매
집의 고치장이 어서. 육지 사름덜 막 담으렌 멧겨나서.

107061 @ 그 장 담그는 법에 대해 햅번 곱아봅서.

107061 #1 장담금은 아까추룩 소금물을 미릇에 소금을 햅영 나뉘, 게문 골라앗
거든.

107061 @ 아 우선 메주부터햅야 될 거 아니우파.

107061 #1 게메 골라앗져뉘그네 메주는 콩 솥양 발로 이만햅 큰 도구리에 놔그
네 웃터레 발 데부는 따문 무시거 더경 발로 막 불랑 메주가 문짝 까질 거 아이파.
까지문 이추룩 저 딱딱 불라 놓민 칼로 이추룩 ㄸ차, 요만씩 요만씩. 거민 오곳오곳
이뎡 이추룩 수눌영 맨들아. 맨들앗당 멧탱이에던지 어디 낱 퇴와그네 이젠 향아리
에 담으뎡 장 담그는 거주. 곱팡이 퇴와낱.

107061 @ 게난 메주햅여그네?

107061 #1 메주 햅영.

107061 @ 그 다음에 메주 이제 곱팡이 피면 그걸.

107061 #1 씻영, 물로 문딱 씻영

107061 @ 예. 그 과정을 쪽 말햅해 봅서.

107061 #1 물로 문 씻영 향아리에 툭툭 놀 거 아니우파. 메주를 들이칠 거 아니
우파. 들이치면은 옛날 샷드르 들이치면은. 이제 소금을 골라앗은 거 다른 조그만햅
통의고 다라이고 햅 나뉘당 걸 콜락박세기로 그 향아리레 메주 논 향아리레 짐작햅
영, 메주 햅 말이민 소금 얼마, 두 말이민 메주, 콩이 두 말이민 얼마, 경 햅영 그
춘물을 지럿주게.

107061 @ 게난 메주 멧 웨 낱 소금 어느 정도 낫수광.

107061 #1 소금을 햅민 햅 말이문 어뎡사 햅저신디 몰라. 짜게 담기민 너무 장

이 짜곡 흐는 거주게. 소금 하영 해불민. 경흐영 이제는 저울이명 장을 혼으로 담주 마는 그 땀 무조건 그자 짐작흐영 뿔박으로 거리명 팔락팔락 춘물 흐영 놔 노난 무신.

107061 @ 경 흐여 담양?

107061 #1 담양 놔 두문 익을 거주게.

107061 @ 어디에다 놔 뒤?

107061 #1 아니 뒤에 장팡뒤에가 이서. 장 담는 향아리 놓는 장팡뒤. 장팡뒤, 옛날 제주도 사투리가 장팡뒤. 장항 놓는 디난 장팡뒤. 경행 놔두면은 그거 익으면 봄이영 익으면 이제 따로 팔릴 낭 ㄱ실 들어가민 장물 뜨라냥 향아리레 추미레 딸라노민 이젠 웬장은 딱딱하게 놔뒀당 웬장은 그 향아리에서 거리명 사발이고 보시고 옷영 거리명 떡곡, 장물은 시게울 땀 박세기로 거러당 먹엇주게. 장은 두 가지 뿐이라. 이젠 진간장이여 오복간장이여 벨 게 다 이서도 웬장흐곡 장물 베끼 어섯수다. 고치장흐곡 장이난.

107061 @ 경 해그네 그 우선 장물은 거러뿔?

107061 #1 거러뿔 웬장은 쟁 딱딱 쟁 놔두주게. 막 흐나씩 앓아내명 저 지즌 상태에서 막 쟁.

107061 @ 계난 웬장 따로 장물 따로 혼 거 아니우파.

107061 #1 예. 장물 따로.

107061 @ 처음에는 고치 햇당이네.

107061 #1 고치 답앗당. 그 메주 우러냥 장물이 웨어사주게. 우러나그네 장물 별정 흐문 이젠 거리는거라.

107061 @ 장물만 거렁.

107061 #1 거렁. 그 치미엔 혼 것이 장물 거리는 치미라. 우 따시려그네. 옛날 술 담양 먹는거시 치미로 아고 장물냥 치미로 흐나 베끼 안해라. 반은 해라. 경 흐명덜. 저거 먹어보문 들곡 굿곡 흐곡.

107062 @ 메주는 언제, 어떻 쏘니까?

107062 #1 메주 쏘는 거 게 나 곧지 안 흡디까. 동짓덜에 콩 ㄱ실 들문 구월 나민 콩 두드려볼 거 아이우파. 경 흐민 동짓덜에 솟아 그걸.

107062 @ 며에 솟아?

107062 #1 솟에도 솟곡게 가메에도 솟곡.

107062 @ 말치솟?

107062 #1 말치솟. 큰 데 말치에 바라바라 경 흐영 그 저 콩 솟은 물은 더러 낮당 묵은 웬장더레 낱 더 짜곡. 경헛수게게.

107062 @ 게 얼마정도 썬 읍디장

107062 #1 그거는 집안에 가. 닷말 쏘는 사름도 잇곡, 서 말 쏘는 사름도 잇고며, 혼 말 쏘는, 식구에 따라서 흐는 거주게. 그 집의 가정에 따라그네 콩은 솟는 거. 기에가 어서, 혼 마련이 어서.

107062 @ 계난 동짓달에 메주?

107062 #1 동짓달에 메줄 솥양, 셋들 나문 장 담양, 그믐 나문 거렁, 장물 트로, 웬장 트로.

107063 @ 장 담글 때 금기사항 잊지양.

107063 #1 장 담을 때 고사 어떻게?

107063 @ 금기 사항.

107063 #1 금기 사항이 머?

107063 @ 무신 거 흐면 안 웬다흐는 거.

107063 #1 아니, 그런 거 어십니다. 장 담을 때 그런 거 엇고, 해치, 우리 집이 민 독해치.

107063 @ 그런 거.

107063 #1 납해치, 납해친 관계어시난 들해치 시민 장을 안 담야. 이녁 집이 식구에서 해친날은 장을 안 담야. 셋들 그믐날은 해치가 식구 마지막이난 다 담야부러. 마지막 특이라노난. 셋들 그믐날 너무민 장을 담질 못흐난 경 햄주기, 옛날엔.

107063 @ 그거 왜 또 잊지 안 흐우파.

107063 #1 그거 웨로 무시거?

107063 @ 누게 오면 안 웬다.

107063 #1 아이, 그런 건 어서.

떡류

107064 @ 그 다음엔 떡에 대행 알아보쿠다양.

107064 #1 떡은 곤떡계.

107064 @ 계난 질문흐걸랑 대답흐써예. 떡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광.

107064 #1 떡 종류는 쓸. 곤떡은 쓸을 이제 다라던지 무신 것에 물 크지 안 흡니까. 떡은 흐 말 흐는 사름도 싯곡, 석 뒤 흐는 사름도 싯곡, 장압에 딱랑 떡은 흐는 거고. 줍찰도 트로 등강.

107064 @ 계난 떡 종류?

107064 #1 종륜 조떡, 따시 저 곤떡, 따시 흐린 조떡, 모인 조떡 따시 저 고다리 찢 거는 곤쓸떡 반 조떡 반 허민 고다리 찢 조떡, 흐린 조떡, 모인 조떡, 그거주게.

107064 @ 그 다음엔?

107064 #1 그, 그거 뿐이주게.

107064 @ 저 절벤, 솔벤?

107064 #1 절벤, 솔벤, 곤떡. 건 곤떡.

107064 @ 그 구체적으로.

107064 #1 그서봐이. 솔벤, 절벤, 영장 땀 은절미, 따시 저 은절미 말고 그냥 거 멋이엔 흡니까? 고양이 뜯은 거.

107064 @ 명절 때 흐는 거계. 명절 때.

107064 #1 멩질 때, 제 때 쓰는 거, 제 때에는 은절민 안 하는 거고, 은절미, 솔벤, 켈벤, 은절미, 그거 고란 무신 거엔 해라마는. 큰 은절미 작은 은절미 흡디다, 춤. 니귀난 건 큰 거, 영 소량이 혼 건 작은 거.

107064 #2 고망 딸라거.

107064 #1 고망 딸랑 혼 건 산에 제 흘 때만 쓰주. 소랑헌 것만 식게 때 흡니다 게.

107064 @ 묘제 때 고망 딸랑 혼 거.

107064 #1 예, 묘제 때. 큰 은절미, 작은 은절미. 그추록 곱아나서. 우리가 흘 때. 제 때에만 썼주, 고망 딸으는 떡은. 니귀반뜩 혼 거.

107064 @ 침떡도 잇잖아.

107064 #1 침떡도 잇주게. 저 거세기 고침떡, 곤떡, 제펜. 제펜은 제에 씨는 거, 흰 것만. 완전히 침떡. 이제는 머 백시리엔 흥영 식게 때도 그 흰떡 쓰꼭 다 하는디 옛날엔 제때에만 흰 고침떡을 썼주게. 쓸떡 해영혼 거. 제펜이라고. 옛날 일름이 제펜이라고. 제펜, 그 침떡 흰고치 곱아 제펜이랜 곱앗수다.

107065 @ 시루떡에 대행 곱아봅서.

107065 #1 시루떡 그거 주게.

107065 @ 시루떡, 어떻?

107065 #1 시루떡, 제펜흥곡. 저 거세기. 흰 모인침떡, 풀 농곡흥영 모인 침떡 흰 걸로만 양. 따시 흥린 조떡 모인 조떡 그것이 시루떡이주게.

107065 @ 계난 시루떡 재료는 머짜?

107065 #1 재료는 게 좁쌀꺾루. 흥린 좁쌀 떡 흥젠 흥문 흥린 조 백사당 흥린 좁쌀만 농곡. 쉬, 풀 노명 고달 입지곡. 고달이엔 혼 건 풀 낱, 풀 백사당 우트레 쪽 쪽 부뜨지 안 하게. 혼 시루 치고, 제펜이란 거는 이제 산제나 무신 거 흘 때만 제펜 씹니다. 식게 땀 안 하여.

107065 @ 계난 시루떡 맨들젠 흥문 어떻 흡니까?

107065 #1 시루떡 맨들젠 흥문 고사추록 좁쌀 흥영.

107065 @ 무슨 도구가 필요하여.

107065 #1 그 도구는 꺾루해당 시리만 이시문 웨어.

107065 @ 시리를 어디에 놔?

107065 #1 시리 놔기네 또시 그 솟더레 아짱.

107065 @ 어디, 말치에?

107065 #1 말치에 강 시리에 맞춰이그네게. 시리가 죽으민 죽은 소티, 게문 저 닷웨들이 시리, 혼 말들이 시리가 잇주게. 경흥문 큰 거는 다도퇴기, 솟 마진 거 어 시민 빌어당이라도 시리에 맞춰사 웨는 거. 게문 툽 아찌민 시리광 솟 사이에 이 트멍 잇지 안흡니까? 경 흥민 저 보리꺾루로 막 썬그네 끄딱끄딱하게 썬 스방에 빼 영하게 부짱, 걸 짐 나지 못하게.

107065 @ 짐 나오지 못 하게

107065 #1 경헛다그네 이제는 막 기계가 빠난 갖다왔다해도 옛날엔 시리떡 가지문 사름 정지에 금해부러서, 부엌드레.

107065 @ 무사 경 해서?

107065 #1 선뎡 헛명. 옛날 옷재가.

107065 @ 무사?

107065 #1 몰라게. 선뎡헛명 시리떡 아찌민 문 딱 더꺼그네 사름 베리지도 못 헛게헛여.

107065 @ 빨리 먹어불카부덴.

107065 #1 아니 아니. 저 헛 착은 설곡 헛 착은 안 익넨 헛영 경 해낫주게. 더 티 냥.

107065 @ 계난 그 시리 ㄹ냥은 맺 갠지 알아지쿠과, 밑에?

107065 #1 시리 고냥, 일곱 개.

107065 @ 일곱 개파?

107065 #1 예. 시리 고냥 일곱 개. 가운데 헛나. 스방에. 시리 ㄹ냥은 일곱 개우다.

107065 @ 그 다음에 그 시루떡 만드는 법?

107065 #1 시리떡 만드는 건 양 좁쌀, 흐린 좁쌀 강 곶아오문 ㄹ루 아니우파. 곶으민 양 그 옛날엔 냥도구리가 만추게. 냥도구리에 냥이네 물 석거그네 막 밍니다. 밑어그네 솔박이든 박세기든 시리레 거려노명 헛 칭 놔뉘그네 또 풀쉬 농곡, 녹 뉘쉬 뉘문 또 거려냥 헛 칭 놔뉘 시리로 헛 말들일 경 하영헛민 ㄹ드그민 솟드레 강 아쨩 ㄹ루로 스방 부쨩 뉘이에 솟두깁이 딱 더꺼기네 불 소망헛민 우로 헛끔 소민할망이 옛날엔 소민할망이 이십주게. 소티서 떡 헛곡 막 헛는 사름ㄹ라 소민할망이랜 해낫수다. 그 사름이 짐작이 이서그네 새 껍 해당 팍 찢러봅시다. 경 빠내보문 익고 선 걸 아는 생이라. 우리 거 봐 낫수다게. 젓가락도 아니고 새 껍. 고운 새 껍 빠다기네 시리레 우로 솟뚜깁 여랑 껍 찢러디다게. 찢르문 선 거는 막 새껍에 막 ㄹ루가 붙으곡 익으민 문들락 헛는 생입디다. 경 헛영 짐작헛영. 경 헛민 이젠 독서, 독새기 그 고운 거 놔그네 그 시릴 들러당 팍 옆뉘주게. 옆푸민 떡이 오글락 헛게 시리만 빠내곡 떡이라. 이제 칼로 비털 거 아니파, 츠레로. 헛 칭씩씩 문딱 비영, 고랑착더레 낫든 그릇에 낫든 걸 문딱 비영 냥 침떡 소랑소랑헛게. 그것이 침떡 이주게. 계난 곤 침떡이고 반침떡이고 그거 시리에 치는 거, 그진. 종류가. 계난 침떡 종류 양, 제펜, 모인 조떡, 흐린 조떡, 따시 반, 곤 거 반, 쌀 반 헛영 논 거 헛민 시리떡 종류가 네 가지. 네 가지우다. 옛날엔. 경헛고 또 은절미가 이서양. 은절미는 영 소랑소랑헛 떡을.

107066 @ 그 다음에 송편에 대해서 곶아봅서.

107066 #1 송편은 양 흰ㄹ루 곶아당 쨩, 요만씩 요만씩 툏툏 툏앙, 손바닥이서 막 동글락헛게 맨드랑, 손바닥이서 ㄹ냥 툏랑 그거 무신 풀을 노첸헛민 막 ㄹ냥 툏랑 영영영영 돌러주기. 돌르문 문들락 허민 이제 그 쉬나 무시거 앙꼬를 냥이네 또

조바. 영 흐민 소랑홀거 아니우파. 딱딱 조부민 이젠 조근조근 낱 이젠 떡을 솔잎이
나 무신 거 노명 치는겁주게.

107066 @ 계난 송편 재료는 어떤 거 잇수과.

107066 #1 송편은 그거주게. ㄴ루 쟁.

107066 @ 거난 재료.

107066 #1 재료, 곤살 ㄴ루.

107066 @ 곤살 ㄴ루 흐고.

107066 #1 송편은 그거.

107066 @ 그 다음에 풀이나.

107066 #1 풀은 담는 거. 앙꼬 담는 거. 소굽에. 영 행이네 다락은 동이던지 우
리가 막 찢 거 아니우파, 몽클락하게 찢 질 거 아니우파. 계문 수까락이든 손으로
톡톡 줍아기네 그걸 이쭈 바가지로 막 맨들락하게 맨듭니다. 경 일로 또 손 드미랑
그걸 똥그락하게 이쭈룩 맨드랑, 맨드라기네 수까락으로 풀이고 머시고 앙꼬 담양
경흐민 영 오그릴 거 아니우파게. 오그리민 울로 요래까지 딱 푹푹푹푹 줍아 가. 경
흐문 떡이라.

107066 @ 송편도 보면은 동그락흔 송편이 잇고.

107066 #1 이제야 동그락해주게.

107066 @ 그 다음에 옛날은

107066 #1 옛날은 소랑소랑.

107066 @ 거 무신 송편이엔 흡니까?

107066 #1 것도 송편이주게. 다 송편.

107066 @ 조개 모양으로 생긴 조개송편이엔 흐지 안흡니까?

107066 #1 조개송편 옛날엔 조개송편이고 이젠 동글락흔 송편은 이제야 난 거
라.

107066 @ 옛날엔 주로 조개송편양.

107066 #1 초처음 왕 식게 때도 이만씩 홀게 흐곡. 이젠 기계에 강 해 부는 따
문 송편이고, 아무거고 무신 이젠 조개송편이 어십니다. 동글락흔 송편만 흐주. 기
계로 강 해 오는 따문.

107066 @ 계난이네 그 송편 맹글 때 흰 ㄴ루.

107066 #1 흰 ㄴ루, 곤살 ㄴ라당 물 컷당, 방애에 강, 기계방에 강 ㄴ루 곶아당,
부청, 물 피왕 반죽을 밀주게. 우리가. 밀양 이만히 쟁 나두민 흐끔씩 토드명 고사
추룩 동글동글 흐게영 맨들락 흐게영 손으로 영영 흐영 녃작하게 맨드랑, 걸 조바.
영 오그려노민 이거 떡이 오그려 질 거 요래 푹푹푹푹 ㄴ루 칠 흐명 즈방이네 고랑
착더레 낫당 치주게 딱로 소티서.

107066 @ 치는 그 머

107066 #1 치는 거는 솔잎을 낫던, 솔잎 깔명 소티를 낫던, 독이름은 소띠, 소띠
서 쳐.

107066 @ 노는 걸.

107066 #1 노는 거 솔잎 노문 아래, 바드랭이 가. 바드랭이 아래 물 안 올라오게. 바드랭이.

107066 @ 바드랭이?

107066 #1 바드랭이만 낡 물 안 올라오게 바드랭이만 낡 소티 탁 걸쳐지민 이제.

107066 @ 그 다음에 솔잎 농곡

107066 #1 아니, 솔잎 놔도 혼 칭 낡 또 우티레 솔잎 농곡 흥영 부트지 아니하게 행이네 마드기문 두께 덮영 숲으문 송펜 익으문 되는 거.

107066 @ 솔잎도 타다그네.

107066 #1 뽑아당.

107066 @ 그 저 숲양그네 물려야 흘 거 아니우파.

107066 #1 예. 물려야. 이제는 솔잎고찌도 안 흥곡. 집에서 떡 안 흥난. 옛날에는.

107066 @ 계난

107066 #1 계난 솔잎도 양 뽑아온 것광 마새로 마새온 것관 틀려. 그 뽑으문 검은 분데기가 잇지 안흥우파. 뽑으는 혼이 이서. 그 기획가. 뽑으문 해영케 뽑아지 안흥민 마새로 강 혼디 마새로 마사낫수다게, 솔잎을. 이젠 집에서 떡 안흥난무신.

107067 @ 다음에 빙떡에 대해서 혼 번 곱아봅서.

107067 #1 빙떡은 양, 모멸마루 강 곱아올 거 아니파, 모멸마루. 박세기고 다라 이고 그걸 막 마루 카. 경 막 또려그네. 이제는 머 후라이판이여 머시여 해도 옛날엔 솟두쟁이, 그 빙떡 지지는 솟두쟁이가 이십디다. 빙떡 지지는 거 아쟁이네 알로 낭불로 베통이 숲양 남자고 머시고 혼 거려낡 바시식하게 익으민 확 흥게 차롱착 엮어낡 차롱착 우티레 태여노민 늠빠 낡 물민 떡. 빙떡. 빙떡은 죽은 거 하나. 또 새미떡이 이서양. 또.

107067 @ 예. 계난 일단 빙떡에 대해서만 곱아봅서.

107067 #1 그거주게.

107067 @ 계난 빙떡 맨들젠흥면은.

107067 #1 빙떡 맨들젠흥면은 모멸마루 곱아당 이젠 흥번에 다 카지 안흥영 흥끔씩 흥끔씩 탑니다. 경흥영 지르장태고 이제는 마 프라스틱 장태여 하느디 그것에 낡 막 카, 강 막 또려, 또려그네 호놀놀롤 흥게 카지문,

107067 @ 경 흥영.

107067 #1 사뿐루 거리멍 솟두쟁이서 과직과직 지집니께. 지지민 저 고랑착 어평, 고랑착 어픈 두쟁이레 확 아사놔그네 식으문 무 채 해여그네 그레 뇌기네 물민

107067 @ 늠빠로 채 해기네. 거기에 머 놔?

107067 #1 그대로. 이제 마트문 쪽파, 늠빠, 꽤, 그것만 놓니다. 양녀흥영. 경흥영

그거 손으로 줍아냈든, 하시깡이로 줍아냈든 빙 몰민 빙떡.

107067 @ 머옌, 빙떡이옌 흡니까?

107067 #1 옛날엔 빙떡, 이제는 머 빙 빙 흐는디 이제는. 빙 떡이옌 안 흐영 영 빈이옌 흐는디 옛날엔 빙떡.

107067 @ 영빙이옌 여기서도 흐여마썸?

107067 #여기선 영빙. 이제 사름덜은 영빙이옌 곶아. 빙떡이옌 안 곶아.

107067 @ 영빙?

107067 #1 영빈.

107067 @ 영빈이파 영빙이파.

107067 #1 영빈게 영빈. 게난 몰라게. 영빈 지정, 잔치 때도 지지곡 막 흐주게, 이제.

107068 @ 상웨떡에 대행 한 번 곶아줍서.

107068 #1 상웨?

107068 @ 예.

107068 #1 세미떡?

107068 @ 예, 세미떡.

107068 #1 세미떡은 근 ㄱ루로도 세미떡 흘 수 잇고, 모멸ㄱ를도 세미떡 흘 수 잇곡, ㄱ짜추룩, 이추룩흐 저 거세기에 낱, 곶 요만씩 그치명 막 밍주게. 쟈쟈흐게 얹게, 밀어노문, 너무 얹게 흐문 틀어지고 얹게 밀영, 영 오그령 이레 무신 늑빠썰 낱던지, 저 모멸 연빈 세미떡엔 양. 따시 게도 주로 늑빠썰 늑니다. 그 저 모멸세미떡에도. 경흐영 ㄱ사추룩 영 오그령 영영 줍으민 거 세미떡이라. 경흐영 시리에 처.

107068 @ 게난 주로 모멸ㄱ루로?

107068 #1 예, 모멸ㄱ루로, 세미떡은. 송편은 곤떡으로 흐곡, 세미는 모멸ㄱ루. 모멸 세미떡.

107069 @ 식게 때, 떡 종류.

107069 #1 식게 땀 게, 조떡 흐민 게 흐린 조떡 흐는 집이, 건 집안으로 가는 거고. 떡 흐는 집도 잇고, 떡 안 흐는 집도 잇고, 경 흐난.

107069 @ 게난 식게 땀 떡.

107069 #1 솔벤, 절벤. 그거주게. 그거 흐곡 따시 솔벤, 절벤 안 흐는 집이 세미 떡이라도 흐깁, 연빈도 흐깁 지정 흐나곡 가장에 매영 흐는 거.

107069 #2 침떡 흐곡.

107069 #1 침떡은 솔벤 절벤 흐문 침떡은 해야지. 솔벤 절벤 안 흐문 침떡 안 해도 되는 거고. 게나네 그 제에 어디 산제나.

107069 @ 식게 때 식게 때

107069 #1 식게 때는 그거, 저 고침떡, 풀 놓곡흐영 고침떡 어멍 아방신디 전홀 식게 때에 우리가 딸이난 가젠 흐민 침떡 청 풀 놓곡흐영 시리떡 흐영 흐 고랑 정

가는거.

107069 @ 계난 아까 세미떡 핫ㄴ양.

107069 #1 예

107069 @ 그 다음, 그 제사 때 떡 종류부터 흐쿠다양. 제사 댐 떡 어떤 종류 어떤 것덜 이십디가?

107069 #1 제사 댐 게 솔벤, 절벤, 침떡, 중개. 아, 중개, 약배, 아, 중개, 약배. 큰건 약배 계난 제사댐 게 솔벤, 절벤 흐 사름은 경 흐고 솔벤, 절벤 안 흐는 사름은 침떡도 안 흐곡. 떡 안 흐영도 흘 수 잇고. 건 집안에 따라랑 흐는 거곡. 식게 때 쓰는 떡은 옛날엔 침떡, 곤침떡, 곤침떡이헐 핫수다. 솔벤, 절벤, 중개, 그것만. 약배는 안 흐여. 약배는 제 때에 배끼, 식게 때인 안 홉니다.

107069 #2 빙떡도 흐여.

107069 #1 게매 빙떡도 흐는 사름, 안 흐는 사름 흐엿주기. 지금은 솔벤, 절벤 흐곡 또 빙떡만 흐영 식게 흐는 사름, 혼이 어십니다게.

107070 @ 그 상례 때 떡 종류는 마썸.

107070 #1 상웨 때에?

107070 @ 상례, 상례 계난 이 저.

107070 #1 영장?

107070 @ 소상.

107070 #1 소상, 대상인디, 그거.

107070 @ 영장.

107070 #1 영장 때는 제 떡 흐젠 흐문, 저 거세기 제웬, 침떡양? 제웬흐곡, 솔벤, 절벤 흐곡, 솔벤흐곡, 절벤 흐곡, 중개흐곡 약배흐곡. 거는 경 해서. 약 다섯 가지, 떡이. 제떡이. 소상, 대상 대쳐떡, 영장떡, 제떡은 그거우다.

107070 @ 그 다음에 그 묘제 때는 어떤 거?

107070 #1 묘제 때도 그거.

107070 @ 고망 딸라진 건 머옌 홉니까?

107070 #1 고망 딸라진 건 약배, 계난 게

107070 @ 계난 그 큰 거 네귀방장흐 건.

107070 #1 건 약배. ㄴ양 딸라진 거. 요 수랑흐 건 꺾시흐기 좋게 댐든건옌. 계난 두 가지주게. 계난 침떡, 고침떡, 솔벤, 절벤, 중배, 약배 다섯 가지.

107071 @ 그 다음에 설깃떡에 대행 곱읍서.

107071 #1 설기, 무신 설기.

107071 @ 설깃떡, 세미떡인가.

107071 #1 세미떡이주게, 이건.

107071 @ 설깃떡도.

107071 #1 세미떡이주.

107071 @ 계난 세미떡은 아까 ㄴ덜로?

107071 #1 세미떡은, 꺾말썰로 세미떡 하는 거고, 송편은 곤썰로 하는 거고. 계란 그 대소상 제떡은 세미떡, 송편을 안 해주게. 제사 때 호곡 제물호영 가는 거 하고.

107072 @ 인절미에 대해 물어보쿠다.

107072 #1 은절미는 양, 저 그루 해당, 시리에 청, 도고리에 낱, 백상, 옛날엔 백사그네 그걸 손으로 해영 안반에서 밀어그네 소랑소랑하게 썰문 은절미우다. 이제 속떡모양으로. 썩떡도 경 호곡 은절미도 경 호곡. 옛날엔 썩떡이엔 안 호영 썩단. 요초록 몽클몽클호영 안네 옛이나 무신 거 담양 속단, 떡이 속단배끼 어서수다, 옛날엔.

107072 @ 계란 인절미 재료는 곤썰그루?

107072 #1 예, 은절미는 곤썰그루 호영 시리에 청 백상, 니기방장하게 썰영, 그것이 은절미. 이제도 은절민 잇수게.

107072 @ 시루에 칩니까?

107072 #1 시리에 치주게. 시리에 쳐사 비 안 끝주게. 썰로도, 그루로도 안 호영, 썰로 하는 디도 잇곡 그루로 하는 디도 잇곡, 시리에 치민 밥 될 거 아니파. 경비왕이내 팡팡 방해톱으로 백시미는 그걸 떡 맨드라.

107072 @ 어디에서 백사?

107072 #1 그거는 도구리에 낱 팡팡 뺏주게. 옛날엔 낭도구리가 만치 안허파? 부жат칩이 낭도구리 머 돛비그루 그는 그루, 떡 하는 도구리, 부жат칩이 도구리가 합주.

107072 @ 만들 때는 저 영 청이네.

107072 #1 만들 때는 양, 쳐 낱이네 찢니다. 걸 찢민 호끔씩 기창 저 돛베고 안반이고 낱 걸 밀어. 밀어기네 도둑하게 밀어지민 칼로 소랑소랑 썰니께게. 경허민 건 은절미. 은절민 제사때나 호주 제때엔 안 쓰는 거. 제사 때 멩질 때만 하는 거. 머 대소상 댐 안 쓰는 거우다.

107073 @ 절벤에 대해 호 번 곁아줍서.

107073 #1 절벤은 게 고썰그루로 게. 것도 찢그네, 저 절벤도 옛날엔 손으로 이창감찬인 연레는 바위도에 뽕상 저 절벤을 호영 동글동글하게 호영 두 개 마주 부썰, 떡 두 개, 동글락하게 마주 부썰 이젠 딱로 누드는 떡판이 잇수다, 절벤판. 손으로 똑 놀평.

107073 @ 절벤판이엿 흡니까, 절벤본이엿 흡니까?

107073 #1 절벤본, 절벤본, 이젠 판이엿 곁아점져만. 절벤본으로 딱 누르민 절벤웨는 거.

107073 @ 절벤본은 어디서 사옵니까?

107073 #1 옛날엔 게 사곡 파곡 맨들양 게 옛날것덜이주게.

107073 @ 뭘로 맨들아?

107073 #1 낭으로.

107073 @ 무신 낭으로?

107073 #1 무신 낭으로사 맨들암신디 낭 발강흔 낭 곱딱흔거우다.

107073 @ 동박낭으로 주로 맨들암주.

107073 #1 모르कु다. 동박낭으로 맨들엄신디 머사 맨들암사신디.

107073 @ 동박낭이 도담도 타곡

107073 #1 게난 모르कु다게. 절벤본으로만 우린 떡만 해나난 몰라. 아으 맨 언 어떡단 이녁이 어른 웨난 절벤을 맨들앗수게. 우리낭으로.

107073 @ 집이 잇수광, 절벤본?

107073 #1 절벤본 우리집인 엇수다. 친정엔 이서도. 거 몬 풀아부렀주 이제사 놔둡니까, 대껴볼곡 나둡니까게. 물사발도 다 바꿔볼엇주.

107073 @ 거난이네, 그걸 쳐그네.

107073 #1 쳐그네 뽀사. 도구리에 막 방앗비로 ‘선 이어동 흐라 셋 걸 방애’, 양 그걸 뽀실 맨 양 막 흐명 ‘이어동 흐라 셋 걸 방애 쇠 걸어간다. 이어동 흐라’, 경 흐명 감방 저. 경흐민 걸 몬 뽀사지민 모여낭이네, 쩌 그네, 토드명,

107073 @ 막 밀어야할 거 아니우파.

107073 #1 예. 요만씩 토드명, 요만씩 토드명, 손으로 동그락동그락 하게 맨들 아, 동그락동그락 하게 썩독세기추룩. 경흐민 두 개를 마주 부칩니다게.

107073 @ 부청.

107073 #1 부청놔두민 절벤본으로 짝 놀르민.

107073 @ 그 다음에는 거 머 칠흔지 안힙니까?

107073 #1 거, 지름 칠흔는 거. 부트지 말랜.

107073 @ 무슨 지름?

107073 #1 춤지름. 물레레 춤지름 비와 낭 확 씨서볼곡. 건 떡 마지막에 부터불 카부덴 흔는 거. 머 필요어신거.

107073 @ 춤지름 놔야 ㅋ시름 흘 거 아니우파 예?

107073 #1 부트카부덴. 술벤에도 볼르곡, 술벤은 열 개씩 마주심어그네 손 위로 영 춤지름 흐영 가로가로 하나씩 하나씩 영 춤지름 부쳐그네 톡 열 개씩 고랑착에 쭉 놔. 절벤은 하나씩 웨로 나라비행 놔도. 술벤은 부터불카부덴.

107074 @ 술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4 @ 술벤은.

107074 #1 게 술벤도 그거. 그거는 쩌그네 놀 걸로 안반에 밀영, 술벤 본이 이서, 동그락흔 거, 소랑흔 거. 딱딱.

107074 @ 반달모양으로 웬 거

107074 #1 예. 걸로 딱딱 찍주게. 걸로 딱딱 술벤은 맨드랑 찍영 나오민 준 거는 따시 평평흔고 그거는 따시 술잎 노명 따로 소티고 시리고 쳐. 몬 쳐 지문 그걸 다라에, 물 논 다라에 비와. 술잎오 씻어지곡 떡만 고랑착더레 노민 따로 춤지름 보르는 거주게. 경 흔거.

107075 @ 우끼떡 알아지쿠과?

107075 #1 예?

107075 @ 우끼떡?

107075 #1 예. 우끼떡은 우찍일 거우다. 솔빈, 절빈 흐는 집인 우찍을 흐고 송편 흐는 집인 우찍이 엇수다. 솔벤, 절벤 흐문 양 솔벤 굽에 농곡 저 솔벤 굽에는 약배 두 개 농곡 솔벤 농곡 절벤 노민 동그락흐 절벤 우티레 농곡 우찍을 놉니다. 그거 문 매기.

107075 @ 우찍은 뭘로 맨들앗수과?

107075 #1 우찍은 거 곤떡 절벤 맨드는 쌀로.

107075 @ 그 저, 모멸로는 안 맵급니까?

107075 #1 모멸로는 안 해여. 모멸떡 흐는 디사 모멸로. 곤떡이나 우찍 경 안 해여. 이젠 솔벤 절벤도 안 흐난 우찍도 어십니다. 옛날엔 게 우찍이여 무신 거여 스뭇. 이것동 중문 몰르문 못 대답허컨게.

107075 @ 고사 지낼 때, 토신제 흐고, 당에 갈 때 어떤 떡?

107075 #1 떡 흐영 가는 사름덜도 식곡, 다대떡, 동그락흐 다대떡, 손으로 모멸 이고 곤솔이고 맨들양 다대떡 흐영 가는디 이디 사름덜은 오랑 보난 떡 흐영 가는 사름이 어성게. 메만.

107075 @ 옛날 보며는 보름달 모양으로

107075 #1 동글락흐게게. 계난 다대떡, 그 다대. 모멸 솔로도 흐곡.

107075 @ 빙떡 마썸?

107075 #1 다대. 다대엔 곶아나서. 요만씩 동그락 동그락 흐게. 경흐면은 저 그 거이 떡 흐영 뵈흐곡 꿩기 굽곡 흐영 가는 사름은 경 흐곡.

107075 @ 꿩기도 귀?

107075 #1 꿩기. 꿩기 귀삽주기. 밥 흐곡 꿩기도 꿩 가서. 꿩 가는 거. 꿩기 굽곡 다대 행 가는 사름은 행 가곡 떡 안 행 가는 사름덜은 안 흐곡. 거 매 사름 흐는 거 아니. 이녀 호구정흐문 흐곡.

107075 @ 계난

107075 #1 뵈는 땃 개냐 하민 양, 큰 뵈, 죽은 뵈 해영 세 개. 세 개 잇곡 또시 이 해벤이난 요왕 뵈. 요왕 뵈 딱로 거립니다. 요왕 뵈 저 바당 어염더레 농곡. 나가 감산이서 이디 결혼흐지 안햇수과. 계문 감산이 당 적시도 나가 거령가. 경 흐민 이기 사름은 네 개 배끼 안 흐는디 난 다섯 깧 거령 가.

107075 @ 계난 고사 지낼 때, 토신제 때 보면은 그 곤솔로.

107075 #1 토신제는 양.

107075 @ 그 곤솔로 침떡 만들곡, 그 다음에 좁솔로 조침떡 만들곡.

107075 #1 토신제도 떡 흐는 사름은 고침떡이여 무신 거여 흐는디, 저 놀고기, 옥돔, 큰 거, 놀 걸 씩니다. 토신제, 집이서. 산제도. 놀 걸로 기냥 시들지 았은 거 든지 시든 건지 놀 걸로 써, 토신제는. 경 제관 빌영이네 축 흐는 거주기.

107075 @ 여긴 조침떡, 고침떡 안 흡디가?

107075 #1 안 흡디다. 제편 흡디다. 흰 떡, 토신제 하는 디도. 하는 사름덜은 해도 안 하는 사름덜은 안 해여. 주로 제편. 흰 제편. 흰 침떡, 주로. 토신제.

107075 @ 조침떡도 흡디다.

107075 #1 게매 조침떡도 하는 집인 하는데 이 제편이라 해서 흰 침떡은 제할 때만 쓰는 거라. 토신제 할 때도 그걸로 흡디다게. 우리 시아버지가 토신제 제관으로 댕집주게. 경 흐민 옥돔 이마니흔 거, 놀 거 제관침이 가져옵디다게. 집이서나 친정이서 하는 것도 보나고.

107077 @ 굿 할 때 떡은 어떤 거?

107077 #1 굿 할 때는 그거 다대떡, 곤떡. 곤떡, 다대떡 흐영이네 그자 심방오랑 그 올리는 거. 과일 흐곡. 할망침이 갈 때도 과일 놓곡게, 과일도 행 가주게.

107077 @ 게난 다대떡 하나 뿐?

107077 #1 다대떡 하나. 저 심방 오랑, 영장 나낭 심방 오랑 굿 할 때도 다대떡, 그거 떡이엔 흔 건 그거 하나 뿐. 심방떡 흡니다게.

107078 @ 아까 말한 떡 웨로 다른 떡덜은 엇수과?

107078 #1 다른 떡덜은 어쭈게. 이젠 빵이여 무시 거여.

107078 @ 아니, 옛날에 다른 떡덜.

107078 #1 어서, 그것 뿐, 떡 종류엔 흔 건. 세미떡, 모멸 세미떡, 흰 송편, 빙떡, 침떡, 따시 히린 조떡, 모인 조떡, 떡이엔 흔 건, 종류가.

107078 @ 상웨떡. 상웨떡 흐문 저 멩애.

107078 #1 돌레떡?

107078 @ 빵, 밀ㄴ루로 해기네.

107078 #1 묵.

107078 @ 빵식으로 길죽하게 흐영 멩그라기네.

107078 #1 그건 침떡게.

107078 @ 아, 침떡 말고 밀ㄴ루로 멩긴 거.

107078 #1 이제도 게 밀ㄴ루떡 청이네.

107078 @ 막걸리 놔 기네

107078 #1 이제사 밀ㄴ루주 옛날 어른덜이 밀ㄴ루떡이 어디 시수과게. 엇수다, 곤떡 그거 뿐이주. 이제야 빵떡 밀ㄴ루떡이여, 양코빵이여, 조룩빵이여, 막 햄주, 옛날에 빵이 어딿쭈과. 옛날 거 흐젠흐문. 이젠 빵이 여러 종류주게.

소와 고물

107079 @ 그 소와 고물인데, 소를 쉬라고 흡니다, 쉬. 쉬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과.

107079 #1 쉬 종류는 녹뒤쉬도 잇곡, 돛배쉬도 잇고, 따시 풀쉬도 잇고, 그거주게. 쉬엔 흔 건. 떡에 논는 쉬.

107079 @ 어디에 놓니까?

107079 #1 떡, 시리떡 흘 때 우티레, 이거 흘 빗 시민, 이거 구를 거 흘 빗 시민, 이레 노첸 흘민 이디 쉬 허거와사 부트지 았을 거 아니우파게. 또 흘 빗, 흘 칭 농곡 또 쉬 낱 흘 칭 농곡 경 흐는 거.

107079 @ 고물이엥도 흐지양.

107079 #1 고물이엥은 안 흐여. 게민 침떡은 늬삐 채로 썰엥, 무체로 썰엥 석경도 조침떡 쳐.

107079 @ 게난 것도 쉬에 들어갈거과?

107079 #1 쉬엔 안 들어가고 ㄱ루에 석거그네.

107079 @ 게난 송편 맹글 때도 쉬?

107079 #1 송편 맨들 맨 앙고로 쉬 담고. 늬삐 채 담앗던, 녹뒤 쉬 담앗던. 그 풀 쉬 담앗던.

107079 @ 풀 쉬.

107079 #1 풀 쉬, 녹뒤 쉬, 앙고엔 흘 걸 늬물 채, 그거주게. 돔비 숲양 뽀사그네 그것도 쉬고.

107079 @ 콩ㄱ루는 안 흡니까?

107079 #1 콩ㄱ루도 놔. 쉬로. 콩ㄱ루 부트지 안 흐게. 침떡 칠 때. 콩ㄱ루도 우티레 허꿍니다. 게도 콩ㄱ루 잘 허끄지 안흐여. 콩ㄱ루도 쉬로 들어가는 거. 콩 볶양 곱양.

107081 @ 떡에 얽힌 속담 잇수광, 속담.

107081 #1 속담이 며 이서?

107081 @ 떡에 관련뵐 거.

107081 #1 옛날에, 저 거세기, 저 이 속떡은 속단이엔 해서. 속단.

107081 @ 무신 거 마썸?

107081 #1 속단. 속단 흐젠 흐면은 어떻 했냐 흐민 시리에 쳐그네 속을 해그네 소랑소랑 맨드랑 요디 수까락 조륙으로 딱 그뭇 나게 흐영 그레 칭이나 옛 흐영 담습디다. 속단이랜 흐여. 몽클락몽클락 흘 거. 식게 때에도. 앙풀 안 담으민 식게에 켓상에 올리지 못흐는 거, 썩떡은. 앙꼬 놔야 떡이라 해서 상엘 올리주 썩떡은 떡젠 흐주, 앙풀 안 노문 상에, 켓상에 안 올립니다. 이제도.

107081 @ 무사?

107081 #1 몰라. 옛날 어른덜 경해여. 몰르는 사름덜은 올려도. 썩떡 인절미도 상에 안 올려. 게난 앙꼬 담은 건 올리곡, 앙꼬 어신 건 안 올려.

107081 @ 금기 사항. 거기에 대한 것. 아까 저 시루떡 칠 때는 며 들어오지 말라.

107081 #1 들어오지 말랜 흐는 건 옛날에는 양 부엌에 딱 아쨍이네 시리 담양 흐문 뒷문도 더끄곡 앞문도 더경 사름 드나들문 흘 작은 익고, 흘 작은 선댄흐명 못 들어가게 해주게.

107081 @ 또 따른 건 어수광?

107081 #1 예, 짐 나기 전인 못 들어가게 하여.

107081 @ 금기사항, 따른 건.

107081 #1 금기, 그거 금기. 이제는 머 공장에 가민, 어느저레. 이제사 공장으로 많이 햄주 집이서 떡 하는 사름 잇수광. 솟밀할망이 하는 거, 이건, 옛날엔. 솟밀할망이렌 했수다. 떡 하는 할망, 밥 하곡 하는 할망 .

별식

107082 @ 그 다음엔 양, 수에에 대행 혼 번 곶아줍서.

107082 #1 수에 담는 거, 도새기 잡앙?

107082 @ 예, 수에 담는 과정.

107082 #1 예, 수에 담는 거는 모멸꺾루, 는쟁이, 흘근.

107082 @ 우선 필요흔 것이 수에 말고.

107082 #1 수에는 도새기 배설. 흘근 배설, 존 배설.

107082 @ 차례대로 곶아줍서.

107082 #1 흘근 배설은 수에 담그문 독 지고, 존 배설은 즐주게. 경흐민 수에 담는 앙꼬는 머냐. 모멸꺾루도 곤 걸로 담질 안 하여. 곤 거 아꼬왕. 게민 구진 거, 는쟁이, 꺾루 카그네 피영 혼디 낱 막 저성 풀풀하게 하여 그레 막 담압주게. 경 하여 숨으면은 수에라.

107082 @ 게난 도새기 잡앙 배설 또 무신 거 담는 거 아니나네. 어떻 씻어야 할 거 아니짜.

107082 #1 똥은 게 막 홀터똥, 막 도새기 잡는 사름덜이 하르방덜이잖아. 나가 본 거는 도새기 잡는 사름이 똥을 빠젠하민 막 홀트멍 뺨데다. 빠민 배설만 나올 거 아니우짜. 나오민 소금 놔기네 그걸 막 밍디다게 소나이덜이. 막 장태에서 막 기냥. 두루 밀면은 씨. 밀영 씨서 노면은 그거를 모멸꺾루, 는쟁이 풀풀하게 하여 패 마농 썰어놓는 사름 잇곡, 안 썰어놓는 사름 기냥 담아그네 문딱 사려낱 다라이든 구덕에든 놔룻당 썰영 먹주게.

제2절 어휘

-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대가리
201002	대가리	대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숨구멍	숨곳
201005	제비초리	총대기
201006	머리털	머리털
201007	머리카락	머리꺼울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졸르다
201010	빗[梳]	얼레기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땡다	당다
201014	비녀	빗네
201015	고수머리	곱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201017	쌍가마	가메 두 개
201018	가르마	이메 갈르는 거
201019	이마	이멩이
201020	넓다[廣]	널브다
201021	이마빼기	이멩이
201022	숨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양지
201024	낯[面]	양지
201025	웃다[笑]	우수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는 거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양
201028	씻다[洗]	씻는 거
201029	거울	멩경
201030	보다[見]	보다, 구경가다
201031	뺨	뺨얌
201032	뺨따귀	뺨얌때기

201033	때리다[打]	뜨리다
201034	불	불빼
201035	불따구니	불따구니
201036	불거리	불빼 붓다
201037	광대뼈	불빼
201038	보조개	보제기
201039	주름살	주름술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자
201042	검은자위	검은 공저
201043	눈꺼풀	눈두께
201044	거적눈	덤게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지트다
201047	속눈썹	아랜 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양두세
201049	수침(垂針)	두세
201050	거머리	정세
201051	폐롭다	정기 발허연
201052	눈곱	눈곱제기
201053	눈초리	눈각
201054	사팔눈	사팔눈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지다
201058	콧마루	콧대
201059	세다[強]	상고룻헛다
201060	콧구멍	콧고냥
201061	코딱지	코푼제기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씻다
201064	콧수염	콧시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솔직흔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뉘달하다	답달하다
201072	입술	입바우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201075	말하다	글다, 곧다
201076	입방아	으망시러운 말
201077	허풍	건풍
201078	뇌다	몽다시리다
201079	침[唾]	츄
201080	삼키다[呑]	숨지다
201081	가래침	개츄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느치림
201084	턱받이	톡받이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세까시
201088	이[齒]	니빨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비트러진 니빨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오금니
201096	옥다[曲]	오고하다
201097	돋다[出]	돋으다
201098	옥물다	딱물다
201099	턱	토가리
201100	턱살	토가리솔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귓둘레
201105	귓볼	귓자락
201106	귓구멍	귓고냥

201107	귀청(고막)	귀청
201108	귀지	귀밥
201109	귀이개	귀쭈시개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귀톡
201112	구레나룻	녹대쉬염
201113	목	야가기
201114	굽다[顛]	슬치다
201115	모가지	야가기
201116	먹살	맥살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뒷대강이
201119	꼭뒤	상가매
201120	뒷덜미	뒷대강이

상체

201121	어깨	독지
201122	어깨뼈	독지뼈
201123	어깨죽지	어깨독지
201124	겨드랑이	젓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홀모기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독살
201131	팔꿈치	폴고분지
201132	팔목(=손목)	손모개기
201133	뼈	팡
201134	뼈다귀	뼈다귀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왼손
201137	오른손	노단손
201138	왼손잡이	원자치
201139	손등	손등땡이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손꺼림
201145	할퀴다	글그다
201146	손가락	손까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안주애기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노네기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튀다, 탕탕ㅎ다
201155	젓가슴	젯가슴
201156	명치	오목가슴
201157	명자리	멩자리
201158	젓	젯
201159	젓꼭지	젯꼭지
201160	젓명울	젯명얼
201161	짜다[攥]	달루다
201162	울다[鳴]	올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배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또롱
201167	옆구리	엽갈리
201168	갈비뼈	갈비뼈
201169	등	등뎅이
201170	밀다[推]	밀리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뎅이
201173	가렵다[癢]	ㄱ릅다
201174	긁다[抓]	글그다
201175	걸리다	저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뎅이물
201177	찬물	실려운물
201178	등마루	등뎅이

201179 등뼈 등짱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뒤터리
201182 가늘다[細] 그늘다
201183 엉덩이 엉치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볼기짱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엉덩이
201188 궁둥이뼈 엉덩이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고냥
201191 더럽다[汚] 더럽다
201192 가볍다[輕] 개볍다
201193 무겁다[重] 배다
201194 살 저금테기
201195 가래똥 멧얼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지
201199 넓적다리 너벅지
201200 무릎 동무릅
201201 무릎뼈 동무릅뼈
201202 뼈다[櫪] 고목가다
201203 정강이 전갱이
201204 정강뼈 전갱이짱
201205 종아리 종아리
201206 장판지 주설
201207 오금 오금
201208 복사뼈 복사뼈
201209 발[足] 발
201210 걷다[步] 걷다
201211 굵다[凶] 굵다
201212 헛발질 헛발질
201213 발목 귀마리

201214	겹질리다	고뭇가다
201215	발등	발등덩이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뿌리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ㄱ릅다
201220	간지럼	ㄱ릅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안죄기발가락
201221-3	가운뎃발가락	상발가락
201221-4	넷째발가락	노네기발가락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발거림
201223	까치눈	발눈
201224	티눈	명쿠쟁이
201225	고린내	발냄새
201226	발톱	발굽
201227	발뒤축	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개
201229	허파	염통
201230	마음	ㅁ음새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창지
201232-1	큰창자	큰배설
201232-2	작은창자	족은배설
201233	목숨	멩
201234	빼앗다[脫]	엇어지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꺼지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나다
202006	태(胎)	방석
202007	젓줄	젓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흔살 묻이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끄리다
202013	어린아이	어린애기
202014	사내아이	소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깝다	아까운
202017	아이보개	아기엽개
202018	엽저지	아기엽개
201019	품다	품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오줌아쟁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쌌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리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모렵다
202028	꾸지람	육흐는말
202029	배냇저고리	보떼적삼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배부르기
202032	포대기	아기 지성귀
202033	보자기	포따리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치네	족은지성귀
202038	띠	걸랭이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 터진 바지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좀매좀매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셋따셋따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질터봐질터봐
202046	걸음마	흔자국 두자국
202047	걸리다	걸어봐걸어봐
202048	곤두박질	곤작사다
202049	곤두서다	곤작사다
202050	가동가동	아동아동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다
202053	목말	청고개
202054	흥내	승내,
202055	흥내질하다	소도리 흥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욕심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에나다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심술
202062	밉다[憎]	긱다
202063	옛말	옛날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공기
202066	딱지치기	딱지치기
202067	통차기	깡통차기
202068	숨바꼭질	곱을락
202069	숨다	곱앗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장난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뜨기
202073	풍계문이	굽질락
202074	줄넘기	베떨레기
202075	줄다리기	줄다리기
202076	수수께끼	속일락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방칠레기
202081	땅뺨기	땅따먹기
202082	사금파리	사그마치
202083	말놀음질	말탈락
202083-1	생말타기	생말탈락
202083-2	죽은말타기	막댕이탈락
202084	대말[竹馬]	말탈락
202085	달음박질	달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고른베기치다
202087	제기차기	쫓끼차기
202088	혜엄치다	히다
202089	웃놀이	넉동베기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짓혀졌을 때	토
202090-2	개	두 짝 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짓혀졌을 때	숫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동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외지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지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석지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넉지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웃	보리웃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도투다
202097	싸우다[鬪]	쌈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다드령
202100	편벽하다	편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르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들연
202107	가오리연	가오리연
202108	연달	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상대
202108-2	꽂달	연의 가운데에 길어로 붙인 대	상대
202108-3	컷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엽대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허릿

202109	방구멍	달구멍
202110	꼭지	꼭지
202111	갈개발	*
202112	별이줄	별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별이줄	머릿줄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별이줄	머릿줄
202112-3	꽂줄	연의 꽂달구멍에 꿰어서 꽂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 군데로 모이는 별이줄	모임줄
202112-4	활별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별이줄	엽줄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별이줄	가운뎃줄

202113	얼레	얼레
--------	----	----

202114	두모얼레	두얼레
202115	네모얼레	네얼레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사기
202118	퇴김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밑신개	그네발판
202121	굴렁쇠	와
202122	구르다[轉]	등그리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키다리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선하우염
202129	기지개	질튼다
202130	기지개하다	질튼다
202131	경기하다	정기하다
202132	놀라다[驚]	모습다
202133	졸음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하우염치다
202136	잠	잠
202137	귀잠	지픈잠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잠귀
202141	잠꾸러기	잠무충흔사름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하다
202144	트림	트림
202145	딸꾹질	틀국지
202146	채채기	채치기
202147	개치네췌	헛쟁이
202148	방귀	똥뀌다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피기
202151	구린내	구렁내
202152	노린내	그끄렁내
202153	사레들다	살레들다
202154	감기	감기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홍역
202157	학질	두드레기
202158	천연두	마누라
202159	곰보	얼근사름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독짓
202163	두부백선	독짓
202164	웁	비리
202165	버짐	버즘
202166	마른버짐	군버즘
202167	진버짐	츄버즘
202168	주근깨	포리츄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막
202171	여드름	니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검다
202174	굳은살	멍쿠쟁이
202175	부스럼	허멸
202176	종기	종지
202177	습종	습징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발 버컷찌
202180	다대	허멸 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피물
202183	낫다[癒]	좋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허물 그르

202186	생인손	배접
202187	얇다[痛]	아프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띠기
202190	소경	눈봉서
202191	청맹과니	눈튼봉서
202192	먼산바라기	어지랭이
202193	애꾸눈이	흔착 어른 눈
202194	사팔뜨기	사팔떼기
202195	다래끼	개씹
202195-1		개씹
202195-2		개좃
202196	언챙이	얼챙이
202197	외언챙이	외얼챙이
202198	쌍언챙이	쌍얼챙이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막쉬
202201	병어리	말모래기
202202	말더듬이	버버리
202203	혀짤배기	세다드레기
202204	입비뿔이	입토래기
202205	구안괘사	풍
202206	가납사니	폴폴레기
202207	곰배팔이	소도리쟁이
202208	곱사등이	곱세
202209	절뚝발이	전태
202210	얇은뱅이	아즌백이
202211	문둥이	문둥병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방, 아부지
203002	어머니	어멍
203003	아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방, 하르버지

203006	할머니	할망, 할머니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두가시
203010	싫다[厭]	긋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막둥리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큰말젯아덜, 죽은말젯아덜, 막둥이말젯아덜
203012-9	막내아들	막둥리아덜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원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이녀딸
203017	의붓딸	도랑온딸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순
203021	어비딸	애비딸
203022	어비아들	애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답다
203024	어이딸	애딸
203025	어이아들	애새끼
203026	말이	믄이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님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동생
203031	언니	성님, 언니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단아덜
203034	외딸	단딸
203035	쌍둥이	글애기
203036	다르다[異]	뜨나다
203037	같다[如]	답다
203038	양자	양재
203038-1		양아덜
203038-2		양재 돌아온다
203039	처녀	비바리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서
203042	날[日]	낮전
203043	사주보다	사주보다
203044	중신	중매쟁이
203045	권당	켄당
203045-1		켄당
203045-2		켄당
203046	얹은잔치	안즌잔치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우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방
203050	시어머니	씨어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외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외할망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주버님
203057	아주머니	아지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늙은 어루신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광하다
203061	살다[生]	맹도 질다
203062	고로롱팔십	쿨랑팔십
203063	병추기	오랜 병
203064	거동하다	움직이지 못하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외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외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외펜
203073	종내기	종내기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카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외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9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정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정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203095	움딸	붕근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남이 사름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 ㄴ슴
204002	끓다	물르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주러들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닷새미녕
204010	옛새무명	웃새미녕
204011	생목	생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개
204017	풀숨	맹지숨
204018	숨틀	소개 태우는 클
204019	숨틀집	멘네 태우는 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도래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자목
204024	번데기	누에번데기
204025	고치	누에고치
204026	뽕잎	뽕접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ㄴ새뽕낭
204029	오디	뽕낭으름
204030	다듬잇돌	안반

204031	다듬잇방망이	홍깃대
204032	펴다	두들경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부글레기
204035	물거품	개끔
204036	빨랫돌	서답판
204037	빨랫방망이	서답마깨
204038	빨랫바구니	질구덕
204039	헝구다	놀리다
204040	빨랫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물르다
204042	바지랑대	작데기
204043	널다	넌다
204044	걷다[收]	걷다
204045	바래다[褪]	바래다
204046	형끓	형끓
204047	찢다[裂]	찢다
204048	나부랭이	쪼그레기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달
204051	저고리	저구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바우
204054	풀치마	깍치메, 허리치메
204055	웃고름	웃골름
204056	웃깃	웃깃
204057	웃섶	압섭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돌마기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소미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창옷

204066	두루마기	두루막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이
204069	토시	폴도메
204070	누더기	뜨대기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뽕쟁이
204073	잠방이	굴중의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허리끈
204075	주머니	주맹기
204076	호주머니	게아츨
204077	널다[入]	질르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보선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보선등뎡이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보선코젍이

204079	길목버선	질목버선
204080	버선발	맨발
204081	대님	다림
204082	감발	카바
204083	홀옷	홀옷
204084	겹옷	겹옷
204085	솜옷	소개옷
204086	얹다	얹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거죽
204090	이불잇	이불안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겹이불
204093	사이	트멍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부습
204097	홀칭	이불꺾테기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안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찌다
204102	담요	요싯끼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아지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집
204107	베갯머리	머리뒤쪽
204108	베갯모	베갯뜰메기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관
204113	병거지	병긋
204114	밀짚모자	밀랑패랭이
204115	미사리	갓
204116	짚신	짚신
204117	제총박이	각신
204118	딤총박이	신각
204119	미투리	삼신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죽신	가막창신
204123	부르뜨다	붕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몽수
204127	부채	선제
204128	미선	선제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선머리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선머리지둥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물레지둥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물레버텅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벌레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물레손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짐줄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가락지둥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가레기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굴뚝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물렛줄

204155 자세 도고박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양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빠다[湯水]	빨루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쉬논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밥
205013	고두밥	선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넝이
205016	눌은밥	승농밥
205017	더운밥	딱슨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파래밥	파래밥
205020	밥보	배 크다
205021	밥술	순까락
205022	밥알	밥방울
205023	끼니	세끼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짜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송농	송농물
205029	화독내	칸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낙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냉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데기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더우다
205040	흰죽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폰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치, 짐끼
205050	배추김치	낙물짐치, 낙물짐끼
205051	무김치	눔삐짐치,눔삐짐끼

205052	열무김치	열무김치, 열무김끼
205053	물김치	물김치, 물김끼
205054	나박김치	나박김치, 나박김끼
205055	갓김치	갓김치, 갓김끼
205056	파김치	파김치, 파김끼
205057	깍두기	놈뻬김치, 놈뻬김끼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담그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된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덩어리진 소금
205065	소금장수	소금줄레기
205066	간	간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간헷다, 소금물헷다
205069	콩나물	콩질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노물
205071	무나물	놈뻬탕쉬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탕쉬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밥
205075	썬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곳
205077	고비	베염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내기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초
205082	푸성귀	갯노물
205083	오이	물웨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츨외
205086	수세미외	수세
205087	말물	초불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간잘기
205090	원두막	웨막
205091	갯잎	유입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푼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고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썩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던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아가미젓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취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시리떡
205110	부스러기	부스레기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래떡, 다대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두
205117	가루	ㄱ루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조배기
205122	물다[淡]	얹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봉지	봉투지
205127	과줄	약과
205128	옛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코름하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숙이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추니
205138	엮다	어푸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항아리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곱찌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먹는다
205146	갑시다	숨막히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지짐이
205149	산적	젓갈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진문
205152	불때다	불숨다
205153	불등걸	불인경
205154	불뚝	춧뚝
205155	부엌비	정짓비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알너레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그스렁
205160	검댕	그스렁이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채	불치
205163	모으다[集]	매우다
205164	부뚜막	숫덕
205165	봇돌	숫덕 아찌는 돌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옹조리
205168	무쇠솔	새당숫
205169	끓다[沸]	피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이
205171	솔귀	숫뚜껑이 조륙
205172	솔전	숫천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민
205175	솔검정	그스렁
205176	부삽	가래죽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허드렁흔 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깅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숫민방석
205182	성냥	괵
205183	성냥개비	괵살
205184	성냥갑	통괵
205185	부시	부세
205186	부싯돌	부셋돌
205187	부싯깃	불짚
205188	부시쌈지	부세주멩기
205189	부시통	부세통
205190	등잔	각지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룽	호야
205193	남포등	호얏불
205194	접싯불	지름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가마
205199	뜬숯	게시미
205200	숯검정	숯검덩이
205201	불타다	불나다
205202	탄내	그끄렁내
205203	불태우다	물주다
205204	불티	불꺼랭이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붕당	붕닥불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불 댄 그르
205213	부손	불순구락
205214	부젓가락	쇠젓가락
205215	다리쇠	바툼쇠
205216	석쇠	적쇠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지스물
205217-2		추니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운다
205220	용고뚜리	담배 하영 먹엄찌
205221	담뱃대	통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뱃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떨이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눗사발
205233	사발	사기사발
205234	뚜껍	두껍이
205235	접시	젹시
205236	굽달이	굽신젹시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장물종지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205243	수저통	숟가락통
205244	설거지	그릇 설림찌
205245	구정물	구진물
205246	도시락	고랑착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박새기
205250	박	콜락
205251	뒤옹박	두렁박
205252	조롱박	조롱박
205253	쪽박	족박
205254	양푼	냥박새기
205255	조리	도고리
205256	단지	조막단지
205257	뚝배기	옹조리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리바닥
205260	시룻번	시룻마개
205261	경그레	바트렝이
205262	함지박	냥도고리
205263	바구니	박새기
205264	소쿠리	송쿠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족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고대
205270	굳은대	매운대
205271	무른대	축신대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배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돔배칼
205278	빼다[拔]	빠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골다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노슬다
205283	행주	상빼
205284	번철	빈철
205285	국자	남자
205286	밥주걱	우금
205287	죽젓광이	베슬기
205288	수세미	수세
205289	떡살	떡판
205290	밀판	암반
205291	밀개	홍짓대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고소리장태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고소리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고소리 뿌리
205292-4	(받이뿔)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두벙두리사기벙

205293	빚다	답는다
205294	풍로	간데기
205295	삼발이	삼발이
205296	달이다	딸린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가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골목길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넓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기와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이간막살이
206011	외채	외집
206012	안채	안꺼리
206013	바깥채	바꺼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문단집
206016	결채	목커리
206017	짓다[作]	지스다
206018	장독	항아리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팡뒤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살이
206023	잃다[失]	엇다
206024	마구간	물막
206025	변소	도통
206026	부춘돌	디들팡
206026-1	부출	디들팡
206027	기척	지침
206028	맞서다[拮]	마주사다
206029	냄새	냄새
206030	맡다[臭]	마추다
206031	울담	우갓담
206032	울안	운영
206033	터알	운영팻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릿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산태
206040	이영	노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엮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풍채
206043-2		풍채
206044	디딤돌	광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마리
206047	마루문	마리대문
206047-1	‘호령창’	제창문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주춧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다
206053	구들직장	구들 구석 지키는 사람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걸리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정지 구들
206062	방문	지겟문
206063	비[帚]	비차락
206064	빗자루[柄]	비차락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비우다
206067	바람벽	백브름
206068	걸다[掛]	달아메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다락
206071	선반	널착
206072	헛대	공장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얄	비차락
206075	풀비	족은비차락
206076	찾방	천방마리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괴빵문
206080	간수하다	가냥ㅎ다
206081	안뒤결	마릿뒤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함석
206084	지붕물매	지붕 골 짓찌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대
206087	처마	앞가지, 뒷가지
206088	처맛기슭	상ㄱ루
206089	낙숫물	지숫물
206090	덧돌	옛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황토
206093	찰흙	촌혁
206094	흙덩이	흑병덩이
206095	새벽	흑수세미
206096	흙길	흑길
206097	이기다[汲]	달루다
206098	산자(撒子)	냥 엮으다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상ㄱ루지둥
206101	뒷기둥	뒷지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루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대들포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椽)	낭 엮으다
206111	인방	ㄴ른세
206112	문설주	문골
206113	문곶도리	지방
206114	문얼굴	문꼴
206115	문틀	문지방
206116	문머리	웃지방
206117	문흙	문골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지겅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더끄다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창고냥
206125	구멍	고냥
206126	미닫이	밀문
206127	여닫이	외닫이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창문
206130	덧문	이중문
206131	문틈	문고냥
206132	돌쩌귀	걸쇠
206133	암틀쩌귀	걸쇠
206134	수틀쩌귀	걸쇠
206135	문고리	문걸쇠
206136	배목	문걸리
206137	궤	궤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열쇠
206142	부수다[碎]	부수다
206143	서랍	설랍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날툽
206146	거도	대툽
206147	틀툽	들툽
206148	툽밥	툽밥, 낭 ㄹ루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옥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마찌
206152	못뽑이	마찌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못빼기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막게
206157	방망이	방명이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족은대패
206160	송곳	돌보기
206161	뚫다[鑿]	뚫르다
206162	곱자	고분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술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흑손
206167	쇠흙손	쇠손
206168	나무흙손	낭손
206169	흙받기	흑받침
206170	돌물레	물레
206171-1		줄도레기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염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도르갱이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잡대, 쟁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주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뺀 나간 나무	무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칫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설칫세역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돌벥이뿔줄
207008-9	‘땸’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베틀랭이

207009	육보다	속아수다
207010	겨리	접새
207011	벧밥	병에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멍에
207014	밭두둑	밭두둑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이랑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글가리
207019	씨레	서울레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소잡이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줍게발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몽둥이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씨을레발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서을레채

207020	번지	가래죽
207021	팽이	팽이
207022	곡팽이	목팽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소스랑
207025	삽	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알씨
207031	백씨	백씨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맹탱이
207034	꿈계	선비
207035	남태	낭패
207036	돌번지	병에돌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 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벌매기
207040	두벌매기	두벌매기
207041	세벌매기	세벌매기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문 어뒀찌 집이가게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사데소리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삿	일콧
207048	비싸다	하다

207049	결두리	간식
207050	폼앗이	수눔
207051	삼태기	골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조록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죽하고 긴 부분	슴베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다갈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새역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호미등등이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날

207053	베다[刈]	빈다
207054	새뺨기	어욱대
207055	새끼	노꼴
207056	꼬다[索]	꼴다
207057	매듭	모작
207058	노	노꼴
207059	끈	노꼴
207060	참바(바[索])	짐페
207061	짐바	노
207062	질빵	짐페, 질빵
207063	잇다[承]	이스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몰질메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흘친 거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도깨
207076	벼훑이	보리클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보리고고리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산디고고리

207078	타작하다	태작하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땀 드리는 시간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아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 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어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깨줍게

207085	여물	여물
207086	쭈정이	줄레
207087	꿀	출
207088	꿀밭	출밭
207089	꿀꾼	출비는사름
207090	꿀단	출못
207091	신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구루마
207093	복두	구루마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등태

207096	거적	도금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ㄱ는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총체
207101	챗바퀴	체망
207102	챗다리	체 거는 공장
207103	어레미	얼멩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푼다
207107	드리다	불린다
207108	‘술박’	술박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두 되 가웃 더리
207112	되	되
207113	관되	말되
207114	사삿되	밥되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네모말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굴묵당그네
207120	떡등구미	멩탱이
207121	가마니	가멩이
207122	꿋다[引]	끄스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그느다
207125	자루[袋]	잘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되들인다
207128	계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할량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밭
207132	누리다[黃]	노라하다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고스락
207135	보리쌀	보리찰
207136	보릿겨	보리채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찰보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낭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숙다	소꾸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숙(黍粟)	서숙
207151	비비다	보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짖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멧자리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꼬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밭
207162	밭벼쌀	산디찰
207163	밭벼짚	산디짖
207164	멧돌	고래

207164-1	멧돌짜	멧돌의 위아래 돌	고래착
207164-2	윗돌	멧돌의 위쪽	고래우착
207164-3	아랫돌	멧돌의 아래쪽	고래알착
207164-4	매암쇠	멧돌 위쪽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고래혹
207164-5	멧수쇠	멧돌의 아래쪽 한가운데 박힌 물건	중수리
207164-6	멧손	멧돌의 손잡이	고랫조륙

207165	멧방석	고랫방석
207166	매함지	독석
207167	풀멧돌	쟁고래
207168	풀매	풀고래
207169	썰기	썰역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남방에
207171-1		남방에
207171-2		남방에
207171-3		남방에
207172	방아확	방에혹
207173	방앗간	방에왕
207174	븨비다	하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돌방에
207178	방앗돌	방엿돌, 멧돌
207179	연자멧간	방에왕
207180	절구	남방에
207181	절긋공이	방엿귀
207182	뺩다	뺩스다
207183	뉘	뉘
207184	고르다[擇]	주수다, 골리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채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썸
207189	기름콩	콩늬물콩
207190	콩깍지	콩꼬질

207191	콩짚	콩낭
207192	꼬투리	콩강메기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콩물
207195	뜨겁다	뜨겁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비제기
207198	완두	녹디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팔	폿
207202	팔알	폿방울
207203	팔밥	폿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꽤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츄지름
207208	깻묵	지름주시
207209	고소하다	고소ㅎ다, 베지근ㅎ다
207210	메밀	모멸
207211	메밀밭	모멸팟
207212	나깨	모멸צל
207213	메밀껍질	모멸채
207214	메밀국수	모멸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모멸조배기
207216	메밀칼국수	모멸칼국수
207217	메밀떡	모멸떡
207218	메밀묵	모멸묵
207219	무르다[軟]	얄롭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감저빼떼기
207222	찌다[蒸]	술무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빨리

207225-3	마늘중	마농오돌메기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
207227	파	꽤마농
207227-1	파밑동	꽤마농뽕리
207228	무	늪뼤
207229	무청	초마기
207230	시래기	쓰래기
207231	장다리무	늪뼤동지
207232	열무	열무
207233	배추	배추
207234	고깡이(배추)	배추속잎
207235	나물	늪물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겉대	베곶디썸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녕이
207240-1	옥수수	강낭대죽부르기
207241	수수	새당대죽
207242	쌀수수	쌀대죽
207243	비목수수	비대죽
207244	사탕수수	새당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낭

어업

207246	잠녀(潛女)	즘수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옷	즘수복
207249	물안경[水鏡]	물안경
207249-1		물안경
207249-2		물안경
207250	태왁	태왁
207251	망사리	망시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재기

207255	뜯채	족바지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풍선
207258	이물	앞코지물
207258-1	이물간	배짱
207258-2	이물사공	뱃사공
207259	고물	뒷코지
207259-1	고물간	뒷배짱
207259-2	고물사공	뱃사공
207260	돛	배초석
207261	마룻대(돛대)	돛대
207262	마룻줄(용총줄)	머릿줄
207263	활대	팔대
207264	외대박이	외발이
207264-1	두 대박이	두대발이
207264-2	세대박이	세대발이
207265	노(櫓)	내
207266	결노	엽대
207267	상책(노착)	내
207268	노잎(노깃)	닷돌
207269	노앞	노단쪽
207270	노뒤	왼쪽
207271	노손	내손잡이
207272	눅구멍	내고냥
207273	눅죿	내죿
207274	닷	닷
207275	닷가지	닷가지
207276	닷줄	닷줄
207277	닷돌	배닷
207278	닷걸이	닷걸이
207279	키[舵]	치
207280	킷구멍	킷고냥
207281	키잡이	선장
207282	강다리	닷가지
207283	상앗대	찢대, 사월대
207284	떼[浮筏]	테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與]	사이좋게 살다
207287	마을	동네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세상
207290	윗마을	웃드르마을
207291	옮다[移]	절염된다
207292	아랫마을	해변마을
207293	마을가다	마을카다
207294	밤마을	마을카다
207295	가게	전방
207296	구멍가게	전방
207297	다녀오다	외방 갖단 와찌
207298	심부름	심부름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잔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주리
207302	있다[有]	있다
207303	에누리	돈 깎아 주는 거
207304	우수리	주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남은 거
207307	홍정	홍성
207308	빚	벨리 돈
207309	빚지다[負]	빚 쓰다
207310	변리[邊利]	벨리
207311	늘다[增]	늘어나다
207312	대장간	불미항
207313	풀무	불매독
207314	손풀무	불매독
207315	모루	모루
207316	모루채	쇠막개
207317	갓양태(양태)	망
207318	망건	망근
207319	망건골	망근틀

207320	탕건	탕근
207321	결다[編]	짜다
207322	사냥	사냥
207323	사냥개	사냥개
207324	사냥꾼	사냥꾼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핑쟁이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갈르다
207331	갖다[持]	아지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덱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센다
208003	알다[知]	안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으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되	흔말
208005-2	(2/두)	두되	두말
208005-3	(3/서, 석)	석되	서말
208005-4	(4/너, 녀)	녀되	너말
208005-5	(5/닷)	다섯되	다섯말
208005-6	(6/엿)	으섯되	으섯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개	흔두되	흔두말
208006-2	(2-3/두세)	두세개	두석되	두서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개	두서녀되	두서너말
208006-4	(3-4/서너)	서너개	서녀되	서너말
208006-5	(4-5/네댓)	너다섯개	너다섯되	너다섯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개	대으섯되	대으섯말
208006-7	(6-7/예닐곱)	예슬곱개	예슬곱되	예슬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곱으답개	일곱으답되	일곱으답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다아홉개	으다아홉되	으다아홉말

208007 여남은 으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 208009 뽕 뽕
 208010 집게뽕 흔뽕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흔밭 두밭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마흔자
208014-2	명주	마흔자
208014-3	광목	오십마
208014-4	베	서른자, 마흔자

-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흔 말지기 백이십 췌
 208016 못 못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둥 못
 208019-1 못
 208020 조짐 줄레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스무못
208021-2	조(이삭 있음)	은못
208021-3	콩	은못
208021-4	밭벼	열못
208021-5	꿀	마흔못
208021-6	띠	스무못
208021-7	각단	열못
208021-8	어욱	은못

- 208022 모금 적
 208023 섬 섬

208023-1		열다섯말 혼 섬
208024	덩이	덩어리
208025	포기	풀기
208026	그루	가지
208027	돌이(양태)	돌이
208028	마리	모리
208028-1	두[頭]	모리
208028-2		모리
208029	축	단
208030	퀘미	퀘미
208031	쌍(돼지)	흔자리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봉분
208034	컬레(신)	배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못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살이
209002	아이서다	아이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승할망
209004	깃저고리	벧저고리
209005	배넛머리	배안내머리
209006	돌	생일
209007	새 색시	새각씨
209008	새신랑	새서방
209009	가마	독깨
209010	시집가다	씨집간다
209011	시집보내다	씨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개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개보내다
209014	함	홍세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고진상, 새각씨상, 큰상
209018	휘다[樛]	휘어지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안사둔
209021-2	바깥사돈	밖사둔
209022	겹사돈	겹사둔
209023	상갓집	영장칩
209024	수의	저승옷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주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왕대
209031-2		머귀낭
209032	짚동	찍동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고렘가다
209035	뒹자리	산터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나경판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예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제
209042	상두꾼	상뒤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밭
209045	광중	개광
209046	횡대	개판
209047	호층	피싸다
209048	무덤	봉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봉분 멩글다
209053	마치다[終]	막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청명에 가는 사람 안가는 사람
209055	묘위전	제월제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갯집
209059	편틀	쟁반
209060	퇴물	식계퇴물
209061	메	메밥
209062	갱(羹)	개영
209063	제육	제숙
209064	제편	침떡
209065	인절미	은절미
209066	절편	젤벤, 솔벤
209067	웃기떡	우짚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태우다
209070	몫	몫
209071	면례(緬禮)	철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멩질날
209073	세배	서배
209074	명절	멩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끔줄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멜빵장귀
209080	뽕과리	깡네기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 맞는 거
209084	모래찜질	모살찜
209085	추석	팔월멩질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앵택이, 굿 하는 거
210004	당	당, 할망당
210005	무격	신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판
210008	명두	멩뒤
210009	추다[躡]	춘다
210010	소지(燒紙)	지전
210011	사르다[燒]	태운다
210012	살(煞)	쌀
210013	삼살방(三煞方)	쌀방
210014	도깨비	도채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채비
210016	허깨비	허깨비
210017	어둑서니	헛개
210018	무섭다	몸살친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코서
210021	고수레	코시
210022	포제	표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엿불

211004	불다[點火]	부찌다
211005	내[川]	내창
211006	넷가	넷바우
211007	물가	물바우
211008	따르다[從]	따르다
211009	건너다[渡]	건너다
211010	낭떠러지	엉덕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보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벌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벌
211015	돌무더기	작백
211016	갈림길	세커리, 네커리, 오거리, 육커리
211017	묻다[問]	묻다
211018	비탈길	엉덕질
211019	벼랑길	고랑질
211020	내리막길	동산 내리는 질
211021	오르막길	동산질
211022	길가	질에염
211023	큰길	대한질
211024	분화구	불칸고냥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굴렁지
211028	산바람	하늬브름
211029	산꼬대	노룻
211030	상고대	서리
211031	구렁	궁뎡이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가다	건너간다
211034	넘어지다	엎떠지다
211035	자빠지다	느려지다
211036	천상수	물흠뎡이
211037	숲	곶밭
211038	성(城)	접땀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바당곳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마프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물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자갈
211049	갯가	바당곳
211050	펄	펄밭
211051	먼바다	한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dot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들리다
211055	너울	늘
211056	굼뉘	큰절
211057	물결	절고개
211058	잔물결	존절
211059	무수기	물쌘찌 물 들엄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초 닷새
211059-2	두무날	두물	*
211059-3	서무날	서물	*
211059-4	너무날	너물	*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그믐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초하루
211059-8	여덟무날	으답물	*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
211059-10	열무날	열물	*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
211059-13	(열서무날)	조금	*
211059-14	아끈철키	아끈조금	*
211059-15	철키	부날	*
211059-16	한조금	한조금	*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든다
211063	밀물	물 들엄찌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물 쌈찌

시후

211066	오늘	오닐
211067	내일	넬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저낙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게
211074	그끄저께	그직아신날
211075	새벽[曉]	샌날
211076	꼭두새벽	동새백이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햇빛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녁꺼리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흰흐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베린네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갓
211095	초승달	초승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그믐들
211098	햇무리	해지기
211099	무지개	황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황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211104	겨울	저슬
211105	입춘	입춘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흐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초하루
211110-2	이틀	초이틀
211110-3	사흘	초사흘
211110-4	나흘	초나흘
211110-5	닷새	초닷새
211110-6	엿새	초엿새
211110-7	이레	초일뤼
211110-8	여드레	초으드레
211110-9	아흐레	초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닷새	너닷새
211113	대엿새	대엿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달
211119	선달	선달
211120	올해	금년, 올리
211121	내년	새해
211122	내후년	딱새해
211123	작년	묵은해
211124	재작년	그르해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햇살
211127	따스하다	뜨스다
211128	땡볕	땡벧
211129	가을볕	ㄱ슬벧
211130	양지받이	벧 바른 디
211131	아지랑이	아지렁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캐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발라
211137-2	바람아래	브름알
211138	맞바람	맞브름
211139	바람받이	브름 바른 디
211140	바람살	브름쌀
211141	회오리바람	도깡이주제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프름
211144	서풍	서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고래장비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봄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슬장마
211150	곰팡이	곰생이
211151	소나기	소낙비
211152	여우비	비 오단 개엿저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ㅎ다
211156	도롱이	도롱이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이남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동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험벽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스레기눈
211170	도둑눈	뒗날 일어난 보난 눈 문엇찌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헤영ㅎ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리다
211179	곱다	실럽다
211180	진눈깨비	멀리주제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옆대이
211185	옆	옆
211186	위	우이
211187	아래	아래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다
211190	왼쪽	왼쪽
211191	오른쪽	노단쪽
211192	밑	굽
211193	흐르다[流]	흘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꼈디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
211198	가[邊]	곳
211199	가장자리	가장자리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과짜사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담 다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부룽이
212005	휩소	속췌, 어럭췌
212006	불까다	불블르다
212007	불알	불감
212008	황소	부룽이
212009	얼룩소	어럭췌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셋석
212012	끌다	이끄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멤췌
212015-1	하릅~열릅	

		소	말
212015-1	하릅(1)	금승	금승몽생이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이수몽생이
212105-3	사릅(3)	사릅	삼수몽생이
212015-4	나릅(4)	나릅	스수몽생이
212015-5	다듭(5)	다듭	오수몽생이
212015-6	여듭(6)	으섯살	육수
212015-7	이릅(7)	일곱살	칠수
212015-8	여듭(8)	으답살	팔수
212015-9	아듭/구릅(9)	아홉살	구수
212015-10	열릅/담불(10)	열	열수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췌것
212018	구유	망탱이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조매
212023	수말	움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래물
212026	청총마/총이말	청총물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대물
212028	얼룩말	얼룩물
212029	유마	어럭물
212030	백마	백물
212031	고라말	노랑물
212032	곰배말	곱새물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들암찌
212035	마소	막쉬
212036	글경이	챙빔
212037	털[毛]	털
212038	말고삐	물줄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짚다[吠]	추꾸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비리
212048	비루먹다	비리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들고녕이
212053	살쥬이	숙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떨떠구니	떨토쟁이

212058	산떡	산떡
212059	닭의어리	텅에
212060	닭장	득광주리
212061	달갈	득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자
212061-2	흰자위[卵]	흰자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빙아리	빙애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숫도새기
212067	암돼지	암트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하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숨씨	일숨씨
212072	생둥이	일 서툰 사름
212073	새끼 돼지	자릿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돛통
212075	돼지고기	도새기퀘기
212076	적	젓갈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판매칩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스랭이
212081-1	둘암소	지스랭이암쇄
212081-2	둘암말	지스랭이암물
212081-3	둘암돼지	지스랭이암도새기
212081-4	둘암캐	지스랭이암캐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오리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쉬슬다	쉬싸다
212088	가시	된장베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각데기
212096	장구벌레	장굴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챙빃
212101	지렁이	개우리
212102	회충	회충
212103	거머리	거덜
212104	바구미	물방개
212105	콩바구미	콩방개
212107	땅강아지	아진강생이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중이
212110	노래기	*
212111	지네	주넝이
212112	진뒗물	진쉬
212113	진뒗물내리다	쉬 하영 일엇찌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덜팽이
212117	민달팽이	집어신들팽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개염지
212120	왕개미	홀근개염지
212121	불개미	붉은개염지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물방귀

212124	여치	말죽
212125	사마귀[螳螂]	사마귀
212126	귀뚜라미	귀뚜라미
212127	풍뎅이	물똥병에
212128	장수풍뎅이	하늘개
212129	무당벌레	심방말죽
212130	쇠똥구리	두르애기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좁제기
212133	하늘소	하늘썩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늘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밥주리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밥주리
212141	장수잠자리	왕밥주리
212141-1		줄밥주리
212142	매미	재열
212143	매미허물	본데기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열
212145	쓰르라미	족재열
212145-1		*
212146	소금쟁이	소금줄레기
212147	방개	물말죽
212148	반딧불이	불한당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꿀벌
212151	꿀	칭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새상벌
212154	붓다[腫]	부스다
212155	진드기	부구리
212155-1		새미역, 진독
212155-2		부구리
212156	송충이	소낭베렁이

212157	개구리	개개비
212158	올챙이	멘주기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태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헤치
212161-2	뱀허물	베염본데기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212163	도마뱀	독다구리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괘기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송애기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꿩	극다
212173	쥐구멍	중이고망
212174	박쥐	박쥐
212175	다람쥐	도람쥐
212176	오소리	지다리
212176-1		지다리고냥
212177	지달(이)	지다리
212178	지달피	지다리가죽
212179	멧돼지	산도새기
212180	원숭이	원숭이
212181	원숭이띠	존나비띠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헤치
212184	꼬리	꿀랭이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	------	----

212186	꿩지	꿩랭이
212187	깃[羽]	생이털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생이가슴
212190	참새	참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새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소로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빼꾸기	빼꼭새
212200	종달새	종달새
212201	올빼미	오빠
212202	평	평
212203	까투리(암평)	암평
212204	장끼	장평
212205	평알	평독새기
212206	꺼병이	평새끼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러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보말
212213	눈알고등	문다드리
212214	밤고등	먹보말
212215	팽이고등	수두리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수두리
212218	대수리	고매기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쇠군벗, 무랑군벗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족쿠제기, 쌀구제기, 문둥구제기
212228	전복	점복
212228-1		암침복
212228-2		수통이
212229	전복갑	점복껍데기
212230	오분자기	바르
212231	게	강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지름강이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참강이
212236	꽃게	꽃강이
212237	소라게	게드레기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
212240	갯강구	*
212241	말미잘	말미잘
212242	성게	귀살
212243	말뚝성게	숨
212244	군소	군수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8	해파리	물이슬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해삼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래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어두운 물
212257	잘다[細]	졸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볼르다, 배갈르다
212261	생선(生鮮)	늘래기
212262	미끼	니껍
212263	갯지렁이	개수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춤대
212266	만들다[造]	맹글다
212267	낙싯줄	래기술
212268	붕돌	뽕돌
212269	참대	왕대, 족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풍선
212273	지느러미	옆가시
212274	아가미	아개미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존멜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풀갈치
212279	베도라치	*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솔나니
212288	흑돔	구룻
212289	돌돔	*
212290	감성돔	가문돔

212291	벵에돔	*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어
212299-1		*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퀴치	객주리
212304	우럭불락	우럭불락
212305	불락	불락
212306	쭈기미	*
212307	독가시치	소치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재방어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큰상어
212312	개상어	*
212313	팽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돌고래
212321	퀴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고랏
213002	갈대	고대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품	어옥 피엇찌
213005	화승(火繩)	훗불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질차다
213009	빨기	뽕이
213010	사초	올리
213011	천일사초	자오락
213012	김의털	*
213013	쇠무릎	쇠비늬
213014	바랭이	절환지
213015	민바랭이	밋빈절환지
213016	조개풀	웃뺨절환지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물모작쿨
213019	솔새	소세출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가마귀밥줄
213023	원추리	고시락풀
213024	메꽃	*
213025	갯메꽃	개낭
213026	비름	비늬
213027	쇠비름	쇠비늬
213028	개비름	개비늬
213029	참비름	참비늬
213030	땅빈대	장독쿨
213031	애기땅빈대	눈에 나는 풀
213032	평의밥	평밭
213033	여우구슬	방풍
213034	질경이	배채기

213035	쭈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속떡
213038	토끼풀	돛수에, 수에
213039	개자리	개자리풀
213040	냉이	난지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물릇
213043	여뀌	엿뀌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귀	소앵이
213046	췌기풀	삼수세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풀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갠늬물
213053	파리	푸께
213054	땅파리	밀푸께
213055	피막이풀	빈대쿨
213056	도깨비바늘	가마귀바늘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시떼
213059	왕모시풀	큰모시떼
213060	천남성	천상쿨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
213063	살갈퀴	옥께기
213064	차풀	자골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삼동냥
213067	하늘타리	두루애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하늘레기
213069	부처손	폰채순
213070	방가지똥	돛쉐
213071	닭의장풀	*

213072	배풍등	*
213073	츄	꼭
213074	츄덩굴	꼭덤벌
213075	츄뿌리	꼭빨리
213076	댕댕이덩굴	정동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생이족박
213079	호자덩굴	실모작쿨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
213081	함바기	떡정동
213082	담쟁이	담쟁이
213083	송악	ㄱ느락쿨
213084	인동	인동고장
213085	멀꿀	멍줄
213086	천문동	천문동
213087	계요등	떡정동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등대풀
213090	수영(승아)	수에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짜리	*
213093	땀짜리	썩짜리
213094	명아주	*
213095	갓	*
213096	달래	뽕마농
213097	썩마귀	*
213098	고들빼기	ㄱ새느물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갯느물
213104	구릿대	왕대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눈비애기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개구리풀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늦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봉오리
213119	채송화	*
213120	민들레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숭아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마농고장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하르비고장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도채비고장
213127	맨드라미	민들레미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쭉부쟁이	*
213133	수국	*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베고장
213136	제비꽃	제비고장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물마농고장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문주란

나무

213141	뿌리	빨리
--------	----	----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줄기
213144	가지	쟁이
213145	잎	썸, 썸상구리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흐다, 비다
213148	삭정이	사그렝이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잎
213151	솔가리	솔잎
213152	솔망울	솔똥
213153	멜감	지들커
213154	마디다	안부뜨다
213155	갈퀴	글갱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퐁낭
213158	팽	푹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별경흐다
213161	멀구슬나무	모쿠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까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엄낭
213167	삼나무	숙데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사오기낭
213170	왕벗나무	사오기낭
213171	사옥	사오기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남총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노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굴거리낭

213179	생달나무	사데기낭
213180	굴나무	미깡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소유지낭
213185	치자나무	개개비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롱낭
213189	배롱나무	*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개웃낭
213192	팡팡나무	개팡낭
213193	노린재나무	개낭
213194	때죽나무	종낭
213195	마가목	마깨낭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굽낭
213199	향나무	상낭
213200	웃나무	개웃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비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가마귀줄낭
213206	무환자나무	모과낭
213207	귀똥나무	개팡낭
213208	섬귀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개가시낭
213212	종가시나무	종가시낭
213213	호랑가시나무	소앵이가시낭
213214	돌가시나무	가문탈낭
213215	제주가시나무	보리탈낭

213216	꾸지뽕나무	귀까시낭
213217	털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봉낭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좀머귀나무	머귀낭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말오줌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다간종낭
213225	참식나무	숙낭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름푸기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동낭
213228	실거리나무	썰거리낭
213229	굴피나무	모람낭
213230	후박나무	후박낭
213231	풍개나무	검복낭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초낭
213235	상수리나무	가시낭
213236	참나무	초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제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스철낭
213241	겨우살이	저슬살이
213242	모람	모람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
213244	아왜나무	아왜낭
213245	순비기나무	순비기낭
213246	붉나무	복낭
213247	협죽도	협죽도
213248	담팔수	담팔수

열매

213249	과일	열매
213250	껍질	껍데기, 껍죽

213251	깎다	베끼다
213252	벗기다	베끼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뺨딸기	베염탈
213255	명석딸기	보리탈
213256	복분자딸기	가문탈
213257	줄딸기	밀탈
213258	산딸기	산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탈
213260	검은딸기	가문탈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제밤
213263	머루	멀리
213264	개머루	개멀리
213265	까마귀머루	가마귀멀리
213266	산머루	산멀리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르미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개드래
213272	보리수나무	볼래낭
213273	보리수	풋볼래
213274	보리장나무	꼬리볼래낭
213275	앵두나무	애영지낭
213276	앵두	애영지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개탕지
213282	탱자나무	개탕지낭
213283	감	감
213284	떨다[柿]	초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감
213287	풋감	선감

213288	청미래덩굴	벨레기낭
213289	맹감	벨레기
213290	찔레나무	질레낭
213291	영실	*
213292	사과나무	닝금낭
213293	사과	닝금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돌배낭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조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밤껍데기
213302	복숭아나무	봉숭개낭
213303	복숭아	봉숭개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줄갱이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모른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체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파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층이	지층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감태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몹
213321	청각	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서슬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놀음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